미추홀 살아지다 9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학익동 공장자리 서른다섯 명의 구술기록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 김보섭, 2007년

미추홀 살아지다 9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학익동 공장자리,
서른다섯 명의 구술기록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학익동 공장자리,
서른다섯 명의 구술기록

발간사 09

추천글 12

축 사 16

들어가며 24



공장 안의 사람들

산업화 1세대, 학익동의 영원한 공장장 44
동양화학 홍규선

학익동 갯벌에 열정을 바친 토목기술자 58
동양화학 유재형

긴장과 자부심으로 동양화학과 함께한 36년 68
동양화학 김용익

동양화학의 동반자, 협력업체 삼영사 80
삼영사 김진수

동양화학 36년, 청춘을 바쳐 현장을 지킨 평생의 일터 86
동양화학 한규섭

자식 교육을 위해 거친 노동을 이겨낸
여성 노동자, 우리의 어머니 100
동양화학 이옥순

동양화학 전화교환원, 늦깎이 공부로 한(恨)을 풀다 112
동양화학 손경임

동양화학 사택에서 시작한 학익동의 삶 124
동양화학 근로자 아내 류수자

전장을 지키듯 책임과 헌신을 다한 동양화학의 주역 134
동양화학 반채진

마지막 물류팀장으로 동양화학 인천공장을 지키다 148
동양화학 이기주

밤잠을 설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33년 158
동양화학 최승관

동양화학의 연구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전업하다 170
동양화학 박중근

실험실 연구원에서 목사로 전향하다 178
동양화학 김시철

타워 플랜트의 불빛에서 상생의 길을 걷다 188
동양화학 박병만

해고, 복직, 구조조정의 삶을 극복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거듭나다 204
삼광유리 조유형

신뢰를 자산으로 카리화학 생산현장 변화에 앞장서다 216
유니드 강희갑

일터에서 받은 혜택만큼 지역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다 228
유니드 이병용

솜이불 한 채의 무거운 짐을 '소리'(唱)에 담다 238
동양산전 강인자

솜먼지 가득한 흥한방적과 하치사택 248
흥한방적 노옥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김노천

솜뭉치 먼지와 기계 소음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하다 262
한일방직 정학모

한국유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담당하다 274
한국유리 지무환

대우전자 엔지니어에서 HD건설기계 엔지니어로 286
대우전자 이재동

철강산업의 선두, 한국파이프의 산증인 296
한국파이프 김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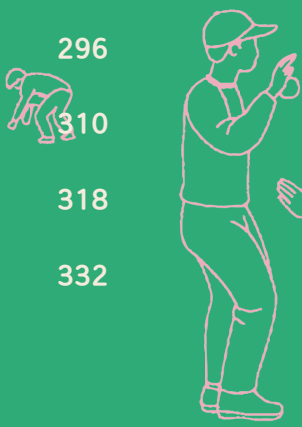
공존을 위한 도시, 함께할 수 있을까? 310
강원레미콘 김성묵

기업,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한 40년 318
인천상공회의소 유수동

용현동의 토박이, 행정전문가로 동양화학과 연을 맺다 332
전)인천 남구 공무원 오영식







공장 밖의 마을



호미마을, 동네 아이들과 놀던 동양화학 후문 346
조성희

쓰레기 마을에서 정겨운 노적산 호미마을을 만들기까지 356
유현자

학익동 노적산 자락을 지켜온 가장의 무게와 시간 368
김형배

그녀의 삶에 녹아 있는 학익동의 생명들 382
최차연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던 양토마을을 회상하다 394
홍철선

어린 시절 나의 살던 고향 용현·학익동 402
최기숙

길 위의 야생마, 핸들을 잡고 곳곳을 누비다 414
한종수

학익동 끽동 집결지 폐쇄, 민관협력으로 이루어낸 유일한 모범 사례 424
전)인천여성의전화 강혜정

나가며



기록이 만들어지기까지: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다 440

학익사진 공모전 : 사진으로 만나는 학익·용현의 시간 442

기록 전시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444

학익고등학교와 함께 기록한 학익동 448

기록을 마치며 : 구술기록 후기 450



학익동
공장지대 사람들을 기록하다

- 거시적 산업사를 넘어 일상과 삶으로 쓴 생활사

도시의 풍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늘 모습을 바꿉니다. 한때 거대한 공장지대의 굴뚝 연기와 둔탁한 기계 소리로 가득했던 학익동은, 어느덧 시민들의 삶이 깊게 뿌리내린 안락한 주거 공간이자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공업지대에서 주거로—도시가 품은 시간들』은 이 거대한 도시 전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역사를 써 내려온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귀중한 구술기록집입니다.

이번 기록집은 문헌 중심의 거시적 역사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웠던 개인의 삶과 일상의 기억을 복원하는 '미시사(微視史)'이자 '생활사'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인천 학익동 공장지대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핵심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와 공식 기록만으로는 그 시절 현장을 지켰던 노동자·관리자·연구원들의 뜨거운 땀방울, 골목길에서 피어난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변화의 파도 속에서 터전을 일

궈온 이들의 진솔한 희로애락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술은 인천 미추홀구 산업사의 빈 곳을 메우는 소중한 원천 데이터이자,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층 풍성하게 만드는 살아 있는 유산입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추홀학산문화원은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학익1동 주민자치회, 학익고등학교, 그리고 ㈜디씨알이(동양화학-현 OCI의 인천화학 공장 부지개발회사) 등 지역 주요 기관들과 뜻을 모아 '마을·지역 기록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서른다섯 명의 구술자를 발굴하고, 빛바랜 옛 사진들을 찾아내며,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뜻깊은 여정의 중심에는 학익동 공장지대의 역사를 직접 기록해 주신 '미추홀시민기록단'이 계셨습니다. 시민기록단은 구술자 서른다섯 명과의 깊은 신뢰와 교감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음성을 정성껏 정립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막대한 양의 구술 원천 데이터를 산업사적 안목으로 밀도 있게 다듬어 완성도 높은 도서로 체계화해 주신 박인옥 박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동양화학(현 OCI)을 비롯해 유니드·삼광유리·동양산전·흥한방적·한일방직·한국유리·대우전자·한국파이프·강원레미콘·삼영사 등 학익동 공장지대를 일군 노동자·관리자·연구원 여러분, 그리고 학익동 '호미마을'과 '양토마을'의 일상을 공유해 주신 마을 주민분들, 성매매 집결지 학익동 '끽동'의 역사를 증언해 주신 전 인천여

성의전화 강혜정 님, 당시의 산업·행정적 여건을 조명해 주신 유수동 전 인천상공회의소 사무처장님, 오영식 전 남구청 공무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구술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2025년 '학익동 도시변화 기록 공모전'에 소중한 사진을 응모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양화학의 상징적 현장을 포착한 작품 사진 수록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김보섭 사진작가님, 도서 기획과 구성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 그리고 귀중한 사진 자료 이용을 승낙해 주신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스페이스 빔 등 모든 기관과 관계자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끝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자원을 수집·기록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미추홀구청과 옛 동양화학의 도시개발 현장 방문 등 다방면에서 정성껏 협조해 주신 ㈜디씨알이 측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억이 모여 마을의 역사가 되고, 그 마을의 역사는 곧 인천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룹니다. 이 구술기록집이 학익동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현재를 한층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마음 깊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정형서

용현·학익지구 산업공간과 1세대를 기억하는 사회를 기대하며

박인옥

용현·학익지구 변화 구술기록 멘토·경제학 박사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용현·학익지구 기록을 위한 시민기록단 결과물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포럼과 간담회, 시민기록가 교육 및 타 시도 기록단 방문, 35명의 구술자 섭외와 인터뷰, 구술자들의 삶이 담긴 용현·학익지구 사진전,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이 나오기까지 꼭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인천은 일제강점기부터 갯벌과 염전 등 해안을 매립하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성장과 발전, 쇠퇴를 경험한 도시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마련한 부지는 산업단지와 주거부지로 활용되었습니다. 1960-70년대 부평·주안산단과 인천기계산단, 목재단지, 용현학익공업지구가 그러하고, 1980-90년대 남동산단이 그러합니다. 21세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경제자유구역은 지금도 매립과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조성될 당시 모두 도시 외곽 지대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조성된 산업공간을 폐쇄

하지 않는 한, 물리적 시설을 뜯어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으니 외곽으로 새롭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때 기존의 산업공간은 고립을 피할 수 없고 압박해 들어오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배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가든지, 쫓겨나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과 경쟁력을 갖는 무엇이 있지 않는 한 쇠퇴는 불가피합니다.

공간은 물리적 자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들의 행위도 존재합니다. 토지라는 물리적 요소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생산현장을 지킨 노동자, 관리자와 경영자, 공장 뒤 터와 철길을 놀이터 삼아 성장한 자녀들, 마을 주변에 있는 식당과 약국, 시장 사람들, 끽동 성매매 집결지 여성노동자들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은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기억되지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용현·학익지구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용현·학익지구는 일제강점기 군수공장을 포함해 해방 후 노동집약적 생산 공장들이 터를 잡았습니다. 동양화학을 비롯해 삼광유리, 유니드, 대한전선(대우전자), 한국농약, 흥한방적, 한일방직, 한국파이프, 한국유리, 동양산전, 카바이트 공장, 연탄공장, 담배공장 등이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호미마을, 양토마을, 조개고개 등 학익동과 용현동 일대에 이주 노동자들이 정착해 마을을 형성하였습니다. 구술자 중 한 분은 개집만도 못한 집에서 살았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마을이었습니다. 화장실 똥물이 넘치고, 안방 벽에 고드름이 맺혀도 집이 있었기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와 경영자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주민들과의 관계, 지역사회 기여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에 손발이 끼여도, 독한 농약 냄새에 눈을 뜰 수 없어도, 땡볕에서 손으로 부품을 선별하고, 밤새 관광차 청소를 할 때도 오직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자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인천 산업화 1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지금 용현·학익지구의 거대한 변화는 산업화 1세대의 기억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환경보전이란 이름으로, 발전이란 이름으로, 높은 부동산 가치를 희망하며 "쇠퇴한 제조업, 애물단지 공장만 나가면 되지! 누가,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뭔가!"하고 말입니다. 구술 기록에 참여한 다수의 구술자분들은 '기업과 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록은 현 세대의 몫이며 의무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성숙도를 가늠합니다. 기록하고 기억하는 행위는 산업화 1세대에 대한,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과거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현·학익지구 산업공간과 1세대를 기억하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 김보섭, 2007년



학익동의 시간에서
미추홀의 미래를 보다

학익동은 미추홀의 변화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염전이 있던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고, 다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으로 변화하기까지 학익동의 풍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달라져 왔습니다.

『공업지대에서 주거로—도시가 품은 시간들』은 이러한 도시의 변화를 지도와 사진, 기록자료와 주민들의 생생한 구술을 통해 차곡차곡 담아낸 책입니다. 특히 산업화의 현장에서 일하고 살아온 주민들의 기억은 우리가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미추홀의 또 다른 역사를 보여줍니다.

한 지역의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이번 기록이 학익동의 지난 시간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미추홀의 모습을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료를 내어주신 미추홀학산문화원과 기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삶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학익동의 시간

도시의 역사는 건물과 도로의 변화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비로소 한 지역의 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공업지대에서 주거로—도시가 품은 시간들』에는 공장과 마을이 함께 했던 학익동의 시간,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과 쇠퇴, 도시 공간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이 책이 놓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모여 마을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쌓여 지역의 역사가 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난 학익동의 시간이 다음 세대에도 오래 이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기억과 자료를 나누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10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김진구

학익동 도시변화 기록 도서의 출간을 축하합니다.

박상문

열린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

미추홀학산문화원이 미추홀구 당대에 사라지고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의 변화를 기록해 온 도서시리즈 아홉 번째 이야기로 학익동의 소중한 기억과 삶의 궤적을 엮어낸 소중한 기록, 『공업지대에서 주거로—도시가 품은 시간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 이 책은 우리 미추홀의 역사를 한층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뜻깊은 도서입니다. 『공업지대에서 주거로—도시가 품은 시간들』에 수록된 내용은 단순히 사라진 도시에 대한 풍경만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공장지대와 주거지로 혼재했던 학익동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지켜 온 겹겹이 쌓인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역사입니다.

학익동은 과거 동양화학(OCI)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산업 주거지이자, 인천 산업화의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인천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염전지대로, 군수산업 침탈기지로, 근대화를 이룬 공업지대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겨운 삶의 터전이 확장되

어 주거지역으로 변화해 오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이곳에는 수많은 노동자와 주민들의 땀방울,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의 기억들이 겹겹이 쌓여왔습니다.

현재 학익동은 상전벽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도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처 다 담아내지 못했던 개인의 삶과 이야기들은 자칫 시간의 흐름 속에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책은 2025년부터 현재까지 현장을 누빈 시민기록단의 헌신적인 구술과 자료 조사를 통해, 도시의 역사 뒤에 숨겨진 소중한‘ 사람들의 기억과 목소리’를 다각적이고 심층적 방법으로 복원해 냈습니다.

동양화학과 인근 공장 근로자들의 생생한 노동의 기억부터,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의 따뜻한 삶의 궤적까지, 총 35명 구술자의 생생한 이야기는 학익동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자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기초 작업입니다.

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열정적으로 발로 뛰신 시민기록단 여러분과, 소중한 삶의 기억을 나누어 주신 35분의 구술자이자 선배시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보섭 작가님의 깊이 있는 사진을 비롯

하여 다양한 생활 사진들을 제공해 주신 주민들, 그리고 이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미추홀학산문화원 정형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인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온 학익동을 사랑하는 인천 시민들에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따뜻한 위로이자, 우리 미추홀구의 역사와 공동체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책이 우리의 미래를 이어갈 후배 시민들에게 많이 읽히어 미추홀의 정체성이 체득되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업지대에서 주거로—도시가 품은 시간들』의 출간에 함께 해주신 기록자, 구술자, 그리고 도서 기획과 구성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과 지역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보섭, 2007년



들어가며





© 김보섭, 2007년

다시,
학익동을
노래하다

유동현

● 전 인천시립박물관장

모 TV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어게인》을 즐겨 본다. 이름 없는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리부트)'를 주는 것에 매력이 있다. 참가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린다. 과거의 히트곡, 인지도, 실패의 낙인, 외모 등 모든 편견을 지우고 오직 '목소리와 음악'만으로 평가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들은 무명 가수들이지만 노래를 참 잘한다.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의 시간이 있고, 사연이 있고, 견뎌온 삶의 서사가 있다. 노래 한 곡에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켜켜이 배어 있다.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도 그런 의미에서 '학익동'이라는 무대 위에서 무명들이 들려주는 서른다섯 곡의 노래와 같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지역 구술기록집이 아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역사를 더하고, 풍경에 추억을 보태고, 공간이 간직해 온 정서까지 함께 담아냈다.

학익동 일대는 인근 신도시의 환경과 건축물이 대체할 수 없는 '노스탤지어'와 '장소성'이 축적돼 있다. 주민의 애환이 서린 친근한 기억의 공간으로 소중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고학 유적지의 땅속에는 여러 시대의 토층(土層)이 쌓여 있다. 도시에

도 다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다. 필자는 그것을 '시층(時層)'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익동에는 조선시대의 흔적, 개항과 근대화의 흔적, 일제강점기의 산업시설, 해방과 전쟁 이후의 생활공간,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주거지, 그리고 지금의 도시개발이 서로 다른 시층이 포개져 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학익동은 어느 한 시대의 공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겹쳐진 자리다.

문학산 자락과 오래된 마을의 기억이 있고, 개항 이후 변화하는 인천의 시간이 있으며, 일제강점기 산업화의 흔적이 있다. 해안을 매립하면서 공장이 들어섰고 공장을 따라 노동자가 모여들었다. 공장과 함께 사택과 학교, 시장과 골목이 만들어졌다. 해방과 전쟁, 산업화를 지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끊임없이 변해왔다. 이곳은 단순히 한 지역의 역사가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근대도시로 변해왔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동양화학



동일 레나운, 2003년,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필자가 '학익동'이라는 동네를 처음 접한 것은 1970년대 말, 대학생 때였다. 서울로 대학을 다니던 시절, 방학이면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따라 인하대에서 진행하는 토플 특강을 들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와 함께 학교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늘 뒷문이었다. 용현동 쪽으로 걸어가면 길가와 골목에 크고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다. 당구장도 있었고 다방도 있었다. 학생들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당구를 치고, 약속을 하고, 때로는 별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곳. 그곳은 영락없는 대학가였다. 그때 인하대 주변은 다른 대학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 풍경이었다.

어느 날 정문 쪽으로 가게 되었다. 조금 놀랐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정문 앞은 대학가라기보다 거대한 공업지대에 가까웠다. 공장 회색 담장이 이어졌고, 굴뚝이 보였고, 화물차들이 큰 길을 쉴 새 없이 오갔다. 그제야 비로소 학익동이라는 동네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뒷문에는 청춘이 있었고, 정문에는 노동이 있었다. 두 풍경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1970년대 말 인천의 한 장면이기도 했다. 노동자와 학생, 공장과 학교, 골목과 산업도로가 뒤섞이며 '인천'이란 거대도시를 만들어갔다.



인하대 정문 앞 공장들

기록은 쌓일수록 깊어지고, 기억은 겹칠수록 단단해진다. 그 기록과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드라마도, 연극도, 영화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 것은 결국 사람 이야기다. 이 책 역시 그렇다. 공장과 시장, 골목길과 집을 따라 학익동의 시간을 되짚어가지만, 끝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한 동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큰 사건과 유명한 인물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동네의 실질적인 역사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는 아침 해를 마주하며 공장으로 출근했고 누

군가는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해거름이 될 때까지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놀았다.

당시에는 너무 평범해서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그 일상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시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던 그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의 학익동을 만들었다.

사진 한 장도 그렇다. 당시에는 날 잡아 찍은 그저 가족사진이고, 친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며, 동네 뒷산에서 찍은 평범한 사진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그 사진 속의 집과 가게, 전봇대와 계단, 공장 굴뚝과 골목길, 옷차림과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 사라진 시대를 증언하는 자료가 된다.



제국제마사택골목

이것이 '아카이브'의 출발점이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오래된 자료를 모아 창고에 보관하는 일이 아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찾아내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연결하여 현재의 사람들이 과거와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채록하고, 그 내용을 다른 자료와 비교해 정리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아카이브 작업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아카이브는 전문가만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살아온 동네를 직접 기록하고, 사진을 남기고, 부모와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주민들은 단순한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의 생산자이기도 하다. 주민이 자기 삶의 기록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의 도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지역의 역사는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 속에도 있다. 역사는 오래된 책과 문서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하루하루 속에도 있다. 기록은 과거를 붙잡아 두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도시를 다시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제국제마사택골목

우리는 지금 '장소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집, 구멍가게, 목욕탕, 문방구, 동네식당, 고개, 우물, 정류장, 계단, 축대…. 한때는 우리 삶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불량'이라는 딱지가 붙어 사라져가는 공간들이다. 동네마다 '재개발사업', '주택조합결성', '원도심재생사업' 같은 근육질의 언어가 넘쳐난다. 오래된 골목과 마을이 불도저의 삽날을 피해 가지 못하고 '어' 하는 순간에 깔아뭉개졌다. 보낼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사라졌다.

개발업자의 눈에는 소멸되어 가는 동네는 삶의 공간은 물론 역사·문화의 공간도 아니다. 그저 폐허일 뿐이다. 장소의 소멸은 단순한 철거가 아니다.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이 함께 지워지는 일이다. 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누구에게는 추억, 누구에게는 상처, 누구에게는 기록이다.

학익동만큼 빠르게 얼굴을 바꾼 동네가 또 있을까. 오늘도 오래된 집은 허물어지고, 골목은 넓은 도로와 새로운 건물로 바뀌고 있다. 공장 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익숙했던 가게와 정류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학익동의 풍경은 그렇게 하나둘 현재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런데,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얼마 전 학익동 안에서 아직도 옛 동네의 '원형질'이 남아 있는 곳을 만났다. 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 문학산 자락에 기대어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마을이다. 마을버스 518번 종점. 언덕 위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다. 미추홀구 학익동 197-1번지 일대, 일명 '양토마을'이다. 이름 그대로 한때 토끼를 기르던 마을이다. 1970~80년대 이곳에는 양돈장도, 양계장도 아닌 대규모 양토장(養兎場)이 있었다. 토끼를 전문적으로 길렀던 농장이다.

처음에는 용현동 철길 아래에서 토끼를 키우던 한 주민이 이곳으로 옮겨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육을 시작했다고 한다. 토끼는 번식력이 워낙 좋아




양토마을

마릿수가 빠르게 늘었고, 산기슭에는 양토장으로 쓰던 비닐하우스가 하나둘 들어섰다. 지금의 학익체육관 자리가 토끼농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고 한다. 배고팠던 시절, 토끼는 귀한 먹을거리였다.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식이었고, 시내 곳곳에는 인천시가 지정한 '토끼 영양센터'라는 간판을 내건 음식점도 있었다.

농장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 번창하던 양토장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다. 비닐하우스가 사라지고 토끼가 사라지고, 토끼를 길렀다는 기억마저 희미해졌다. 지금은 이곳에서 토끼 한 마리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얼마 전 고속도로 교각 아래에 토끼 두 마리의 조형물이 세워졌다. 사라진 양토마을의 기억을 불러내는 작은 표식이다. 마을 입구에는 이제 양토장 대신 흑염소탕과 영양탕을 내건 크고 작은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토끼는 사라졌지만 마을은 아직 남아 있다. 고갯길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초가를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을 법한 오래된 집 한 채가 산길 입구에 마치 검문소처럼 서 있다. 발걸음을 옮기

면 나무 울타리를 두른 집, 작은 정원이 딸린 집, 담장이 낮은 집들이 차례로 나타난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풍경이다.

산동네 끝, 꼭대기 계단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고층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선 새로운 학익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아왔건만 어느새 두 동네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토끼가 살던 마을, 양토마을. 이 작은 산동네는 지금도 시간과 조금 느린 경주를 하고 있다. 과연 이 마을은 언제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렇듯 학익동의 골목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깊게 패인 도시의 잔주름이다. 이제 이 골목은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고 있다. 한 집, 두 집이 모여서 만들어낸 공간인 골목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로 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첫 줄이 되었다.



학익동 집창촌

역사는 언제나 이름난 사람들의 기록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모일 때 한 지역의 역사는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는다.

《싱어게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본다. 이 프로그램은 '무명(無名)'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한다. 무명은 실패자가 아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이라 말한다. 학익동이 품어온 시간과 그 시간을 살아낸 무명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삶과 풍경은 또 하나의 노래가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은《싱어게인》처럼 학익동을 다시 노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쳤던, 그리고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장소와 시간에도 저마다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작은 무대다. 화려한 조명도, 유명한 이름도 없다. 대신 진심이 있고, 오래 견뎌온 시간이 있으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삶의 울림이 있다.



학익동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독자는 공간을 읽는 동시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타인의 시간을 더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의 이야기, 오래전 살던 동네의 풍경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책장을 덮을 즈음에는 지금의 학익동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제, 학익동의 무명들이 부르는 서른다섯 곡의 노래를 들어보자.

지도로 보는 학익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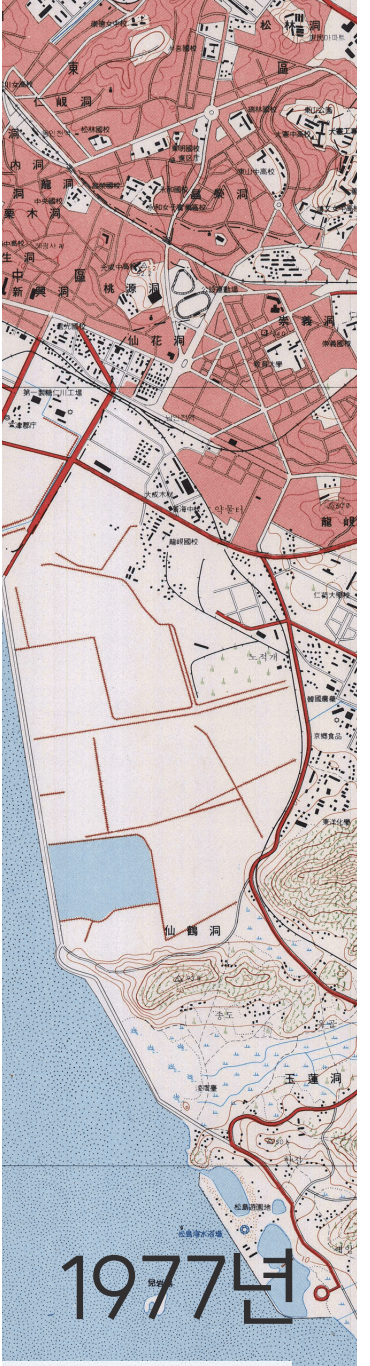
‖ 지도에 쌓인 시간



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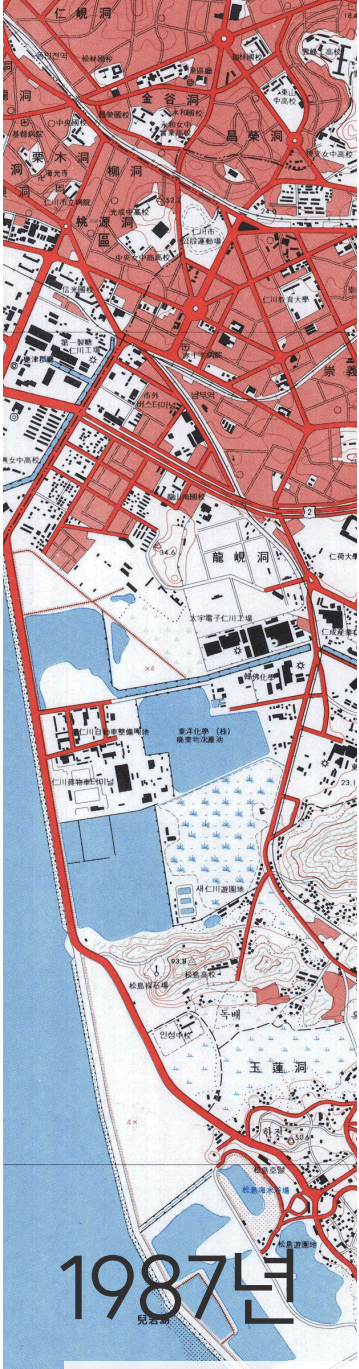
1969년



1977년

옛 지도를 따라가면 바다와 염전이 매립되고,
그 위에 공장과 길,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입니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仁峴洞
金谷洞
昌榮洞
栗木洞
柳洞
興洞
桃源洞
龍峴洞
玉蓮洞
仁川教育大學
仁川市立仁川工業高校
仁川女子中高校
仁川五峰高校
仁川光成中高校
仁川高校
仁川女中
仁川女高
仁川高
仁川工業高校
仁川女中高校
仁川光成中高校
仁川五峰高校
仁川教育大學
仁川市立仁川工業高校
仁川高校
仁川女中
仁川女高
仁川高
仁川女子

지도 위의 선으로 남다

하늘 아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다와 염전이었던 **학익동**과 **용현동**은
공장지대를 거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 지도에는 그 변화의 흔적과 함께,
이 땅에서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
한 시대의 산업과 **도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전선 → 대우전자 →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2012 | 미추홀항토문화대전

한불화학 → 로디아 실리카



로디아 실리카 크리아, 2012 | 미추홀항토문화대전

한국카리화학 → 유니드



한국카리화학 인천공장, 1980 | 미추홀항토문화대전



유니드 인천공장, 2003 | 미추홀항토문화대전

삼광유리



삼광유리 인천공장, 2012 | 미추홀항토문화대전

동양화학(현 O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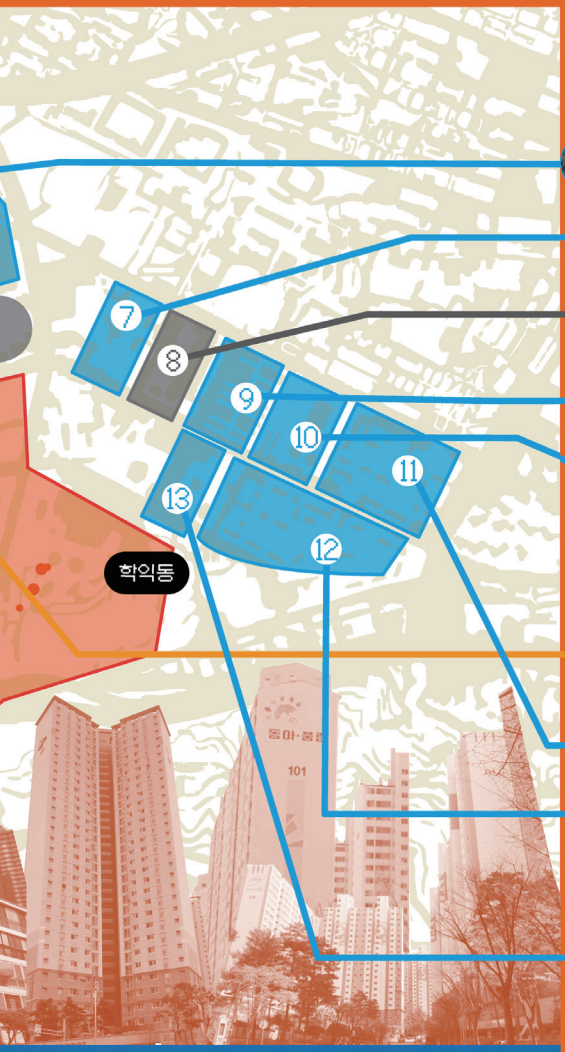


1970년대 인천 소다회공장 전경, 1970 | 미추홀항토문화대전



OCI 인천공장 전경, 2008 | 오인엔 제공

지금의 아파트와 공원, 도로가 있는 자리에는
한때 공장과 사택, 마을이 있었습니다.





유공저유소, 1986 | 신원정 촬공지도

POL → 유공저유소 → SK저유소 → SK물류센터 → SK스카이뷰

고직금강 → 인하대학교 제1생활관



한국농약주식회사, 1975 | 인천시립박물관 제공

한국농약 → 동부한농 → 케이제이로지틱스

동양전선 → 한국공업 → 한국제강 → 삼정제강 → 장미아파트



동일레나운, 2003 | 미추홀향토문화대전

흥한방적 → 화신레나운 → 동일레나운 → 엑슬루타워



부국사료, 2012 | 미추홀향토문화대전

부국사료

흥한방적 → 한일방직 → 동아풍림아파트



한국강관주식회사 인천공장 준공식, 1974 | 김영수 제공

조선철강공업 → 한국파이프(한국강관) → 신호스틸 → 휴스틸 → 풍림아이원

청구화공 → 두산위브

주요 산업시설의 변천,
『도시마을생활사 용현동·학익동편』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 지도는 같은 공간에 무엇이 있었고,
시대에 따라 무엇으로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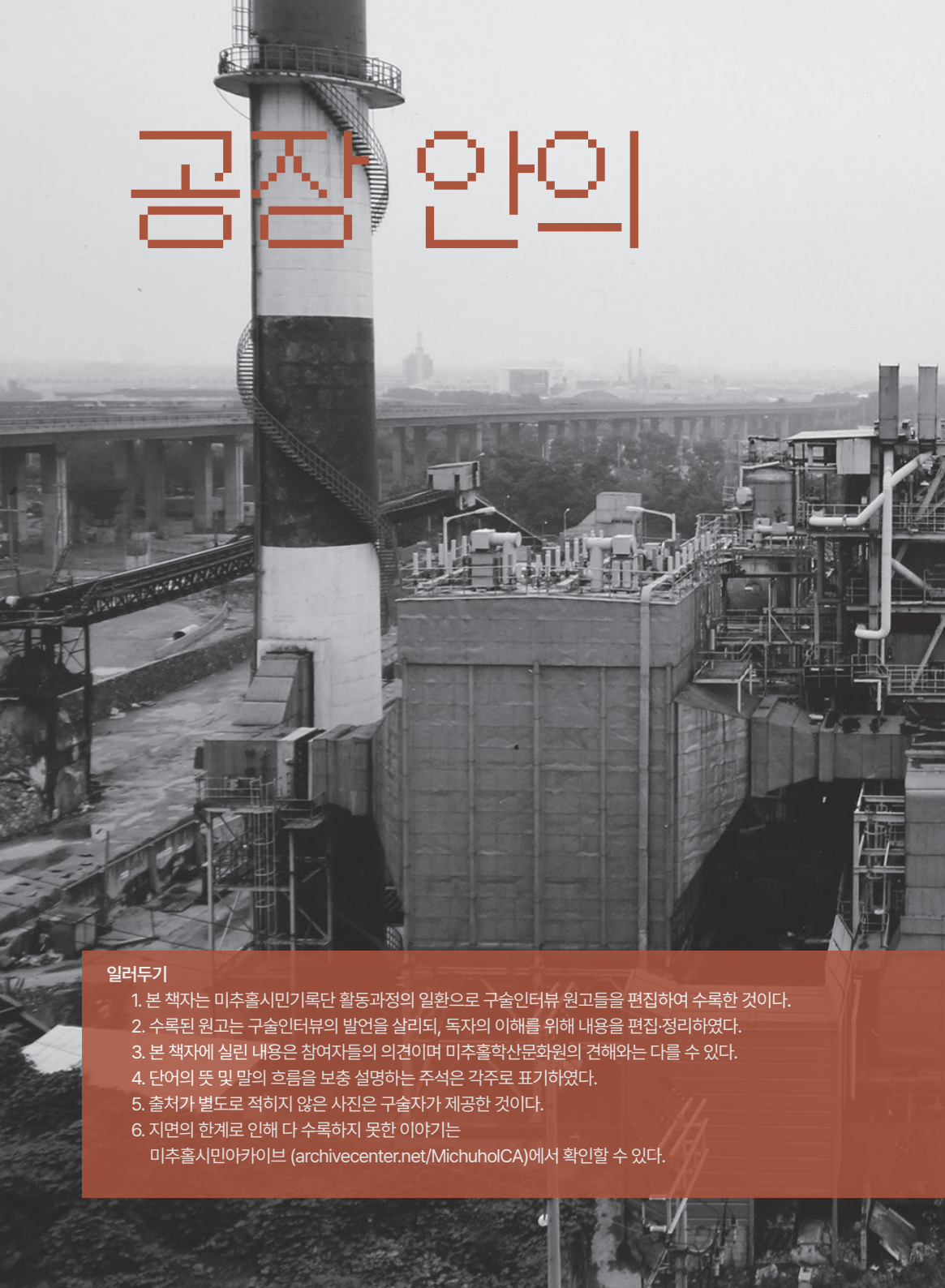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학익동 공장자리,
서른다섯 명의 구술기록




© 김보섭, 2007년



공장 안의

일러두기

1. 본 책자는 미추홀시민기록단 활동과정의 일환으로 구술인터뷰 원고들을 편집하여 수록한 것이다.
2. 수록된 원고는 구술인터뷰의 발언을 살리되, 독자의 이해를 위해 내용을 편집·정리하였다.
3.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은 참여자들의 의견이며 미추홀학산문화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
4. 단어의 뜻 및 말의 흐름을 보충 설명하는 주석은 각주로 표기하였다.
5. 출처가 별도로 적히지 않은 사진은 구술자가 제공한 것이다.
6. 지면의 한계로 인해 다 수록하지 못한 이야기는
   미추홀시민아카이브 (archivecenter.net/Michuhol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



© 김보섭, 2007년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학익동 공장자리,
서른다섯 명의 구술기록

공장 안의 사람들

산업화 1세대, 학익동의 영원한 공장장
동양화학 홍규선

학익동 갯벌에 열정을 바친 토목기술자
동양화학 유재형

긴장과 자부심으로 동양화학과 함께한 36년
동양화학 김용익

동양화학의 동반자, 협력업체 삼영사
삼영사 김진수

동양화학 36년, 청춘을 바쳐 현장을 지킨 평생의 일터
동양화학 한규섭

자식 교육을 위해 거친 노동을 이겨낸
여성 노동자, 우리의 어머니
동양화학 이옥순

동양화학 전화교환원, 늦깎이 공부로 한(恨)을 풀다
동양화학 손경임

동양화학 사택에서 시작한 학익동의 삶
동양화학 근로자 아내 류수자

전장을 지키듯 책임과 헌신을 다한 동양화학의 주역
동양화학 반채진

마지막 물류팀장으로 동양화학 인천공장을 지키다
동양화학 이기주

밤잠을 설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33년
동양화학 최승관

동양화학의 연구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전업하다
동양화학 박중근

실험실 연구원에서 목사로 전향하다
동양화학 김시철

타워 플랜트의 불빛에서 상생의 길을 걷다
동양화학 박병만

해고, 복직, 구조조정의 삶을 극복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거듭나다
삼광유리 조유형

신뢰를 자산으로 카리화학 생산현장 변화에 앞장서다
유니드 강희갑

일터에서 받은 혜택만큼 지역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다
유니드 이병용

솜이불 한 채의 무거운 짐을 '소리'(唱)에 담다
동양산전 강인자

솜먼지 가득한 흥한방적과 하치사택
흥한방적 노옥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김노천

솜뭉치 먼지와 기계 소음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하다
한일방직 정학모

한국유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담당하다
한국유리 지무환

대우전자 엔지니어에서 HD건설기계 엔지니어로
대우전자 이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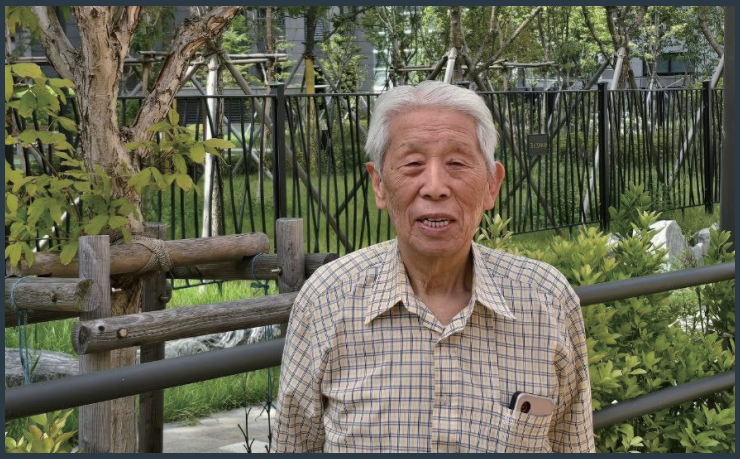
철강산업의 선두, 한국파이프의 산증인
한국파이프 김영수

공존을 위한 도시, 함께 할 수 있을까?
강원레미콘 김성묵

기업,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한 40년
인천상공회의소 유수동

용현동의 토박이, 행정전문가로 동양화학과 연을 맺다
전)인천 남구 공무원 오영식

산업화 1세대,
학익동의 영원한 공장장



홍규선

1937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58년 인천고등학교 졸업
1965년 대한탄광 입사 보령광업소 현장 경리과 근무
1965년 동양화학 인천공장 경리과장 발령
2004년 퇴직할 때까지 관리차장, 관리부장, 공장장, 부사장 역임
2004-2009년 송암미술관 총괄관리책임자 역임

홍규선 님은 1937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한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학(회계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대한탄광에 입사해 대천의 보령광업소 현장 경리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회림 회장의 눈에 띄어 소다회 공장 건설이 시작된 동양화학 인천 공장의 경리과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동양화학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소다회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공장 기둥만 올라가던 때, 그는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했다. 회계학 전공자임에도 노무, 자산, 인사 관리 등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공장장과 부사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회림 회장의 철학을 본받아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장 운영을 못 한다'는 신념으로 마을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임을 그는 강조한다. 그의 이런 책임감은 이회림 회장의 신임으로 이어졌고, 송암미술관 건설과 완공까지 5년 동안 총괄관리책임자로, 그리고 미술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산업화 1세대로 청춘을 바친 동양화학 인천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고, 이전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심경은 남다르다. 국가 산업화에 기여해온 동양화학의 위상과 역사가 용현, 학익 지구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공장이 필수라고 믿고 있다. 동양화학뿐만 아니라 인천상공회의소 임원을 맡으며, 인천의 산업을 이끌어온 원로로서 "인천이 발전하려면 무슨 공장이든지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동력"임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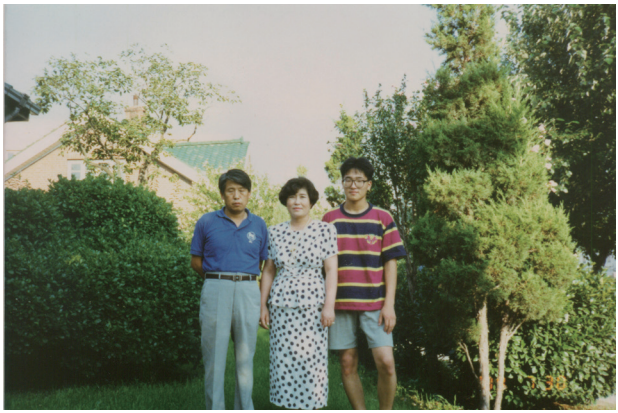
대한탄광 보령사업소에서 동양화학 인천공장으로 오다

인천서 학교를 다녔어요. 외삼촌 집에서 다녔는데, 미안해 가지고 점심을 굶고 다녔어요. 배고플 때는 표정도 짓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대학 나오면 '밥은 먹고 살겠지.'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애들을 서울에서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병이 나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결국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형들도 다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는 댕겨야 밥은 먹고 살 거 아니냐는 생각에 학교를 다녔죠. 졸업 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대한탄광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했어요. 근데 내가 시골 주소를 안 써놓고 간 거예요. 합격은 했는데, 연락을 해 보니 시골 주소가 없어 연락이 안 되니까 대천에 있는 보령탄광 지소 현장 경리로 발령을 냈어요. 본사 근무를 원했는데, 연락 두절로 착오가 생겨가지고 본사 근무할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웠죠.

보령광업소에서 동양화학 인천공장으로 오게 된 건 딴 거 없어요. 탄광

이라는 게 맥이 커야 탄이 많이 나오고, 돈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놈이 맥이 크게 가다가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니 원가는 높아지고, 수익성이 없어요. 폐광해야 되는 거죠. 그때 동양화학이 인천에 터를 닦고 있을 때에요. 대한탄광에 회장실이 있고, 그 옆에 경리과가 있어요. 회장님이 어느 날 부르셔요. 갔더니 "야, 너 인천고등학교 나왔냐?"고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동양화학이 지금 뼈다귀가 올라가는데, 거기 경리과에 근무하라는 거예요. 회장님 생각에 공장 건설 초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인천에 가라는 거였죠. 인고 졸업한 사람들이 동(洞)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뼈다귀가 올라가고, 콘크리트 건물 벽이 올라갈 때 인천에 왔어요.[1] 극동방송국 자리에 직원들 근무하는 사택이 7채가 있는데, 결혼 전이라 거기서 생활을 했죠.



극동방송국 자리 사택 앞에서 가족과 함께, 1980년대

1) 동양화학은 1965년 학익, 용현동 일대 해안 매립을 시작해 1968년 국내 최초 소다회 공장을 준공했다.

매립지 위에 들어선 소다회 공장, 최고의 엘리트가 모이다

동양화학이 초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관련 있어요. 그 계획에 소다회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회림 회장을 불러서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소다회 공장을 한번 해보라 그랬대요. 우리 회장님이 "나는 화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탄 캐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걱정 말라고. AID 자금 570만 불에 미국의 기술하고, 일본이 조립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해보겠다고 한 거죠.

공장에서 먹는 식용수를 하루에 1만 톤 써요. 그다음에 기계 열을 식히는 쿨링워터(Cooling Water)를 하루에 10만 톤을 써요. 동양화학 그 앞에 저수지가 10만 평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소다회 공장의 개념을 설명해야 돼요. 소다회 공장은 세계적으로 그런 넓은 땅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소다회 공장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해요. 동양화학이 학익동에 매립공사를 할 때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2]이 세워졌고, 거기에 동양화학이 들어간 거죠. 땅으로 쓰자고 매립을 하려 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회림 회장이 맡게 된 거죠.[3]

당시 유승원 인천시장의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돼요.[4] 물량으로 봐서

2)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립경제, 빈곤극복 등을 위해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추진한 국가단위 1차 경제발전 전략이다.

3) 박정희 대통령이 이회림 회장에게 소다회 공장 건설을 제안한 것은 1962년이다.

4) 5.16 쿠데타 이후 현직 군인 신분으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인천시장을 역임하였다. 1963년 인천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소금을 연간 60만 톤 써요. 석회석도 거의 6~70만 톤 써요. 그러면 석회석 원료를 보면 소다회 공장이 강원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안, 소래, 군자 지역이 다 염전이야.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천에 끌어와야 인천 사람들 밥 먹고 살 거 아니냐는 거죠. 입지 조건으로 봐서 인천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때 동양화학 회장은 이회림 회장이고, 사장은 한국은행 근무하던 이병두[5]씨인가 그래요. 당시 소다회 공장 건설할 때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왔어요. 기술 구성도 한국화학공학회 28대 회장을 역임했던 권석명[6] 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충주 비료에서 제일 유명하죠. 거기서 스카우트했어요. 그러니까 동양화학 멤버라는 건 전부 서울공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학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지요. 그때는 공장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날고 기는' 그런 엘리트들이 들어왔어요. 기간산업이라는 말은 안 써도 동양화학의 소다회 공장은 거기에 준한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거의 기간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설계는 미국의 설계자가 인천에 와서 직접 주재했어요. 미국인 유기화학자 맥밀란[7]이 하고, 조립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어 하루에도 일본 사람들이 몇 십 명씩 와서 그걸 조립했으니까요. 기계 파트 쪽 한, 두 명인가 남아서 마무리를 했고, 장비도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으니까요. 동양화학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5) 이병두 사장은 동양화학 설립 초기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며 초기 경영과 화학 사업 확장에 기여한 핵심 경영인이다.

6) 1997~1998년까지 동양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유니드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이때 동양화학을 동양제철화학으로 사명을 바꿨다.

7) 맥밀란은 소다회 공장의 주요 플랜트 설계 및 시설을 도입한 영국의 화학 엔니지어링 맥밀란 기업을 설립한 미국인이다. 소다회 공장은 외국차관을 도입한 대규모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은 화학 산업의 초보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화학 산업은 전무했다는 거지요. 때문에 소다회 시설 가동은 화학 산업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정말 의미가 큽니다. 가치판단은 내가 못하지만 기초화학의 선구자 정도로 평가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근무할 당시 기계 설비를 일본에서 가져올 때 선광공사[8]가 맡았어요. 기계 한 대 길이가 10m도 넘을 거예요. 무게와 길이가 엄청나요. 한국의 웬만한 도로에서는 그게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항구에서 우리 공장까지 끌어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선광공사가 다 했어요. 선광공사가 엄청 공을 들인 거죠. 하나도 결함 없이 수송했어요. 선광공사가 설비 운반에 공을 들인 건 미래 가치를 생각한 거죠.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들

열병합 발전소 건설[9]은 1968년 소다회 공장이 준공되면서 소다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당시 한전 단가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단가와 차이가 컸어요. 한전이 훨씬 비쌌지요. 그러다 남는 전력이 생기면서 한전에 팔았어요. 회사에서 이득까지는 생각은 안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한전 단가가 높으니까 한전에서 '남는 거 뭐 하냐, 우리 달

8) 선광공사는 1948년 고 심명구 회장이 인천항서 세관 창고사업으로 시작한 인천의 향토 하역사다. 현재 선광문화재단 상설전시관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 동양화학의 열병합 발전소는 인천소다회 공장 내에 건설된 국내 최초의 민간 발전소로 공장의 막대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어졌다.

라.' 이렇게 된 거죠. 민간에서 건설한 것으로는 동양화학이 건설한 열병합발전소가 처음일 겁니다.

실리콘 밸리라는 것도 OCI가 최초로 한 거예요.[10] OCI는 대단한 회사예요. 군산공장은 너무 넓어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광객들 오면 사내에 조그마한 버스가 있다고 해요. 나는 인천 공장장을 하면서도 거기 공장을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다음에 미국에도 소다 공장이 있거든요. 미국은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는 석회석과 소금으로 소다회를 생산하지만 미국에서는 땅 속에서 물건을 뽑아내요. 동양화학이 그걸 갖고 있어요.

동양화학 인천공장은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전부 원료예요. 본사 기획실에서 다 해요. 여기 공장장은 생산만 집중하고 환경관리, 노무 관리, 대외관계 뭐 이런 것만 하지 상품 개발이나 경영 전략 이런 거는 나는 전혀 몰라요.



동양화학 인천공장 공장장 취임식. 1995년

10) 동양화학이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 '선파워'와 2006년 맺은 군산공장의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말한다.

노사 갈등과 소다회 과잉공급으로 위기를 맞다

동양화학도 몇 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직원들이 데모를 하면서 공장기계가 중단될 위기였었죠. 그런데 그걸 제가 막았어요. 그 때 내가 관리 차장인지 관리부장을 할 때인데 직접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데모를 주동한 사람을 발령을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본사로 안 간대요. 그러나 결국 본사로 올라갔지요. 그 사람 본사 가서 상무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했어요. 동기는 내가 만들었지만 나보다는 그때 회장 아들인 이수영 사장이 설득했을 거예요. 그 때 아마 전무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소다회 과잉생산됐을 때 위기였지요. 중국이 우리보다 원가가 싸요. 우리는 그때 캐파[11]가 작아서 150톤, 많을 때 300톤인가 500톤 이렇게 생산했는데, 중국은 연 생산량 60만 톤짜리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항상 생산량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소다회가 한 1년인가 2년 치 쌓였었지요. 직원들 봉급도 지급하기 힘들었죠. 월급 주려고 돈 가지러 본사에 두 번씩 갔어요. 포대자루 가지고. 추석날인데 추석을 쇠려면 직원들 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다가 떨어지니까 또 본사 간 거예요. 포대자루 메고 돈 나눠주고 나니까 저녁 10시. 남양주가 집인데 버스도 다 떨어져서 명절 못 쇠고 그냥 여기 있었죠.

11) capacity. 생산능력. 용량, 수용한도를 뜻함. 주로 비즈니스, 산업현장이나 일상 대화에서 속어로 많이 쓰이는 용어다.

마을주민,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다

제가 경리과장을 하다가 관리차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관리차장은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주민들 민원도 받아야 해요. 탄가루가 날린다거나 기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민원을 넣는데,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민원이 들어오니까 내 사무실은 맨날 동네 사람들로 찼어요. 그래서 민원을 줄이려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겠단 생각을 했어요. 식당에 밥 먹는 사람들 중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중국집(자장면) 좀 팔아주고, 빈대떡도 팔아주고, 쌀도 팔아주라 했죠. 그러니까 민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취직시켜 달라' 하면 내 권한으로 취직시켜 주었어요. 학익국민학교에서 뭐 한마디 하라고 하면, 상도 주고 했어요. 동네 주민 조의금도 보내고, 겨울에 노인 회관에 연탄 지원하고,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 도로 포장도 해 줬죠. 큰 도움이라기보다도 주민들 불편한 거를 해결해줘야 하니까요.

회사 식당은 개성 분이 운영하면서,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직영을 했어요. 직영하면서 동네 주민 쌀도 쓰고, 돼지고기도 많이 먹으라 직원들 티켓 나눠줘서 고기 사면 회사에서 다 지불해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큰소리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공장 운영 못한다고 우리 회장님이 오실 때마다 얘기해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건 내가 잊지 못해요.

동양화학 그만두기 직전인데 2002년인가, 인천시에서 월드컵 기념 배지를 만들어 달래요. 몇 천 개인데 그걸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2002년 월드컵 응원단장을 날 시켜요. 국가 단장인지, 인천 단장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월드컵 경기할 때 VIP석에서 봤어요. 영광이죠. 각국 대사들하고 같이 식사도 했죠.

현재 선광공사 문화재단(선광문화재단) 이사로 있어요. 검찰청 선도위원회 부회장을 상당히 여러 해 동안 했고, 보이스카우트도 참여했어요. 경영자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상임이사도 했고요. 인천상공회의소 '상공대상 사회복리 부문 수상자'로 환경대상을 받은 거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데요.



"폐수처리장에 철새 찾아와 둥지틀어 흐뭇"

인천商議 상공대상
洪 奎 善 씨

『그린스카우트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주는 상공대상 사회복리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다음달 1일 상을 받는 인천 남구 학익동 동양화학공업 洪奎善전무이사(59).

지난 67년 말단 경리사원으로 출발, 30년동안 이 공장에서만 근무해온 그는 지역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공장주변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온 환경운동가다.

洪전무는 『지난 85년부터 10년동안 1백80억원을 투입해 느티나무 벚나무 등을 심어 늘 푸른 공장환경을 조성해왔다』며 『폐수처리장에 청둥오리 등 철새들이 날아와 서식지로 자리잡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洪전무는 『10여년전 환경오염업체로 지탄했던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공장을 견학한 후 많은 오해가 불식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문제와 관련, 『경영진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근로자는 경영주의 입장을 이해해주면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朴正奎기자〉

「인천상의 상공대상 홍규선 씨」, 동아일보, 1996. 6. 26.

이회림 회장을 기억하며

이회림 회장은 개성 분입니다. 공장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 양반은 공장에 작은 시설 보강할 때 고사를 지내면, 집에서 고사떡, 돼지 대가리 이런 거 사모님하고 다 준비해서 직접 차에다 싣고 와요. 고사

를 지내고 나서 매번 직원들 다 먹게 하구요. 그 양반은 하여튼 고사를 열심히 지내시는데, 동양화학 잘 성장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빌었겠죠. 어떤 때는 삼복더위에 불고기를 집에서 준비해서 공장에 싣고 와요. 풀장에서 수영하며 먹으라고 불고기를 구워요. 그런 정도로 직원들을 아꼈어요.

이회림 회장님이 김구 선생 동상도 만드셨죠.[12] 인천상공회의소 회관도 지었고, 송도고등학교도 인고(인천고등학교)하고 맞먹는 학교로 체육관, 도서관 지어 완성했죠. 우리 회장님 손 안 간 게 없어요. 인천대공원에 가면 호수 있어요. 그 호수 만드느냐고 100억 들었어요.



백범 김구선생 동상 인천대공원서 제막식

백범 김구 동상 제막식이 27일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에서 '백범 김구 선생 동상건립 인천시민위원회' 위원장 이회림 동양화학 명예회장, 최기선 인천시장, 권쾌복 광복회장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운 동상은 입상 2.8m, 좌대 3.4m 크기로 백범이 고향인 황해도 해주를 향해 팔을 뻗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또 이 동상 옆에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장충식)가 기증한 백범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 동상도 이날 함께 세웠다.

김영환 기자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인천대공원서 제막식」, 한겨레, 1997. 10. 28.

12)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에 동상이 있다. 1997년 백범 김구선생 동상건립 인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을 이회림 회장이 맡았다. 최기선 인천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건립 기념식을 열었다. 백범 동상 옆에는 그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 동상도 함께 있다.(한겨레, 1997.10.28.)

퇴직하면서 송암미술관에 한 5년 근무했는데 회장님의 배려지요. 짓기 시작해 완공까지는 겸직을 해서 내가 관리를 했어요. 나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장은 아니고 총괄관리책임자로 특별 혜택을 주신 거죠. 인천시에 기증할 때 내가 넘겨주고 나왔어요.



송암미술관 개관식(좌측에서 두 번째가 홍규선 님), 1992년

현직에 있을 때는 미래를 못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관리하는 데도 힘들어 가지고 미래 생각을 못해요. 동양화학이 경쟁력이 없어 공장을 닫아야 될 형편이었지만 도시와 국가가 발전하려면 공장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천은 국제경쟁력 때문에 밀려서 대기업들이 이전하거나 하향 곡선이라고요. 국가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을 많이 하는 게 국가 발전의 동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2. / 2025. 8. 1.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표기자(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홍난희(미추홀시민기록단), 박인옥(시민기록 멘토),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학익동 갯벌에 열정을 바친 토목기술자



유재형

1949년	개성 출생
1966년	인천기계공고 토목과 입학
1969년	동양화학 입사
1974년	군 제대 후 동양화학 복직
1980년대	동양화학 퇴사 후 계열사 영창건설 입사
1990년대	동양화학 부지 관리 및 삼광유리, 유니드 등 공사 지원
2001년	영창건설 퇴사 후 토목건설 현장 관리
2024년	토목공사 현장 은퇴

유재형 님은 학익동 갯벌 매립지 위에 들어선 공장건설 역사와 함께 한 토목기술자다. 그는 1969년 인천기계공고를 졸업한 직후 학교 추천으로 동양화학에 입사하였다. 그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바다를 매립해 제방을 쌓고, 10만 평 규모의 공업용수 저수지를 조성하는 토목 공사였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수문을 설치해 하루 10만 톤에 달하는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대규모 공사였다.

1974년 군 제대 후 복직한 그는 저수지 높이를 1m 올리는 증축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새인천풀장 건설현장에서도 일을 했다. 일이 끝난 후 잠시 풀장 관리업무도 맡았다고 한다. 동양화학 공장 증설과 계열사 공장 건설에도 참여하였다. 배수 라인 확장 공사, 프랑스 합작 회사인 한불화학 공장 신축과 울산 인산칼슘 공장 건설현장에서도 일했다. 설계와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이수영 사장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퇴직 후 동양화학 계열 건설사인 영창건설(현 이테크 E&C)에 근무하며 삼광유리, 유니드 등 입주 기업들의 현장 관리를 맡아 2001년까지 기술 지원을 하였다.

주말도 없이 이어진 야근과 지방 공사현장 순회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을 빼앗았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에게 동양화학은 청춘을 바친 삶 그 자체다. 토목 분야의 전문기술자로서 학익동의 갯벌 매립지 현장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크다. 뇌경색을 앓으며 옛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지만 동양화학의 거대한 공장 굴뚝과 젊은 날 갯벌 위에 바친 그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억한다.

10만평 저수지 조성을 위한 해안 제방공사에 투입되다

저는 1949년 5월 24일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2~3살 때 부모님이 걸어서 인천에 오셨다고 해요. 동양화학에 입사할 때가 아마 군대 가기 전 19, 20살 때일 겁니다. 1966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하자마자 학교 추천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동양화학이 소다회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저는 공장 건설이 아니라 바다를 막는 제방공사[1]에 투입돼서 준공할 때 까지 일을 했어요. 공장에 필요한 저수지 76만 6천 평 중 저수지 10만 평 공사예요. 저수지는 수문을 만들어 바닷물을 최대 용량으로 저장했다가 그 물을 공장으로 펌핑해서 공업용수로 쓰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하루 사용량 10만 톤의 공업용수는 일반 상수도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수지는 바닷물을 쓰기 위

1) 동양화학이 196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해안을 매립해 2.2km 길이의 제방을 조성했다. 이 제방은 현재 인천항과 송도를 잇는 해안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일대 매립지는 1968년 인천 소다회 공장 준공의 기반이 되었다.

해 만든 거고, 폐기물을 내보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한 거지요.

제가 준공 때 까지 일을 했는데, 준공하는 날이 백중사리[2]였어요. 이때 제방이 그냥 뚫려서 100m인가 흙이 무너졌어요. 이걸 막으려면 돌이 필요했어요. 지금 송도 석산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산 아래 능선이 쭉 있었어요. 그만큼을 우리가 다 까서 사용했어요. 석산을 발파해서 매립하기 위해 필요한 돌을 얻은 거죠. 뚫어진 제방 막으려 큰 거 보이면 다 바다에 막 넣었어요. 결과적으로 제방이 튼튼하게 잡혔지요. 발파 작업은 석산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화약을 집어넣어요. 그냥 야간에도 막 뚫어가지고서 화약을 넣어요. 한번은 화약을 터뜨렸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그냥 내려오기만 하고, 화약이 안 터진 거예요. 이걸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큰 바윗돌에 깔려서 사람 둘인가 셋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제방공사 할 때 이 일대 조개가 엄청 많았어요. 공장에서 사리[3]때 물 들어온 거 다 쓰고 조금[4]때 되면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익동 용현동 일대 사람들이 바구니 들고 조개, 바지락을 캐러 우리 저수지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들어와요. 근데 조개 캐다가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제방을 막기 위해 흙이 필요하니까 이 펄을 파내가지고서 써요. 깊이가 1~2m 돼요. 조개 캐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려 그냥 바구니 둔 채로 죽는 거예요. 해안가 쪽에 사무실을 두고 썼는데 겨울에 숙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하 18도, 20도 가까이 돼요. 저수지가 얼어요. 아침이면 해안 초소 군

2) 백중사리는 음력 7월 15일(백중)을 전후로 달과 태양이 지구와 일직선에 놓이면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연중 최대로 커져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이때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한다.

3) 사리는 한 달 중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가장 크고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시기를 말한다.

4) 조금은 한 달 중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작고 조류의 흐름이 가장 느린 시기를 말한다.

인들이 초소별로 근무하고 들어와요. 숭어가 얼음 밑에 허옇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얼음 깨서 건져 가는 군인들도 많았어요.

1968년 준공식 끝나고 1970년 영장이 나와서 12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 제대 후 투입된 계열사 공장 건설 현장

1973년 10월에 제대를 했어요. 동양화학에 다시 복직한 게 1974년이죠. 그 전에 한 4~5개월 인천제철에서 일하다 동양화학에 왔어요. 공장 공업용수가 부족해 저수지 쪽 제방 1m를 올리는 공사를 했어요. 최종명 공장장, 그 양반이 새인천유원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에서 일했어요. 콘크리트 풀장을 만드니까 한 4~5개월 일했는데 뚝 쌓는 것보다 훨씬 쉬웠지요. 그 일을 다 하고, 그 팀하고 같이 유원지 관리 일을 했어요.



새인천 유원지 전경, 1974년

인천에 갈 데가 없으니까 풀장이 그냥 미어 터졌어요. 조개고개 버스에서 내려서 오는 거 보면 그냥 사람이 버글버글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도 놀러 올 정도였어요. 그때 유원지 관리했을 적에는 진짜 돈이 돈이 아니었어요. 입장료 받은 걸 넣을 데가 부족해서 그냥 푸대 자루에 넣고 그랬어요.



600톤 배가 증설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으로 취입 수문 옆 취수 PUMP장 구조물 공사 현황, 1975년



600톤 배가 증설 최종 칼사이나 PLANT 건설 중 (좌 감리원, 우 유재형), 약 1975년경

뭐 그렇게 일 하다가 동양화학이 공장 증설공사를 시작하며 공업용수가 또 부족해지니까 저수지로 가는 배수 라인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와 합작해 설립한 한불화학 공장 공사, 그거 끝난 다음에 울산인산 칼슘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고요. 울산에서 일할 때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아내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한 달 되었어요.

울산 공장 공사 끝나고 난 인천공장으로 왔어요.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며 내 개인적으로는 진급을 해야 하는데 진급도 안 되고 해서, 동양화학을 그만두고 계산동 구획정리 공사현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일이 잘

되지 않아 그만두고 나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최종명 전무가 사장으로 있는 동양화학 계열사 영창건설[5]을 찾아갔어요. 그냥 내일부터 나와서 출근하라고 해서 일하게 되었죠. 동양화학의 공장 건설 현장엔 다 가본 거죠. 그러다 2001년 그만두고 시흥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이제 완전히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지 한 2년 됐어요.



한불화학 부지 공사를 위한 ELEVATION 측량 (유재형)



한불화학 공사중 하루(왼쪽부터 유재형, 프랑스 공장장 뮬러, 기계 담당자), 1975년경

한불화학 공사중 좌측 유재형 가운데 불란서 공장장 (뮬러)

5) 영창건설은 OCI(구 동양화학)그룹 계열의 플랜트 건설 전문기업으로, 1982년 설립되어 1983년 동양화학그룹에 편입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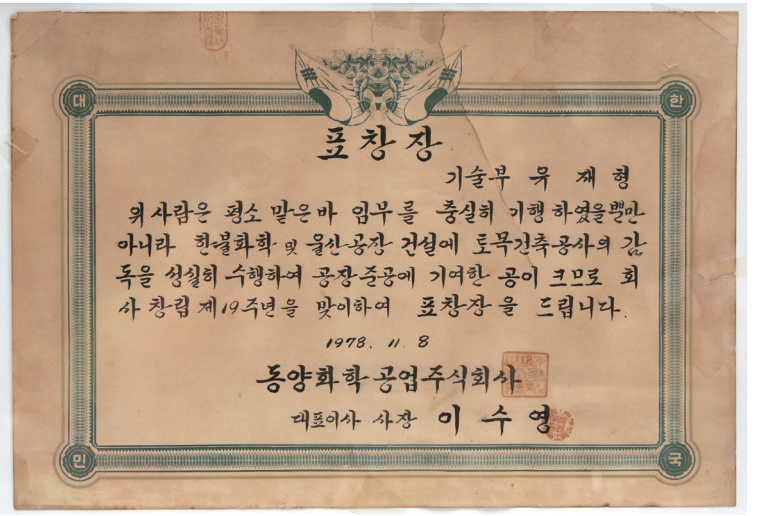
이수영 사장으로부터 표창장 받다

고된 업무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젊었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어요. 그냥 죽어라 일만 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설계도면 그리며 일했어요. 7시에 출근해서 해 지면 퇴근하는데 정해진 시간도 없이 일한 거죠. 근데 퇴근할 때 윗분들이 있으면 눈치 보느라 못 나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때는 개인 플레이를 못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당시 일본 경성제국대학을 나오신 훌륭한 분을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직장인은 진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대졸자들은 그냥 쭉쭉쭉쭉 다 레벨 업이 되었는데, 나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젊고 해서 건설로 뛰는 게 낫겠다 싶어 이직을 한 거죠. 근데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는 좋지 않았어요. 애들도 같이 지내는 시간도 많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죠. 그래도 동양화학 공장 증설하고, 한불화학 공사 잘돼서 이수영 사장 표창도 받았어요.



600톤 배가 증설 및 한불화학 신축공사의 공로로 이수영 사장에게 표창장 수상, 1975년



표창장

기술부 육 재 형

위 사람은 평소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을뿐만 아니라 한일화학 및 울산공장 건설에 토목건축공사의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장준공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회사 창립 제19주년을 맞이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1978. 11. 8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수 영

대한민국

공로 표창장, 1978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젠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내가 지금 뇌경색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조개고개에 홍어집, 저쪽 바닷가 쪽 꽃게집, 중국 사람이 하는 자장면집이 기억납니다. 매립공사 할 때 동양화학 공장에서 한 200m인가 그 쪽으로 샘물이 솟는 게 있었어요. 그 밭 한가운데 지하에서 나오는 맑은 샘물도 있었고요.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는 다 없어져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 현장을 보면 마음이 허전해요.

‖ 면담개요
· 일시: 2026. 6. 15. / 2026. 8. 4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조연희(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강인형, 이혜숙(미추홀시민기록단)



긴장과 자부심으로 동양화학과 함께한 36년



김용익

1956년	인천 용현동 출생
1975년	인천기계공고 졸업 후 영창악기 실습, 동양화학 직업훈련소 1기 과정 수료
1981년	군 제대 후 동양화학 입사
2017년	동양화학 퇴사
	현재 식품회사에서 폐수처리 관련 업무로
	제2의 인생을 누리고 있음

김용익 님은 1956년 인천 용현동 206번지, 지금의 용일초등학교 인근에서 태어난 '인천 토박이'다. 그가 기억하는 초창기 용일초등학교는 학익초, 용현초, 숭의초에서 온 학생들이 섞여 한 반에 80명씩 총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북적댔다. 1972년 인천기계공고 화학과에 입학하였다. 고교 졸업 후 영창악기 실습과 동양화학 직업훈련소 1기 과정을 거치며 현장 감각을 익혔다. 군 복무를 마친 1981년 6월, 동양화학에 정식 입사하여 인천공장 생산이 중단될 때 까지 근무하였다.

입사 후 그는 유기화학(정밀화학) 부서에서 고무 가황 촉진제와 농약을 생산하는 업무를 맡았다. 국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노동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초기 3조 3교대에서 시작해 7조 3교대, 4조 3교대로 24시간 원료를 생산하는 현장을 지켰다.

2004년 소다 공장 폐쇄, 2007년 정밀화학 공장 생산 중단 등 파고 속에서도 그는 2017년 까지 자리를 지켰다. 폐수처리장 관리와 염화칼슘 생산 등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궂은일을 도맡으며 36년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양화학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지방 이전과정을 지켜보았다. "내 인생 36년을 거기서 보냈어요. 가족들이 먹고 살았으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라 말한다.

그는 퇴직 후에도 폐수처리 관리 기술을 인정받아 식품회사에서 제2의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휴일이면 동창들과 여행이나 인천대공원을 둘러보며 운동을 한다. 갯벌을 메워 세운 공장에서 청춘을 바친 그는 동양화학 생산현장의 삶의 기록이 인천 산업화의 산 증언으로 남기를 희망한다.

동양화학 직업훈련소 1기 교육생

1956년 용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용일초등학교 옆쪽이에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죠. 지금은 서구로 이사한 지 20년 정도 됩니다. 당시 용일초등학교는 한 반에 80명 정도로 전교생이 2천명쯤 됐을 거예요. 용일초가 처음 생길 때 상급생들은 학익초, 용현초, 숭의초에서 온 학생들이 섞였죠. 1972년에 인천기계공고를 입학해서 화학과를 졸업했어요. 당시 공고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는 게 목적이었고, 기계·토목·건축·자동차과가 인기였어요. 저는 화학과를 갔는데, 때마침 박정희 정권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졸업할 때 19살이니까 좀 놀다가 영창악기 실습도 나가고, 동양화학 직업훈련소 1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각 전공 출신들을 모아 트레이닝해서 부서에 배치하는 정부 방침으로 실행된 제도인데, 저는 중간에 군대를 갔어요.

동양화학 입사해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다

동양화학은 1981년 6월에 입사했어요. 입사해서 유기화학, 일명 정밀화학 생산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고무 가황 촉진제를 만들었어요. 합성고무 원료죠. 타이어, 고무장갑 등 제품마다 다른 촉진제가 들어갑니다. 촉진제 외에도 농약, 성장촉진제, 살균제 등도 생산했습니다. 생산라인은 제품별로 달랐고, 저는 여러 라인을 돌아다니며 관리했어요.

파라쿼트(Paraquat)라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영국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라는 다국적 기업이 만든 건데, 기술을 들여와서 생산했죠. 나중엔 공장 규모와 생산성을 보고, ICI가 직접 공장을 사들여, 생산 중단을 조건으로 원료를 공급했지요. 이후 대성농약에서 후공정을 맡기도 했어요. 회사가 축소되면서 폐수처리장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꽤 오래 했습니다. 공장이 차례로 문 닫아가니 이것저것 겸직하게 된 거죠.

2004년 소다 공장은 문 닫았지만, 석회석하고 염산을 섞으면 염화칼슘이 나오는 공정관리도 내가 맡아서 했어요. 제가 10년을 더 다닌 건 군산에서 잉여 염산이 많이 나와 그걸 처리해야 하니까 인천에서 염화칼슘 만드는 데 쓴 거지요. 군산 염산이 콩크 염산(Concentrated Hydrochloric Acid)[1]이라고, 그걸 쓰고 나면 30%짜리 염산이 나와요. 원래 고농도 염산은 33% 이상인데, 30%니까 원료로도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걸 인천 공장으로 가져와서

1) 염화수소(HCl) 기체를 물에 녹여 만든 강산성 용액으로, 산업 및 실험실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통상 시판되는 염산은 35~37% 농도로 무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발연성 액체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다. 폴리염화비닐(PVC)원료 생산, 금속 표면처리(스케일제거), 식료품 가공, 가죽가공, 폐수처리, 소독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염화칼슘을 만든 거지요. 염화칼슘은 사실 제설용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정밀화학 쪽에서 초액을 만들어 보내면 다른 공장에서 농축시켜 고체로 만들었죠. 또 시약도 담당했고요. 그야말로 오만 거 다 했어요. 마지막 염화칼슘까지 만들다가 2017년 7월 20일에 퇴직했어요. 36년하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에는 근무가 24시간이니까 3조 3교대, 그다음엔 7조 3교대, 그다음엔 4조 3교대로 8시간씩 했죠. 노사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근무 형태가 계속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7조 3교대는 이틀씩 야간, 이틀 조근, 이틀 석근, 그리고 하루 쉬고. 3조 3교대는 거의 쉬는 날이 없는데, 7조 3교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요. 노동법상 의무니까요. 나중에 주 44시간, 그다음엔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무 형태도 바뀌고 OT(Over Time)[2]로 보충하기도 했어요. 저는 교대근무를 6년 정도만 하고 그 뒤엔 안 했어요.

기능공으로 들어가면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 반장이 돼요. 반장 위가 주임이고, 주임이 기능직 최고였어요. 우리는 기능직이라 엔지니어랑 달라요. 나중에 주임을 기장으로 바꿨을 뿐이죠. 다른 회사에서는 기장 제도가 있었지만, 동양화학에선 주임이 곧 기장(技長)[3]이예요. 교대근무는 6~7년 했는데, 불규칙해서 평일에 쉬고, 밤 10시에 출근하기도 하고, 오후 3시에 출근하기도 했어요. 피곤하죠.

1987년부터 주간으로 바뀌면서 교대근무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하는 반장이 된 거예요. 원래 반장도 교대근무를 하는데 내가 맡은 공장은 주임이 없어 반장이면서 주간 근무를 한 거죠. 그 부서엔 농약도 있고, 규모가 큰 무기화학 공장도 있고요. 소규모 정밀화학도 있



2) 초과근무 또는 연장근무.

3) 생산, 기술직의 숙련된 기술자 직급을 말한다.

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합니다. 토양 살균제, 성장 촉진제 같은 거로 톤당 수천만 원짜리 제품도 있어요. 고추나 귤에 쓰면 숙성이 빨라지는 약이었지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값이 비싸서 회사가 돈이 됐어요. 처음에는 수동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후 자동화 시설이 도입되었지만 장단점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자동화를 불편해했어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에러(Error)도 많고, 실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해야 정확한데, 자동화라는 건 센서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땐 아니었죠. 그래도 공정을 반자동화해서 3명이 하던 걸 1명이 맡도록 줄였지요.





동양화학 공장 전경, 1970년, 국가기록원

긴장감이 도는 화학공장, 40개 국가에서 감시할 정도

나는 안 했는데 석회석으로 카바이드도 만들었어요. 카바이드 원료가 CaO예요. 물을 넣으면 가스가 발생하죠. 옛날에 그걸 '간드레'라고 불렀어요. 낚시터 가면 간드레로 불붙이고 그랬잖아요. 또 예전에는 산소 절단기에도 카바이드를 썼어요. 물을 넣어서 가스가 발생하면, 그 불로 절단을 하는 거죠. 배다리 쪽에 철공소가 많았는데, 그때 다 카바이드로 절단했어요. 지금은 LPG랑 산소를 같이 쓰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화학공장은 늘 긴장 속에 있어요. 즐거운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잘못하면 폭발하거나 화재가 나니까 항상 비상상태죠. 벤젠,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 유기용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안전장치라고 방독마스크나 양압시설(Positive Pressure System)[4] 같은 걸 해놓긴 했죠. 그래도 불 날 염려, 폭발할 염려,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 늘 긴장했어요.

원료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암모니아가 위험했고, 무기화학 쪽, 정밀화학 쪽은 다 위험해요. 근데 특히 제일 위험한 건 성장촉진제 원료로 쓰는 산화에틸렌이에요. 제가 안전교육을 받는 운전기사한테 들었는데, 도로로 가다가 앞에 사람이 얼쩡대면 자칫 차를 틀 경우 전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폭발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인명이 제일 중요하고,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당시엔 폭발위험보다 사람 치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죠.

4) 실내 기압을 외부 기압보다 높게 유지하여 오염된 공기나 먼지의 유입을 막는 환경 설비.

또 PCS(Power Conversion System)라는 게 있어요. 무기 만드는 원료인데, 40개 국가에서 사찰을 나오기도 했어요. '내가 만드는 그 원료 갖고 너희가 무기 만드는 거냐? 아니면 성장촉진제 만드는 거냐?' 이거죠. 북한 핵 사찰 나오듯이 외국에서 온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즐거운 에피소드 같은 게 있겠어요? 늘 긴장 속에서 일하는 거지.

퇴근 후,
휴일 여가 생활

사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해요. 사택 입주 자격은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주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결혼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죠. 총각은 극동방송 자리 위쪽에 기숙사가 있었고요. 지금 말로 하면 오피스텔 비슷했어요. 사원 아파트에 들어가면 돈 모아서 집 장만하기 좋으니까, 나 같이 못 들어간 사람은 별 볼일 없지요. 저는 집을 직접 지었어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 했고, 나중엔 차도 사서 낚시도 다니고 그랬죠.

예전에 아이들이 자랄 때는 동양화학이 만든 새인천풀장에 종종 다녔습니다. 직원이면 표 없이도 얼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대근무 끝나고 단체로 가서 놀다오기도 했지요. 나이 들어서는 동아리 활동 대신에 친구들이랑 등산 다니고 그랬어요. 동아리가 구성되면 회사에서 지원도 했어요. 그래서 사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많았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젊은 직원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서 안했죠. 모이면 회사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우리 세대 때는 취미생활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서 가끔 동료들끼리 모여 배낚시를 가는 정도지요. 인천 연안부두 가면 하루 배 빌릴 수 있어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등산복이 유행하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술 한 잔 하며 고스톱 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근무한 정밀화학 쪽엔 주변에 갈 수 있는 식당이 마땅치 않았어요. 동료들과 가는 몇 군데 식당이 있는데 지금 SK아파트 있는 그 옆에 중국집도 있었고, 또 조개구이집도 있었고요. 무기화학 쪽 직원들은 후문 근처 식당에 자주 갔죠. 기숙사 애들은 기숙사 바로 밑에 식당들이 있어 거의 살다시피 했고요. 저는 초중고 동창들이 다 인천에 있으니까 굳이 회사 동료들이랑 자주 어울려 다니진 않았어요. 술 먹고 노는 건 부차적인 거고, 직장생활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천의 인재가 많았던 현장

1990년대 초반쯤 되면 회사가 엄청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예전에는 공고 나온 사람, 심지어 중학교 나온 사람도 현장 기능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19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전문대, 특히 인하공전 출신들을 많이 뽑았어요. 무더기로 들어왔죠. 우리 인천기계공고 출신들도 많았어요. 내가 1981년에 입사했을 때 직원이 천 명쯤 됐는데, 동문회 보니까 기계공고 출신이 한 70명 돼요. 그 정도면 꽤 많은 거죠. 나중에는 인하공전, 동양공전, 유한공전 출신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36년 근무하는 동안 인천의 인재들이 동양화학에 참 많이 들어왔구나 생각해요.

내 인생 30여 년을 여기서 보냈고, 가족들 먹고 살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물론 젊을 땐 불만 많았지요. 직장인은 누구나 그래요. 돈 받는 사람은 늘 적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결국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회림 회장님은 마지막 개성상인이라고 해요. 어려운 시절에 남의 집 살이 하면서 기업을 일군 분이죠. 대단해요. 송도고등학교도 개성에서 내려온 거잖아요.[5] 1980년대 초 학교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회장님이 도왔던 걸로 알아요. 직접 만나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매년 종무식이나 시무식 때 오셔서 연설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쭉 서 있거나 앉아서 듣기도 하죠.

포천에 연수원이 있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 산림녹화 있잖아요? 그때 대기업마다 '삼성, 이 산 사서 녹화해.' 이런 거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동양화학에서는 개성 가까운 포천 쪽에 아주 넓은 부지를 샀어요. 그걸 연수원으로 한 거죠. 직원들이 동양화학 이름 새긴 유니폼 입고 정기적으로 교육받았어요. 초창기 1980년대는 회사가 교수들 초빙해서 강연과 교육하고 그랬어요.

퇴직 후 근황

2017년 퇴사하고 2018년까지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후배가 직원 200명 정도 되는 식품회사에 다니는데 거기다 이력서 내니까 채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동양화학에서 폐수처리장 관리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을 왜 뽑나 했

5) 1906년 윤치호 선생이 개성 송악산 기슭에 개교. 1953년 인천으로 피난을 와 중구 답동에 자리 잡았고, 지금은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함.

더니 폐수처리장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냄새도 심하고, 힘들고 하니까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나이가 있어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관리하는 일이라 그나마 나은 편이지요. 그래도 힘들어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약을 많이 먹어요. 회사까지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만 보 이상은 걸어요.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어요. 휴일엔 친구들 만나고, 장수동 인천대공원도 돌고. 일주일에 5일은 운동해요.

대한민국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네 부부랑은 30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런 부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도 동양화학 출신들이랑은 두 달에 한 번씩 열댓 명이 모여서 밥 먹고, 옛날 얘기 하지요. 옛 동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있고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5. / 2025. 8. 16.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김용경(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정지선, 표기자(미추홀시민기록단)



동양화학의 동반자,
협력업체 삼영사



김진수

1957년 서울 출생
1986년 삼영사 입사
2004년 삼영사 폐업
2005~2025년 동양화학 연관 업무 수행 후 은퇴

김진수 님은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인천 중구 전동으로 이주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방학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삼영사에서 석회류 임가공 일을 돕다 군 제대 후 1986년 정식 입사해 공장 경영과 현장 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삼영사는 동양화학 인천공장 부지 내에 공장을 두고, 동양화학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석을 재활용하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협력업체로 성장하였다. 킬른에서 석회석을 구울 때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남은 부산물을 모아 자연발화시킨 후 재활용하고, 슬러지는 콘크리트처럼 제방 둑을 쌓는 방식으로 원가절감에 기여하며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같은 공정은 동양화학의 24시간 생산 라인과 연동되어 맞교대로 운영되었다. 1년 365일 쉼 없는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어진 업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직성이 풀렸기에 입사 후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양화학이 중국산 소다 유입과 시장 변화로 2004년 3월 31일 인천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삼영사 운영도 같이 종료되었다.

이후 그는 동양화학 연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은퇴하였다. 그는 동양화학 인천공장 부지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모습, 그 현장에서 기나긴 세월 땀 흘리고 함께 고생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잠시 울먹인다. 현재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인천에서 자라,
아버지가 시작한
삼영사와 만나다

저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3살 때 인천에 와서, 초, 중, 고,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아버님은 처음 인천으로 와서 해외 원조물자가 들어올 때 미군 물자를 맡아 업체에 나눠주는 일을 하셨어요. 대한제분이 있는 월미도 항만으로 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리어카 끌고, 차 끌고 오는 사람들에게 원조물자를 나눠주는 일을 하신 거죠. 한번은 큰일을 하시려다 부도가 나서 망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허름한 집으로 이사 가서 작은 아버지 식구와 할머니까지 한 집에서 16식구가 살았어요.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식구들 다 먹이고, 가르치고,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요.

아버지는 삼영사라고 석회류 임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1973년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삼영사, 동양화학의 석회석 재활용과 슬러지 처리를 맡다

학교 졸업하고 다른데서 일하다가 1986년에 아버지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했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직원이 20명 내외였어요. 다 줄이고 필요한 것만 한 거죠.

삼영사에서 한 일은 킬른에서 석회석이 구워질 때 다 구워지지 못해 오버된 것을 넓은 면적에다 자연 발화시킨 다음 그걸 재활용해 본청에다 다시 집어넣는 일을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고, 슬러지라는 찌꺼기로 둑을 쌓는 거예요. 공장 밖에 파란 물 담아놓은 둑 있잖아요? 그 둑을 슬러지로 쌓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처럼 달라붙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을 동양화학의 24시간 공정에 맞춰 운전하면서 계속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동양화학은 3교대지만 우리는 맞교대를 했어요. 이 작업이 1980년대 초에 시작해 1995년 경 까지 풀가동 되었어요. 제가 1986년에 입사를 했으니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를 못했죠.

저요? 사람들이 제가 대표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평범하고, 털털해요. 사람들이 대표라고 부르니까 그런 줄 알지, 본청에 있던 후배들도 "저 형님은 사장 같지도 않아." 그래요. 특별하게 트러블도 없어요. 웬만한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놓고 그러니까요.

식사는 식당에서 가져와 여기 사무실에서 같이 나눠서 먹고 그랬어요. 바쁘면 내가 자전거 타고 식당에 가서 20인 분 정도 찬합[1]에 싸 갖고 오는 거

1) 찬합(饌盒)은 밥과 여러 가지 반찬을 층층이 포개어 담아 간편하게 나눌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전통 그릇이자 다단식 도시락이다.

죠. 옛날 직원이 많았던 아버님 때는 도시락을 가져와 먹었나 봐요. '여기서 밥을 먹을래, 식대 받을래.' 그러면 돈을 달라고 했대요. 살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1970년대는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야간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사다 놓으면, 다들 알아서 끓여서 먹고 그랬어요. 취사할 수 있게 다 시설을 해 놨어요.

소다 공장 꺼진 거는 2004년도 3월 31일이에요. 소다 공장이 셧다운 된 거죠. 그러면서 삼영사도 끝났죠.

학익동 공장 노동자들을 기억해주길 바라며

OCI 인천공장 하청업체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 회사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니 격세지감이 들어요. 결국 개발되면서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 도리가 없죠.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아휴! 여기 있다가 떠난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가슴 아픈 사람도 있고. 55만 평 부지에서 노동자든 관리자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고생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책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야 미래가 또 보이잖아요. 애쓰셨고, 책이 잘 편찬돼서 좋은 기록으로 남아 읽는 사람한테 좋은 미래, 좋은 일만 가득하면 아주 바람이 없겠습니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25. / 2026. 6. 26.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허은영(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정지선, 이혜숙(미추홀시민기록단), 박인옥(시민기록 멘토)



동양화학 36년,
청춘을 바쳐 현장을 지킨
평생의 월터



한규섭

1956년	서울 출생
1974년	단국공업고등학교졸업
1974년	(주) 흥립기계 입사하여 약 3년 근무 후 군 입대
1981년	대원강업 입사 후 약 10개월간 근무
1981년	동양화학 인천공장 입사
2017년	동양화학 퇴사
	현재 신한영관리(주)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중

한규섭 님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작은아버님의 소개로 1981년 동양화학에 입사하여 인천에 정착하였다. 이전 직장의 불안정한 생활에 비해 동양화학은 그에게 안정적인 최고의 직장이었다. 입사 후 동양화학에 대한 첫인상은 삭막함이었다. 도로와 주변은 온통 시커멓고, 공장도 잿빛인 탄광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의 첫 부서는 동력과(압축실)였다. 동력과는 생산 공정에 필요한 가스, 에어, 공업용수, 냉각수 등을 공급하는 부서다. 방 하나 크기만 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압축기 6대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업무였다. 신입사원 시절 무서운 반장들과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기계에 광이 날 정도로 경유 걸레질을 하는 엄격한 현장 분위기에서 일했다.

이후 현장 반장으로 승진해 망초 생산 부서로 배치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고를 겪었다. 정전 직후 직원의 실수로 덮개가 열려 있던 배수로로 넘친 100도가 넘는 끓는 물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살을 긁어내는 고통스러운 병원치료를 한 달 넘게 하면서도 생산현장을 지켰다. 그는 나이나 직위와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조원들의 신뢰를 받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그에게 동양화학은 '나의 청춘' 그 자체라고 한다. 36년 세월을 동양화학에 몸담아 청춘을 바친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장 터의 거대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런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매일 마주하던 공간들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짙은 아쉬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동양화학의 존재와 삶의 기록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화학 인천공장에 첫 발을 디디고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학교는 전곡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단국공업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흥립기계와 대원강업에서 몇 년 근무하다 작은 아버님 소개로 1981년 동양화학에 입사했어요. 그 당시 작은아버님이 동양화학 서무과에 계셨는데 인천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동양화학은 빚도 없는 회사라 걱정할 게 없고, 월급과 보너스 400% 꼬박꼬박 나온다며 인천에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려오게 된 거죠. 작은아버님도 나를 실험실 쪽으로 빼주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내가 무슨 화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가서 괜히 헤매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가지 않길 잘 했죠.

인천에 왔는데 동양화학은 내 기억에 그냥 무슨 탄광 같이 느껴졌어요. 도로와 주변이 시커멓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게 동양화학 공장 터였더라고요. 입사해서 아침에 출근해 오후 저녁 때 퇴근하는 건 줄 알았더

니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뭐 작은아버지 소개로 왔으니까 당장 싫다고 그만둘 수는 없고, 한 2년 동안 적응이 안 돼서 고생했어요. 밤에 잠 안 자고 일하니까 위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암포젤(Amphojel)[1]이라는 파란 병에 든 하얀 위장약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요새로 말하자면 겔포스 같은 현탄액이 들어 있는 암포젤(Amphojel)을 두 병을 사서 집에다 하나, 회사에다 하나 놓고 그거 먹었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교대 근무하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평일에 쉬면서 복잡하지 않을 때 볼일 보러 다니고, 여행을 가고. 어디 잠깐 다녀와도 평일에 다니는 건 참 좋더라고요.

동양화학 동력과로 발령받다

1981년에 입사해 첫 부서가 동력과[2]예요. 우리는 유틸리티 서비스(Utility Service)[3] 파트예요. 동력과는 발전소하고 압축실로 구분돼 있는데, 나는 압축실에서 근무했어요. 말하자면 생산하는 공정의 각 플랜트(Plant)에 필요한 게스(Gas), 에어(Air), 공업용수, 냉각수 뭐 그런 걸 공급을 해주는 플랜트(Plant)죠. 압축실은 우리가 보는 소형 콤프레샤(Compressor)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계예요. 기계 하나가 방 크기만 해요. 톤(Ton)으로는 아니고 마력,

1) 암포젤정은 과량의 위산을 소화에 알맞게 중화시키며, 궤양 염증 부위를 피복. 보호함으로써 위산과다,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염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2) 인천 동양제철화학(현 OCI) 공장은 5개의 '메인 공장(Main Plant)' 체계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동력공장은 자체 열병합발전(Cogeneration) 설비를 보유, 고온 폐열 회수, 전기 및 스팀을 직접 생산하여 각 공장으로 공급하였다.

3) 전기, 열, 스팀을 공급하는 파트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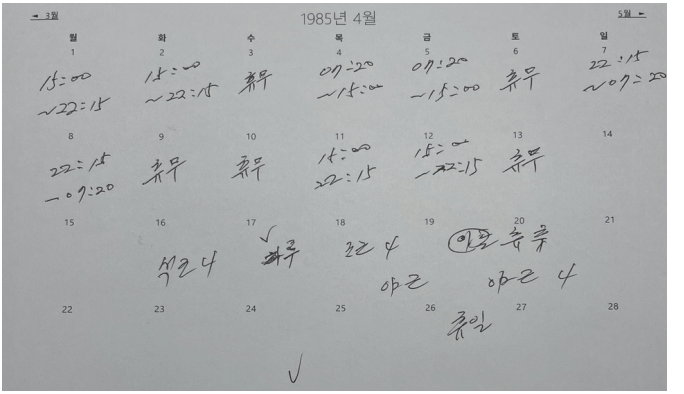
캐파(Capacity)로 따졌을 거예요. 그 기계가 좌우지간 4대, 그리고 작은 거 2대, 총 6대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각종 펌프(Pump)가 수십 대 있었죠. 메인 프로젝트(Main project)는 스케일(Scale)이 커요. 돌아가는 거는 두 대 정도 돌아가고, 두 대는 대기(Standby)해요.

시간이 해결해 준 고된 4조 3교대 근무

압축실 근무는 3조 3교대 근무였어요. 나중에 4조 3교대로 바뀌었죠. 7시 20분부터 15시까지 오전, 15시부터 22시 15분까지 오후, 22시 15분부터 7시 20분까지 야근으로 4조 3교대를 1주일 단위로 일해요. 예를 들면 15시 출근 22시 15분 퇴근하는 오후 근무를 4일 하고, 다음 날 휴무. 그 다음에 오전 근무로 7시 20분 근무해서 15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이틀 쉬고 야간 출근.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 7시 20분부터 15시까지 4일 근무하고 휴무 둘, 22시 15분부터 7시 25분까지 야근 4일 근무하고 휴무 하루 이렇게 교대 근무하죠. 한때는 구조조정으로 인원 줄어 7조 3교대도 했어요. 근무 1조 2명씩 7조로 변경해서, 하루하루 파트너가 바뀌며 근무하는 방식으로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냐하면 일단 옛날에도 월차, 연차가 다 있었고, 정기 휴일을 쓴다든가 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근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15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출근을 못하면, 그날 아침에 출근

한 사람이 15시에 퇴근하잖아요. 그 오전반 중에서 한 명이 내 근무까지 연장하여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아요. 자기 일당의 플러스 1.5배, 플러스 0.5배해서 150%의 수당까지 받는 거예요. 대타로 들어갈 때 꺼려하기보다는 뭐 그때는 돈이 우선이었으니까 관례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 많았죠. 한 조에 한,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레벨이 맞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4조 3교대 근무를 설명하는 예시

처음 입사해서 3교대 근무가 힘들긴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주위에 교대 근무 적응을 못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생활 리듬이 깨지니까 힘들죠. 근데 다행인 것은 내가 밤잠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남들보다 적응을 잘했죠.

우리가 야근할 땐 원칙적으로는 올 나이트(All night)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그냥 밤을 새우냐고요. 아무리 안 잔다고 해도 중간에 졸려서 꾸벅꾸벅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재량껏 반씩 나눠서 근

무를 서는 거예요. 내가 현장 신입사원으로 동력과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현장의 옛날 반장들은 아주 어려웠어요. 감히 접근을 못 하고, 회사 쪽에서도 현장 반장들을 무시 못 했으니까요. 사실 야근할 때는 들어가 있었고, 주간, 아침 근무할 때는 밖으로 돌며 기계 확인하고, 경유를 걸레에 묻혀서 기계 닦고 이랬어요. 하여간 공장 안에 들어가면 기계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일을 했어요.

정전사태와 심각한 화상을 입다

1990년대 초에 망초생산부서로 발령받아 반장으로 일했어요.[4] 망초생산부서는 메인 플랜트(Main Plant) 공정의 축소판으로 그 규모가 작지요. 반장으로 발령받아 입사해서 밟아왔던 일을 총괄하는 현장 책임자죠. 생산현장 일은 똑같은데 반장은 자기 조원들 컨트롤하고, 서포트하는 일을 합니다. 조원은 4명 정도 있었어요.

망초생산부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 모니터 보고 근무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못 견딜 정도 힘들지는 않아요. 동력과에 근무할 때는 정전이 자주 발생했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천둥 번개 친다든가, 아니면 용량이 오버된다든지 해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정전됐던 것 같아요. 전기가 죽어버려 기계가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면 5~10분 이내에 바

4) 망초는 황산나트륨을 말한다. 소다생산 공정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부서다.

로 정상화 시켜요.

망초생산에 근무할 당시 정전으로 기계가 멈췄을 때 제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망초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요. 라인, 배관 같은 곳에 스케일(Scale)[5]이 끼면 그걸 청소해야 돼요. 공정 중에 증발관하고 결정관이라는 파이프(Pipe)가 있어요. 104도, 106도 정도 온도에 압력을 맞춰서 증발시키고, 결정관이라는 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드라이(Dry)해서 말리면 제품으로 나와요. 이 공정에서 정전이 됐어요. 모든 기계가 꺼지니까 각 탱크에 106도, 104도 팔팔 끓는 물이 넘쳐 배수로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들어와야 돌려서 조치하잖아요.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기가 딱 들어와서 내가 현장으로 먼저 뛰어나갔죠. 근데 스위치 박스로 가는 길에 있는 배수로에 발을 푹 담근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고 104도, 106도 끓는 물이에요. 거기 배수로 위에 랜딩(Landing)이라고 철판이 깔려 있는데, 누가 그걸 치워버린 거예요. 랜딩(Landing)이 있는 줄 알고 밟았더니 쑥 들어가 안전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양쪽 발을 다 데었어요. 소방대원들 신는 그런 장비도 아니고 그야말로 안전화만 신고 있었는데,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거죠. 그때 겨울이었는데 화상의 고통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무지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물집이 이만큼이 올라오더라고요. 탕비실 싱크대에 물 틀어 놓고 식힌 후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발을 빼니까 무지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참 미련한 게 타월에 물 좀 적셔서 싸매고 갔으면 고통이 덜 했을 텐데 그 아픈 걸 참으면서 갔어요.

옛날 숭의동에 있는 적십자병원으로 갔어요. 알코올을 막 뿌리니까 시원하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더니 핀셋(Pincette)으로 그냥 팍 잡아 뜯는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모르핀(Morphine) 맞고 견뎠어요. 입원

5) Scale은 주로 물속에 녹아 있는 광물 성분이 배관 표면에 침착되어 형성된 고형물을 말한다.

해서 제일 무서운 게 아침 한 10시 되면 간호사가 저기 복도에서 달달달달 끌고 오는 소리가 들려요. 붕대 풀면 진물하고 약하고 거즈(Gauze)하고 쫙 달라붙은 걸 사정없이 떼어 내요. 그냥 의사가 콱콱 잡아 뜯어. 반 죽는 거예요. 자지러져요. 그러고 나면 또 긁어내요. 안 긁어내면 흉이 진다고 팍팍 긁더라고요. 데인 살을 긁어내는 거를 한 열흘 넘게 했나 봐요.

그래서 공상처리[6]하고 나중에 출근했는데, 우리 근무자 하나가 나한테 쓱 오더라고요.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말해봐." 하니까 "그 덮개, 제가 청소하고 덮지 않았어요."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자기가 안 덮었대요. 얼마나 고마워. 착하고.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사고 난 날 외부 사람들이 작업하고 뚜껑을 덮지 않은 채 그냥 간 거로 생각해 작업한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한 달 넘게 마음고생 했겠죠.

현장에서는 나이, 직위를 떠나 공평해야

나도 까칠한 편이지만 동료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한두 사람씩 꼭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바른 소리 했어요. 반장 잘못 만나면 힘들어요. 노골적으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현장 반장은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판단, 신속한 조치를 하는

6) 사전적으로 공상(公傷)은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의미하지만, 실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 보상을 지칭, 공상처리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거예요. 수학 잘하고, 방정식도 중요하지만 공정의 흐름과 현장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비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면 현장에서는 최고거든요. 그것이 경력이고 노하우이며, 큰 사고를 방지하죠.

우리 초창기 만 해도 안전 개념이 없어서 안전모가 벽에 걸려만 있지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다녔다니까요. 우리 쪽은 콤프레이션(Compression) 소음 때문에 귀마개는 했는데, 안전모는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반장이라는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포마드(Pomade)[7]를 발랐어요. 구두코가 맨날 반짝반짝해서 안전화도 안 신어요. 그러니까 트러블 나면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해요.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을 막 뛰어가며 조치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거 열어', '저거 잠가' 소리 지르면서 손가락질만 했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 반장들이 파워가 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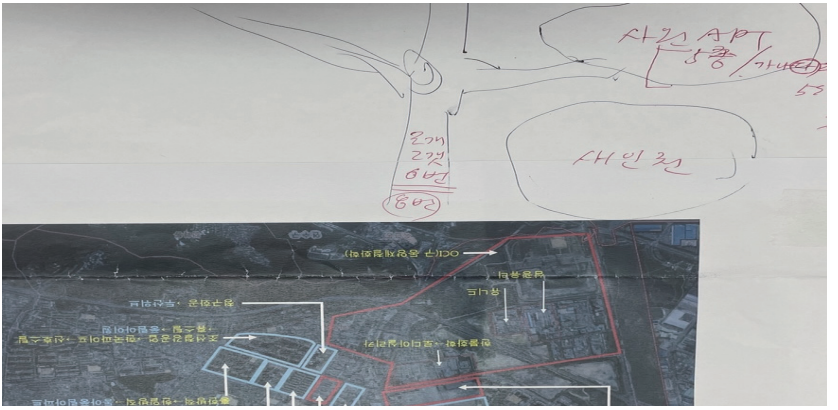
나이, 직위 그걸 떠나서 공평해야 되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갈등 생기고 그런 거라고요. 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내 할 몫을 다 하고, 떳떳하게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사원아파트 입주와 작은아버지에 대한 기억

내가 신혼 때는 청학동 150만 원짜리 단칸방 전세 살다가 만수동 주공

7) 포마드(Pomade)는 헤어 스타일을 가꾸는데 사용하는 기름지고 왁스 같은 물질이다. 영어로는 포메이드(/pɒ'meɪd/)라고 발음하나, 연고(Ointment)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단어인 포마드(Pommade)로 발음하기도 한다.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다가 5층 건물 사원 아파트 입주 자격이 돼서 들어갔죠. 거기는 가, 나, 다, 라, 마 건물에 나는 '다'동에 살았고, '마'동은 독신자 아파트예요. 총각들이나 아니면 집이 먼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살았고요. 거주 자격은 근속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18평, 큰 평수가 22평인가? 24평인가? 잘 모르겠네요. 간부들은 20 몇 평을 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18평을 줬어요. 방이 두 개인데 안방이 커요. 안방이 제법 커서 침대 놓고 널찍했으니까. 동양화학에서 사원 아파트까지 걸어서 출근하거나 자전거 타고 출근했어요. 걸어서 가면 한 10분이면 가죠.



구술자가 사원아파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

사원 아파트가 새인천 풀장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있었어요. 새인천풀장 이야기 하니까 작은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작은아버님 이름이 '한자, 도자, 희자'인데 여기 관리를 했어요. 서무과에 근무하실 때 7~8월 풀장 파견 나가서 총괄 관리를 했어요. 거기 운영하려면 입장료 받고, 식당이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또 월세를 받잖아요. 우리 작은아버

님이 투명하게 관리해서 나름대로 신임을 얻었어요. 사람들 차별을 안 했어요. 현장 일용 노동자들한테도 얼마나 깍듯이 했는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내가 조카인 줄도 모르고 나한테 작은아버님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제일 비참하고, 화가 나는데 우리 작은아버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직원이나 일용노동자나 똑같이 대해주셨더라고요.

청춘을 함께한 동양화학

평범한 삶이 제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그저 사람이 평범하게, 가족들 아프지 않고 살면 제일 행복한 거죠. 퇴직하고 2년간 동양화학 촉탁으로 일하다 지금 DCRE 건물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평범함 속에 기쁜 일이 많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와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두 번이에요. 옛날 조개고개 좁은 도로에 6번 버스[8] 한 대 다니는 그런 도로였는데, 옥련 터널이 뚫리면서 그때 많이 변했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잖아요. 동양화학 공장 부지에 신도시가 하나 생기니까요. 주거지가 자꾸 들어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진 앨범 쫙 들치면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며 추억해요. 동양화학은 나의 청춘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술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의미가 있고, 이 기록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볼 일이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감회에 젖으면 좋겠어요.

8) 인천 송도유원지 B ~ 선학역 간을 운영하였으며 본문에서 언급한 지역의 주요 정거장은 옥련 고개A-옥련여자고등학교-조개 고개-동양화학 B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6월 기준).



구술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인방송 사옥, 2024년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1. / 2025. 7. 30.
· 장소: 경인방송 건물 경비실,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강인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김용경(미추홀시민기록단)



자식 교육을 위해 거친 노동을 이겨낸 여성노동자, 우리의 어머니



이옥순

1942년	강원도 평창 출생
1963년	어른들의 주선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 결혼
1974년	학익동으로 이전. 한국농약, 한일방직 생산직 노동자로 일함
1986년	동양화학 입사
2000년	동양화학 퇴사
	현재 미추홀구 학익동에 거주하고 있음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이옥순 님은 아홉 살 어린 나이에 6.25 전쟁의 포성을 들으며 굴곡진 삶을 살았다. 눈앞에서 사촌 언니를 앗아간 비극은 어린 소녀에게 전쟁의 공포 그 자체였다. 비록 시대의 비극과 가난으로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여성노동자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거친 노동환경과 가난을 헤쳐 나갔다.

스물한 살에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남편은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평창에서 '내 자식들만큼은 이 산골에서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며 인천으로 향했다. 남편 지인의 소개로 학익동 집에 잠시 머물다 동양화학 뒤 오동백이에 자리를 잡았다. 담배공장과 월남마을, 소 키우는 곳이 마을 옆에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녀가 처음 마주한 노동 현장은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농약 공장이었다.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일을 해야 했다. 퇴근할 때면 온몸에 묻은 독한 가루 때문에 눈과 코가 짓무르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일쑤였다. 동양화학에서는 20kg이 넘는 무거운 포대를 하루 종일 나르며 어깨가 내려앉는 고통을 겪었다. 365일 쉼 없이 돌아가는 공장 라인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이는 아찔한 사고도 목격하였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 때였다.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생산현장을 목격하고도 자식들의 등록금과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비를 아껴 저금통을 채웠다.

쉼 없는 고된 노동은 자식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지금도 가슴 한 켠을 무겁게 한다. 그럼에도 그녀가 용현동의 매캐한 냄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성노동자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국전쟁과
가족에 대한 기억

태어난 곳은 강원도 평창이에요. 1942년 태어나 8남매 중 셋째입니다. 그 당시 다 어렵게 살긴 했지만 우리는 꽤 많은 벼농사도 지었어요. 9살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비롯해 집안 남자들 5명만 경상도로 피난을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애들하고 여자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내 위에 언니도 포격을 맞아 죽고, 사촌도 죽고, 다 죽었어요.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니 어떻게 건사해. 할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공호에도 못 들어갔어요.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하고 애들은 다 못 갔어요. 포탄이 날라다니고 터질 때 애들은 전부 산속 큰 소나무 뒤에다가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눈에 녹아가지고 쑥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 이북 사람들이 전부 피난 와서 이북사람들로 꽉 찼었어요.

1963년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생활도 평창에서 시작했고요. 시할아

버지가 시골에 계시면서 그 동네에서 한문 가르치고, 묫자리 잡고, 이름도 지어주고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선생이고, 시아버지랑 작은 시아버지도 선생이었어요. 어느 날 시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날 본 거여요.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인데, 졸업하고는 떠났으니 그땐 잘 몰랐지요. 어른들이 주선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연애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서. 내가 결혼하던 그해 봄에 평창에서 군수 양반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모시고 글짓기 대회 했는데 거기서 장원해서 황소를 탔어요. 그 황소를 한 3~4일은 끌고 왔을 거예요. 강릉에서 집까지 끌고 와서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복 있는 여자라고 시할아버지한테 대우 많이 받았어요.

콧물 눈물이 범벅인 채 다닌 농약공장

평창에서 결혼하고 애들 셋 거기서 다 낳았어요. 교육자이신 시할아버지, 작은 시아버지가 공부 가르친다는 건 반대 안 해요. 애들 공부 가르치려 인천엔 가야겠다고 하니까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열로 왔어요.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인천에 와서 살아서 그 연줄로 오게 된 거지요.

인천에 도착해 동양화학 뒤쪽, 그 동네 이름은 모르겠고, 남편 친구 집에 며칠 묵다가 방 얻어 지금 태산아파트 인근의 오동백이로 올라왔어요. 옆에 소를 기르는 집이 있었고, 남편이 일한 청구화학이라고 담배공장도 있었어요. 처음 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에 좀 있다가, 아무래도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섰어요. 남편이 못 다니게 하는데도 애들 셋에다 학교도 보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벌려고 나섰던 거지요. 그때 시작한 일이 도라지 까기, 뜨개질 부업을 하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기타공장, 한일방직, 농약공장을 다녔는데 얼마 안 다녔어요. 그때는 나이를 엄청 따졌어요. 결혼했다고 채용하지 않은 건 아닌데 30대인데 나이 많다고 써주질 않았어요. 한일방직은 원단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솜뭉치를 가지고 실 뽑아서 처음에 굵게 나오면 그게 차츰차츰 내려가 가지고 광목 실이 되는 거예요. 원단은 기계가 짜고요. 한일방직도 1~2년 다녔나? 한일방직을 그만둔 게 딱히 뭔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월급 좀 더 주고, 나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한 푼 더 받으려고 그만둔 거죠.

농약공장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랬으니까요. 유제장[1]에 들어가서 기계 앞에 앉아 약을 뽑아요. 기계 밑에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초벌 병뚜껑 덮고, 그다음에 또 덮고. 나는 약을 뽑아서 내려보내면 밑에서 전부 병뚜껑 막고, 저 밑에서 곽에다 넣어 포장하는 과정이에요. 만들어진 거 위에서 내려오면, 나는 병에다가 기계를 꽂지. 병이 한꺼번에 그게 쫙 들어가서 쫙 내려가고, 쫙 내려가고 해요. 위에서 제품을 만들어 통에다 주면 밑에서 그 약을 뽑아가지고 아래로 내려 보내면, 아래에서도 두 줄로 앉아 갖고 고무마개 막고, 그다음에 위에 깡통 같은 그런 거 막는 사람이 양쪽에 마주 앉아서 일해요. 약이 독해 얼굴이 빨개가지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었어요. 농약 공장이나 한일방직에는 남자가 드문드문 있어 전기 같은 거를 다루었고, 다 여자였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니 일을 한 거죠.

1) 제조된 농약을 담고, 포장하는 생산라인이다.

동양화학 옥시크린 포장라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동양화학에는 1986년에 들어갔어요. 그 전엔 여자들은 안 썼는데, 쓴다고 해서 한 번 가봤죠. 여자들 여러 명이 갔는데 오래 일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동양화학 출근 첫날은 가슴이 설레고 호닥호닥 했어요. 아무래도 기가 죽고 그렇지요. 맨(모두) 남자들인데. 남자들은 3교대를 하는데 우리는 8시 반 출근해서 5시 반 퇴근했고. 잔업을 하게 되면 밤 10시 반까지 했어요. 나는 옥시크린 만드는 유기화학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포장하는 일이란 얘기는 들었는데 포장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TT[2]라고 하는 제품을 옮기는 일도 했어요. 남자들이 작업한 원료가 면 넓은 갑바 천 쪽에 제품이 떨어지면 물이 밑으로 새면서 탈수가 되요. 큰 통으로 모여져요. 거기에 철망 같이 이렇게 깔린 위에다가 보재기를 깔고, 삽으로 떠서 거기다 올려 손으로 다 펴요. 키가 높은데, 사이 사이에 껴 갖고 TT를 담은 보재기를 당기고, 밀고, 끌어서 건조실에다 넣어 또 건조시켜요. 건조가 되면 그걸 끌어내 또 통에다가 털어요. 보자기고 뭐고 다 털면 약 제품(TT)[3]이 얼마나 날리는지. 20kg 푸대자루에 가루가 실려 오면 저울에 달아 그 입구만 미싱으로 박고, 딸딸이에 넣어서 파레트 갖다 놓으며 나가요. 엄청 힘들었어요. 또 M이라고 부르는 노란 가루도 있었어요.

2) 화이트 카본을 일컫는 말인데, 화이트 카본은 고무, 플라스틱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백색 분말성 충전재로 내마모성, 강도, 내열성 향상에 기여한다.

3) 화이트카본(하얀가루)는 티티(T.T) 노란가루는 엠(M)이라고 포대(푸대)에 '도장 지대'라고 불리는 표시 구역이 있었고, 거기에 제품 기호를 TT. M이라고 찍었다는 뜻이다.



1960년대 소다회 포장 작업 모습, OCI 50년사

노란 거는 이제 얇은 고무장갑 같은 원료. 그것도 다 원료가 따로 있어요. 그 타이어 만드는 거, 또 억센 고무 만드는 거, 보드란(부드러운) 거 만드는 거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힘들고 약이 독하고 그러니까 소개 못 해요. 온다고 해도 '못 베긴다, 오지마라.' 했죠. 20kg짜리 약포대를 하루 종일 담아 운반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장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밥 배식도 했어요. 밥은 동양화학 안에서 만들어서 싣고 와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도로를 건너야 하니 거리가 멀어서 남자들이 구

루마에 끌어와요. 리어카에다 조그맣게 식당을 지어놓고, 우리들이 배식을 해줘요. 설거지도 해요. 사무실 청소도 했어요. 그냥 해라하니까 했어요. 이런 것 차별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엔간해야 사람들이 오죠? 아주 제품이 종류가 많으니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돌아가는 걸 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에요.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댕기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댕겼더라고요. 일용직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아요. 남자들도 안 시켜줘요. 그때는 용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일용직으로 채용을 많이 했어요. 용역이 생기면서 다 채용이 된 거예요.

작업장의 안전사고를 목격하다

회사에서 마스크를 주는데, 여름에도 마스크 속에 가재(거즈) 이만한 거 착착 접어가지고 속에 넣고, 위에다 마스크 쓰고, 우비 모자 쓰고, 이렇게 짬매지. 여름에도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일 했어요. 그렇게 써도 그 독한 약이 코로 다 날라 들어가요. 막 때끔때끔해서 뻘개져요. 그래도 그 독한 약이 코로 다 들어가요. 그 넓은 현장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대형 선풍기가 있는데, 틀면 그 가루가 다 날려서 가루가 피해 나가는 쪽으로 틀어 놓아요. 겨울은 그래서 여름 보다야 낫지요. 신발은 구루마에 깔리면 발 다친다고 쇠 있는 워커 신발을 신었어요. 안전모자도 쓰고, 근데 안전모자는 남자들만 쓰고 여자들은 마스크에 우비모자까지 쓰니 안 썼어요.

1월 1일 한 아줌마가 빨리하고 간다고 내 일을 도와준다며 일하는 곳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된다." 했는데 자동으로 도장 찍고 미싱으로 나갈 때 앞 포대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당황해서 들어간 겨. 들어갔는데 '아야' 그래요. 얼른 돌려다 봤더니 기계가 오면서 아줌마 머리를 찍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데리러 막 뛰어댕기고 이랬으면 더 큰일 났을 텐데, 뛰어가서 스위치를 내렸어요. 그래 내리니까 그 기계가 털컥 나가며 아줌마가 뒤로 펄떡 넘어가더라고. 머리가 푹 찍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상처에 대고, 소리 소리 질렀죠. 거기는 그 여자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냥 소리 지르니 애들이 뛰어와 남자 하나가 업고, 나는 옆에 붙어서 사무실 차 타고 병원에 간 거죠. 얼마나 힘을 주고 갔는지 며칠이 팔을 못 썼어요.

안전교육 받을 때 갔는데 "어떻게 전원을 끊을 생각을 했냐."며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전원을 껐으니 살았지, 전원 안 껐으면 죽었어요. 포대가 쓰러져도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들어 간 거죠. 그러고부터 안전모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아줌마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동양화학은 365일 계속 가동을 하니까 우리는 교대도 안하지, 여름휴가도 없어요. 제품 빼주기 때문에 맨날 나가야 해요. 그래서 보너스도 줘요. 빨간 글씨 다 수당 다 나오고 잔업하고 그러니까 곱으로 수당 다 나와요. 잔업 하는 날은 저녁 먹고, 빵·우유도 주고, 구내식당 음식도 괜찮아요. 장어, 삼계탕도 나올 때 있고,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이면 옥시크린, 물 먹는 하마도 주고, 명절에는 선물세트도 주고 그랬어요.

여성 노동자로서 엄마의 부재와 자녀에 대한 미안함

주변에서 아저씨들은 '아줌마들 대단하다.' 그래요. 모두 나보고 '억척스럽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좀 댕기다가 안 댕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댕기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댕겼더라고요. 내가 성질이 설렁설렁 분위기를 잘 맞추거든요. 내가 없으면 심심하다 그랬어요. 힘든 거 잊고 즐겁게 일을 하고, 서로가 재미있게 일 잘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공장까지는 막 뛰다시피 걸어서 갈 때도 있어요. 차비 아끼느라 회사에다 저금통 이만한 걸 놓고, 차비 넣어 모으면 몇 만 원씩 되더라고요. 애들 책 사주려면 그거 갖고 사주고, 또 납부금도 냈어요. 없어서 남한테 손 빌리는 것보다 내 육신을 움직여 갖고 벌어서 쓰니까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때만 해도 먹을 거 없어 쩔쩔매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 밥이라도 먹인다고 그냥 열심히 자부심 갖고 다녔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높은 급여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모아가지고 살았어요.

당시엔 물이 귀했어요. 우리 살던 동네에 수돗물은 없고,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때 일 갔다 오면 손 씻을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 지금도 그놈의 물 퍼 나르느라고 힘 들었다 얘기해요. 전부 줄 서서 기다려 동네 사람이 다 퍼 나르니, 그 우물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빨래 같은 거 동양화학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도랑에서 내려온 물로 빨래를 해요. 동양화학에 가지고 가서 하기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일찍 가서 수돗물로 빨래해요. 겨울에는 아저씨들 보고 스팀 파이프에 줄을 매달라고 해가지고 빨래를 거기다 놓고 나오면 저녁에 말라요. 빨래 널구 하는 거 누가 봐도 뭐라 말 안 했어요.

애들도 고생 많이 했지요. 나는 회식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가려면 애들 집에 놔두고 가는 게 맘에 걸려서 안 갔어요. 애들 집에 놔두고 나 혼자 어디 놀러 가본 역사가 없어요. 애들은 집에 들어와도 엄마가 없어서 집 오기 싫다고 했어요. 나도 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엄마 고생 했어' 소리 안 해요. 서운하죠. 그래도 난 서운하다 말 못해요. 딸이 표현은 그렇게 해도 지가 알아서 동생 교복, 자기 교복 다 빨래하고, 다려줘요. 그래 하는데 보면 안쓰럽죠.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걸 쟤가 저래 다 하는구나.' 하고 딸한테 항상 마음속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게 지금까지도 너무 미안하죠. 사실 어려서는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싶잖아요. 근데도 마음대로 나가 놀지 못하고,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 작은아들은 대학교 댕기더니 안 댕기더라고요. 하기 싫은 공부를 맨날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 형만 가르쳐."해요. 걔는 동양화학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 얼마 못 다녔어요. 동양화학 군산으로 이사하면서 그만뒀어요. 그래도 걔가 버는 돈은 내가 하나도 안 쓰고 저금해서 아파트를 사줬어요. 큰아들은 인하대 졸업하고, 한국통신에 붙은 거예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가 공부해서 인하대 졸업하고 취직을 했으니 그때 기분이 그래 좋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안성으로 발령 나고, 나중에 부평으로 와서 다니다 개인 사업한다고 나왔어요. 어쨌든 아이들에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이들이 잘 살아주니 더 없이 고맙죠.

2000년 동양화학을 그만 두었어요. 그만두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만나지는 못하는데, 가끔 전화통화만 해요. 죽은 사람도 있고. 몇 명 안 돼요. 사는 거 똑같은 거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죽기 살기로 한 사람이나 뭐, 그냥 놀아가며 한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좋지요. 죽도록 일해야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가는데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9. 3. / 2025. 9. 13.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표기자(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박인옥(시민기록 멘토),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동양화학 전화교환원, 늦깎이 공부로 한(恨)을 풀다



손경임

1948년	경북 김천 출생
1966년	체신부 전화교환원 자격 시험 합격
1968년	동양화학 입사
1970년	동양화학 퇴사, 결혼
2018년	칠순이 넘은 나이에 남인천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의 꿈을 이룸 현재 '시니어기자', '이야기할머니'로 활동

손경임 님은 1948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대가족 안에서 성장했다. 고등학교 1학년 무렵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가 오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녀는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 영등포로 향했다. 단순히 동생의 밥을 챙기는 삶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직업을 갖고자 했던 그녀는 '교환원'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 1968년 친구의 소개로 동양화학에 입사하여 전화교환 업무를 시작하였다.

6명의 교환원이 2개 조로 나뉘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했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공장 내 100회선이 넘는 각 부서와 사무실로 연결해 주는 업무였다. 그녀의 첫 월급은 6천8백원. 야간 수당 덕분에 일반 사무직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서울서 출퇴근하는 시간과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옥련동으로 이사를 했다.

집 주인 딸의 소개로 동양화학 생산직에 근무하던 현재 남편을 만나 1970년 결혼을 했다. 사내 커플 2호다. 결혼 후 남편의 뜻에 따라 동양화학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남편이 평생을 일한 동양화학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 준 고마운 기업이라고 한다.

그녀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못다 한 공부를 시작했다. 2018년 남인천고등학교 야간반에 입학해 2020년 졸업했다. 낮에는 유치원에서 '이야기 할머니'로, 밤에는 학교에 다니며 배움의 뜻을 이어간 끝에 졸업의 기쁨을 맞았다.

비록 짧은 근무기간이지만 그녀는 기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랑받고 자란 방앗간 집 딸, 아버지를 그리며

저는 1948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을 생각하면 그리워요. 우리 집 앞에는 공동 우물과 150년 된 고목이 있었어요. 나무 안이 텅 비어서 그 굴속에 뱀이 똬리를 틀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저희는 대가족이었어요. 제가 5남매 중 첫째구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삼촌, 일꾼 두 명까지 모두 12명이 살았어요. 집에서는 방앗간을 했어요. 부자라면 부자이지요. 아버지는 김천 도립병원 서무과에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지만 항상 조용했고,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어요. 늘 나 주려고 무언가를 사서 자전거 뒤에 싣고 오셨어요. 자전거 소리가 '삭삭삭삭' 나면 아버지를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에헴' 하며 담뱃대를 두드렸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공손히 인사한 뒤,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을 드시고 조용히 주무셨어요.

학교를 중퇴하고
전화교환원 자격증을 따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1964년 쯤. 그리곤 새엄마가 들어왔잖아요. 나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남동생이 영등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나를 동생 밥 해주라고 보냈어요. 남동생 밥 해주러 왔다가 이렇게 밥만 해줄 게 아니라 취직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영등포 무슨 방직 회사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런 데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동생 말이 "친구 누나가 워커힐 교환실에서 근무한대요."하는 거예요. 거기는 영어를 잘해야 된대요. 나는 영어는 안 되고 해서 서울역까지 가서 '최성교환학원'이라는 데를 다녀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교환 자격증을 어디서 관리를 했느냐 하면, 지금은 정보통신부인데 그때는 체신부였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시험이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기차를 한 칸 다 빌려서 104명인가 부산 가서 시험 봤어요. 반은 떨어지고 55명이 합격했더라고요. 나도 그중에 한 명이고. 18살쯤 되니까 1966년 정도 될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다른 데 임시로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나는 인천제철에 취직했다."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에 이력서를 써 가지고 가보라 했는데 그게 동양화학이에요. 그 친구가 동양화학 정문에 가서 전기 과장을 찾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교환은 전기과 소속이 아니고 서무과 소속이었어요.

24시간 2교대,
동양화학 전화교환원으로 입사하다

1968년 소다회 공장 준공 즈음에 전화교환원으로 입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가니까 안에는 짓고 있고, 바깥쪽으로 일본식 집이었어요. 우리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다다미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거기서 얼마 있다가 소다회 공장 다 지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환실이 2층이었나? 이제 교환실에 들어가면 A조 3명, B조 3명 이렇게 24시간 근무했어요. 교환대를 '판넬'(Switchboard 교환대)[1]이라고 그래요. 판넬 밑에 빨간 불이 4개 들어오면 그거를 판넬에 줄을 꽂아요. 그러면 "네, 동양화학입니다." 이러고 "10번 대 주세요." 그러면 그 줄을 사무실 번호 10번에다 꽂아요. 부서 돌려 줄을 꽂아주는 데가 100회선이 넘었어요.



회사 차 옆에서 동료와 함께(우측 손경임), 1960년대 후반

1) 수동 전화 교환기 시대에 교환원이 전기 코드와 플러그를 이용해 전화 회선을 연결하여 통화를 설정하던 핵심 장치이다.

이렇게 2교대로 6명이 일했어요. 초창기 내가 가니까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인가 있었는데, 두 명을 더 뽑은 거지요. 12시간 씩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왜 24시간을 하냐면, 현장에서 뭐 필요한 거 연락을 하니까 있어야 됐어요. 3명이 8시 반에 출근을 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8시 반에 퇴근하고, 다른 3명이 또 그렇게 일을 해요. 바빴죠. 월요일 10시 정도 되면 굉장히 바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밤에는 거기 침대가 있어서 한 명 잘 수도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대 근무하다 휴식시간에 쉬면서 동료들끼리 친하게 지냈어요. 청소 안 한다고 가끔씩 싸우긴 했지만요.



동양제철공업주식회사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 중인 구술자, 1960년대 후반

지금 생각나는 게 3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밤 12시 넘으면 2명은 잠을 자고, 혼자 근무해도 돼요. 그런데 누가 전화기를 들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불은 안 들어오고 어디서 '따각 따각 따각'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새로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따깍 따깍' 이 소리만 들려 '이상하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남자가 그냥 발로 문을 탕탕 차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잠 자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뒤에 올려, 뒤에 올려" 이러더라고. 뒤에 뭘 올리라고 하냐며 좀 가르쳐달라고 했지요. 동양화학은 발전을 했어요.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올리는 게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올리면 되는데, 내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 와서 잔다고 발로 그냥 쾅쾅 차고 그랬던 거죠. 큰 실수를 했죠. 전기가 나갔는데, 그 발전하는 스위치를 올리니까는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웠지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교환실에서 근무한 게 재미있었어요.

정규직은 보너스 600%인가 그랬는데, 특별 보너스 100% 더 준거로 기억해요. 생일 때 생일 케이크를 주는데, 용현 고개 제과점에서 가져가라고 티켓 받은 기억이 있어요. 돼지고기도 줬는데 주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줬고, 우리 사무실은 안 줬어요.

사내 2호 커플

영등포에서 다니니까 그때 요금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고 인천까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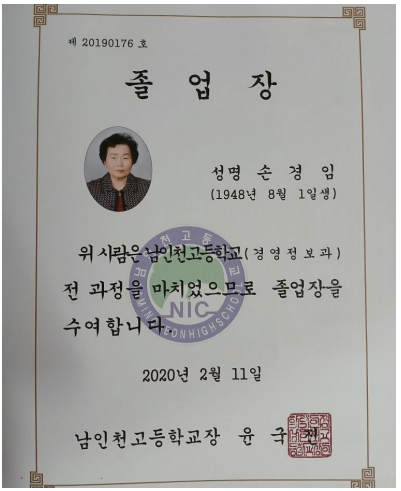
방 얻으려 한다고 하니까 옥련동에 사는 사람이 자기 옆집에 방이 하나 났다고 해서 다음날 갔죠. 우리 아저씨가 그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집 딸이 우리 아저씨도 동양화학을 다니니까 소개 해줘서 결혼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날까봐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처음 월급 6천8백 원 받았어요. 그것도 많이 받은 거예요. 야근을 하니까 수당이 붙지요.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은 5천8백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결혼하면서 그만두어 참 많이 아쉬웠어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그만두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저씨가 "여자가 직장 다니는 거 싫어. 그만둬. 살림이나 잘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아이고, 그때 전화국에 갈 참이었는데, 거기 갔으면 지금 퇴직금 받고 있을 텐데 아쉬웠죠. 결국 동양화학은 1968년 입사해서 1970년에 그만두었으니 3년 정도 다녔네요. 그리고 3월에 결혼 했어요. 사내 커플 세 팀 중 내가 2호예요.

결혼하고 옥련동 그 집에서 한참 살았어요. 딸만 넷을 낳았는데, 우리 큰애 4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지금은 딸들이 있어 최고인데, 당시 시어머니가 아들을 선호해 가지고 설움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때부터 인하대가 가까우니까 시민대학도 다니고, 평생학습, 실버 기자단,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컸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했으니 내가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래 갖고 그냥 여기저기 다녔어요.

실버 기자단과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다

내가 실버 기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아저씨가 편찮으세요. 집에 두고 나오기가 미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실버 기자단은 미추홀복지관 같은 데서 행사가 있으면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처음이라 저도 좀 버벅대기도 했어요.


제 20190176 호

졸 업 장

성명 손 경 임
(1948년 8월 1일생)

위 사람은 남인천고등학교(경영정보과)
전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남인천고등학교장 윤 국

남인천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 할 때는 우리 애들 키운 경험을 생각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더라고요. 옛날이야기도 하며, 나도 같이 동요도 부르고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애들은 '할머니!' 하고 반가워하고, 내가 복지관에서 배운 하모니카로 동요 불러주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유치원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그랬어요. 내가 72살에 남인천고등학교[2]를 다녔잖아요. 노력상 받았어요. 낮에도 일과 병행했는데 그런 거를 애들이 알더라고요.

2) 미추홀구에 위치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이다. 1984년 설립자 윤국진 교장이 남인천 새마을여자실업학교로 개교해서 몇 차례 교명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인천에서 유일한 학교형태의 성인전용교육기관으로 남아 운영되고 있다.

동양화학에서 퇴직한 남편

둘째 딸이 동양화학 환경관리과에 근무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50대이지요. 우리가 딸이 넷이라 우리 아저씨 혼자 벌어서 힘들잖아요. 큰 딸과 달리 둘째는 대학을 가지 않고 아빠 혼자 벌어 대학 보내기 어려우니 여상 가서 졸업해 그냥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자격증을 5개를 따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외환은행에 지원했는데, 키가 작아서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동양화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네 아빠가 다니니까 회사에서 채용한 거죠. 근데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대학 나온 애들이 들어오니 학벌이 딸리니까 회사 다니면서 대학을 갔어요.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다닐 거야." 이러고 그냥 회사 다니며 졸업했어요. 그리곤 딴 데로 갔죠.

남편은 제대하고 고향인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들어갔대요. 소다회 공장, 중조 공장에도 있었고, 솔트라는 데 소금, 거기서도 있었어요. 생산과 3교대 근무하고, 퇴근해서 오면 주무셔야 되잖아요. 야근하는 날은 집에서 조용히 자라고 애들을 업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자청해서 공무과로 옮겼어요. 거기서 기계 수리하고, 일하면서 학원도 다녔어요. 근데 승진하기가 힘들었데요. 왜냐하면 기계공고 나왔으면 기계공고 다 끌어올리고, 어느 대학 나왔으면 그 대학 출신들 다 끌어올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968년에 입사해서 1996년에 퇴사했어요. 30년을 근무했는데 홍규선 공장장님이 동양화학 공장 안에 있는 하청업체인 동양산업에 추천해줘서 거기서 일하다가 사원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다시 일했어요. 우리 아저씨가 퇴임할 때 홍규선 공장장님하고 악수하는 사진도 있어요.



남편 이기우 님의 명예 정년 퇴임식, 1996년 3월 20일

이후에 아파트 경비일도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아동안전지킴이도 한 7년인가 8년인가 했어요. 그거 하고 이제 끝. 지금은 83세라 일을 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아요. 우리 아저씨가 옛날 기억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나올 때 집에서 실하고 바늘만 가지고 나왔대요. 돈 10원도 안 받았대. 나무 팔고, 풀 팔아가지고 차비 해놨다가 인천에 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편찮으셔서 드러누워 있지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양화학에서 짧은 기간 교환원으로 일했지만 살아온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니 나와 비슷한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알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뭐든지 다 수기로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 면담개요
· 일시: 2025. 9. 22.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표기자(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동양화학 사택에서 시작한 학익동의 삶



류수자

1943년	충남 예산 출생
1969년	결혼
1979년	인천으로 이주
1982년	남편 동양화학 서무과 입사
1988년	보험설계사로 맞벌이 시작
2006년	남편 동양화학 퇴사
	현재 류수자 님은 27년 근무한 보험사 퇴사하고, 신기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류수자 님은 1943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읍내의 유복한 가정에서 거주하다 1969년 서울법대를 졸업한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예산 산골짜기에서 1만7천 평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였지만, 넉넉한 생활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왕복 2시간을 걸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보다 못해 그녀는 시골을 떠날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형부를 직접 찾아가 남편의 취직을 부탁했다. 형부와 이회림 회장의 통화 한 번으로 남편은 1982년 동양화학 서무과에 입사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 연고도 없는 인천 학익동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동양화학 입사 후 가족은 사택에 거주하였으며, 남편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숫자 계산에도 능숙해 이회림 회장의 신임을 받았다. 조용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한 성격이라고 한다. 65세 퇴직한 후에도 회사의 요청으로 주유소 입출금 관리 업무를 2년간 더 담당하였다.

그녀는 사택에 거주하며 이웃 동료가족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뚝심 하나로 극복해 나갔다. 남편의 월급으로 삼남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그녀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된다. 보험사 내에서 시골뜨기라 무시하던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오기와 정직함을 인정받아 삼성생명 수석지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번 돈은 훗날 사택을 나와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며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생 철학을 전한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다

저는 1943년 12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어요. 결혼은 26살에 했고요. 예산 읍내 도회지에 살았고, 우리 남편은 시골 면 소재지에서도 한 10Km 들어가는 산골짜기에 1만 7천 평짜리 과수원을 했어요. 처음에 시집을 가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도회지에서 살다 거기 가니까 택시도 잡을 수 없고, 버스도 타려면 1시간씩 걸어 나와야 되는 곳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시간을 걸어서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애들 교육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의논했더니 남편이 "과수원하고 논농사는 어떻게 하고 도회지로 나가느냐?" 해요. 그래서 '벌이도 없으면서 우리 애들 장래를 생각해야지, 이 시골에서 애들 중·고등학교나 가르치겠냐'며 도회지로 나가자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 하니까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해요. 외출도 못 하게 해요.

우리 형부가 서울특별시장 했어요. 시어머니가 딸집에 잠깐 가신 사이

에 사택이 있는 서울 혜화동 형부한테 갔어요. 하얀 한복에 젖이 다 흘러내린 걸 보고, 우리 언니가 깜짝 놀라 "너 웬일이니, 옷이 그게 뭐냐?" 그래서 "아기 3개월 된 거 떼놓고 와서 그래." 하고 형부를 만났죠. 우리 형부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형부가 왜 왔냐고 물어봐요. 우리 형부는 누구 오면 1대 1로 안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이중으로 듣지. 그런데 형부가 충청도서 여까지 온 생전 보지도 못한 처제를 1대1 면담한다고 하니까 우리 언니가 깜짝 놀랐죠. 형부한테 "남편이 서울법대 나오고, 시아버지가 면장이고 그래서 부잣집인 줄 알고 시집갔더니, 너무 시골이라 애들 학교 교육도 못 시킬 것 같고 해서 시골을 벗어나려 형부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 취직 좀 시켜줘요." 그랬더니 "이력서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다." 해서 나중에 이력서 딱 써가지고 찾아갔지요.

남편,
동양화학 서무과에 취직하다

남편이 말주변은 없어도 글씨는 잘 써요. 이력서를 딱 써가지고 남편 데리고 갔더니 '서울대학교 법학과까지 나와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처제 고생시키고 뭐 했냐.'며 한마디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 서울이나 도회지로 가고 싶다고 했지. 그랬더니 형부가 난감해 하다가 동양화학 이회림 회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형부하고 이회림 회장님하고 어떻게 알았느냐면 군인 갔을 때 선후배 사이였대요. 이회림 회장님이 상관이고 우리 형부가 그 바로 밑에 직속 부하로

친했대요. 요새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 부탁하면 큰일 나죠.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력서 가지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고향만 떠나면 되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던 인천으로 온 거지요.

동양화학 서무과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법학과를 나와 머리 하나 좋으니까, 모든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다니니 회장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43세 들어가서 65세 정년퇴직할 때까지 동양화학에 있었어요. 거기서 영창산업이라고 주유소 같은 거 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2년 더 연장해 67세까지 근무를 했어요. 동양화학 관할인데 주유소 입출금을 남편이 담당을 했어요.

동양화학 사택 주민과의 갈등과 추억

내가 충청도에 살다 왔으니까 한마디로 시골떼기죠. 사택에 살 때 시골에서 왔다고 저를 깔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 깔보냐? 두고 보자. 나 너한테 꿀릴 거 하나도 없어.' 그러고 기다렸죠.

사택에는 동양화학 용접공과 버스 기사님이 살았어요. 버스 기사님 부인은 참 좋은 분이라 자기 집에 나오는 뜨거운 물을 마음대로 쓰게 해줬어요. 동양화학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남은 폐수를 이용해 뜨거운 물이 나오던 곳이었는데, 우리 집은 뜨거운 물이 안 나왔거든요. 서무과장님도 동양화학 재산이니까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접공 부인이 자기 허락 없이 물을 쓴다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동양화학 재산이고 과장님 허락을 받은 거라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과장님께 같이 가달라고 했죠. 과장님이 '이건 동양화학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쓰게 하고 터치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는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하면서 편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한번은 우리 애들이 옆집에 놀러갔는데 자기네 애들만 찐 만두를 주고 우리 애들은 안줬어요. 7살, 9살, 12살 삼남매가 그것들이 무슨 철이 나요? 세상에 그것들을 두고 자기 자식만 줬대요. 내가 찐빵을 잘 찌거든. 30개를 만들어 그 집에 가서 "내가 찐 빵이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음식을 해서 서로 노나(나누어) 먹는 게 정 아니야." 했죠. 그 뒤부터 우리 애들도 음식을 줬다고 해요.



동양화학 사원아파트가 보이는 항공사진. 1989년. 국토지리정보원

눈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눈 쓸었어요. 집집마다 눈 치우는 거를 일부러 샀죠.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 합세해서 마을을 다 청소했어요. 우리 애들도 왔다 갔다 놀아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니까 큰길 학익초등학교 앞까지 청소했어요. 심지어는 좁은 장미아파트 도로 사이까지 치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거기까지 눈을 쓴 거죠. 눈 치우고 그냥 서로 깔깔대고 웃고, 한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또 한 집에서 수제비 해서 먹고. 그 동네가 훈훈하고 좋았어요. 동양화학이 사택을 새로 건설한다고 해서 중간에 거기서 나왔어요. 그때 보험회사 다니며 저축을 해서 집을 샀지, 보험회사 안 다녔으면 못 샀어요.

맞벌이로 삼성생명 보험 일을 시작하다

남편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중·고등학교까지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삼광유리공장에 한 번 가봤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마침 누가 삼성생명 시험을 한번 봐보라고 해서 동네 사람 다섯 명 정도가 함께 시험을 보러 갔어요. 나는 혼자 집에서 예상문제를 보고 시험을 쳤는데, 네 명은 떨어지고 나만 합격했어요. 이후 3개월 동안 교육도 받았죠.

보험회사에 다녀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바람난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바람날 때까지만 당신 살아." 그랬어요.

당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택에 사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놀러 다니면서 동양화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험을 권하

고 건수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당을 받지 않고 건수만 올렸는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삼성생명에 김용균 국장님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시골 사람이면서도 금융형 정기적금 건수를 계속 올리니까 국장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수당도 내가 가져가지 않고 다 자기에게 준다는 소문까지 나면서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앉아서 천만 원, 2천만 원씩 돈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당시 남편이 처음 과장이 됐을 때 월급이 35만 원 정도였고, 나중에 5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나는 한 달에 450만 원을 벌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수석 지부장까지 올라갔어요. 삼성생명에서 수석 지부장은 아무나 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험 실적도 좋아야 하지만 품행이나 학벌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국장님이 나를 추천해주셨어요.

사택 주변 환경과 은퇴 후 생활

동양화학이 그 동네에 새인천풀장을 운영했어요. 조개고개에서 언덕으로 넘어가는 사원 아파트 앞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공짜로 수영을 다녔어요. 그런데 애들이 조그마한 데로 가니까 "엄마, 우리도 송도유원지 한번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협소해도 수영장은 수영장이니까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서 새인천풀장에 수시로 가서 놀았어요.

동양화학에서 냄새가 나긴 했는데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양화학에서 우리가 생계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애들이고 우리고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았나 봐요. 사택에 살다가 장미아파트로 이사해서 한 10년 살았나? 재개발된다고 해서 신기촌에 아파트를 사 세를 줬죠. 나중에 장미 아파트 헐고, 새로 아파트 짓는다고 다들 나가라고 해서 신기촌 아파트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아요. 장미아파트는 빨간 벽돌로 지어 내부 기둥이나 지붕도 어디 새는 데 하나도 없이 깨끗하니까 재개발 허가가 안 나와요.

나도 나이 먹어 말하는 어휘력도, 표현력도 부족해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늙은 나를 인터뷰하자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며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내 살아온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는다니 설레기도 합니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8. 12. / 2025. 10. 11.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이혜숙(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박인옥(시민기록 멘토)



전장을 지키듯 책임과 헌신을 다한 동양화학의 주역



반채진

1953년 충북 음성 출생
1974~1978년 충북 청주에서 첫 직장생활
1978년 동양화학 입사
1998년 동양화학, 삼광유리 퇴직
1999~2024년 동양화학 및 관련회사 노무관리 소사장제 운영
2021년 자서전『촌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출간
현재 주식회사 다금물류 고문으로 재직 중

반채진 님은 1953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3명의 동생과 함께 가난한 농가에서 성장했다. 고된 농사일을 도우면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충주공업고등전문대학에 입학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인 청주에서 4년여 간 근무하고, 1978년 동양화학에 입사하였다.

입사 후 그는 직업 훈련과 품질 관리, 물류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1980년에 필리핀 경제사절단이 동양화학을 방문했을 때 일화는 특별하다. 그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홍보 슬라이드를 제작했다. 외국어 안내 자료가 전무하던 시절 이 홍보영상은 오랫동안 동양화학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는 동양화학이 원료생산에서 생활용품 생산부문으로 도약하던 1980년대, 대한민국의 세제혁명을 일으키며 성공한 '옥시크린'이 생산된 후 '물 먹는 하마'와 '락스킹' 생산 및 관리를 맡았다. 당시 장마철이면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밤 10시까지 주부 사원들과 소분 작업을 했다. 매일 호주와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수천 톤의 소금을 배에서 하역하고, 강원도에서 기차로 들어오는 석회석 등 물류업무를 맡았다. 하루 유통되는 물동량만 4천 톤이 넘는 소금, 석탄, 석회석이 거대한 산을 이룰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다고 회고한다.

그가 근무할 당시 동양화학은 남구 예산의 20% 가까운 세금을 부담할 정도로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이었다고 한다. 동양화학이 국가와 세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애환, 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현재도 물류 분야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평생을 바친 이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수도권으로 가자!
화학공학도의 꿈의 직장으로

저는 1953년 계사년에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충북 음성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는 청주에서, 그리고 충주에서 5년제 국립 충주공업고등전문대학[1]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8년간 그 유명한, 느릿느릿 다니는 충북선 열차를 타고 통학했습니다. 고학년 졸업 무렵에는 입주가정 교사를 하며 학업을 마쳤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가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가족을 위해 농사일에 묻혀 사시는 모습이에요. 어머님께서는 혼자 몸으로 논농사 밭농사 직접 지으시며 어린 저와 동생 3명을 키우시느라 몸이 망가질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눈물짓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비슷했을 거예요. 물론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도 있지만요. 휴일이나 주말, 방과 후에는 집에 와 농사일 돕

1) 현 국립 교통대학교

고, 밤에는 미흡한 학교 공부하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또 학교 가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북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4년 6개월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던 일은 쌀을 도정하고 남은 쌀겨에서 식용유를 추출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수도권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수도권 몇 군데를 알아보던 중 조선일보에 동양화학 사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어요. 다행히 합격을 했지요. 그 당시에 동양화학은 화학공학도에게는 꿈의 직장 같은 곳이었죠. 저에게는 행운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때가 1978년 10월 21일이에요.



新入및 經歷社員募集

國內 基礎化學工業의 先驅者인 東洋化學은 소다灰와 飼料用 燐酸 칼슘劑를 비롯하여 精密化學分野인 農藥을 製造하는 大單位 綜合化學會社로서 新規事業인 過酸化 水素 및 燐酸工場建設과 海外 Plant 輸出에 一翼을 擔當할 新新하고 有能한 人材를 募集합니다.

一. 募集部門및 人員

區分	職種	募集部門	人員
大卒社員 (新入·經歷)	研究및技術	機械工學, 電氣工學 化學工學, 電子工學 建築工學, 化學 畜産學, 獸醫學	○○名
工專및高卒社員 (新入·經歷)	製圖士	機械製圖, 電氣製圖 計器製圖, 建築製圖	○○名
	技能	化工, 化學, 機械, 鎔接, 配管 高壓가스 機械 技能	○○名
	事務	商高卒 (男)	○○名

二. 應募資格
1. 該當學校 卒業者 또는 1978年9月 卒業豫定者
2. 兵役畢 또는 免除者
3. 海外旅行에 缺格事由가 없는者

三. 提出書類
1. 自筆履歷書 (名刺判사진 첨부)……2通
2. 最終學校 全學年成績證明書 (新入社員) 1通

四. 提出期間및 提出處
1. 提出期間: 1978年6月8日限 (當日 우편도착분에 限하여 接受함)
2. 提出處: 서울中央郵遞局 私書函 781號

五. 銓衡方法
1次: 書類審査 2次: 面接 및 身體檢査 (서류銓衡合格者에 限하여 面接日字, 場所等 個別通知함)

六. 其他
1. 連絡處는 郵便番號및 統班을 明記할것
2. 履歷書 上端에 應募部門과 希望勤務地 (서울, 仁川, 大田, 蔚山, 裡里, 海外派遣)를 朱記할것
3. 提出書類는 一切 返還치 않음

1978年 5月 日

東洋化學工業株式會社

本社: 서울特別市中區小公洞50~5 ☎8209

「동양화학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조선일보, 1978. 5. 27.

동양화학 영문 홍보영상을 처음 제작하다

첫 업무는 직업훈련 및 홍보업무였어요. 동양화학은 우수한 기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간 기술적인 이론과 실무를 교육시켜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회사에서 각종 교육 자료와 안전 장비를 포함한 작업복이나 일체를 지급하고, 전문 기술자가 직접 교육을 했어요.

동양화학은 전국의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현장 견학도 오고, 일정 기간 현장 실습도 합니다. 학생들 외에 화학제품 제조 분야,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회사를 방문합니다. 동양화학은 소다회, 화학명으로는 탄산나트륨을 포함해서 염화칼슘, 중조, 인산, 고무의약품,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시약 등 수백 가지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방문자들에게 제품의 특성, 용도, 사용 방법,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 거죠.



白시멘트工場 연말완공

東洋化學의 PWCC社와 계약을 체결한후 合作으로 추진중인 「세부」 섬소재의 백시멘트공장은 오는 연말 완공시킬방침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사는 백시멘트공장에 26%를 출자했는데 생산규모는 연산 3만3천톤규모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사는 仁川 有機化學제품공장의 제1단계 공사를 3월에 완공한데이어 오는8월에 제2단계 공사를 완공해 MTM등 고무가황촉진제를 생산할 방침이다。

이번에 생산되는 고무가황촉진제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수입대체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동사는 「페루」의 소다회공장등에 플랜트수출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의 올매출목표는 7백억원이며 순익은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시멘트 공장 연말 완공」, 매일경제, 1965. 5. 24.

홍보는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필리핀 백시멘트 공장 건설 투자 결정과 맞물려서 1980년에 경제사절단이 동양화학을 방문했어요. 이때 홍보 자료를 제작했어요. 그때 얘기하면 지금도 진땀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에 외국인 방문이 거의 없으니까 외국어로 회사를 홍보하는 안내 자료가 없었어요. 마침 필리핀 경제사절단이 회사를 방문하게 돼서 회사는 부랴부랴 안내 자료를 제작해야 했지요. 그 지시가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영문 원고를 만들고, 공장 현장 사진을 직접 찍고, 그래도 부족해서 본사에 외국어에 능통하고 해외 영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물론 간부님들도 마음에 안 들어 했죠.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각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한국생산성본부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영화 '꽃 피는 팔도강산' 영화를 제작하신 윤혁민 작가의 도움을 받고, KBS '우리의 국군' 하는 라디오 방송 최평웅 아나운서 도움을 받아 영문과 우리말로 두 편을 제작 했죠. 요즘은 슬라이드 거의 쓰지 않는 영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 사용했죠. 제가 그 업무를 떠난 다음에는 VTR로 제작을 해서 10여 년간 사용했습니다.

가정주부를 평정한 '물먹는 하마'와 '락스킹'

인기는 실감했는데 저는 죽었다고 해야 되나! 개인 생활이 거의 없었죠. 당시에 동양화학은 소비자하고 관련이 없는 전부 원료 제품만 생산했는데, 생활용품을 처음 생산한 거예요. '옥시크린', '파워크린'을 출시해서 히트를 했

습니다. 이 '옥시크린' '파워크린'은 익산에 있는 과산화수소 공장에서 생산했고요. 인천공장 여기서는 제습제인 '물 먹는 하마', 그리고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킹'을 생산했어요.



「옥시크린 광고」, 경향신문, 1985. 7. 8.



「물먹는 하마 광고」, 동아일보, 1987. 6. 20.

처음 시제품을 생산해 전국에 보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마트가 몇 개입니까? 일반 상점까지 치면 뭐 저도 몰라요. 셀 수도 없고. 그걸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 할 주부 사원 약 100여 명이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밤 10시까지 작업을 했죠.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장마철에 습기가 많으니까 '물 먹는 하마' 제품이 여름철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차질 안 나게끔 생산하고 관리하고, 도와주느라고 땀 꽤나 흘렸습니다. 저희 쪽에서 한 거는 제품을 제조한다기보다 소분 포장이지요. '물 먹는 하마'[2], '락스킹'[3] 여기는 주부 사원들만 있고, 남자들은 한 두세 명 있으면서 지게차나 장비 지원, 원료 지원 이런 정도만 했어요. 포장 시설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부 사원들이 거의 했어요. 그래도 바쁠 때는 우리 사원 아파트에서 사원 부인들까지 동원해 작업을 했어요.

염소계 표백제로 유한락스, 무궁화 락스가 있다면 동양화학에서는 '락스킹'이지요. 표백제는 산소계의 표백제하고 염소계의 표백제가 있어요. '옥시크린'은 산소계의 표백제입니다. 산소계의 표백제는 섬유 손상이 없고, 염소계 표백제를 쓰면 섬유가 손상이 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계 표백제는 공업용으로도 쓰지만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쓰고, 염소계 표백제는 공업용이나 청소용, 소독용으로 사용합니다.

품질관리 업무도 맡았어요.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목표가 뭡니까? 많이 생산하고 좋은 제품 생산하는 거죠. 순도를 높게 하고, 불순물은 적게 하여 고순도 제품을 만드는 게 품질 관리 업무죠. 그래서 원료 배합비율, 제품을 만드는 반응, 온도 그리고 반응 속도 이런 걸 관리합니다. 데이터를 1년치 모아 비교하면서 관리합니다. 또 일정한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하도록

2) 녹을 때 수분을 흡수하는 염화칼슘의 성질을 이용한 제품이다. 실내나 장롱 같은 밀폐된 공간에 넣어두면 습기를 흡수하여 장마철에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

3) 염소계 표백제로 가정에서 소독, 표백, 불순물 제거 등 청소할 때 주로 사용한다.

'목표 관리'도 하고, 소규모로 그룹 활동도 합니다. 사원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제조공정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사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제안제도'[4] 등 업무도 담당했었죠.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팀에서 여럿이 같이 했습니다.

소금산, 석탄산, 석회석산

물류관리도 담당했어요. 동양화학 유통 물류 중에는 '원염', 소금이 있습니다. 하루 사용하는 양이 1천2백 톤, 10톤 트럭으로 120대죠. 하루에 그만한 '원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료는 주로 호주,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화물선으로 실어 옵니다. 그러니까 100톤, 200톤이 아니고 5천 톤, 1만 톤, 2만 톤씩 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인천항까지 배가 들어오면 인천항에서 하역을 하겠죠. 인천항에서부터 동양화학까지는 덤프트럭으로 실어오는 거죠. 소금이 공장에 입고될 때, 예를 들어 3만 톤이다 그러면 몇 대가 들어와야 돼요? 차가 3천 대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하루에 못 들어오고 2-3일에 주간, 야간으로 수송을 하죠. 그래서 30여 대 차량이 주, 야간 쉬지 않고 동양화학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공장에 입고되면 3만 톤이 되지요. 3천 대의 '원염'을 갖다 쏟아 부으면 산이 돼요. 소금 산이 그런 정도로 쌓이는데, 그 당시 소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적되어 있습니다. 염도가 높아 쉽게 안 녹아요. 동양화학에서는 소금산 주변에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물

4) 공장에 우편함 같이 접수함을 만들어 놓거나 구두, 유선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을 회수해 함유된 염분을 다시 사용하지요.

그럼 국내 소금과 수입 소금은 어떻게 다르냐? 일단 우리나라는 염전 사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수입 '원염'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공업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국내산 소금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옵니다. 1년 내 전국에서 생산하는 거 다 따져봐야 얼마 안 됩니다. 동양화학에서 하루 천 톤을 365일 쓰면 국내 생산 갖고는 도저히 공급이 안돼요. 그래서 소금을 수입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면 절반 정도 가격이구요. 원래 외국은 광산에서 자연 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천일염을 건조하는데도 온도가 높아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걸리는 걸 열대지방이라 하루면 다 말라요.

소금을 하루 약 1천2백 톤 사용하고, 석회석도 하루에 약 1천2백 톤 사용합니다. 다행히 석회석은 국내 생산이 많아요. 그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 제천, 단양 이쪽 지역에서 석회석을 화물차로 동양화학까지 실어 옵니다. 매일 10량 정도의 화물차량이 입고돼요.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석탄'이지요. 무연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그것도 동양화학에서 하루에 한 400톤 정도씩 썼어요. 유연탄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유연탄은 기름 성분이 좀 많아요. 연소하면 연기가 많이 나요. 유연탄도 매일 천 톤 정도 쓴 것 같아요. 유연탄은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서 들어오죠. 그것도 똑같이 인천항에 내리면 또 트럭 한 30~40대가 24시간 끝날 때 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는 소금산, 석탄산, 석회석산이 있는 거죠. 그냥 뒤언덕만큼 쌓아 놓고 사용을 합니다.

수인선이 동양화학으로 들어와 하루 한 4천 톤 이상 물동량이 움직이니까 물류 업무가 보통 업무가 아니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동양화학이 공장의 직원이 많을 때 약 1,000명 가까이 됐는데, 물동량을 움직이는 인원들을 따져보면 더 많은 인원이지요.

지금은 미추홀구청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아시다시피 이 주변에 그 많은 공장들 다 떠났어요. 동양화학, 유공, 한일방직, 동일방직, 한국강관, 대우전자 또 관련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 나갔어요. 기업체들이 돈 벌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지요. 동양화학에서 낸 세금은 지방세만 따지는 게 아니고 국세까지 따져보면 남구 예산의 약 20% 가까이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인거지요.

동네 쓰레기 청소하며 주민과 소통

환경업무도 맡았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안전업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에는 웬만큼 오염돼도 제품생산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 부분에서 유해 요인이 있으면, 일체 공장 생산을 못해요. 제조하는 과정이 온도나 압력, 배합 비율, 그리고 작업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업무가 환경관리 업무예요. 소음, 진동,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수 등도 있지요. 이런 유해 요인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고 홍보하는 업무도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30~40년 전 저희가 있을 때는 기업에서 안전이나 환경문제 조금 등한시한 건 사실이에요. 그때 저도 주민들과 공장 옆에 같이 살았어요. 30, 40년 같이 살았어요. 토지금고 아시죠? 용현5동 거기 살았는데, 냄새나면 주민들이 동양화학으로 데모하러 가요. 그래서 주민들을 공장에 초청해서 공장 보여주며 설명해요. 같은 동네 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결하

려고 노력했어요. 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큰 거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해결하려 했고요. 하다못해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지만 토요일 오전에 직원들과 같이 동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랬어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 많은 건 아니지만 꽃나무를 1년에 한 10그루, 20그루 정도 사다 심기도 했고요.

남구청 직원과 교환근무, 문화가 다르다

공무원과 교환 근무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에요. 동양화학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 정부정책으로 각 구청이나 시청의 재정 자립을 높이고, 국가에 기대지 말고 그런 제도를 한 번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남구에서는 동양화학하고 대우전자 제일 컸어요. 그래서 동양화학은 생산성과 경제적인 면에 담당 한 사람, 대우전자에서는 서비스 관련된 분야의 한 사람. 이렇게 둘이 구청에 교환 근무를 하고, 구청에 있던 분이 저희 동양화학하고 대우전자에서 3개월인가 근무를 했어요. 동양화학은 돈 버는 방법, 대우전자는 대민 서비스 방법을 구청에 전해주고, 우리는 구청에서 공무행정을 배운다는 취지로 교환근무를 한 거죠. 그런데 시범 사업만 하고 끝났어요. 나는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효과가 없는 걸 왜 시행 하냐며 문제를 지적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말았죠.

동양화학과 함께 한 삶을 거울에 비추다

충청도에서 올라와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건강한 몸 하나는 있었어요. 학연, 혈연관계가 강한 조직사회에 연연해하지 않고 건강한 몸 하나로 열심히 뛰었죠. 그러다 보니 동양화학에 입사하고, 삼광유리에서 퇴직한 후 소사장제 노무 관리운영을 포함하니 47년이 되었네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양화학이 내 젊음을 다 뺏어갔나?'. 그런데 좋게 이야기해서 '동양화학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았지. 아이들 키우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한번 봤다니까요.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는 반채진이 아니고 웬 노인이 나를 보고 있어. 젊음을 동양화학에서 빼앗아 간 건지, 내가 바쳤는지 모르겠는데, 다 빼고 보면 나를 위해 살아온 거예요.

저는요, 나의 삶을 구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들이 여러 사람들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에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31. / 2025. 8. 8.
· 장소: (주)다금물류 사무실
· 면담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정은주,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박인옥(시민기록 멘토)



마지막 물류팀장으로 동양화학 인천공장을 지키다



이기주

1948년	서울 출생
1978년	동양화학 입사
1980년	인천 이주
2004년	동양화학 퇴직
2007년	동양화학 하청업체 중원사 퇴직

이기주 님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 ROTC(학군단) 장교로 복무하고 제대한 뒤, 무역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다 1978년 동양화학에 입사하였다. 화학을 전공하였음에도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살려 자재과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안전과장, 업무과장, 물류팀장 등을 거쳐 인천공장이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물류팀장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는 소다회 생산 원료인 소금과 석회석의 하역 수송 업무를 총괄하였다. 동양화학의 핵심 생산물인 소다회는 독과점 품목이었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재과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 유리산업 업계 담당자들이 소다회를 확보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 대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소금 하역 수송을 물량을 따내기 위해 하역업체들이 경쟁도 치열했다고 한다.

그는 대전공장과 본사 근무 후 인천공장 안전팀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이후 물류팀이 신설되면서 초대 물류팀장을 맡았다. IMF 위기와 중국산 저가 소다회 수입 여파는 1998년 이후 세 차례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할당관세 폐지 이후 국산 소다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생산 중단까지 고려해야 했던 회사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물류 업무는 수입품을 소포장하는 체제로 전환되었고, 공장의 조직 및 인원은 대폭 축소되었다. 당시 함께 고생하던 동료와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의 아픔과 주변의 오해는 지금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한다. 2004년 인천공장 생산이 종료되면서 그 역시 명예퇴직을 하였고, 2007년까지 하청업체 '중원사'에 근무하며 공장 정리와 마무리를 도왔다.

그는 산업화 1세대의 노고와 동료들이 땀 흘려 일군 이곳의 역사를 오늘날 세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는 술 한 잔 걸치면 버스를 타고 이곳을 찾는다.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먼발치에서 불이 켜진 본관 건물을 바라볼 때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고 한다.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허허벌판 학익동으로

저는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은 의사였는데 6.25 때 차출돼서 군의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셨고, 보건소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제가 1978년에 동양화학에 입사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1980년 가족이 모두 인천으로 왔고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서울에서 졸업했어요.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별로 안해서 명문대학에는 못 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버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도 없이 의대 공부하려다 보니, 도저히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이과 쪽으로 간 거죠. 나는 문과 계통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버님이 도저히 용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죠. 전공은 화학인데 화학을 잘 몰라요.

ROTC 장교로 1973년 군 제대를 하고, 무역사 자격증을 따서 한 5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다가 1978년 동양화학에 입사했어요. 면접관이 동양화학 부사장이었는데 화학과로 입사해서 전공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관두겠다.'

고 하니까 인천공장 자재과로 발령을 냈어요. 자재·물류·영업 쪽만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 서울서 출퇴근 할 때 세상에... 동인천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갔더니만 완전히 허허벌판에 동양화학만 덩그러니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통금 임박해서는 택시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첫 월급은 기억 안 나는데 한국유리가 대우가 제일 좋고, 동양화학이 그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조그마한 회사 다니다가 여기 와서 봉급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노란봉투에 줬어요. 집에 월급봉투 갖다 줄 때 돈 떼어먹고, 직원한데 '봉투에 다시 써줘.' 그랬어요. 삥땅 친 걸 속이려면 그 명세서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아버님이 생활을 하셔서 나는 생활비를 안 보탰어요. 내가 다 썼죠.



동양화학 관리직 사무실 앞에서, 1979년 경

소다회 확보와
소금 하역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동양화학이 소다회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소다회를 전량 수입을 했어요. 산업계에서는 다른 기업들이 손을 대지 않았던 기초화학 제품인 소다회 생산을 이회림 회장이 개척하면서, 동양화학이 사실상 독점 생산하게 된 거죠. 한창때는 우리 소다회 가져가려고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두산유리, 한국유리가 규모가 크잖아요. 그 사람들도 동양화학에서 밤을 샜어요. 소다회를 가져가지 못하면 유리 공장 가동을 멈춰야 되거든요.

소다회 주원료가 소금이랑 석회석 두 개가 주원료인데, 소금은 100% 수입을 한 거죠. 주로 호주에서 들여왔어요. 내가 그걸 담당을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3만 톤급 아주 큰 배가 들어오면 하역을 선광[1]이 했어요. 인천에서 고정적인 그런 규모의 물량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많은 하역회사들이 들어오니까 인맥, 학맥을 동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국산 자재에서 제일 큰 석회석은 대한민국 석회단지인 제천과 영월, 저 위로 태백에서 화차로 들어와서 동양화학 앞에다 세우면 우리 기관차가 그걸 끌고 들어와 작업 끝나면 내보내요. 국영 기관차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한 10명, 11명이 끌고 들어오면 동양화학 앞에 우리 기관차가 부리고, 내리고 하지요.

석회석이 인천역에서 오면, 숭의동 제일제당, 남부역 통해서 용현동을 거쳐 유공, 옛날엔 그게 국철 이예요.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사용료를 냈어요.

1) 인천항의 향토 하역사이자 종합물류기업인 ㈜선광공사를 말한다. 창업주인 고(故) 심명구 회장에 이어 현재는 그의 동생인 심정구 전 국회의원이 명예회장을 맡고 있고, 차남인 심충식 부회장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옛날에는 그 옆에 판잣집이 많았는데 화차가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꼭 기적을 울려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인근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면, 선광공사가 소금을 수송할 때 소금이 도로에 떨어져요. 지금 용현시장 쪽을 지나면 동네 주민들이 그걸 담아가서 김장을 해요. 근데 못 먹어요. 소금 염도가 99%정도 니까요. 공업용이라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현동 사람들 김장은 동양화학 때문에 망쳤다고 해요.

소금 쌓아 놓은 원염창고 엄청나요. 호주염은 그게 천일염인데 날라 다니는 비산이 없어요. 가끔 예멘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싼 암염이 비산이 많이 날리죠. 그때만 해도 동양화학 뒤 무허가 집과 산을 개간한 텃밭으로 소금가루가 날아가요. 농작물이 다 죽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항의하러 오는데, 내가 담당이니까 내가 자주 가요. 그 사람들이 마루에서 소금가루를 담아오면 이만큼이야. 그래서 암염은 나중에 수입을 중단했어요.

청렴 하나로 버틴 자재·물류 업무

입사할 때 자재과 들어와서 계장, 과장 진급하고, 안전과장으로 갔다가 안전과장 1년 하고 업무과장으로 갔어요. 업무·자재과는 거래업체를 많이 상대하는 부서라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순환보직을 했어요. 저도 대전공장 자재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는 등 자리를 자주 옮겼어요. 동양화학에 29년간 재직하면서 본사에서 영업을 했던 6년을 제외하면 주로 물류 쪽에서 일했고, 퇴직할 때도 물류팀장이었어요. 구매나 물류 업무를 하면서 금품 문제는 특히 조심했어요. 구매 담당자들에게도 "업체

에서 돈은 절대로 받지 마라."고 항상 강조했죠. 회사에서도 제가 그런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인정해줬어요. "저 사람은 술 많이 먹는 게 흠인데, 정직해."라고 했죠. 제가 동양화학의 첫 물류팀장이자 마지막 물류팀장이에요. 지금도 옛날 동양화학 인천공장 물류팀장 명함을 갖고 있어요.

OCI 뱃지 달고 고급 식당 가지 마라

회장님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돼요. 지금 본관 건축하기 전에는 식당이 강당이에요. 식당에서 시무식, 종무식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는데 회장님은 "무조건 봉급 적다고 얘기하지 말라." "봉급을 받으면 우선 쌀을 사다 놓아라." 그러고 나서 다른 걸 사라고 했어요. 그때 칼라 TV가 처음 나왔을 때, 칼라TV 비싼 거 사다놓고 쩔쩔 매니까 봉급 적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거죠. 내가 소공동 본사에 있을 때, 본사 앞에 고급 식당이 많았어요. OCI 뱃지 달고 고급 식당 다니면 혼나요. "니들이 봉급이 얼만데?"해요. 검소함이 그분 철학이에요. 임원들한테는 호랑이 회장님이에요. 옛날 얘기지만 임원들한테 엄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안전팀장 할 때 동양화학에 처음 명퇴가 생겼어요. 정확한 건 1996



안전과장 재임시절 직원 교육 현장, 1980년대

년인가, 본사에서 차장 진급해가지고 인천공장 안전팀장으로 임명됐을 때예요. 직원들이 명퇴하고 갈 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눈물 나올까 봐 배웅을 못 나갔어요.

2004년에 내가 퇴직했어요. 퇴직하고도 3년간 더 일을 했어요. 홍사용 씨가 하던 포장 일을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줘서 내가 맡았어요. 정문 옆 작은 건물에 '중원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2007년까지 하청 일을 했죠. 딱 3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왔어요. 회사 이름을 '중원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 큰손자가 이중원이에요. 내가 아웃소싱할 때 손자 이름을 따서 중원사라고 했어요. 소중히 기억하려고.



창수에 위치한 동양화학 연수원에서 인천공장 정밀화학부 워크숍
(이회림 회장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기주님 맨뒷줄 오른쪽 끝), 1991년

원로의 눈에 비친 동료애, 가슴 뛰게 하는 인천공장

나는 동양화학을 인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동양화학이 인천시 세수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또 몸 바쳤기 때문에 지금도 동양화학에 대한 애사심이라고 할까, 그게 강해요. 우리는 OCI 맨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동양화학에 대한 애착으로 우리 자재과 '동자회' 모임을 해요. 근데 지금은 내 위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재과의 끈끈한 정이 없어요. 지금도 관혼상제 같은 데 가서 옛날 동료들 만나면 반가워서 막 껴안고, 아주 기뻐요.

저번에 사진전 할 때도 홍규선 씨, 박병만 씨, 반채진 씨,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사진 보니까 반가워서 눈물이 찡했어요. 동양화학 인천공장은 잊혀지겠죠. 지금 본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전통적인 걸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삼성이나 그런 데는 회사 차원에서 여기 문화원처럼 사라지는 옛 기억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동양화학은 그런 생각이 약해요. 그래서 섭섭해요. '동양화학이 남구[2]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밤에 지나가다 본관 사무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동양화학 지나다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어느 때는 가슴이 여리고 뛰어요.

2) 현 미추홀구.

‖ 면담개요
· 일시: 2025. 9. 8. / 2026. 6. 24.
· 장소: 연수구노인복지관,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허은영(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홍난희, 김용경(미추홀시민기록단),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밤잠을 설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33년



최승관

1959년	충북 단양 출생
1984년	동양화학 입사하여 생산부 발령
2016년	동양화학 시약부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
	현재 두원계전에서 근무

최승관 님은 작은아버지의 권유로 1984년 동양화학에 입사하였다. 공무부를 원했지만 생산부로 발령 받아 18년간 정밀부서에 근무하고, 시약부서로 옮겨 생산 및 안전관리를 하였다. 직책은 기장으로서 생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33년 근무 기간 동안 18개 부서를 오가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잦은 부서 이동에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공장의 전 공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었다. 화학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기계뿐만 아니라 수백여 종의 시약을 공부했다. 회사에서는 '1년에 1자격증 취득' 제도 지원을 받아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할 정도로 자기 계발에 철저했다. 그 결과 어떤 공정의 기계도 다룰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의 잦은 부서 이동은 오히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들과의 끈끈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셈이다.

현장 기장이 된 후에는 동료들 보다 일찍 출근해 하루를 준비하였다. 화학공장의 특성상 언제든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했다. '생산은 못 해도 좋으니 무조건 안전이 최고'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안전모 턱끈 하나까지 엄격하게 지적하며 책임감을 갖고 일했다. 동양화학이 2016년쯤 시약부서가 충북 진천으로 이전을 결정하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58세에 퇴직을 결정했다. 현재는 예전에 15년 정도를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치열하게 일했던 옛 모습이 통째로 사라진 학익동 동양화학 부지를 보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그래서 문화원의 동양화학 구술기록이 자료가 될 수 있어 참 좋은 일을 한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학창시절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상사에 입사하다

저는 충북 단양에서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직장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인천으로 올라와 간석동 상인천 중학교가 있는 인근 주택에서 살았어요. 학창시설 이야기를 하자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마련하려고 중학교 2학년 때 1년을 휴학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하고 연년생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동생도 중학교를 들어가요. 수업료가 없어 쩔쩔매는 어머니를 보고 고민 많이 했어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2학년 1년 동안만 휴학을 할 수 있게 아버지가 말씀드려 달라 했죠. 아래로 동생 둘이 또 있는데. 휴학 1년 동안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수업료를 못 벌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업료를 낼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담임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휴학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합판공장에서 일당 150원 받고 일했어요. 한 달 내내 일해 4천 500원 받았어요. 그걸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동생 수업료도 좀 보태주고,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대학은 뭐 갈 생각도 못하고.

저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렸을 때 꼭 하고 싶었었던 게 있었죠. 음악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기술을 좀 습득해서 빨리 사회에 진출하는 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경동산업에서 몇 개월 실습하고, 졸업 후 국제상사에 들어갔어요.

국제상사는, 기계자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늘이 제 기억에 1층, 2층으로 돼 있어 한 줄에 바늘이 1,000여개로 기계 길이가 35m인가 그래요. 국산은 없고 일제인데, 그 당시 돈으로 1억 2천만원으로 엄청 비싼 기계예요. 그 기계자수를 배우려고 몽키스페너로 머리를 맞아가면서 머리도 깨지고 그랬어요. 기계가 고장이 나야 기계를 배울 수 있잖아요. 일부러 기사 모르게 볼트도 풀어놓고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것을 보면서 배웠어요. 선배들도 안 가르쳐 줬어요. 고장이 나야 뭘 뜯는 걸 보죠. 좀 못된 짓을 한 거죠.

저는 국제상사에 계속 다니다가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면 복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보니 국제상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 바람에 제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마침 작은아버지가 "야, 동양화학에서 직원 모집하니까 이력서 내고 시험 한번 봐라" 그러더라고요. 시험은 공채가 됐든 소개가 됐든 다 봐요. 그래서 시험을 봤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잊어먹지도 않아요. 문제가 '사다리꼴 공식을 구하시오'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자기 집 주소, 부모님 이름을 쓰래요. 아르바이트 할 때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인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1984년에 동양화학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동양화학 잦은 부서이동이 성장의 기회였다

입사해서 공무부를 원했는데 생산부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티오(T.O)가 차서 일단 생산부에 근무를 하다가 티오가 생기면 다시 발령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생산부 쪽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머무르게 됐죠. 근무하는 동안 18개 부서를 이동하며 일했어요. 부서 이동이 잦은 건 저만 특별했던 것 같았어요. 초창기 때는 교육이 많았어요. 한 1년에 몇 번씩 교육만 갔다 오면 "너 여기 아니야"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자꾸 그러나 했어요. 그래도 일단 발령이 났으니까 가야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공장 전체를 알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서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니까 정년 나이 가깝도록까지 일을 한 거죠.

죄송하지만 신입사원 때 아주 못 된 우리 직장 선배가 있었어요. 주임이라고 얼마나 갈구는 지, 속된 말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볼 때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기가 생겨서 더 많이 배우게 하고, 더 많이 가르쳐주려 했던 거죠. 이분 때문에 내가 엄청 성장한 거예요. 그 선배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가끔 생각나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인사고과 점수도 내가 일을 못 했으면 임금이 내려가야 되는데, 고과점수도 좋았어요. 7명 입사 동기 중 제가 임금이 제일 높았어요.

시약부서로 발령 나서 시약을 다룰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계 쪽이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데, 화학의 '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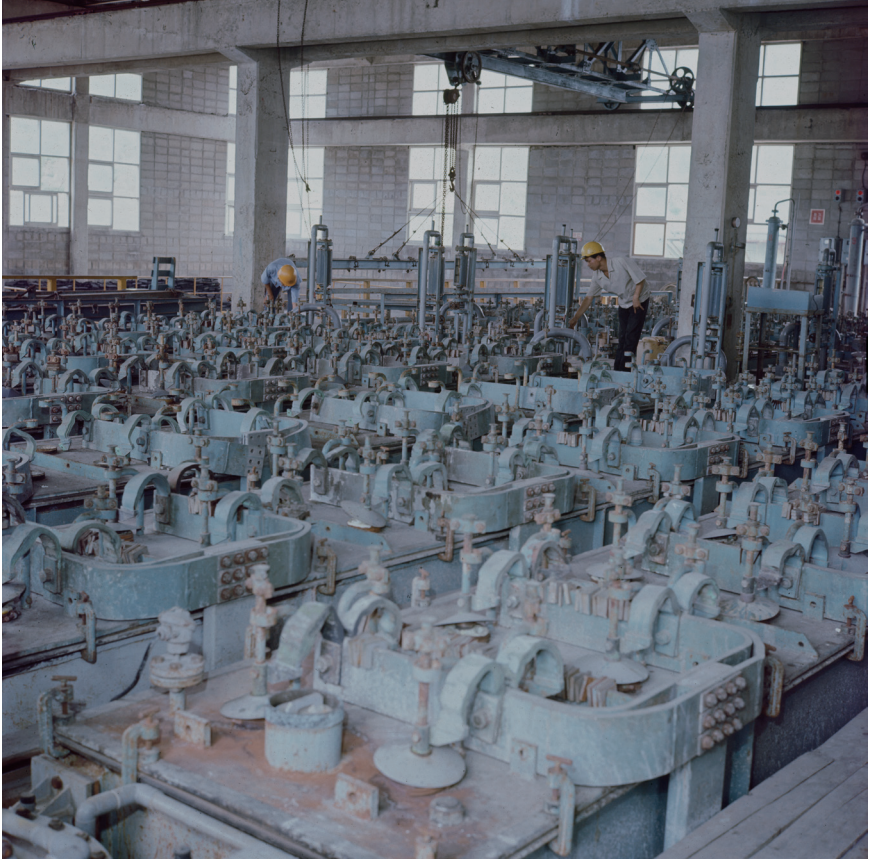
도 모르는 제가 가보니까 시약이 수백여 종이 돼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했죠.

일단 다른 풀(pool)에 들어가면 생소하잖아요. 배관이고 뭐고 제가 다 그려가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집에 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도 하고 그랬어요.

시약부서 기장(機長),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다

18년 동안 생산현장 시약부서에서 기장보(機張補) 5년, 기장(機長) 13~14년을 일했어요. 기장보로 일했을 때는 제 위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기장으로 일할 때는 출근이 8시 반까지인데 6시 반이나 7시 사이에 해요. 출근하면 오늘 해야 할 일과들을 정리하고 안전교육 제일 먼저 하고, 오늘 생산을 지시해요. 저는 생산 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은 썼어요. 다치면 다 필요 없어요. 안전이 최고예요.

특히 동양화학 시약생산공장에는 6~7개 플랜트(Plant)가 있는데, 공정마다 생산제품이 다 달라요. 화학 공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가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상 '생산 못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안전'을 강조해요. 사고 나면 일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서로 지적해 주라고 해요. 안전모가 좀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벗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항상 지적을 해주라는 거예



동양화학 공장 소다회 생산 현장, 1970년, 국가기록원

요. 턱끈을 안매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거라 턱끈까지 다 매라고 해요. 안 하면 "나가" 해요. 이거는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동료들 간에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소통이 잘 안 되면 인간적으로 '너 어려움이 뭐냐' 물어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하라 그러는데, 저거 하는 사람들 꼭 사고가 나요. 그건 찔통이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일단 일을 안 시켜요. "사무실에 와 있어. 놀아도 괜찮다"하고 신문 하나만 주고 외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스스로 와요. 그때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조용히 얘기를 해요. “혼자 근무하는 데가 아니지 않냐, 여럿이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렇게 개별 행동하면 안 된다.” 며 대화하다 보면 나이들이 젊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다 젊은 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 지시하는 거 안 따르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면 100% 사고 나요.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따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말씀이 옳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옆에서,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약부서는 구매, 품질관리도 해요. 구매부가 따로 있어서 다른 건 구매부가 하는데 시약은 소모품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많이 해요. 시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라벨인데, A제품에 B제품 라벨이 붙었다든지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라벨 붙이는 건 현장에서 한 품목만 놓고 바로 라벨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A제품을 생산 현장 담당자가 A라벨만 딱 가지고 붙이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못 오게 해요. 왜 그러냐면 혼입될까 봐. 특히 원료의 약품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겁니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신경 쓰느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산 현장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은 잘 살피고 발견 즉시 보고 및 정비하고 제안 제도를 활용하고, 아차사고도 찾아서 개선안을 내라고해서 그 사람을 자꾸 키워줘요. 그러면 그 동료도 나중에는 따라와요. 자꾸 내 사람을 만들고 같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가는 게 선배들의 역할이죠. 분위기 좋고, 정리 정돈 잘 되면 안전사고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건 제 경험 이예요.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사람 한테도 좋은 걸 자꾸 주고, 상금도 타게끔 만들어 주면 그 사람도 생각이 있지, 안따라 오는 사람은 관둬야죠. 스스로.

끊임없는 공부로 자기 계발을 하다

동양화학은 공장장님께서 1년에 하나씩 무조건 자격증을 따라고 하셨어요. 어떤 자격증이 됐든 간에 학원을 간다고 그러면 학원비 지원도 해요. 선임이 되면 10만 원씩 수당을 줘요. 근데 선임이 안 되고 그냥 자격증만 따면 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무조건 1년에 하나씩 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열외는 없어요. 동양화학 정문에 들어오는 직원은 무조건 다 해당 됩니다. 그걸 1년 안에 취득 못하면 인사고과에서 영향을 주지요.

저는 서울기계공고 부설 직업훈련 학교가 대방동 공군본부에 있었어요. 회사 끝나면 거기 가서 공부했어요. 무료로. 집에 오면 12시. 그래서 냉동기, 고압가스 자격증 땄어요. 자격증이 지금 다니고 있는 두원에서도 필요하더라고요. 직장생활 벌써 43년째 하고 있어요. 기술직은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운영을 못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술하고 자격증은 꼭 필요하고, 취직을 잘하려면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자격증이 20여 개 돼요. 포크레인, 지게차까지 다 있어요.

또 유머도 공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힘들 때 한 번 웃어주게 만드는 것도 제 임무더라고요. 그래서 개그콘서트를 많이 보니까 뚱딴지같은 소리한다고 아내한테 혼도 나고 그랬어요. 아침에 조회할 때 오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누가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살펴봐요. 그런 배려들이 서로 신뢰관계를 갖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원주택 입주로
내 집 마련 준비를 하다

동양화학은 기숙사와 사원주택이 있어요. 회사가 기숙사와 180가구가 입주 할 수 있는 사원아파트를 지었어요. 입사할 때 직원이 1천여 명이 되니까 많이 부족했죠. 회사내에 5층 건물의 기숙사는 방 하나에 2명이 침대를 놓고, 한 50명은 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원 아파트는 결혼을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마'동이 총각 기숙사 109가구인가 그럴 거예요. 결혼하고 본가에 3년 살다가 사원 주택으로 이사해서 9년 살았어요. 사원 주택 들어오면, 10년 기간을 줘요. 10년이 되면 나가야 하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의 70%는 저축하고, 애들이 어릴 때니까 한 달 40~50만 원 가지고 생활했나 봐요. 그래서 40대 초반 그때는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집 하나 사는 것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연수동에 32평을 분양받았으니 이게 운동장을 산거죠.

사라진 학익동,
'여기에 뭐가 있었어?'

주변에 대기업이 사라지면 문제가 많아지죠. 세수도 줄고, 주변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다는 걱정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회사들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 다 이렇게 내쫓았을까 생

각해요. 개발도 좋고 다 좋지만 인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현직에 있으면서 준비를 했지요. 우리도 이전 계획이 있었어요. 시약부서가 이전하는 진천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갔어요. 그때가 2016년 58세에 퇴직 몇 개월을 남겨놨으니까 이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또 안 가게 된 이유가 직장생활 33년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그냥 땅이나 좀 파고 귀농하려고 400평 정도 땅을 샀어요. 집도 새로 짓고 정원도 만들고 텃밭도 가꾸고 준비를 다해 놓았는데 15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함께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여태까지 일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동양화학 생산직에서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동양화학에서 보낸 시간은 내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이 어렵네. 경제적으로나 주택 마련하는 거나 아이들 학자금이나 너무 감사하고 모든게 동양화학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음속으로 정문 들어갈 때마다 큰 절하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동양화학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미추홀구 학익동에 동양화학이 어디 있었는지 지금은 찾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변했어요.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뭐였어?'라고 물어보면 설명해 줄 게 아파트 밖에 없으니 아쉽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양화학 홍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문화원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10. 31.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표기자(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강인형(미추홀시민기록단)



동양화학의 연구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전업하다



박중근

1949년	충남 당진 출생
1965년	인천으로 유학, 인천고등학교 입학
1968년	인하대학교 화학과 입학
1970년	대학 휴학 중 동양화학 연구과 연구실 입사
1972년	동양화학 퇴사 후 학교 복학
	학교 졸업 후 몇 개 회사 근무하다 1985년 이후 부동산 중개업 전업

박중근 님은 194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다. 한의사인 조부모님 덕에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인천으로 유학을 왔다. 당시 배다리에 있던 명문 인천고등학교에 합격하고, 인하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고향에서 초, 중학교를 다닐 때 왕복 18km를 통학하던 그에게 송림동 하숙집에서 고등학교까지 2.5km 거리는 산책과도 같았다고 회고한다. 동양화학에 입사한 후에도 인하대 후문 독쟁이 고개에서 자취하던 그는 매일 인하공대를 지나 공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했다.

동양화학 입사는 인하대학교 화학과 휴학 후 강사 겸 동양화학 부공장장이었던 권석명 선생의 추천 덕분이었다. 그 선생을 잘 따른 인연이 그를 실험실 연구원으로 이끈 것이다. 그 당시 동양화학 연구과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첨단 실험기기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실험실에서 석탄, 석회석, 소금 등 원료 분석과 소다회, 가성소다, PVC 등 제품의 순도를 측정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화학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실험실에서 일했지만 동양화학을 그만두고, 학교 복학을 결심하게 된다. 졸업 후 두어 군데 회사를 10여 년간 다녔지만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만두었다. 그리고 1985년 과감히 부동산 중개업으로 진로를 바꾼다. 그는 지금도 "화학을 할래, 부동산을 할래?"라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부동산 쪽을 택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한다.

권석명 부공장장 추천으로 동양화학에 입사하다

저는 1949년 8월 15일 생이고요. 고향은 충남 당진시 우강면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의 구술기록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돼서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고향 당진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도시에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1965년에 인천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 인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5km를 걸어 다녔고, 중학교 때는 9km를 걸어서 통학했어요. 송림 3동에서 하숙했는데, 인천고등학교는 배다리에 있어 학교까지 거리가 2.5km 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었지요. 고향에서 9km 걷다가 2.5km 다니니까 학교 다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지요.

대학교는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학교에 권석명 선생님[1]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시간 강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동양화학 부공장장이더라고요. 제가 휴학하면서 찾아뵙고서 취업을 부탁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채용해 주시더라고요. 동양화학 출퇴근도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처럼 걸어서 다녔어요. 워낙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닐 때 먼 길을 통학을 했으니까 걷는 거는 자신 있었죠. 동양화학에 입사하고 나니까 인천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많더라고요. 인천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좋았어요.

1) 동양화학 사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동양화학 그룹의 핵심 경영자이다.

첨단 실험장비를 갖춘 동양화학의 실험실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첫째였고, 석탄, 석회석, 소금을 분석을 해요. 분석한 데이터를 올리고 또 가성소다라든지 소다회 순도를 측정해요. 또 염산, 가성소다, PVC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작성하는 거죠.



동양화학 연구실 근무 당시, 1974년

연구과에는 한 30~40명 정도 근무한 것 같고, 무기화학과 유기화학 분야를 주로 다루었어요. 그 당시에 동양화학 연구과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실험 기자재가 있던 아주 우수한 실험실로 석탄들의 순도를 분석해서 체크를 했어요. 석탄은 외국 거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철암탄광 석탄이에요. 북한에서 왔다고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들어왔다고 한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한 건 기억이 안 나네요. 석탄 중에도 유연탄이 있고 무연탄이 있어요. 휘발분이 많은 것이 유연탄이고, 탄소 양

이 많은 것이 무연탄이에요. 휘발분이 많은 것보다는 탄소, 왜냐하면 소다에씨(Soda Ash)[2]를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성분이 많아야 되니까 그 성분이 많은 거를 찾기 위해 분석을 하죠. 실험 결과 데이터가 좀 안 좋을 때 현장에 가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현장 책임자들하고 연구실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개선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시약은 생산해서 나오는 제품을 실험도 해야 되니까 필요하지요. 시약 중에서는 그냥 일반 시약, 1급 시약, 특급 시약이 있어요. 특급 시약은 순도가 99.999%. 특급 시약은 주로 독일제나 일제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시약은 거의 1급 시약 수준밖에 안 돼요. 일반 약품 단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1급 시약은 천 원이에요. 근데 특급 시약은 한 50년 전 가격으로 보면 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는 100만 원이 넘겠죠. 그렇게 차이가 많았어요. 제가 퇴사할 때 쯤 시약들이 거의 특급 시약 수준으로 향상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제품화 하지 못했어요. 제품화하려면 세계적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제 기억에 그 당시 미제도 거의 인증을 못 받았어요. 독일제, 일제만 특급 시약으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동양화학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야예요. 무기화학과 유기화학 분야가 양분된 이유는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기화학은 소금, 석회석, 석탄을 넣고서 나오는 제품, 아까 말씀드린 소다에씨(Soda Ash)의 제품인데 주로 판유리라든지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 많이 납품을 했고, 가성소다(NaOH) 이걸 양잿물이라고 하고, HCl[3]

2) 소다애쉬(Soda Ash)는 흰색의 파우더/결정체로 유리를 포함해 세제, 제지, 화학 제품 생산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중요한 산업용 기초 알칼리 원료다.

3)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를 의미하며, 수소와 염소가 결합한 무색의 유독성 기체로 이 기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을 염산(hydrochloric acid)이라고 부르며, 강한 산성을 띤다.

염산은 강한 산성으로 옷에만 묻어도 옷이 막 타요. 이런 것들이 주로 무기화학 제품이에요. 유기화학 제품 중에서는 PVC[4]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동양화학에서 생산을 했어요. 주로 실험하는 것이 물성 실험이라고 해서 탄성이 얼마나 있는가, 또 인장 강도로 해서 얼마나 끊어지는가, 또 그 불순물이 얼마나 되는가 등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이 있으면 제품 전체를 다 못 쓰게 되거든요. PVC도 비닐을 갖다가 만드는 건데, 그 비닐 제품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낀다든지 하면 이게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품 자체라든지 실험실 장비는 당시 최고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불량률은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석회석의 함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석탄이 들어왔는데 유연탄이 섞였다든지 하면은 그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암염도 들여왔던 것 같아요. 암염 속에는 에사이[5]라고 의도하지 않게 불순물이 생기기도 해서 천일염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곳이니까 큰 사고는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폭발사고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험 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첨단기구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연구원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받을 정도의 실력을 쌓았어요. 연구과가 '중앙화학연구소'가 된 것은 1983년이니까 제가 퇴사하고 한참 후에 설립된 거예요. 아주 우수한 석·박사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연구를 했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4)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의 약자로, 염화비닐을 주원료로 만든 대표적인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내구성, 내수성, 절연성이 뛰어나며, 가소제를 첨가하여 딱딱한 경질(파이프, 창틀)부터 부드러운 연질(호스, 인조 가죽)까지 다양하게 가공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5) 에사이드를 말한다. side effect 라 하여 주로 의약품 분야에서 약물 성분 합성 과정이나 보관 중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불순물(Impurity)을 의미한다.

동양화학 퇴사와 학교 복학,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개소

동양화학 실험실 멤버들은 학력이 대단했어요. 서울대학교, 연·고대 뭐 해서 제가 어학 실력이 그 사람들보다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 찾아 읽고 하는 데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는 되는데 내가 그걸 자료로 찾으려면 원서 실력이 안 되니까 힘들었지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퇴사를 하고 대학을 복학했죠. 졸업 후 삼영화학 등 두 어 군데서 한 10년 근무했어요. 화학을 전공했는데도 워낙 어학 실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때려 치웠죠. 연구원이라고 해도 박사나 어디 대학에서 강의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목동 아파트 가서 중개사무소를 개업했어요. 그때가 1985년이지요. 그 당시에 돈을 꽤 많이 벌었죠. 초창기 1단지 입주할 때 가서 했는데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하루에 계약서를 열 몇 개씩 썼어요.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전혀 후회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자식들도 다 사업 성공하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근무하던 인천공장이 없어졌다 하니까 좀 서운하긴 해요.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고 나가고 하며 도시화가 되는구나 생각하니 세상 다시 또 보게 되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구나 생각했어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30. / 2025. 8. 14.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이혜숙(미추홀시민기록단)



실험실 연구원에서 목사로 전향하다



김시철

1946년	황해도 출생
1952년	만석동 피난, 이후 용현동 이전
1974년	동양화학 실험실 입사
1982년	동양화학 퇴사
1983년	신학대학 입학
1987년	주만교회 개척
2015년	주만교회 목사 은퇴
	현재 원로목사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음악 활동하고 있음

김시철 님은 1946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6살에 인천으로 피난을 왔다. 전쟁을 피해 만석동에 도착한 후 용현동에 정착해 지금까지 인천을 떠난 적이 없는 '인천 사람'이다. 전쟁 직후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 밀기울과 꿀꿀이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활했다. 월사금을 내지 못해 시험 때마다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집안의 반대에도 학교에 다녀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은 큰 당숙의 도움으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등록금을 면제받기 위해 시작한 중학교 밴드부 활동은 고등학교, 신학대학교, 개척교회 목사로서 삶의 동력이 될 만큼 영향을 미쳤다.

동양화학과의 인연은 1974년 경 당시 교사 급여의 두 배가 넘는 파격적인 제안(월 1만 5천 원)을 받아 동양화학 실험실에 입사하며 시작되었다. 계장을 거쳐 약 8년 정도 근무하였다. 그의 기억 속에 용현동과 학익동 일대는 한국 화학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는 현장이었다. 약 2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했고, 여성 연구원도 함께 근무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매 시간 채취되는 원료와 제품의 농도를 재고, 실험 일지를 검토하여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고 있어 실험실은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입사 후 세 번 정도 불이 난 적도 있었다고 기억한다. 작은 불씨에 인천이 날아갈 정도로 위험하였다고 한다.

그의 동양화학 근무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동양화학 퇴사를 결심한 것은 목회자 길을 선택할 것을 원하는 부모님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퇴직 후 개척교회를 운영하였고, 만수동 주만교회에서 목사로 퇴임한 후 지금은 원로 목사들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다.

꿀꿀이죽으로 연명했던 가난한 피난생활과 미션스쿨 입학

내가 6살 때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와 지금까지 인천에서 74년을 살았어요. 만석동에서 살다가 용현 2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참 고생한 거 생각나죠. 밀기울[1]이라고 아세요? 모르죠? 밀기울은 밀 말고 껍데기를 갈아서 사카린[2] 치고, 그걸 반대기[3]라고 그러죠. 이렇게 넓적하게 해서 그런 거 먹고. 그때 당시에 창영동에 가면 꿀꿀이죽[4]이라고 있어요. 모르시죠? 꿀꿀이죽은 미군 부대 짬밥[5]이에요. 먹다 버리는 거를 사람들이 수거해서 팔았어요. 거기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큰 가마솥에 끓여서 그걸 팔았어요. 그

1) 밀기울은 밀을 빻아 체로 쳐서 남은 찌꺼기로, 기울의 일종이다.

2) 사카린은 1879년 독일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르크가 발견한 최초의 화학 감미료로, 설탕보다 300배 강한 단맛을 내고 열량이 거의 없어 설탕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3) 반대기는 반죽을 밀대 등으로 평평하고 둥글넓적하게 편 것이다.

4) 한국전쟁 후 미군부대에서 생긴 음식 쓰레기를, 부대에 취업한 한국 근로자들이 유출해 동네에 팔았던 음식이 '꿀꿀이죽'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창영동 경인철도 건널목 옆 몇몇 음식점에서, 단골 메뉴로 팔아 속칭 '꿀꿀이골목'이라고 불렸다.

5) 짬밥은 잔반에서 변한 말로, 군대에서 먹는 밥을 이르는 말이다.

당시에 2전인가? 그게 최고로 맛있었어요. 먹다가 보면 손톱도 나오고 그래요. 일주일에 몇 번 먹지도 못하고, 어쩌다 돈 생기면 먹는 건데, 먹는 날이 제일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난 용현국민학교 나왔어요. 요새 말로 하면 등록금이죠. 월사금[6] 안 낸다고 맨날, 그것도 시험 때만 쫓아버려요. 집에 가면 뻔한데, 가봐야 야단만 맞지. 그러니까 빙빙 돌다가 들어가면 선생님이 "왜 안 가져왔어?" 그러면 "없대요." 그러곤 몇 대 맞고 했죠.

우리가 10남매예요. 내가 다섯째고, 내 밑으로 다섯이 있어요. 그 당시에 누님들, 형님들이 전부 다 학교 다녔죠. 나도 중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공부 못 가르치겠다고 해요. 그래서 나 학교에 가야 된다고 막 울고 떼썼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해서 등록금 면제로 갈 수 있게 시험 보게 해 달라니까 "시험을 봐라." 해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큰아버지의 맏아들. 말하자면 장손이 6.25 때 켈로(KL0)부대[7] 중대장이었어요. 공수 부대예요. 그분이 제대하고 미군부대 통역관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가서 등록금 좀 내달라고 해서 등록을 했어요. 1등은 안 되고, 2등으로 되는 바람에 전액이 아닌 반(半), 그것도 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소개해 줘서 예수 믿는 미션 스쿨(Mission School)[8] 중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밴드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교회 친구가 2학년이야. 걔가 나를 보더니, 나팔을 잘 불면 면제로 다닐 수 있

6) 월사금은 사친회비·기성회비·수업료를 합쳐 부르던 말이다. 사친회비는 1952년 도입되었고, 기성회비는 1970년 육성회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율 납부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걷히기도 했다.

7) 켈로(KL0)부대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의 지리와 언어에 익숙한 이북 출신 한국인들을 모집해 북한에서 정보 수집과 게릴라전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한 특수부대로, 정식 명칭은 미 육군 제8240부대다.

8) 미션 스쿨(Mission School) 특정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학교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고 해서 그때부터 악기를 불기 시작했어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만 등록금을 내고 다 면제로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국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1962년돈가, 남산에 TV 방송국이 개국한 그 해[9]에 초대됐어요. 아마 학생이 거기 가서 독주한 건 내가 처음 일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면제로 다니고, 군악대 때도 원래는 시험 보는데 나는 그냥 스카웃(Scout)해서 악장을 하고, 지휘하고 그랬어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막다

그때 당시에 독일의 뤼브케(Lubke) 대통령[10], 미국의 존슨(Johnson) 대통령[11],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의 후예인 셀라시에(Selassie) 황제[12], 내가 다 지휘하면서 그분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 경인고속도로 개통식[13] 때도 내

9) KBS 전신인 남산 TV 방송국은 1961년 12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10) 뤼브케(Lubke, Heinrich) 대통령은 독일의 2대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은 1959-1969년이고, 1967년 3월 2일 방한하였다.

11) 존슨(Johnson, Lyndon Baines) 대통령은 미국의 36대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은 1963~1969년이고, 1966년 10월 31일 방한하였다.

12)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는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1968년 5월 18일 방한했으며,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의 친선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방문이었다.

13) 1968년 12월 21일 오전 10시, 경인, 경수 고속도로 개통식이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안양천교) 옆, 당중국민학교(초등학교) 교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 건설부장관 등 관계자,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가 가서 했어요. 식순도 있고, 대통령하고 찍은 것까지도 여기 핸드폰에 다 있어요. 개통식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를 하면서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년만 받겠다."고 그랬어요. 10년만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받잖아요. 처음에는 300원씩 올려서, 벌써 한 15년? 16년 전인가? 그때 9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내가 인천 목사연합회 부회장으로 있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녹색연합회 회장이 인천대학교 박창화 교수였어요. 그분에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개통식 식순을 갖다 줬어요. 이윤성 국회의원하고 나하고 셋이 도로공사 사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도로비[14]는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대요. 지금 통행량이 경인고속도로가 제일 많은데, 그건 좀 봐달라고. 그래서 1,100원 올리려고 그랬던 걸 900원으로 그냥 했어요.

동양화학 실험실에서 일하다

동양화학 공장장이 우리 7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급여가 1만 5천 원에 실험실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만 5천 원? 그때 다른 곳은 급여가 7천 원이니까 가라고. 그래서 돈 때문에 간 거죠.

1974년에 입사해서 실험실로 발령 받아 일했어요. 비커(Beaker), 플라스크(Flask)에 원료를 떠다가 염화칼슘을 사용해 농도를 재는 실험을 했어요. 내가 계장을 했고, 한 20명이 좀 넘는 직원이 근무했어요. 여성도 있었죠. 여

14) 통행료.



동양화학 공장 전경, 2009년

성도 한 7~8명이 됐던 것 같아요. 실험실도 3교대 근무했죠. 그때그때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항상 실험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 플라스틱(Plastic)이 뭐야? 그 가스(Gas)[15] 내가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게 영하 30도에 나올 거예요. 염소하고 가스(Gas)하고 혼합하면 PVC, 그거 전에 그 액체[16]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액화를 시키면 플라스틱(Plastic), 그 원액[17]이 맑아요. 그거를 비커(Beaker)에 떠가지고 공중에 던지면 확 날아가 버려요. 그건 공기와 만남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져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 팡 터져요. PVC, 그거 불나서 터지면 인천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플라스크(Flask)에

15) 여기서 '가스'는 아세틸렌 발생 공정에서 나온 냉각가스로, 카바이드+물=아세틸렌 과정에서 발생된다. 아세틸렌의 액화 온도는 영하 84도, 산업적 저장온도는 영하 30도 내외로, "영하 30도"라는 체감 온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 '그 액체'는 염화비닐 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VCM)로 보이는데, 이는, 상온에서는 기체지만,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되므로 "액화시킨다"는 표현에서 추정할 수 있다.

17) VCM(염화비닐 단량체)은 맑고 휘발성 강한 액체로, 공기 중에서 쉽게 증발한다. 실제로 비커에 담아 던지면 "확 날아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휘발성이 높다.

다가 한번 뿌리면 쫙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폭발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세 번? 실험하다가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몇 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소화기로 금방 끄긴 했지만 엄청 놀랐죠. 그러니까 그 탱크가 폭발하면 인천시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실험실에서 조그만 불이라도 못 끄면 큰일 나는 거죠.

특히 염산, 가스(Gas), 그런 거 할 때는 마스크(Mask), 고무장갑을 끼고 하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껴도 돼요. 시간에 한 번씩 떠다가 하고 그걸 다 기록에 남겼을 거예요. 기록한 일지를 봐서 안 맞을 때는 다시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도 거의 다 정확하게 맞춰요. 못 맞추면 제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퇴사 후 목사의 길을 걷다

교대 근무를 별로 안 하니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나는 술이나 담배를 안했고, 회식에 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되면 악기를 계속 했어요. 트럼펫(Trumpet)은 안 불면 입술이 굳어서 소리가 안 나요. 트럼펫(Trumpet)은 마우스피스(Mouthpiece)가 제일 작아요. 다른 악기는 그냥 입술이 두꺼워도 상관없이 누구나 불 수 있는데, 트럼펫(Trumpet)은 입술이 얇아야 돼요. 두꺼우면 못 불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안 불면 못 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활동은 안 해도 동양화학 근무하는 동안 계속 연주를 했죠.

그러다 8년 근무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만두었어요. 신학대학교에서도 음악 활동을 계속 했어요. 회장과 총무는 학교 등록금이 면제인데, 밴드부 지

도를 하면서 회장을 했어요. 졸업하고 주안 장로회에서 첫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교육 전도사를 거쳐 시무 전도사, 부목사까지 하다가 만수동에 주만교회를 개척해 28년 목회를 하고, 10년 전에 은퇴했어요.

지금은 한국 글로리아 앙상블(Korea Gloria Ensemble)을 조직해서 국가 행사라든가, 종교 행사를 맡아서 연주해요. 우리 교단에는 탈북한 '이북 교육자 은퇴회'라고 북한에 고향을 둔 목회자들 있어요. 거기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연주해요. 비록 동양화학 근무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문화원이 옛날 기억을 추억하게 해서 좋았습니다. 기록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9. 26.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강인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타워 플랜트의 불빛에서 상생의 길을 걷다



박병만

1954년	인천 학익동 출생
1973년	동인천고등학교 졸업
1974년	화신레나운(동일레나운) 입사
1978년	동양화학 입사
1992~2008년	동양화학 노동조합 위원장
2008~2014년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2014~2018년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노동협회 현 회장

박병만 님은 1973년 동인천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19세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게 된다. 첫 직장인 '화신레나운(이후 동일레나운)'에 취직하여 4년 동안 원단 제조 기계 파트에서 12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였다. 그는 그 당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한다. 이후 1978년 동양화학 생산직으로 입사해 8시간 3조 3교대 근무하면서 천국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주로 소다회 생산 공정 중 핵심인 '타워(Tower)' 플랜트에서 근무하였다. 입사 2~3년 후 노조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하였고, 1992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공약으로 동양화학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회사 발전과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였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노조 위원장으로서 선제적으로 임금 동결을 제안, 회사와 함께 위기 극복에 앞장서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상생의 선례를 남겼다.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 재임 시 2010년 인천 소재 중부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을 반대하며 인천 존치를 성공시키기도 하였다.

이회림, 이수영 회장 두 분에 대한 기억은 남다르다. 회장은 의전을 우선하기보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동양화학이 노사 간 큰 분규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상호 신뢰관계를 우선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인천노동협회 회장을 맡아 선배들이 일궈온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산업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는 역사와 사람을 기록하는 일이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며

학익동 569번지에서 1954년 3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학익동 토박이인 셈이지요. 누님 둘이 계시고, 아버님은 충청남도 당진군 천의면, 어머님은 정미면이 고향인데 전쟁 직후 인천으로 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7남매 중에 장남이셨는데 아버님이 먼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인천에 정착을 하고, 동생 분들이 뒤 따라서 인천으로 다 왔어요. 아버님이 장남이고 제가 장손이다 보니 집안 일만 생기면 전부 저희 집으로 와서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집안 친척들도 인천에 한 번 올라왔다 하면 저희 집으로 오니까, 하여튼 뭐 시끌벅적했어요.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생활력이 좀 강해야 어머니도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생활력이 좀 없었어요. 워낙 약주를 좋아하셨고요. 집 근처 조선철강에 다니시면서 자주 약주를 드셨죠. 쌀이 떨어져 먹을 게 없으면 어머니께서 떡 장사도 하고, 팔다 남은 떡을 끼니로 먹은 기억도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지만요. 하여튼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호미마을에 있는 구술자 박병만 님이 태어난 집

근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손찌검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가서 아버님 허리를 잡고 그랬던 것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님을 잡으면 꼼짝 못 하시기도 했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때인 1973년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거의 하나 같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훌륭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희 아버님 참 좋으신 분이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본인들한테 잘해주니까 그랬겠죠. 저한테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때 '아! 가장은 밖에 나가서도 잘해야 되는데, 가족한테도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을 치루며 아버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학창시절,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12시간 맞교대 일을 하다

저희 때 학익초등학교가 오리지날인데 학생 수가 많지 않았어요. 1, 2, 3반 세 반밖에 없었지요. 학생 수도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한 160명? 그 당시 중·고등학교는 순위가 있어 상위 클래스면 중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자꾸 떨어졌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거의 하위로 갔었지요.

동인천고등학교를 나오면 자기 의지만 있으면 다 대학교 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대학교 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신레나운[1]에 취직을 했죠.

화신레나운은 원단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편집기로 짜고, 최종적으로 염색·가공해서 판매하는 건데, 저는 그런 기계 만지고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 당시는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아버지를 보고 느낀 게, 진짜로 생활력을 가진 남자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든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12시간 동안 맞교대로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 시간도 없고, 하다못해 친구들 한 번 만나려고 해도 참 어렵고.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OCI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인천공장을 두었던 여성용 정장 제조업체. 1973년 11월 학익동 430에 외국인 투자 기업인 화신레나운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81년 2월 25일 동일레나운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글에서는 '화신레나운'으로 통일한다.

OCI 3조 3교대 근무, 천국이 따로 없다

1978년 5월에 동양화학 소다회 생산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화신레나운에서 12시간 맞교대 하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동양화학은 3조 3교대로 8시간씩 24시간 계속 생산해요. 타워라는 중심부가 소다회 생산 공장이에요. 중심 플랜트에 파트가 몇 개 있는데, 제품을 만들어 포장실 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칼사이나 플랜트(Calciner Plant)에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건조시키는 곳을 칼사이나(Calciner)라고 하는데, 제가 맡은 업무는 타워에서 칼사이나로 보내는 그 일이에요. 거기에 3개 파트가 있었는데, 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요. 업무가 바뀌면서 이것저것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야를 제일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나서 1988년에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갔어요. 당시 같이 일했던 분이 이준흥 위원장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88서울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우리 회사 계열사들 다 불러서 운동장에서 운동회도 했었어요. 제가 사무국장이었으니까 사회도 맡아 진행했죠. DCRE 4층 건물이 있잖아요. 그 근처가 운동장이었거든요. 씨름부터 시작을 해서 축구, 달리기 등 종류는 많지 않지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운동한다는 게 좋은 의미니까요. 우승하면 기념품을 주는 그런 즐거운 추억도 있었어요.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을 두다

동양화학 들어갔을 때 노동조합이 오픈샵(Open Shop)[2]이어서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구체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나하고 좀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진 거죠. 소속감을 갖기 위해 단체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사용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게 아니라 노동자라는 개념에서 인위적인 힘이 좀 필요 하겠다 생각한 거죠.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노동조합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다 인간관계예요. 그게 조직 습성에도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단위는 조금 바운더리(Boundary)가 좁다는 걸 느꼈죠.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천지역본부도 있고, 여의도에 있는 중앙노총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OCI 노동조합은 내가 좀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노동조합 들어가자마자 사무국장을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 타워 플랜트 대표가 대의원이 돼야 노조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있다가 대의원으로 시작해서 동양화학을 그만둘 때까지 하게 된 거죠. 노조

2) 노동자의 채용이나 고용 유지 조건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장 형태를 말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차별 없이 자유롭게 고용되며, 노조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부장, 후생부장, 교육부장 이런 부장들이 상집[3]인데 한 10여 명이 있고, 나머지는 대의원이에요. 1988년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사무국장으로 6개월 일했어요. 그러다 위원장이 바뀌면서 사무국장을 그만두고 상집을 했어요. 당시 제가 모셨던 분이 떨어져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상집으로 활동하다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상생을 기치로 동양화학 노조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다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은 전임을 해야 돼요. 전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던 업무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죠. 제가 한 6개월 동안 사무국장 할 때는 타워업무에서 완전히 떠나서 노조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위원장이 바뀌면서 사무국장직을 그만두고 현장으로 원대 복귀한 거죠. 노사 관계를 잘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꼭 내세울 건 아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장에 복귀했을 때도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상시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는 관계를 현장에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회가 되면 위원장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얘기를 많이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했으니까 상당히 고맙죠. 무슨 일을 하든,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워낙에 벽이 많기 때문에 어떤 조

3) 상무집행위원의 줄임 말로 노조의 운영을 집행한다.

직이든지 같이 동조해 주고, 협력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옛날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직 관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저는 인간관계 맺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인간관계는 책임도 따르죠.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고 잘해야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 회사와 노동자들의 발전이 동일하게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도 살고, 조합원들도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을 평상시에 노조원들 만날 때 항상 강조했어요. 저는 어떤 조직도 '모든 조합원들이 100% 만족을 못 느낀다.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 70~80%가 동의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늘 공식적으로 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조합 위원장으로서 한두 마디로 솔직하게 요약한다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노(勞)든 사(使)든 일방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여금 인상문제를 협상하게 되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독대도 하고, 우리 노동조합하고 상대하는 임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요. 옛날 생각 많이 나요.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과 인천시의원을 역임하다

노총이라는 저희 조직이 상당히 여러 분야예요. 스물 몇 개 되는 조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화학 본부장을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노총인

천지역본부 사무실에 상근도 했지요. 2005년에 지역본부 의장으로 출마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때 여의도에 있는 전국조직인 한국노총화학연맹에서 연락이 와서 본부 사무국장으로 3년 동안 근무했죠. 그러다가 2008년에 인천화학본부에서 여기 좀 다시 나와 달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지요. 그리고 2008년에 선출되어 3선을 했지요.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을 할 때 정부가 인천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청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2010년이죠. 그 노동청을 경기도가 가져가려고 한 거지요. 그때 노동청이 가는 걸 제가 막았어요.[4] 인천지역본부 의장하면서 가장 큰 업적으로 그거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어요. 그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썼는데, 특히 연수구에 있던 황우여 국회의원 아시죠? 그때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맨날 집회하고 시위하고 해서 결국은 경기도가 항복하고, 여기 그대로 남게 된 거예요.



출처: 매일노동뉴스, 2008.04.18

4) 중부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 시도는 2002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에 경기도와 경기도 정치인들의 밀실야합이 있었다며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한 사건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11.05.07

그렇게 해서 3선을 했는데, 임기 2년 남겨놓고 시의원으로 들어갔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가자! 그런데 가는 마당에 다 정리하고 가자.'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간 거예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7대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돼서 막판에 부의장까지 했어요.

위기 극복은 노사 간 소통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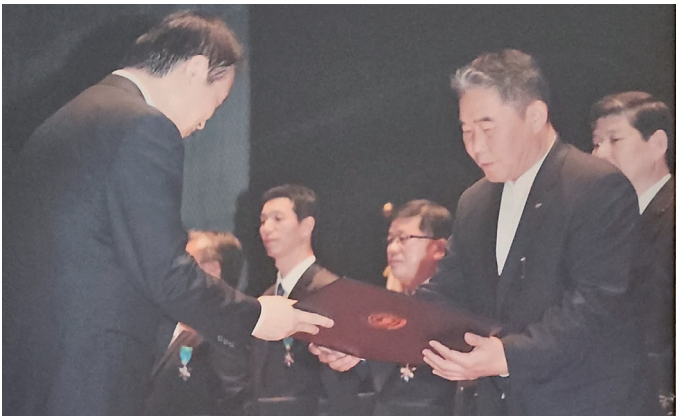
어느 한쪽에서 맹목적으로 자기주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울 때, 일정 정도 노동조합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2007년 세계 금융위기[5]가 닥쳤을 때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임금 인상 안 하겠다, 동결하자."라고 말했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사장이나 경영

5) 2000년대 초 미국의 경기 악화, 새로운 정부 출범, 저소득층 주택 장려 정책, 초저금리 시대 장기화, 통화량 증가, MBS·CDO 등 파생상품의 발달, 개인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7년, 2008년 세계 규모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사건이다.

자 측이 놀라잖아요. 대신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좀 넘기라고 했어요. 나중에 정상화되었을 때 특별 보너스도 주고 그랬어요. 노사분규를 잘 해결해서 최기선 시장, 안상수 시장의 상도 받았어요. 장관이 주는 상도 받고, 경영자총협회가 주는 상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뭐냐 하면, 노조 위원장이 되었을 때가 우리 회사 1년 매출액이 3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위원장 그만둘 때는 3조 원이 되었지요. 저는 그런 자부심은 있었어요. 처음에 위원장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파업까지도 준비했어요. 저부터 삭발하고, 간부들 삭발하고, 지부장들도 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놀랬죠. 근데 실행은 안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지만 보이자는 거였죠. 당연히 회사가 어렵다는데 우리 거 찾자고 무슨 파업을 그렇게 해요. 지역에서 파업하는 조직들 많잖아요.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다.", "근데 왜 파업 하냐? 꼭 파업밖에 길이 없냐?"라고요.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복지 문제는 노조가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예요. 그런데 복지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미흡했고 소홀했어요.



근로자의 날 산업포상 수상, 2010년

옆에서 지켜본
OCI 회장의 고뇌와 소회

초대 회장님과 2대 회장님과는 많은 얘기를 했지요. 두 분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소다회를 만드는 공장은 이렇게 큰 매립지 같은 데가 필요하죠. 웬만한 사람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에요. 바다를 메워서 한다는 거 말이죠. 그리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자가 똑같이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부자간에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니까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수영 회장님은 사장하실 때부터 계속 만났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회장님은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없으셨어요. 연관된 얘기지만 "우리가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천 시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가치관이 있어서 웬만하면 인천시와 벽을 안 두고 합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시에서 원하면 웬만한 부분은 들어주고, 기부하고 하는 거를 솔선수범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다 알죠. 제가 때로는 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종업원들한테 안 해주고 어떻게 인천시에만 다 해주시냐."라고요. 그건 뭐 농담이지만 나중에 참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잖아요. 송영길 시장 때 세금 1,700억을 부과해서 회사가 휘청 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서울 본사에도 법인세가 3,000억인가 나와서 아주 회사가 휘청했어요. 이거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에 가서 판정이 났잖아요. 인천시가 잘못한 거죠. 그때 이의 제기하면 손해배상으로 몇 백억 원 받을 수 있었어

요. 회장님이 그 소송 기간 동안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상받아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받아야 되겠지만, 하지 마." 이 양반은 미래까지 보시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 거예요. 2017년 대법원에서 판결났을 때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여서 "제가 받을 테니까 회사에서는 모른 척하세요." 그러니까 "어유! 제발 좀 그러지 말라. 문제 좀 만들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참 바보였어요. 그때 해야 했는데, 회장님 말 듣고서 안 했으니. 그래서 그게 참 억울해요. 지금도 뭐 다 알려진 상황이지만 사사건건 인허가 건 가지고 자꾸 늘어지고, 공사 못 하게 막아 가지고 얼마나 피해 보게 만들었어요. 인천시는 지금 요구해서 받을 거 다 받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논리지만, 기업은 이윤을 보자고 운영하는 거지 손해를 보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으니 못마땅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좀 많이 도와줄 걸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도와줄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좀 아쉽죠.

인천노동협회 운영과 향후 이루고 싶은 일

2018년에 정치를 그만둔 후 딱 인천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인천노동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의 50년 돼가요. '이거를 당신이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2, 3년만 하고 말아야

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인천노동협회[6]를 맡았죠. 그래서 자생력을 갖는 조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는 걸 실감해요.

지금 은퇴한 공무원들도 만나고, 동양화학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이수영 회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벌써 실행했을 문제인데 못한 게 있어요. OCI를 거쳐 간 직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현장 출신들은 은퇴하면 전부 따로따로 부서별로 모여요. 예를 들어 공무부는 공무부만, 생산부는 생산부만 모여요. 저는 참석 안 하지만 제가 이런 모임들을 하나로 다 끌어 모으고 싶은데, 물질적인 게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번 문화원 기록사업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역사와 사람을 기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문화원은 잘하는 겁니다.

6) 인천시 노동협회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평화 진작과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안정과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4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9. 9. / 2025. 9. 10.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표기자, 조연희(미추홀시민기록단)



해고, 복직, 구조조정의 삶을 극복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거듭나다



조유형

1958년	부평 출생
1983년	삼광유리 입사
1992년	삼광유리 해직
1995년	삼광유리 복직
1998년	삼광유리 퇴직
	현재 '부평골 마을관리소협동조합'과
	'맑은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유형 님은 1958년 인천 부평 신촌에서 태어났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1983년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삼광유리 유리병 포장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공무과에 근무하였다. 1991년 2대 노조위원장으로 추대되어 파업과 임금협상을 이끌었으나 제3자개입금지 위반을 이유로 1992년 해직되었다. 해직 3년 동안 그는 비디오 가게, 용접, 건설현장, 우유 배달 등 일을 하며 복직을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딸에게 아빠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승소하였다. 1994년 동양화학이 삼광유리를 인수한 후 1995년 그는 복직을 하게 된다.

현장 복귀를 견제한 회사는 그를 본사(TQM 사무국 및 영업부)로 발령을 냈다. 생소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새벽에 출근해 독학으로 컴퓨터를 익히고, 롯데칠성 등 주요 거래처 담당 영업사원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IMF 위기는 삼광유리를 비껴가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

구조조정은 오히려 첫 직장에 대한 미련을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의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쓰레기집 청소 등 봉사를 하다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주민들과 함께 '부평골 마을관리소 협동조합'과 '맑은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독사 현장 유품 정리, 공영장례, 공구 대여, 집수리 지원도 하고 있다. 그는 지역 공동체 마을 활동가로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 뿐'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삼광유리 유리병 포장 아르바이트하다 공무과 직원이 되다

1958년 부평에서 태어났어요.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부분 한 3개월은 놀아요. 제대하고 놀고 있는데 삼광유리 근무하고 있던 여동생 친구가 "놀면 뭐 해, 심심한데 그냥 나와서 알바나 좀 해." 그래서 알바를 했죠. 1983년 2월에 제대해서 이후 입사했는데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기억 안 나요. 면접은 나중에 봤어요. 면접 보기 전에는 포장과에서 일했어요. 서울우유 우유병을 포장해 담는 일이에요. 그때는 오래 다닐 생각도 안 했고, 어차피 한, 두 달 정도 일하고 그냥 다른 데 들어가야지 했어요. 저는 기계과를 나왔으니까 '뭐 어디 들어갈 데 없겠어. 그냥 용돈이나 좀 벌다가 그 돈으로 일단 술이나 좀 먹고,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다.' 뭐 그 정도 생각한 거죠.

두 달 포장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QC[1]로 부서이동 후 아버님이 면접을 보라고 하셔서 갔더니 면접관이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1) Quality Control. 품질관리 부서

옛날에 한국유리 공장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가고 싶냐 해서 정비과나 공무과를 갔으면 좋겠다 한 후 한참 뒤에 공무과에서 일했어요.

유리병 검수, 자동화 설비로는 한계가 있어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판유리와 달라서 기계 한 대 당 하루에 한 20만 개가 나와요. 제 기억으로 하루에 한 12만 개 정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 콜라병, 칠성사이다병 그리고 화장품 샘플병, 요만한 샘플 병 등 그런 것 까지 바글바글 나와요. 유리병이 기계에서 곧바로 나가면 터져요. 왜냐하면 스트레인[2] 때문에 냉로를 거쳐 서서히 식혀요. 통과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제조과정에서 병이 나오면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검사를 해요. 콘베아 앞에 경광등이 있어 아가씨들이 쭉 앉아 검사하고, 불량제품을 빼내요. 사람 눈으로 금이 간 것을 찾아내는 거죠.

QC 현장은 3교대이니까 한 반에 6, 7명 정도가 병이 나오면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요. 씨드검사[3], 스트레인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제가 입사하고 한 5년 정도 뒤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화 설비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동화를 했어도 자동화 검사에서는 스트레인이나 씨드나 이런 것들은 못 잡아내요. 금간 것만 잡아내요. 병의 바닥을 보면 두께가 보통 일정한데, 어떤 거는 한쪽이 얇고, 한쪽이 두꺼운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런 걸 잡아내서 불

2) strain. 용융 유리가 성형된 위 아직 충분히 식기 전 유리 내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뒤틀리는 힘/변형' 상태를 말한다.

3) 유리 내부에 남아 있는 작은 기포. 유리병 내부에 기포(씨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다.

량 처리해요. 처음 들어온 게 팩커[4]라고 병이 쭉 모이면, 집어서 박스에 옮겨요. 그때 제가 경기도 이천인가 금복스토크[5]라는 회사에 가서 직원 2명하고 직접 기계를 조립하고, 테스트해보고 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기계를 만지고, 조립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기계 냄새, 쇠 냄새를 좋아해요.

삼광유리 제2대 노조위원장으로 추대되다

저의 신념은 '노조위원장을 그만두면 다시 평조합원으로 간다.'입니다. 제가 삼광유리 2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노동조합 일을 40살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저런 과정에서 제가 추대가 돼 2대 위원장을 했어요. 그때가 1991년이니까 30대죠. 수원에 있는 본조 노동조합은 1988년, 1989년 경에 있었고, 삼광유리 인천공장에 지부를 만든 거죠.

제가 노조위원장 선거 운동할 때 자꾸 회사에서 '조유형이는 인노협이야.', '조유형이는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뭘 막 던져요. 근데 한국노총은 성이 안 차고, 인노협은 너무 쎄고. 그래서 중간 조직인 '노동조합 활성화 추진위원회'[6]가 있어서 거기서 활동을 했죠. 주안역 뒤에 보면 '골목집'이라는 노동 사무국도 있어 맨날 모여서 복시락복시락 했어요.

4) 팩커의 집게(그립퍼)가 병을 한꺼번에 집어 옮기는 장치다.

5) 금복스토크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인근)에 위치했던 식품가공 기계 및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다.

6) 조유형 님의 해고 사유의 배경이 된 조직이다. 파업 당시 이 조직이 삼광유리를 한 번 방문한 것이 빌미가 되어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임금협상과 해고

삼광유리가 있는 곳은 주안공단이나 다른 공단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큰 흐름하고는 별개로 있었죠. 다른 회사는 거의 다 자동화로 돼 있는데, 삼광 유리만 노동집약적이고 3교대 사업장이라 다른 회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죠.

봉급은 가장 낮았어요. 1983년 처음 받은 월급이 15만 원이에요. 보너스 400%인데, 반은 식기로 줘요. 그래서 기본급과 보너스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근데 잘 안됐어요. 본조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본조는 회사 사람들하고 술도 잘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으니까. 임금 협상하면 우리는 내려오는데 그 쪽 사람들은 회사 선배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래요.

본조가 먼저 파업을 풀고, 계열회사 삼보유리[7]도 풀고, 우리는 오래 했어요. 저희는 끝까지 갔죠. (노사협상 할 때) 제가 아마 보너스 600, 700%까지 올리고, 정년 1년 연장, 혹시 해고당했다가 복직할 때는 두 배를 받는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잘렸죠. 파업 끝나자마자 저하고 사무장 둘 다 해고됐어요. 저의 해고 배경은 아마 노활추(노동조합활성화초진위원회) 회원들이 우리 회사를 회의 한번 하러 온 것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이라는 거였죠.

7) 삼광유리공업 계열의 유리용기 제조업체로, 1999년 삼광유리공업에 흡수합병되었다.

복직투쟁과 승소, 그리고 본사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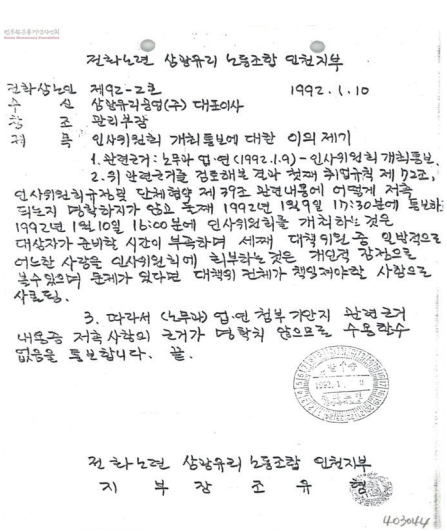
제가 해고되고,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3개월 동안 회사에 있었어요.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나갔죠. 유인물 만들어서 밖에서 한 달 동안 출근 시위를 했어요. 처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취소를 신청하고, 소장도 제출하고 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소 취하를 했어요. 그러다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에 들어간 거죠.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동양화학은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심은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오케이, 인정' 그렇게 된 거죠.[8] 제가 해고됐을 때 어린 딸한테 아빠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기에 복직(투쟁)을 한 겁니다.

근데 회사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또 나갈 테니 골치 아프니까 서울 본사 발령을 냈어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본사에다 앉혀놓으면 저거 분명히 한 3개월 있으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한 거죠. '조유형이가 본사로 온대. 너희들 말 걸지 마. 아는 체하지 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991년 위원장 되고, 1992년 해고, 1994년 동양화학이 삼광유리를 합병한 후 1995년에 복직한 거죠.

그때 당시에 TQM[9] 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양화학에서 아마 꽤 오랫동안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저 구석댕이 사무실에 딸랑 사무국장 한 명,

8) 해고 당시에는 삼광유리가 동양화학에 인수되기 전이었다. 1994년 동양화학이 삼광유리를 인수한 후 회사가 구술자의 복직 승소 판결을 받아들였다.

9)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전사적. 총체적 품질경영을 회사 전체에 추진하기 위해 만든 전담 조직이다.



전화노련 삼광유리 노동조합 인천지부

전화상노련 제92-2호 1992. 1. 10

수신 삼광유리공업(주) 대표이사

참조 관리부장

제목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에 대한 의의 제기

1. 관련근거 : 노무와 업·연 (1992.1.9) -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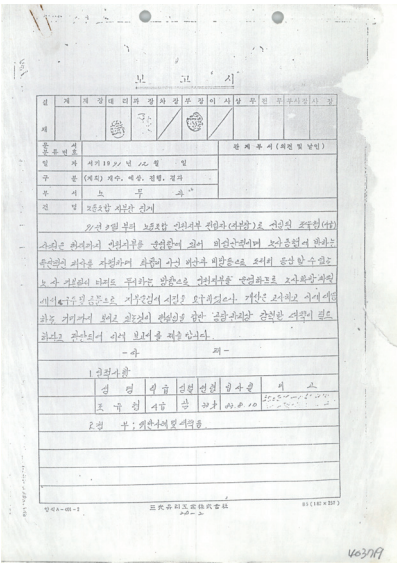
2. 위 관련근거를 검토해본 결과 첫째 취업규칙 제 72조, 인사위원회규정 별첨 단체협약 제 39조 관련내용에 어긋나게 저촉되므로 명확하지가 않고 둘째 1992년 1월 9일 17:30분에 통보해 1992년 1월 10일 16:00 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상자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며 세째 대책위원을 일방적으로 어느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개인적 감정으로 볼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대책위 전체가 책임져야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3. 따라서 (노무와) 업·연 첨부 각항과 관련 근거 내용등을 저희 사항의 근거가 명확치 않으므로 수용할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끝.

1992. 1. 10

전화노련 삼광유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 부 장 조 유 현

403044



보 고 서

결재 부장 이사장 부회장

품의번호

일자 서기 19 년 월 일

구분 (지출) 계수, 예수, 전표, 결의

부서노무과

건명 노동조합 자문건 건에

90년 3월부터 노동조합 인천지부 전임자(대의원)로 선임된 조합원(안) 자격근로 확대하기 위한 자부를 승인함에 따라 비업근로하여 보수등협의 문제점은 회수를 거절하여 회원이 아닌 비조합원으로 보아 출입할 수 없고 수 시 거절하기 때문 부득이로 인한서를 면접하므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개인은 서약과 자세 태도 거부하여 왔고 관련의 면담을 통한 결과처리와 협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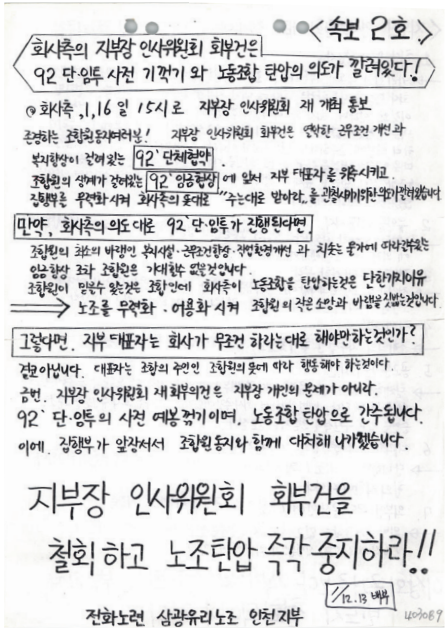
1. 관련사항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급	직책	비고
조유현	서울	88.8.10			

2. 건 : 개인서약 및 각각 등

인천시-001-1 크림유리노동조합 용지(180×257)

403049



속보 2호

회사측의 지부장 인사위원회 회부건은
92 단·임투 사전 기꺾기 와 노동조합 탄압의 의도가 깔려있다!

① 회사측, 1,16 일 15시로 지부장 인사위원회 재 개최 통보

존경하는 조합원동지분! 지부장 인사위원회 회부건은 엄청난 음모와 개인과 부서장이 짜여진 92`단체협약 조합원의 생계가 걸려있는 92`임금협상에 앞서 지부 대표자를 제거시키고 조합원을 무력화 시켜 회사측의 "수는대로 발아라, 줄 것없이 부려먹겠다"는 속셈이 명백한 음모라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측의 의도대로 92`단·임투가 진행된다면,

조합원의 3분의 바램인 복지실현·근무조건향상·생산성향상 과 차원이 다른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심없는 일부 조합 3차 조합원은 기대할수 없을것입니다.
조합원이 많을수 없는 조합안에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것은 단합하지 못하는 이유
⇒ 노조를 무력화 · 어용화 시켜 조합원의 작은 요망과 바램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부 대표자는 회사가 무조건 하라는대로 해야만 하는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대표자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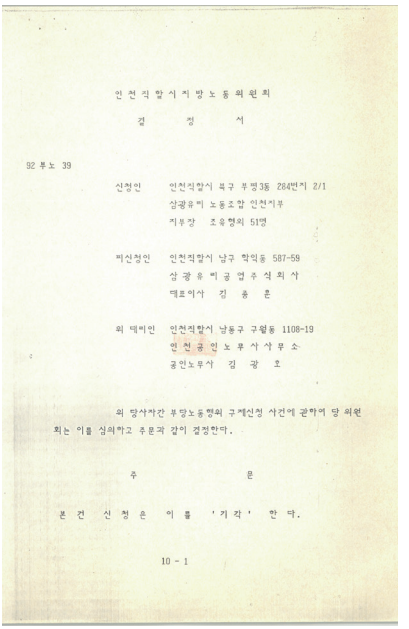
금번, 지부장 인사위원회 재 회부의건은 지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92` 단·임투의 사전 예봉 꺾기이며, 노동조합 탄압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집행부가 앞장서서 조합원동지와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부장 인사위원회 회부건을
철회하고 노조탄압 즉각 중지하라!!

92.12.13 배부

전화노련 삼광유리노조 인천지부

403089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92 부노 39

신청인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3동 284번지 2/1
삼광유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조유현 51명

피신청인 인천직할시 남구 학익동 587-59
삼 광 유 리 공 업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홍 룬

위 대리인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108-19
인 천 공 인 노 무 사 사 무 소
공인노무사 김 광 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 청 은 이 를 '기 각' 한 다.

10 - 1

삼광유리 노동조합 지부장 징계 관련 대응 문서,
1991년~9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여직원 하나, 나 포함해서 남자 둘 그렇게 딱 4명이 일을 보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를 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죠. 독학으로. 그래서 TQM 사무국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사무국에 4명이 앉아 있는데, 커피 마시러 한 명도 놀러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짰죠. 외출 나갔다 오면 떡볶이를 사와 여직원들한테 한 봉지씩 떡볶이를 나눠주었어요. 한 달 지나니 한 명씩 놀러 오더라고요. 다른 회사 제휴·교류로 일본 갔다 오고,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다 IMF 위기에 영업부 각 팀에서 한 명씩 감축을 하는 구조조정을 했어요. 영업 1팀에서는 제가 됐죠. 고맙다고 그랬어요. 삼광유리가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기를 바란 거죠. 이제 첫 직장에 대한 굴레를 벗어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별식 때 다른 사람들은 울었지만 나는 딱 단상에 올라가서 "나한테 드디어 해방감을 줘서 고맙습니다." 했어요. 해고 싸움을 할 때는 회사 버스만 봐도 가슴이 아릴 만큼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회사가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인원 감축을 하는 문제를 지적해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많이 싸워봤으니까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나의 길을 한 번 가보자 한 거죠.

퇴직 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다

야간에 음식물 수거 일을 한 15년 했어요. 밤에 일을 하니까 낮에 뭐 할 게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파업할 때 했던 풍물을 다시 시작했죠. 제대



삼광유리 인천공장, 2012년,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로 교육을 한번 받아보려고 집중적으로 했죠. 계속 연습하다가 자격증도 따고 우리 성당 풍물패도 만들었어요. 5년 전인가요? 레지오[10] 도입 50주년 행사가 있는데, 아는 선배가 풍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4개 성당 풍물패 한 80명이 카톨릭 연합 풍물패를 만들어 당일 부천체육관에서 공연했어요. 근데 나이들도 많고 다 없어졌어요. 목공도 잘하는 친구가 있어 같이 하면서 동암중학교 목공 수업을 담당하기도 했어요.

제가 한 3년 전 부평구자원봉사센터 팀장의 긴급 청소 제안으로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해줬어요. 공구를 빌려주는 공동이용 시설 주택관리소 소장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공구 한 200만 원어치 진열을 해놓는 걸 보고 한심해서 제 집에 있는 공구를 다 가지고 와서 몇 달 공구를 빌려주기도 했어요. 근데 빌려줘도 쓸 줄 몰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을협동조합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청천동

10) 레지오는 천주교 신앙단체인 '레지오 마리애(Legio Mariae)'를 줄여 부르는 말로, 단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와 이웃 봉사, 선교 활동 등을 한다.

에 있는 '맑은네사회적협동조합'도 이번에 공영장례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 조문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공 조문단을 만들었어요. 무연고 사망이 뜨면 진행하는 거를 맡아서 하는 거죠.

마을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지역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관리가 되고,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에는 사람만 남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남는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성당 풍물패 활동



부평골 마을관리소협동조합 간판

‖ 면담개요
· 일시: 2026. 8. 7.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표기자(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이혜숙(미추홀시민기록단)



신뢰를 자산으로
카리화학 생산현장
변화에 앞장서다



강희갑

1948년	충남 서산 출생
1966년	인천기계공고 입학
1975년	동양화학 동력과 입사
1978년	한국협화화학 입사
1981년	카리화학(현 ㈜유니드) 입사
1988년	카리화학 생산보전운동 사무국장
	2008년 ㈜유니드 정년퇴임
	독실한 교인으로 현재 교회에서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강희갑 님은 충남 서산에서 자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인천으로 이주하여 1966년 인천기계공고 자동차학과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합판회사에서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자 실직상태에 놓인 1년 동안 열관리, 고압가스, 냉동 등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기반으로 1975년 동양화학에 공채로 입사해 동력과에 배치되어 3년간 일을 하였다. 이후 한국협화화학으로 이직하여 3년 간 근무하다 동양화학이 외국 기업과 합작하여 신설한 카리화학(현 유니드)에 스카우트되어 창립 멤버로 28년간 근무하고, 2008년 정년퇴직을 하였다.

그는 상호신뢰가 생산 현장의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큰 자산이었다고 한다. 1988년 산업현장을 휩쓸었던 노동자 투쟁 당시 카리화학 노조 총무를 맡았다. 그는 임금투쟁 대신 노사 양측을 설득해 전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원 아파트와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제도 도입을 요구함으로써 동료들의 신뢰를 받았다. 현장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혼기념일, 가족 생일, 자녀 입학 등을 컴퓨터(PC)에 꼼꼼히 기록해 선물을 챙기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그의 이 같은 열정은 'TPM(종합생산보전)' 운동의 사무국장을 맡을 때도 두각을 드러냈다. '정리 정돈' 시스템을 공장에 도입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현장 노동자의 불필요한 동선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산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갔다.

그는 2008년 5월 28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생산현장의 동료들과 지금까지 정기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어떤 형태의 퇴직자 모임이든 회사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유니드의 퇴직자 모임 지원은 회사와 노동자 간 상호 탄탄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물포고 졸업한 형님의 권고로 인천에 올라오다

저는 1948년 양력으로 5월 5일 충남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에서 태어났어요. 호적에는 1950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서산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1966년 인천기계공고 자동차 학과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둘째 형님이 제물포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너도 제물포고 다녀라."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형님이 인천기계공고 원서를 가져왔어요. 앞으로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며 자동차 학과를 지원하라 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차학과에 진학하게 된 거죠.

졸업하고 군 생활 1년 반을 했어요. 내가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돼서 안 보여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갔죠. 대신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기관병으로 6주 훈련하고, 파출소에서 1년 반 근무를 했어요. 1973년 11월 9일 결혼하면서 누나 집 근처에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살다가 1980년에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이사해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군 제대하고 결혼 전에 특수베니어공업주식회사라고 합판 회사를 좀 다녔어요. 대성목재 같은 공장에서 다루는 원목을 취급하는 회사였는데, 그곳의 발전소 동력과로 들어갔죠. 동력과에는 물 관리, 스팀 관리, 전기 관리 그렇게 세 파트가 있어 거기서 일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한 1년 정도 일을 쉬었어요. 그 때 공부를 했지요.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열관리, 위험물, 고압가스, 냉동 관련 기사자격증을 다 땄어요. 운전면허는 내가 자동차학과 졸업한 뒤 1970년에 취득했고,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공개채용으로 동양화학 동력과에 입사하다

1975년 3월 동양화학에 입사했어요. 그때 동양화학이 150톤 생산을 하다가 증설해서 또 150톤 증설을 했어요. 그때 40명 공개 채용 신문 광고를 보고 응시해서 합격했어요. 화학 공장 생산 업무가 아니고 설비 가동에 필요한 물, 전기, 열, 일반 설비 관리부서에 배치되었어요. 전공이 기계 쪽이라 내연기관 열 관리 기사 자격증, 소방관리 위험물 기능 자격증을 취득해서 동양화학 발전소 쪽에 배치되어 일을 한 거죠. 발전소 보일러는 물을 넣어서 끓이면 스팀이 발생해요. 42kg 터빈에 계속 열을 가열하면 스팀의 압력이 상승해요. 이 터빈은 원형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날개 브리드가 있어요. 회전이 엄청나서 그 회전력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한전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단전될 경우 자체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거죠.

왜 이게 꼭 필요하냐면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 설비들이 정상적

으로 운전이 되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 안에는 있는 물이 굳어버려요. 굳으면 공장 가동을 못합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가 발전시설이 꼭 필요한 거죠. 제가 맡은 업무가 공장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소 설비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공장 대정비를 해요. 그날은 종일 설비를 뜯어 청소하고, 탱크도 청소를 해요. 1년 동안 계속 가동해서 밑에 찌꺼기들이 잔뜩 있잖아요. 장화 신고 그걸 다 청소하려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말도 안 해요. 사람 꼴 안 나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다 만나니까 회식을 해요. 회식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과별로 회식을 해요. 반장도 만나고, 주임, 과장도 만나며 그냥 잡담하면서 먹는 거죠. 여기 학익동에 아가씨들 많은 끽동[1]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요. 난 무서워서 거기 근처도 안 갔어요. 가면 막 잡고 그러는데 그게 무서웠어요. 대신 단골집이 있는데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시켜놓고 화투 치고 하죠. 술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때는 3교대로 근무했어요. 3조 3교대니까 생활 리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자고, 다시 출근하고 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놀고 그러지 못했어요. 고생 많았죠. 한 달 봉급 12만, 13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 다니다가 동양화학에서 받던 급여보다 많이 받고 협화화학에 갔는데 지금은 없어졌지요.

1) '끽동'은 1960년대 초 학익파출소 뒤편에 형성되었던 집창촌(성매매 집결지)을 뜻하는 은어다. 재개발 사업으로 2007년 6월 모두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카리화학에 입사하다

내가 동양화학 3년 다니고 협화화학 3년 차 될 때 카리화학에서 어느 과장인지 나를 찾아왔어요. 지금 삼광유리가 있고, 저수지 지금 개발하는 거기에 동양화학이 미국 다이아몬드 샴록하고 50대 50 합작으로 1979년인가 1980년에 카리화학이라는 공장을 설립한다는 거예요.[2] 이런 회사를 짓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다며 같이 일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협화화학에서 급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면접을 했는데 카리화학에서는 그 급여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카리화학에서는 과장급 급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을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거기로 가는 건데 오히려 더 뺏겨 갖고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협화화학은 규모가 작고, 여기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항에서 자라는 고기하고, 연못에서 자라는 고기하고, 바다에서 자라는 고기'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때만 해도 30대니까 앞으로 먼 미래를 보자고 생각해서 카리화학으로 갔어요. 카리화학은 내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원해서 간 거구요. 공사가 끝나고 1982년 10월에 갔어요. 초기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2008년 5월에 은퇴했어요.

2) 1980년 한국카리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동양화학 계열사로 동양화학이 미국 다이아몬드 샴록(Diamond Shamrock)과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1995년 카리화학은 유니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한국카리화학 인천공장 전경, 1980년, OCI 50년사



도열병藥공장 연내완공

東洋化學

지난해 美國의 다이어먼드 샴록社와 合作으로 설립한 韓國카리化學공장이 지난 4월 완공됐다。이번 공장 준공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가성칼리와 탄산칼리의 국내공급이 가능해졌다。이회사는 또 벼도열병 방제약인 「빔」의 생산을 위해 엘코매니지먼트社와 공동투자, 현재 仁川에 공장을 건설중인데 연내 준공이 가능할 전망。

◇東洋化學 仁川공장

「카리화학 도열병 약공장 연내 완공」, 매일경제, 1982. 6. 3.

신뢰를 자산으로
조합원 복지 향상을 이끌어내다

동양화학에서 일할 때는 노동조합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1988년 카리화학 노동조합 설립에는 참여했어요. 그때 인천기계공고 후배가 위원장을 하고, 내가 총무를 맡아 같이 일했지요. 노사 임금협상 할 때 우리는 25% 요구하고, 회사는 5~7%를 제안하니까 갭이 커서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품이 생산되면 정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못 나가게 정문을 차단해 버려요. 당시 내가 주임으로 있었는데 회사에서 "회사 측과 노조 측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로 풀어갈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 좀 맡았으면 좋겠다."며 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예민한 상황인데 내가 앞장서서 했다가 그거 괜히 욕먹고, 내 명(命)까지 못 사니 못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에서는 "돈 받고, 회사 앞장서 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서로 내려놓고 양보해야 하잖아요. 요구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지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택을 구입하여 집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전세나 월세를 놓고 누구든지 원하면 사택으로 들어와 살도록 했어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축을 할 수 있고,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반 먼저 출근을 해서 피시(PC)를 열어요. 오늘은 누가 생일이고, 누가 결혼기념일인지 다 리스트 작성해서 전화해요. 어린이들 필통, 연필, 책가방 그리고 부부 결혼기념일 장미꽃 한 송이 해서 집으로 가요. 자기 남편도 애들도 아무도 해 주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축하해

주고, 애들 염려해 주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울어요. 서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신뢰는 큰 자산이에요. 과거에는 돈이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이 자산이라 생각해요. 내 직원들한테 베풀고, 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거죠.

TPM 사무국장으로 공장혁신을 이루다

회사에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종합생산보전)이라는 관리팀이 있어요. 일본에서 도입한 시스템인데 TPM 사무국장을 제가 했어요. 생산 관리팀의 주임으로 현장에 있다가 사무실로 픽업이 돼서 이 업무를 한 거예요. 사람 관리를 하는 거죠. TPM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5가지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생산현장은 정리, 정돈만 잘하면 편해요. '저기 청소하고 요것만 관리하라.' 하곤 조금 이따가 또 하나 일을 시키고 하면 짜증나죠. 월급은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킨다고 불평해요. 동선을 줄여야 해요. 공장 설비도 먼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정리와 정돈을 잘 하도록 하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걸 한 사람이 해도 돼요. 인건비 줄이고, 공장은 더 깨끗해져요. 2시간 걸릴 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8시간 근무하면서 쓸데없는 로스 타임(Loss time)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일을 하니 전국에서 우리 회사를 벤치마킹하러 중간 관리자, 현장 관리자들이 와요. 그러면 abc로 나눠 한 2시간 공장 투어하며 브리핑하고, 질문도 받고 했어요. 제가 이 업무를 18년 거의 20년을 한 겁니다. 제가 28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구술자가 촬영한 유니드 전경



퇴직자 모임을 지원하는 카리화학

은퇴 후 카리화학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2~3년 됐을 거예요. 한 30명이 모이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2개월에 한 번씩 모이다가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요. 46명 정도 되는데 한 번 모이면 25명에서 28명 정도 모입니다. 어떤 모임형태든 계산은 본사가 해요. 이거 전 세계에도 이런 회사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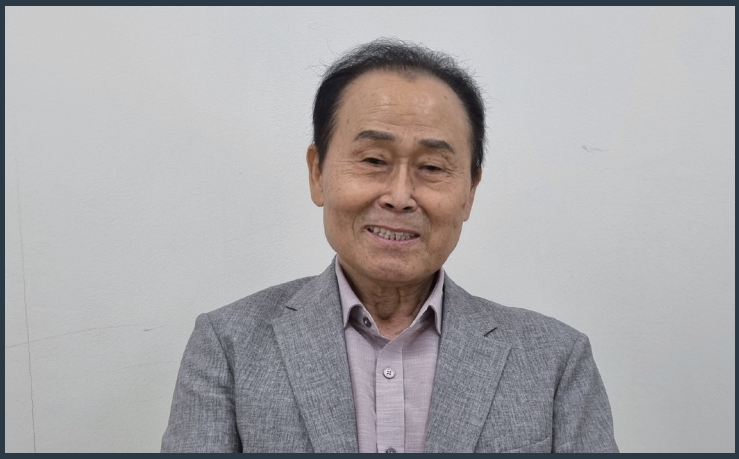
왜 이런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느냐면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창기에 장화 신고, 눈만 뜨고 다녔어요. 코 다 가리고 현장에 가서 눈물 콧물에 제대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한 바퀴 굴러도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그런 회사로 바꿨어요. 회사가 고맙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제가 이 지역에 영향을 준거는 없는데 과거에 지냈던 흔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줄, 두 줄이라도 읽고 정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다는데 보람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죠.

‖ 면담개요
· 일시: 2025. 11. 6. / 2026. 6. 24.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조연희(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일터에서 받은 혜택만큼
지역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다



이병용

1950년	충남 서산 출생
1969년	인천 이주
1980년대	한국파이프, 삼광유리. 한국협화화학 근무
1994년	유니드(전 한국카리화학) 입사
2012년	유니드 정년퇴직

은퇴 후 2013년 방송통신대학에 진학, 청소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환경학과 학사 학위 취득 후 현재 법학과 4학년 재학 중
현재 봉사단을 결성해 거리 청소, 이웃 돌봄, 섬 쓰레기 정화작업 등 활동을 하고 있음.

이병용 님은 1969년 서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왔다. 한국파이프, 삼광유리, 한국협화화학 등을 거쳐 1994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능직(장비 및 출하 업무)으로 유니드에 입사하여 2012년 정년퇴직하였다.

유니드는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살게 했고, 세상을 선하게 바라보게 해 준 고마운 기업'이라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감추지 않는다. 보증금과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평생 살 수 있는 사원 아파트 제공으로 직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연말 성과급, 보너스, 퇴직금 누진제 덕분에 퇴사 후 지금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2012년 은퇴한 그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갔던 용현, 학익지구에 40~5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사현장을 보며 아쉬움을 표한다. 거대한 아파트 건물이 곧 발전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일 것이다.

현재 그는 누구보다 바쁘게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하여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방송통신대학교 봉사단 임원으로 시내 화단 정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및 도시락 배달, 해양 정화 활동과 요양원 봉사 등 이웃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이 들었다고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평생 일터에서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는 시민의식과 실천을 강조한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던 열악한 노동환경

고향은 충남 서산이에요. 거기서 성장해서 1969년 인천에 올라와 중구에서 살다 결혼해 1985년 경 용현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용현동으로 이사 와서 4개월 정도 한국파이프에서 일을 했어요. 집 사람도 같이 일을 했어요. 저는 원래 기능직으로 들어갔는데, 입사했을 때하고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튼튼한 체격이 아니라서 생산직 노동을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기능직 대신 노동현장으로 돌려요. 노동을 남들만큼 할 수가 있나요? 무거운 파이프 옮기고 하는데, 힘이 너무 달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 강도가 세서 사고도 많이 나요. 당시 프레스에 손이 눌렸던 사람은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열악한 생활을 해요.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당시 아내도 좀 다쳤었는데 괜찮긴 했지만 그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사업주들은 어지간히 다치지 않고서는 그냥 아까징끼(일본어:赤チンキ=포비돈. 일명 빨간약) 일단 바르고 '기다려 봐라' 해요. 그래 갖고

한 3-4일 지나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죠. 당시만 해도 산업재해, 안전 개념이 부족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좀 버티다가 집 사람과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한국파이프 그만두고 삼광유리에서 일용직으로 8-9개월 정도 일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는 무슨 일이든 힘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해보자 했어요. 일 자체는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다 한국협화화학으로 이직하고, 그러다 유니드에 입사했어요.

유니드에 입사하여 최고의 복지 혜택을 누리다

유니드는 1994년에 입사했어요. 동양화학 울산 공장 관리자로 있던 지인의 권유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친구는 생산직으로, 저는 장비관리를 하는 기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체 한 300명 중 기능직 쪽엔 12명 정도가 있었어요. 교대 근무가 아닌 주간근무만 했는데, 3교대 근무자들과는 출퇴근 시에 얼굴만 맞대지 15년, 20년 돼도 친밀감은 없어요. 그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는 소통이 되죠. 그리고 유니드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청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아주 반질반질해요.

유니드의 복지제도는 인천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아니 열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죠. 유니드는 복지 후생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대부분 '회사는 돈 남기면 자기들 뒤로 다 챙긴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니드 다녔던 직원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입사해서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은데, 특별 장려금 등등 뭐 해가지고 연봉이 한 8~9천만 원 됐어요. 퇴직금은 인천에서는 몇 안 되는 누진제가 적용됐고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회사를 유니드 말고는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죠. 우선 입사 해 정직원이 되면 사원 아파트를 지급해요. 자기가 집을 장만할 때 까지 19평에서 22평짜리를 보증금 없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30세 미만에 들어와 집 장만을 못 했다면 거주 할 수 있어요. 사택은 연수동 적십자병원 앞에 연수 3동인지, 주공아파트에 있었고, 만수동, 송도 옥련동에도 사택이 있었고요. 1~2년에 한 번씩 내부 수리해 주고, 수도가 고장 났다든가 뭐 이상이 있으면 다 보수해 주고 그랬죠.

별로 큰 회사는 아닌데 경영자들이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 회사가 거의 없어요. 저도 사원아파트에 살았는데 바로 앞에 대우자동차가 그걸 실시하더라고요. 근데 대우자동차는 보증금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복지제도가 있는데 1년에 몇 명이 더러 이직을 해요. 근데 90% 이상이 나간 걸 후회하더라고요.

거대한 굴뚝의 수증기와 저수지

전기를 사용해 소금을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증기가 많이 나요. 주민들은 수증기가 공해 아니냐고 해서 원성이 깊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공장을 방문해 우리의 일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회사가 운영했어요. 방문자들이 공장에 오면 굴뚝에서 나오는 게 매연이 아니고, 물이 끓으면 나

는 수증기라고 설명을 해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주민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회사를 구경시키고 그랬어요. 학교의 경우 학생들 소감을 들어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유니드 인천 공장, 2012년,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거기가 주민 밀집 지역이 아니지만 꽤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해요. 개발이라는 건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발표하잖아요.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 닫기 한 해 전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소다회 생산하고 나오는 폐석회 적정 처리와 이전문제를 두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 저수지를 매립하기 위해 물을 빼는 작업을 했어요. 그 때 저수지 바닥에서 실종됐던 차가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근데 한 대는 사람이 없었고, 한 대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7-8년 전 실종된 사람이었다고 해요. 저수지에 난간이 없었어요. 그걸 경찰에서 수사한다며 차를 들어다 그 위에다가 놓아서 아주 섬뜩섬뜩했어요. 백골 상태의 죽은 사람은 정리가 됐지만 그 차는 그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출퇴근할 때 혐오감도 느끼고 그랬죠. 특히 3교대 하면 밤 11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섬뜩 했어요.

정년퇴직과 하청업체 근무

용현동, 학익동은 참 발전이 덜 되었죠. 제가 2012년에 퇴직을 했는데, 처음 학익동에 왔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처음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장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신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익동의 변화는 한 10년 사이 급성장한 거죠. 40~50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급격하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니 세상 많이 발전했구나 생

각해요. 세월은 좋아졌는데 나이를 이렇게 먹으니 어떤 회의감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도 듭니다.

공장이 사라진 이곳을 일부러 찾아오고 그럴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기업들 중에는 유니드가 정말 가장 뛰어난 기업입니다. 나를 살게 했고, 우리 가족을 살게 했고, 또 이 세상을 정말 선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가 인천을 떠나 이전한다고 했을 때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정년퇴직할 때 하청업체 출하부서에서 한 3-4년 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애정이 더 깊죠.

은퇴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서운해 하지 말자.', '아쉬워하거나 너무 많은 일을 갖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3-4년 다른 업무를 맡아 일을 했으니까 큰 미련은 없죠. 당장 퇴직해서 '땡' 하고 나왔으면 엄청 미련이 컸겠죠. 근데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서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봉사하며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마음가짐은 각자 본인의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대가가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대가가 없으면 잘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서로가 신뢰를 하게 되요.

제가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인데, 학교 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청소 화단 정리라든지 주차장 대기소 유리를 닦는다든지, 오물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연탄 배달도 하고, 점심 도시락도 배달합니다. 장

봉도를 몇 번 갔었는데, 어민들이 사용하다 재활용하지 못해 버린 그물을 걷어내는 정화활동도 합니다. 자월도 거기 가면 정신지체아들을 집단 수용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인권 유린을 하는지 살피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살피며 교육도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교 봉사단 활동



이번 인터뷰로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일과 연관돼 얘기하다 보니까 평소 경영자 분들한테 존경심을 가졌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이는 좀 많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까지는 회사가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봉사를 더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더 굳게 합니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11. 6. / 2026. 6. 15.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조연희(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솜이불 한 채의 무거운 짐을 '소리'(唱)에 담다.



강인자

1953년	전남 진도군 출생
1971년	결혼
1977년	인천으로 이주
1984년	조개고개 정착
1987년	용현동 스텐공장, 고무통 제작 공장 입사
1988년	동양산전 입사
1997년	동양산전 퇴사 후 소리를 배우기 시작함
2013년	용현동 옥련여고 인근 주차장 미화원으로 2년간 근무

현재 소리꾼'으로 활동하며 연일특수학교 미화원으로 근무

강인자 님은 1953년 전남 진도에서 8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다. 소리(唱)를 업으로 하는 부모님의 장구 소리와 춤사위를 보고 자랐다. 그녀의 마음속엔 늘 '소리'(唱) 한 자락이 일렁였지만 8남매의 맏딸이라는 책임감과 가난으로 학교를 포기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물론 농사일도 도맡아 했다.

1973년 스무 살에 결혼을 했다. 꽃다운 나이에 시작된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남편의 병수발과 가난이 그녀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의 삶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녀는 솜이불 한 채를 머리에 이고, 어린 자식을 등에 업은 채 무작정 인천으로 향했다. 용현동에 정착해 얻은 집은 겨울엔 물그릇이 꽁꽁 얼 정도로 혹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일을 했다. 식당에서 나온 빈병을 주워 팔았다. 남편이 술로 생활비를 축낼 때 스텐 공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동양산전에 입사해서는 일머리가 좋아 반장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역할에도 부모님의 피는 사라지지 않았다. '소리'에 대한 열망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다. 더 늦으면 가슴 속 응어리진 '소리'를 평생 꺼내지 못할 것 같아 동양산전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고단한 삶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 마흔이 넘어서야 자신의 '끼'를 되찾은 것이다.

이후 낮에는 소리를 배우고, 밤에는 일수 일을 했다. 그러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잠 못 이루며 슬픔에 잠겨있을 때 조개고개 관광차, 주차장, 미화원 일을 하게 된다. 그녀는 50여 년 용현동의 삶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살아온 어머니들처럼 지금도 부지런하고 당당하게 '소리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있다.

소리(唱)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다

저는 1953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에서 8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징글징글한 장녀예요. 팽목항 백동리로 가는 바로 그 옆 동네에요. 거기서 살다가 27살 때 인천으로 왔으니 50년이 다 되어가네요. 엄마 아빠는 농사철만 돌아오면, 나를 잡아놓고 동생들 보라며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말만 초등학교 나왔지 1년에 100일 넘게 결석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꼴찌 안 하고 중간은 따라갔어요.

그때는 남의 밭에 가서 감자, 고구마 서리를 많이 했죠. 그때는 애기 때라 남의 농사 망쳤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우리 동네 밭은 안 하고, 남의 동네 밭에 가서 캐다가 도둑놈들끼리 만나가지고 내빼기도 했는데, 서로 주인인 줄 알았던 거죠. 또 내가 장난기가 있어요. 바지를 갖고 와 다리를 묶어요. 가랑이 한 쪽을 묶어갖고 거기다 감자니 뭐니 주워 담아 묶어요. 아기 포대기 갖고 가서 업어 둘러메요. 그리고 잠바 딱 뒤집어쓰면 누가 뭐 해 갖고 오는지 몰라

요. 그걸 쪄서 친구들과 먹으며 밤새 놀았어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주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또 옥수수 훑어다 먹고, 참외 훑어다 먹기도 했고요.

우리 부모님은 두 양반이 참 사이가 좋으셨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얼씨구 악단'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 형제들이 소리를 잘하니까 같이 무대에 서서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이모가 세 분이고 엄마까지 네 자매인데, 그중 한 분은 소리를 못 하셔서 나머지 세 자매가 함께 다녔어요. 어머니는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 광주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셨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1971년에 결혼했어요. 우리 집 밑에서 머슴살이하던 분이 저를 짝사랑해 소문이 나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해서 나를 고생 많이 시키더니 내가 65세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한테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편히 살라고 절 납골당에 모셨어요. 후회는 없어요.

솜이불 한 채, 아이 업고 인천행 기차에 몸을 싣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아 허리도 많이 아프고 성한 몸이 아니었어요. 나는 남편이 남의 집 일하는 거 보기 싫어서 산골짜기로 끌고 들어갔죠. 묵은 밭하고, 남의 땅도 빌려 염소, 소, 돼지, 닭 등 짐승이란 짐승은 다 길렀어요. 그때 누가 인천에 간다고 하길래 장난삼아 "좋은 자리 있으면 연락주세요." 했는데 편지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인천 생활을 했는데, 용현동 축사료 공장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혼자 생활하

다보니 다달이 돈을 만지니까 아껴놓지도 않고 술 드시는데 다 썼어요. 돈을 한 푼도 안 모아 놓고, 구정에 시골에 내려왔더라고요. 구정을 지내고 남편은 인천으로 다시 왔죠. 나는 농사 진 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인천에 왔고요.

인천에 올 때 힘들게 왔어요. 솜이불 한 채, 밥그릇 등 이것저것을 넣다보니 보따리가 엄청 높이 쌓인 거예요. 한쪽에 기저귀 가방, 한쪽에 양념 가방, 등에는 아기 업고. 인천에 올 때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큰 짐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인천에 도착하면 우리 아저씨(남편)가 역전에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하인천역에 내려서 남편 지인이 알려준 만석동 별 여인숙을 물어물어 어렵게 찾아가 문을 두드렸더니, 세상에 그때 옷을 입고 문을 열어요. 미리 나와서 있어야지 세상에 지금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러면 집으로 가재. 그래서 하인천에서 용현동 집으로 왔어요. 큰애는 친정에, 둘째는 시댁에 맡기고, 하나는 등에 업고 고생 많이 했어요.

27살에 인천에 올라와서 인하대 정문 대한전선 앞 코너 우체국 근방에 살았어요. 집 형태는 말도 못했죠. 골방 같은 거 문 닫아놓고, 거기다 하수도, 부엌, 방 하나에 돈 1만원 받아요. 물을 떠다 놓으니까 물이 다 얼어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거기서 용현 초등학교 옆으로 이사해 살다가 8번이나 이사를 하고, 1984년, 5년 만에 빚 내서 조개고개에 집을 샀어요. 빚 내 갖고 사니까 안채는 남을 내주고, 옆 칸에 째간한 방에서 우리 다섯 식구 살았죠. 다섯 식구와 냉장고 하나, 비키니 옷장 자크로 된 거 하나 걸어놓고 살았어요. 방 한 칸에서 살다 옆에 터가 있어서 나중에 방을 한 칸 더 들여 한 3년인가 4년인가 살다 안채를 내보내고 들어갔죠. 당시엔 허가 안 내고 무허가로 그냥 지었어요. 무허가를 해도 그렇게 심하게 안 말렸으니까요.

조개고개에서 한 30년 살면서 주민들과 참 재미있었죠. 동네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저녁 때 되면 골목에 자리 펴놓고, 밥도 비벼 나눠 먹기도 하고 그

랬어요. 아침에 밭에 가서 호박잎 쪄다가 밥 비벼 싸 먹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심이 안 사납고, 시골처럼 위아래 사람들 다 알고 지냈어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조개고개 일대, 2025년, 오인영 촬영

일머리의 발견 : 스텐공장과 동양산전

집 앞에 술집이 몇 집 있었어요. 술집 주인에게 "공병을 얼마씩 팔아요?" 했더니 2원 50전 씩 주고 가져간다 해서 내가 가져가도 되냐고 하니 "새댁이 가져가." 해서 그 공병을 길 건너 고물상에 3원 50전에 팔았어요.

그때 술집이 네 군데 정도 있었는데 장사가 잘됐어요. 대우전자에 직원

이 몇천 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장부에 외상으로 달아놓곤 했어요. 지금처럼 현찰을 가지고 다니던 때가 아니니까요. 봉급날이 되면 정신 차린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 집에 갖다주고, 아내에게 돈을 타서 술집 외상값을 갚았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술집에 먼저 외상값을 갚고 남은 돈으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오기도 했죠. 지금 얘기니까 그렇지, 열 불나게 살았죠.

우리 아저씨가 가져오는 돈으로는 힘들어서 대우전자 앞에 있는 스텐 공장을 다니게 됐어요. 사람을 뽑는다는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주전자 옆에 물 따르는 부분 같은 스텐 조각을 기계로 찍어내고 남은 것들을 골라내는 일을 했어요. 0.4mm부터 1.2mm까지 두께가 다른 것들이 한꺼번에 차로 들어오니까 일일이 골라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길이를 재서 고르는데, 언제 그걸 다 재고 있어요. 나는 손으로 만져보면서 느낌으로 골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계속 밖에서 시키는 거예요. 햇빛 아래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늘에 앉아서 쉬엄쉬엄 일하는데 나만 밖에서 일하니까 속상했어요. 그래서 공장장님한테 교대를 좀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두꺼운 게 들어갈 때 기계가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요. 겁나게 소리가 커요. 잘못하면 손가락이 잘려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어디를 가든 일하는 것만큼은 대우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옆에 도라무통[1] 공장에 들어갔죠. 거기도 1년도 못 다니고, 동양산전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서류를 넣었어요.

처음에 가서 팬 모터(fan motor)[2] 하는데 그 코아(core)[3] 같은 거 그게 끊

1) 드럼 공장(도라무통 공장) : '도라무통'은 드럼통(drum)의 일본식 발음이 굳어진 표현이며, 드럼통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2) 팬 모터(fan motor) : 선풍기나 환풍기 등에 들어가는 회전용 전동기 부품.

3) 코아(core) : 팬 모터 내부의 중심이 되는 철심 부품.

어지면 안 되거든요. 감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번 감는다 그러면 여기도 100번 감고, 여기도 100번 감고, 지가 돌아가면서 감아져요. 우리들은 그거를 동그란 전기선에다가 꽂아가지고 때워서 내려 보내면, 밑에서는 시커만 거에 끼워갖고 스크루(screw) 박아 내려 보내고, 밑에서는 소음이 나나 안 나나 잘 검사해요. 그거를 하다 라인을 탔죠.

1년이 못 돼서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반장 역할을 시켜요. 1층 준비반 반장이 동갑내기 경상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아래에서 반장을 하고, 나는 위에서 반장했어요. 라인에서 일을 하다보면 손이 좀 늦은 사람이 오면 밀리잖아요. 그럼 나는 내 일하다가 밀린 곳에 가서 도와주고 하니까 아주 바빴어요. 한번은 성질이 나서 왜 사람 힘들게 하냐고 과장한테 불평을 했죠. 그러면 "강인자씨는 일 잘하니까."그래요. 그런데 일 잘한다고 돈 더 줘요? 월급은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마흔 넘어 소리(唱)를 배우다

동양산전에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그러다 소리(唱)는 배우고 싶어 죽겠는데, 마흔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하곤 동양산전을 그만두고 돈 2천만 원을 얻어 일수를 뿌렸죠. 용현동에다 일수 뿌리고, 낮에는 소리 배우고, 저녁에는 일수(日收) 걷고 했어요. 소리를 배울 때 소리 선생님이 제가 소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소리를 배우고 난 후 학원을 인수해서 소리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알바를 뛰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학원 방문을 닫아놓고, 북을 치면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흥타령을 슬프게 해보죠. 한참 하다 나오면 조금 풀리더라고요.

조개고개에서
관광차 미화원으로 일하다

주차장 운영하는 형님이, 청소 일 할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몇 번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일이 힘드니까 새로 온 사람들은 못 버티더라구요.

우리 아들이 41살에 사고로 하늘나라 갔어요. 내가 60살 때에요. 아들이 사고로 가버리니까 내가 잠을 못 자요. 어차피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주차장 일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일머리는 좋아서 한 3, 4일만 지나면 다 알아요.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어요. 저녁 때 4시 반이나 5시쯤에 가면 차가 들어오는 대로 일을 해요. 겨울에는 저녁에 두 시경 청소가 끝나지만 봄, 가을에는 관광을 많이 다니니까 아침 5시 날 훤하게 샐 때까지 일할 때도 있었어요. 한 50대 되는 차가 들어오는데, 어쩔 때는 차 한 대 청소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의자 등을 막 발로 더럽게 해놓아서 조금 지저분하면 기사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거 닦아야 되고. 그러구 한 백2십, 3십 만원 받았나? 식사는 주차장 식당에서 밥이랑 반찬이랑 다 해놓으니까 마음대로 먹었죠.

이렇게 옛날이야기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도 그냥 마음 비우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데가 있고, 옛날에 이랬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9. 13.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조연희(미추홀시민기록단)



솜먼지 가득한 흥한방적과 하치사택



노옥희

1938년 김포에서 출생
1955년 흥한방적 입사
1963년 결혼, 흥한방적 퇴사

현재 재개발로 들어선 학익동 아파트에 거주

노옥희 님은 1938년 경기도 김포 운양리에서 태어났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아버지가 군 보급단에 끌려갔다 병을 얻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더욱 기울었다. 18살 어린 나이였던 그녀는 공부 대신 생계를 위해 동네 친구들을 따라 무작정 영등포의 방직 회사로 향했다. 잠시 그곳에서 일하던 중, 인천에서 온 김 과장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1955년 아무 연고도 없던 인천 학익동의 '흥한방적'에서 일을 하게 된다.

'부조장'으로 보낸 8년, 그녀는 조방과에 배치되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반장을 대신해 업무를 지시하는 '부조장' 역할을 맡았다. 8시간씩 3교대로 밤낮 없이 일했다. 선풍기도 마스크도 없던 시절, 퇴근할 때면 온몸이 하얗게 될 정도로 공장 안은 온통 솜먼지로 가득했다. 숙식은 공장 근처의 허술한 단층 기숙사에서 해결했다. 온화한 사감 선생의 보살핌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큰 탈 없이 기숙사 생활을 이어갔다.

쉬는 날이면 팀 동료들과 작약도로 배를 타고 놀러 가거나 자유공원, 석바위 과수원을 찾았다. 그러던 중 동네 아주머니의 중매로 미군 부대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1963년 결혼하면서 8년간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로서 생활을 마무리한다. 결혼 후에는 학익동 소년형무소 건너편의 전셋집에서 남매를 낳고 살림을 시작했다. 이후 용현동의 일명 '하치 사택'이라 불리던 영단주택으로 이사했고, 다시 숭의동과 용현동 경계에 있는 집을 사 40여 년간 살았다. 이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익동으로 이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자리는 재개발되어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일대가 흥한방적 공장 자리라는 사실이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여전히 흥한방적의 기계 소리, 동료들과 함께했던 날을 기억한다.

김포에서 영등포, 그리고 학익동으로

1938년 김포 운양리에서 태어났어요. 거기가 노씨 가문 본토박이예요. 그 당시엔 없는 게 많아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보급단'[1]이라고 거기에 끌려갈 때, 돈을 주고 쌀을 한 말 실려서 사람을 사서 보내고 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고집이 있어 보급단에 그냥 가신 거예요. 거기서 병(病)을 얻었어요. 그 당시 시골에 무슨 병원이 있어요. 시골에서 인천 한의원으로 모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동네 열 대여섯, 일곱 살 이렇게 먹은 어린 처녀들이 영등포 한일방직에 취직을 하러 간대서 거기를 쫓아갔어요. 동네에서 시집 간 우리 친구의 고모부가 방직회사

1) 195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보급단으로 한국전쟁 발발에 따라 미군의 군수 지원 하에 병참 기지를 구축하며 시작되었다. 1950년 부산병참기지창(1보급단 전신)과 1953년 2보급단이 창설되었으며, 1954~55년경 의무·공병·통신 등 각 기지창을 통합하며 조직을 확대하여 전방 전투 부대에 물자를 보급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로 애들을 데려 간 거죠.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스카웃 온 거예요. 다 안 가고, 나 혼자 알지도 못하는 인천을 따라 나섰어요. 인천 흥한방적[2]에 기계 몇 대 있는데, 잠은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기숙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55년 내가 18살 때 흥한방적으로 온 거죠. 영등포 한일방직에서는 몇 달 있었나? 오래 안 있었어요.

흥한방적 입사와 도립병원 입원

흥한방적 오자마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는 회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밖 양 자락에 미군 부대하고, 한국 부대가 있었고,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국민주택 있던 쪽에서 지금 부영약국 못 미쳐 아마 기숙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1층인데 건물이 헐어서 허술하게 생겼어요. 3교대니까 방 하나에 2-3명이 있었고, 거기서 잠만 자고, 회사로 내려가서 밥을 먹었어요.

흥한방적도 오래는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거길 다니면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전에 '열병'에 걸려서 한약을 지어다 먹었는데, 잘못돼서 하혈을 했어요. 도립병원이 회사 지정 병원이라 그 병원에 가서 한 달 만에 고쳐갖고 나왔어요. 도립병원은 지금 신광초등학교 그쪽에 있었고, 지금은 다른 걸

2) 흥한방적은 1953년 화신그룹 박흥식이 귀속기업체(조선제마)를 인수해 설립한 회사로 인천 학익동에 생산시설을 두었다. 이후 경영난으로 1972년 경인직물에 매각되어 한일방직으로 개편되었으며, 1974년 일부는 화신레나운을 거쳐 동일레나운으로 바뀌는 등 복잡한 기업 변화 과정을 거쳤다.

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3] 한 달 만에 병원서 나와 시골 가서 몸조리 한 달하고, 다시 회사로 왔어요. 그리곤 또 얼마 못 다녔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리곤 다시 2~3년 회사를 다녔나? 아고, 다 잊어버렸어. 그러다 1961년에 남편을 만나 1963년에 결혼하면서 공장을 그만두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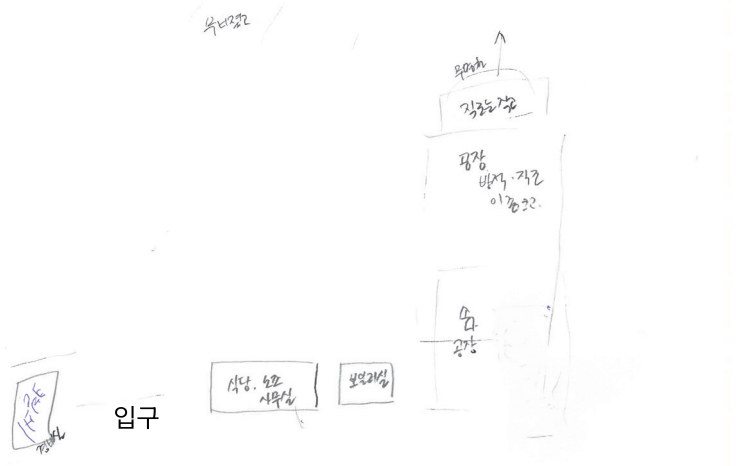
마스크도 없이 24시간 실 뽑는 3교대 작업

조방과에 근무했어요. 내가 부조장을 맡았었는데, 부조장은 반장이 안 나오면, 내가 맡아 지시를 하는 거죠. 조방과는 굵은 솜을 가늘게 뽑는 일을 해요. 기계에 솜뭉치를 틀어 말아 가지고, 거기서 굵은 솜을 이만한 통에 칭칭이 감아요. 하나가 차면 다시 조금 가는 실 뽑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과(科)로 오는 거죠. 조금 굵은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뭉치해가지고는, 거기도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리로 그걸 전달해 줘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5-6명이 한 조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가는 실을 뽑으면, 그 가는 실을 가지고 짜는 데로 가요.

옷을 짜는 공장은 분리되어 있어요. 실을 짜는 과와 옷을 짜는 과는 달라요.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천을, 광목만 짜는 거죠. 솜뭉치에서 굵은 실, 그리고 다시 가는 실 만들고, 실로 천을 짜는 데까지 다 있는 거죠. 그 공장 안에 과(科)는 많은데 내가 다 기억을 못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한 조가 그때 몇 명인지 모르겠다. 직원들이 앉아 일하는 줄이 석 줄 이예

3) 도립병원은 나중에 시립병원으로 전환되며, 현재 그 자리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자리잡고 있다.



노옥희 님이 그린 흥한방적 내부 구조

요. 나는 두 줄. 양 자락에 기계 한 대에 하나씩, 기계 두 대를 가지고 일을 해요. 24시간 3교대를 했는데, 아침 먹고 바로 일 교대하니까, 시작은 아침 8시 넘어서 시작했을 거예요. 아침에 교대하고, 저녁에 교대하고, 그 이튿날도 똑같이 교대해요. 교대할 때 한 조는 일하고, 두 조는 쉬고, 그렇게 8시간씩 3교대로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사람만 바뀌는 거죠. 공장에 식당이 있어서 아줌마들이 밥을 해요. 아침에 거기 들어가면 밥 먹고, 일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기숙사에 있는 사람은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아주 먹고 나와요. 간식 그런 것은 없어요. 하루 세끼 식사만 책임졌어요.

공장 안에는 전기로 하는 거니까 덥고, 순 솜이니까 먼지가 많았어요. 일하고 나면 하얘요. 마스크도 없이 그냥 했어요. 여름엔 선풍기는 없고. 결핵이나 기관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공장에는 대부분 여자들이 많았고, 남자들은 기계 고장 나면 수리해요. 다른 공장들은 정전이 돼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장은 발전기가 있어서 정전은 없었어요.

그리고 통근차가 있어요. 시내로 나가는 통근차가 있어서, 퇴근 시간이

면 회사 안에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학익동부터 동인천까지 데려다 주면, 거기서 각자들 가는 거죠. 퇴근하고 동인천을 가려면 통근버스 타고 가요. 돌아올 땐 퇴근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 그거에 시간 맞춰서 그 차를 타고 와요. 여긴 버스도 없어요. 그 무슨 택시야? (시발택시) 그 택시가 가끔씩 댕기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탈 수가 없죠. 월급 생활하면서 택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돈들이 귀해서 회사 차를 많이 이용했죠.

기숙사 팀원들과의 외출, 하치사택의 기억

그때는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여기는 제주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도 있었어요. 기숙사가 있으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숙사로 들어오잖아요. 잠은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하니까 여자들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남자 기숙사는 없었어요.

주변에 놀 거리가 없었어요. 작약도 가는 정도고, 요 주위에 문학산, 석바위 과수원, 자유공원 같은 데 가서 놀다가 오고 그래요. 월미도에서 배를 탔나 보다. 월미도에서 타면 작약도가 보여요. 사진 몇 장 있는 건 다 찢어버렸어요. 이 사진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 팀 친구들하고 처음 놀러간 사진이에요. 근데 어디 먼 데 갈 수도 없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늦게 들어가면 벌칙이 있었어요.



흥한방적 동료들과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좌측 노옥희),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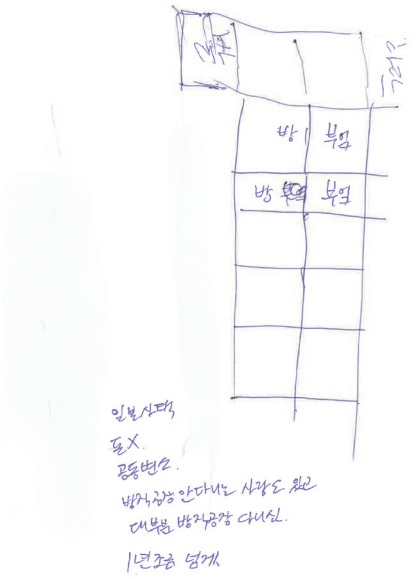


인터뷰시 보여준 옛 사진들, 1960년대

근데 기숙사 애들은 말들을 잘 들어요. 사감 선생이 사람이 좋았어요. 나이 좀 잡순 양반인데, 무슨 전도관 거기에 계신 분이에요. 기숙사에는 40대, 30대 된 아줌마도 있고, 제주도 그런 데서 온 아줌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제 시간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

면 그 시간에 딱 들어오지 말썽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래요. 안양에 방적회사가 큰 거 있었는데,[4] 나도 그만두고 큰 회사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몇 년 있으면, 그만큼 돈이 더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결혼하는 바람에 안 갔죠.

기숙사에 살다가 학익동에 있는 일본사택 하나를 신청해서 거기 들어가 살았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서 들어오고, 대부분 방직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가장 싼 사택을 하치사택이라고 하는데,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단이 양 자락에 조그만 거 있고, 연탄 쌓는 광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 집인데, 줄줄이 사택이라고 했어요. 혼자 살기 좋은 집이죠. 화장실은 공동변소가 밖에 따로 있어서 썼어요. 일본사택에서 한 1년 살았을 거예요.



노옥희 님이 거주했던
하치사택 구조 그림

4) 아마도 1948년 설립되어 1949년 안양에 공장을 준공한 금성방직으로 추측된다. 금성방직은 합병을 거쳐 현재는 '대농그룹'으로 흡수됐다.

하치사택 결혼생활, 그리고 현재

남편은 중매로 만났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나를 중매했어요. 아주머니 집에서 한 집 건너 우리 친구가 살았거든요. 걔 친구네 집 건넌방에 살 때, 올 적 갈 적 아주머니가 나를 본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미군부대 다니는 남자를 중매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우리 결혼할 때 간부사택에 사는 노무 과장님이 주례를 서주셔서 간부사택을 가본 적이 있어요. 결혼사진 거기 뒤에 이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네요. 가봤는데 집은 깨끗하더구먼. 사택으로 한 채씩 준 일본식 단층집인데, 온돌방, 다다미방에 정원이 앞에 조그맣게 있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은 인천 저기 어디냐? 중앙예식장. 신포동 마루터기의 동인천 넘어가려면 거기에 왼자락으로 중앙예식장이라고 큰 거 있었어요.[5] 거기서 예식도 공짜로 했어요. 예식장 주인이 아버지(남편) 친구고, 엄마 7촌 언니가 예식장 신부 화장 미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했어요.

1961년에 남편을 만나 1963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은 바로 안 한 거죠. 신혼집은 헐려서 없어졌더라고요. 소년형무소 그 건너편에 있는 연못 바로 행길 옆에 집이 있었어요. 큰 도로와 가게들이 생겼을 거예요. 아들을(김노천) 낳은 건 소년형무소 들어가는 맞은 짝 입구에 할머니가 소 팔아서 전세로 얻어준 집에서 낳았어요.

학익시장에 술집 같은 거 있었어요. 부영약국 자리는 그전부터 아주머니가 통장을 봤는지, 반장을 봤는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술집이 있

5) 현 애관극장 뒤 편에 중앙예식장이 있었다.

었고.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 짐작도 못하겠네요.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남매를 연년생으로 낳고, 용현동 사택입구(용마루 지구) 일본사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가 아들이 4살 때냐, 세살 때냐 몇 살 때냐? 1970년인가 1971년인가? 일본사택도 돈이 없어서 제일 싼 하치 사택으로 갔어요. 구들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루라고 요만한 거 찬장 하나 들여놓을 정도고, 뒤에 나무 쌓는 광과 광에 붙은 작은 마당이 있었고요.

거기서 한참 살다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용현2동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가 숭의동과 용현동 경계에 있는 집이에요. 일본사택을 삼촌한테 주고, 우리가 집을 산거죠. 1978년도? 1977년도. 거기서 한 40년 살았어요. 거기 다 아파트 지었잖아요. 용마루가 재개발 들어가면서 지금 사는 곳으로 온지 10년이 넘었죠?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동아풍림 들어앉은 데가 부대자리 비슷하고, 요 맞은편 자리 길 옆에 약국, 도로 바로 옆 거기가 내 친구가 미용실을 하던 자리 같아요. 사거리에서 했는데, 도로, 저기 가운데서 이리로 쭉 가면 무슨 동네인지, 그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네. 햇골[6], 샛골이라고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여간 학익동에 오니 방향을 못 잡아요. 너무 많은 게 변했어요.

6) 학골마을을 지칭한다.

|| 면담개요
· 일시: 2026. 9. 29.
· 장소: 구술자 자택(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 면담자: 곽은비(지역기록자)
· 면담지원: 신동재(미추홀학산문화원)
· 동석자: 김노천 (구술자 자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김노천

1966년 학익동 출생
현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소장, 인천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외래교수
구술자 노옥희 님의 아들로 현재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음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1.
· 장소: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 면담자: 강인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김노천 님은 학익, 용현동 일대 변화에 대한 어머니 노옥희 님의 구술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전 후 한국사의 산물인 미군 부대와 방직 공장에서 일구어낸 부모님의 삶에 그 동안 관심을 두지 못한데 대해 미안함을 갖고 있다. 미군 통역으로 편한 곳에서 전쟁을 치룬 아버님은 보훈대상임에도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연금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의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헤아리며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나이가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옛날에 살던 학익동 근처, 동아풍림 아파트 자리를 찾아가 보았다. 학익동은 인천의 대표적인 공업지구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였지만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시민도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아쉬워한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취미는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그에게 이어졌다. 흥한방적을 그만 두고 배다리 싸리재에 있던 동방스튜디오 사진관에서 일한 어머니의 삶은 훗날 그가 사진을 전공하고, 사진 아카이빙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파인아트(Fine Art) 전공 예술가이자 사진작가로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학익동·용현동을 비롯한 지역의 사라진 역사를 수집하고 고증하는 지역사 아카이비스트로서 활동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급격한 도시 재개발로 인천의 옛 기억과 실증 자료가 왜곡·소멸해 가는 현실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스승과 선배 사학자들의 뜻을 이어 '한국 고사진 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솜뭉치 먼지와 기계 소음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하다



정학모

1950년	울산 출생
1968년	고등학교 졸업 직전 부산 염색공장 취업
1976년	한일방직 입사
1981년	결혼
1983년	주안주공아파트 입주
1991년	한일방직 퇴사
	현재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 후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정학모 님은 1950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울산 집성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골에서 자랐다. 군대를 제대한 후 1976년 한일방직 인천 공장에 입사하였다. 1970년대의 학익동은 논밭이 펼쳐진 시골 마을이었다. 학익삼거리에서 문학동으로 가는 비포장도로, 홍수환 선수의 권투 시합이 있던 날 동료들과 논바닥에서 붕어를 주워 삼거리 가게에서 찌개를 끓여 먹던 즐거움, 개천 위에 판자를 깔아놓은 막걸리 집의 향수에 젖는다. 1981년 12월 경기은행 뒤편에 신혼집을 차려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1983년 주안주공아파트로 이사해 비로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였다.

그는 1976년부터 1991년까지 한일방직 직포과에서 근무했다. 초기에는 일급제를 적용받는 '공원'이었으나,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덕에 1990년 무렵 월급제를 적용받는 '사원'으로 진급하였다. 3교대 근무, 급여 및 퇴직금 조건이 좋았음에도 타 공장보다 노동환경은 고되었다고 한다. 한 겨울에도 생산현장은 반팔을 입을 정도로 덥고 습했다. 400여 대의 직포 기계가 내는 엄청난 소음은 상대방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컸다. 공장 기계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장 창문을 아예 벽으로 막아버렸다고 한다.

실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풀을 먹이는 '호부 기계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일하던 중 기계에 팔이 끼이는 큰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자식 교육을 위해,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진짜 독하게' 살았다고 한다. 솜뭉치 먼지와 기계 소음을 이겨내고, 자식교육에 성공한 것은 그에게 가장 값진 선물일 것이다.

산골짜기 내 고향 영남알프스[1)]

저는 1950년 7월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지화동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인 1969년 20살까지 살았어요. 당시 내가 살던 동네는 전기가 1970년대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골짜기죠.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영남알프스가 거기 바로 있어요. 그쪽 산에서 나무 하러 다니고 했어요. 제일 높은 가지산 꼭대기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쌀바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도 한번 나온 산이에요. 고등학교 때 한번 올라갔는데, 영남 알프스가 바로 보이거든요. 겨울에 불이 나면 집 마당에서도 보여요. '아, 신불산에 불났네.', '간월산에 불났네.'할 정도로 한 2~3km로 가까워요. 시골서 옛날에 2~3km는 학교 다닐 때도 그 정도 걸어야 되니까 별거 아닌 거리죠.

1) 영남알프스는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 등 5개 시·군에 걸쳐 해발 1,000m 이상의 9개 산(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재약산, 신불산, 영축산, 고헌산, 간월산, 문복산)이 모여 아름다운 산세를 지니고 있어 유럽의 알프스산맥을 빗대어 이른 지역이다.

졸업하기 한 3개월 전에 운 좋게 부산 염색공장에 취업이 되었어요. 인문계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추천이 돼서 1968년 10월경 그곳으로 갔어요. 흰 천에다가 빨간 거, 노란 거 색깔 내고, 그다음에 나염 알아요? 꽃무늬. 그거는 염색이 안 돼요. 그거는 꽃이 있으면 노랑 거 한번 스크린[2]하고, 다음에 또 파란 거 스크린해요. 간단한 거는 기계가 해요. 로라[3]에다가 홈을 파 가지고, 파란 거, 까만 거 염색이 묻어 돌면 천에다가 찍는 두 가지 일을 부산 염색공장에서 했어요.

한일방직에 이력서를 제출하다

염색공장 다니다 한일방직에 입사했어요. 한일방직은 1973년 흥한방적을 인수한 기업이지요.[4] 하도 잘 돌아가서 인수할 때 회사가 돈이 많아 한 1년 만에 빚 다 갚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일방직이 우리 고향 집 앞에 제2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고향 상북면은 우리 '정가(鄭家)'[5]가 많이 살아요. 한 400년 가까이 된 집성촌이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시골 이장을 하고 계셨는데, 행정적인 걸 해줘야 안 됩니까? 아버지는 옛날 선비고, 사람도 잘 알고 하니까 소개 해줬던가 봐요. 한일방직 회장님이 우리 집에 한번 왔었

2) 염색 스크린(스크린 날염용 판)은 직물이나 의류에 특정 도안을 부분적으로 염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을 말한다. 천 위에 스크린 판을 얹고, 그 위에 염료나 안료를 부은 뒤 밀대로 밀어내 막히지 않은 망사 구멍으로만 염료가 통과해 원단에 무늬가 찍는 것을 말한다.

3) '롤러(roller)'의 옛 발음.

4) 한일방직은 1972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흥한방적을 인수한 후 1974년 일부는 화신레나운, 그리고 동일레나운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5) 경상북도 울주군에 있는 '동래 정씨(東萊 鄭氏)' 집성촌. 동래 정씨의 대표적인 집성촌 중 한 곳이다.

는데, 회장님께 아들이 놀고 있다 하니까,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부산 사무실로 갖고 오라고 했대요.

나는 그때 군대에 있을 때라 몰랐는데, 회장하고 안면이 있으니 이력서를 본사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상고출신이 회장 통해 이력서가 온게 인천을 보내면 싫으면 안 오겠지 하고 본사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본사에 입사했어요. 그때 한일방직이 일은 힘들어도 복지라든지 이런 건 인천에서 좋다고 소문났더라고요. 퇴직금이 좋아요. 퇴직금이 10년 하면 17개월 반을 줍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그런 복지가 거의 없었어요.

학익동 이주 후 인천의 생활

처음 인천에 와서 부영약국 뒤에서 살다가 햇골로 이사했어요. 양토마을하고 요 사이 구릉지 비탈길 쯤 있었네요. 햇골 살다가 지금 학익2동 동사무소에서 조금 지나 옛날 일본식 주택이 있고, 그 밑에 단독주택 방 하나 얻어서 살았어요. 아까 오다 보니까 큰 아파트 서버렸대요.

부영약국이 지금 제일 오래됐다 안캅니까. 다음에 학익삼거리, 문학 쪽 가는 길은 비포장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삼거리 고개가 3번 버스 종점이었는데, 그쪽 길은 영 시원치 않았어요. 인하대학 후문도 별로 안 좋았어요. 학익삼거리[6] 쪽에도 개천 물이 흘렀고요. 우리가 술 자주 먹는 막걸리집이 개천 위에다가 판자 깔아놓은 가건물이었어요. 없어진 선인체육관에서 홍수환이가 권

6) 현재의 학익사거리는 1995년까지 삼거리였다.

투시합 할 때,[7] 지금 문학구장 있는 그쪽 논바닥에서 붕어를 잡아 회사 동료들하고 학익동 삼거리 집에 들어가 찌개 먹고 한 거 기억나요. 지금 문학구장 그 밑으로는 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만큼 시골이었어요. 1978년쯤 한 번 비가 크게 온 적이 있는데, 학익천이 넘쳐서 회사도 물이 막 넘치고 한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지금 교도소 문에서 한 100m 떨어졌나? 햇골에 살다가 신기촌 쪽 살았어요. 그리고 경기은행 뒤에 신혼집을 마련해 살았고요. 1981년 12월에 결혼했는데 거기서 한 1년 반 살았나? 우리 큰딸이 83년 9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주안주공으로 이사했어요. 이사해서 옛날 법원, 지금 가정법원 앞에서 3번 버스 타고 회사 갔어요.

입사 후 직포과 준비부에 근무하다

제가 한일방직에 1976년 3월 26일 입사해서 1991년 3월 경 퇴직했어요. 입사해서 직포과에 근무했는데, 직포과에는 준비부와 직포부가 있어요. 준비는 직포를 짜기 위한 건데, 처음 위사 담당 준비부에 있었어요. 실을 짤라카면 경사와 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8]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엉켜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게 위사고, 바로 가는 게 경사예요.

방적은 영국식 단위에요. 그래서 전부 인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1인치에 여기 경사를 1인치에 100번을 할 것이냐, 90번을 할 것이냐, 80번 할 것이냐 이걸 결정짓거든요. 그러면 40인치에 80개 곱하기 40 하면 3,200개 되

7) 1976년 10월 16일 권투선수 홍수환은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WBA세계밴텀급타이틀전에서 '알폰소 사모라'에게 12회 2분 43초만에 '멕시코'인 주심 '옥타비오 메이란'씨의 경기중단으로 TKO패했다.

8) 천, 직물 구성 시, '위사'는 북에 의해 운반되는 가로 방향의 실(씨실), '경사'는 세로 방향의 실(날실)을 말한다.

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옆으로 1인치에 왔다 갔다 하는 위사를 북실이라고 하는데,[9] 북실을 감아주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잘 볼라 카면 강화 소창 짠데 거기 가면, 지금 얘기 100% 이해돼요. 거기 가면 옛날 방직공장 그 직포 기계가 거의 90%, 80% 맞더라고요.[10] 조양방직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소창 짠데 하고, 그 옆에 삼도직물 보면 그 위사 기계가 있어요.

다음에는 호부. 이거는 경사에 풀 호(糊)자예요. 풀을 먹이면, 실이 딴딴해가지고 안 끊어집니다. 실이 면이기 때문에 보푸래기[11]가 많이 나요. 풀을 미리 넣으면 보푸래기가 없죠. 천을 짤라 카면 바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풀을 단단하게 먹여놔야 돼요. 본드도 떨어지지 말라고 들어가요. 호부는 기계 한 대를 8시간 동안 여직원 하나, 둘이서 호부만 봐요. 퇴사할 때 까지 호부 기계를 한 5년 했어요. 호부 할 때 3교대를 하고, 위사 할 때는 주간에만 근무했어요. 그다음에 검사부가 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데, 베를 다 짜고 나면, 천이 100m, 200m 정도 되거든요. 쭉 펴 가지고 봐요. 흠집이 있나 없나 그거를 3교대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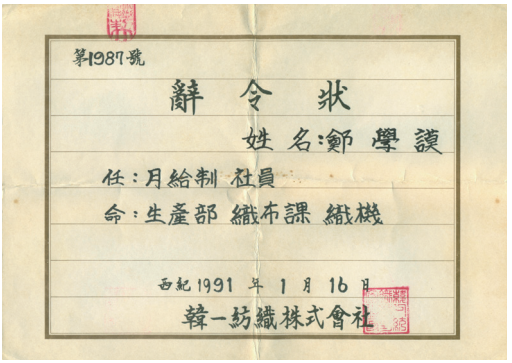
내가 그만둘 1990년 무렵 진급을 했어요. 내 명찰 봤습니까? 원래 직책은 공원인데, 10년 넘고 오래돼서 사원으로 진급시켜주었어요. 근데 일급제 공원이 사원보다 유리해요. 왜 일급제가 좋은가 하면, 예를 들어 오버 타임을 하면, 일급제는 일급이 1,500원이면 30일 나오는데, 월급제는 25일 줘요. 그러니까 공원이 더 좋아요.

9) 실을 꼬아 감는 정방기 등에서 실이 감기는 실패인 보빈(Bobbin)을 의미하거나, 문맥에 따라 재봉틀 및 직기 아래에서 사용되는 북집 속의 작은 실패(보빈)를 말한다.

10) 강화 소창체험관과 동광직물을 말한다.

11) '보푸라기'의 경남 방언.





한일방직 공원에서 직포과 직기 사원으로 진급할 때 받은 정학모 님의 명찰과 사령장, 1991년

3교대 근무와 목욕탕

한일 방직은 3교대 근무예요. 새벽 6시부터 2시, 2시부터 밤 10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그럼 밤 10시부터 6시까지가 야간이죠. 야간 수당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3교대죠. 아침반이 토요일 2시에 끝나면, 일요일 밤 10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간반이 일요일 아침 6시에 퇴근하면 오후 반 가야 되니까 2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 4시간 자고, 왔다 갔다 빼고 나면 저 멀리 계양 같은 데 있는 사람은 회사 구석에서 어디 누워 자요. 멀리 못 가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인천공장 잘 돌아갈 때 전체 직원이 1,700명 정도 됐어요. 직포기가 그때 416대예요. 위사 할 때 여직원들 3교대 하면 21명, 호부는 나하고 여직원 둘 뿐이었고요. 남자는 전체 직원 1,700명에 한 4백 명 됐을까? 대부분 여직원들이에요. 여직원들이 힘들어서 나가니까 두 달에 한 번씩 30명, 40명 뽑아요. 나중에 1988년 인가? 하여튼 몇 년도에는 사람을 못 구했어요. 회사에서 추석 때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강원도, 전라도 골짜기 중학교 졸업하는 학

생들을 차로 한 50명씩 싣고 옵니다. '고등학교 야간 보내준다, 학자금도 다 대준다.' 해서 한 50명씩 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상여금 빼고 4만 5천 원 받았어요. 계약서 쓸 때 상여금을 포함 안 시켰더라고요. 우리는 아침 먹고 8시 반 출근해서 점심은 회사서 무료로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먹어요. 기숙사 생활하는 여직원들은 점심 무료로 먹다가, 1988년 경 한참 데모 많이 하고, 동일방직 데모 크게 나고 하면서 세끼 모두 무료로 먹었어요.[12]

작업실은 온도가 높아요. 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실이 탁탁 끊어집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습도를 높여 눅눅하게 하면 덜 끊어져요. 습기가 많고, 온도도 높으니까 겨울에도 반팔 입고 일해요.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려고 보일러를 때는데, 이 열을 이용한 목욕탕이 공장 안에 있었어요. 1층은 목욕탕, 2층은 탈의실로 뜨신 물 나오니까 매일 샤워해요. 한일방직 다닐 때는 목욕탕 가본 적이 없어요.

솜뭉치 먼지와 4백여 대 기계 소음

먼지와 소음이 엄청나요. 방적과에는 다섯 부서가 있어요. 혼타면, 그다음에 소면, 연조, 정방, 와인딩(Winding)[13]이라는 권사가 있어요. 연조[14], 혼타(混打, Mixing and Blowing)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솜이 올 때 압축해서 탄

12) 1978년 노동계 큰 파문을 일으킨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똥물사건 이후 1980년대 후반 해고자 복직,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말한다.

13) 방적 공정에서 생산된 실(원사)을 다음 단계(제직 등)에서 사용하기 쉽고 끊어지지 않게 큰 실패(콘, Cone)에 가지런히 다시 감아주는 필수적인 마무리 공정을 말한다.

14) 여러 개의 카드 슬라이버(Sliver, 솜털 상태의 섬유 다발)를 합치고 롤러 사이를 통과시켜 가늘게 늘려주는 과정이다.



한일방직 월급봉투 및 급여지급명세서

탄하게 묶어 들어와요. 그럼 솜뭉치를 막 두드려서 풀어요. '두드릴 타(打)'자예요. 이때 먼지가 무척 많이 나죠. 와인딩은 우리말로 '감을 권(捲)'. 실 사(絲)자로 권사. 이거는 뭐냐 하면 이불 집에 가면 솜을 팽팽하게 하죠. 이불 솜 하듯이 팽팽하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다섯 군데를 거쳐요. 그런 기계가 한 400여 대가 있으니 소리가 무척 큽니다. 이게 한 180 데시벨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문 열고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서. 그래서 귀마개를 다 줍니다. 귀마개를 차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해요.

일하다 보면 사고가 나긴 하죠. 나는 산재 15등급, 최고로 받았어요. 근데 나는 좀 큰 편이고, 여직원들은 기계가 왔다 갔다 할 때 손가락 조금 끼는 간단한 거 말고는 본 적 없어요.

노동운동은 우리가 하려다가 그냥 끝냈어요. 그때 아줌마 하나가 하려 했는데, 그 아줌마 회사 그만두게 만들어서 못했어요. 우리는 농성, 데모 한번 못 해봤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다 자기 계통만 심어 놔 가지고 꼼짝을 못하거든요. 술집에서 술김에 했던 말이 그날 저녁 퇴근이나 아침에 윗사람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조심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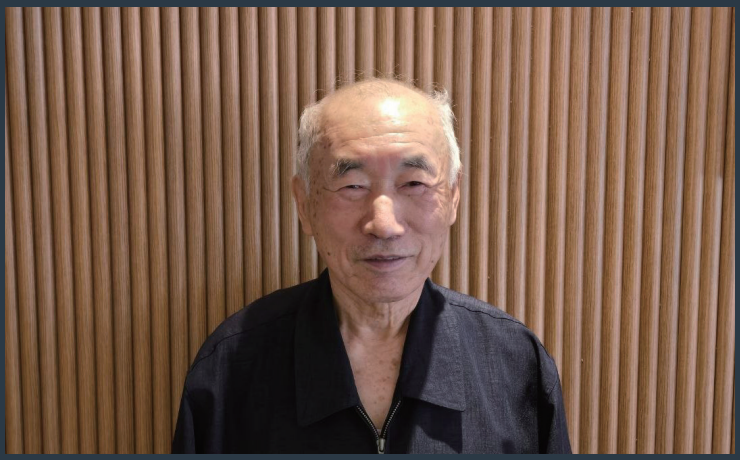
오로지 자식 교육을 위해

내가 공부도 못했으니까 애들만은 SKY대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도시는 알바를 할 수 있지만 시골은 알바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애들 공부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나 부모님한테 돈 10원 안 받아봤어요. 결혼도 내가 벌어 했고, 부모·형제에게 나 돈 10원도 안 받고 혼자 자수성가했어요. 박사에 경기연구원 연구원으로 자식들 공부 이만큼 시키면 자수성가 한 거 아닙니까? 고향 생각하면 애 공부 못 시켰을 거예요. 한일방직은 대학까지 등록금이 다 지급됐어요. 내가 18년 한일방직을 다녔는데, 일찍 그만둬 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형제도 없는데 애 똑바로 대학 안 보내고, 바보 인생 아닌가 생각해 오기가 생겨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더 독하게 산거죠. 진짜, 진짜 독하게 살았습니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9. 15. / 2025. 9. 22.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곽은비(지역기록자)
· 면담지원: 강인형(미추홀시민기록단)



한국유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담당하다



지무환

1948년	서울 영등포 출생
1949년	인천 이주
1971년	동양화학 입사 후 5개월 근무
1972년	한국유리 입사
1996년	한국유리 퇴사

지무환 님은 1948년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났다. 1949년 초쯤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군 제대 후 4개월 근무한 동양화학을 그만두고 검수, 일용직 등으로 일하다 1972년 한국유리에 일용직으로 들어갔다. 정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카드 일용직', 수습공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IMF가 터지기 직전 1996년에 퇴사하였다.

그는 정식 직원이 된 후 생산부를 거쳐 공무부 영선과로 자리를 옮겨 건물 유지보수, 누수 관리, 도로 하수구 정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다. 1984년경 학익동 유리 창고 건물 지붕 누수로 현장에 파견되어 약 두 달간 상주하며 보수 작업을 감독했다.

한국유리는 타 회사에 비해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연 400% 보너스, 자녀 학자금 지원, 하계휴양소 지원 등 복지가 우수한 편이었다. 학교 교사를 하던 사람이 높은 임금 때문에 한국유리 현장직으로 이직할 정도였다. 대우자동차 직원의 임금보다 높은 것은 물론 20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이 타 회사의 10배가 될 정도로 높아 부러움을 샀다.

한국유리가 생산한 유리는 지게차가 아니면 옮길 수 없을 만큼 무겁다. 이런 유리들이 만석동과 학익동 창고에 적재되었고, 경비원이 3교대로 창고 경비를 섰다.

학익동의 한국유리와 유리 창고, 동양화학, 유공 등이 있던 자리는 이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격세지감(隔世之感)'을 실감한다. 그는 1996년 한국유리를 퇴사한 후 틈틈이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는다고 한다. 현 세대나 후 세대 모두 인천의 역사를 알아야 인천이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만석동에서
학익동 소풍가는 길

저는 호적엔 1948년 영등포구 도림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1946년 신의주 태생입니다. 아버님이 신의주역에서 기차 차장으로 일하시다 1949년 초 인천역으로 발령이 나서 인천으로 왔어요. 그때 거주하던 만석동에는 피난민들이 많았고, 그 중 황해도 피난민들이 많았어요. 나는 1952년부터 1962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 살다가 송월동으로 이사해서 1년도 채 살지 않고 사동으로 이사해 1978년 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숭의동으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때문에 학익동에 거주한 적은 없는 거죠.

학익동에 대한 기억은 초등학교 때 송도와 문학산으로 소풍 가며 들은 이야기와 주변 풍경입니다. 동인천역 앞에 있는 축현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이면 송도[1]로 소풍을 가요. 옛날에는 숭의 로터리만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동양화학 자리 좀 못 가서까지 바닷

1) 구 송도에 있는 '송도유원지'를 말한다.

물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극동방송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 맨 꼭대기에 금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엔 어려운 시기니까 그 금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 해서 올라갔는데, 가져가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고 소풍 가며오며 소문을 들었죠. 문학산으로 소풍도 가요. 문학산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형무소[2] 자리 그 주위가 벌판이에요. 벌판을 지나가다 보면 교도관들이 총을 차고 드문드문 있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그들이 죄수였던 거예요. 죄수들이 논과 밭에서 일하면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학산에 올라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4개월 만에 동양화학을 퇴사하다

1971년 2월 경 군대를 제대하고 한 5~6월쯤 돼서 동양화학에 들어갔어요. 한국유리 근무하기 전이지요. 한 4개월 근무했어요. 동양화학을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아버지가 인천역에 계시면서 당시 도립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동양화학에서 사람 뽑는다는 소리를 듣고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 공장장이라는 양반이 면접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동양화학이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람이 매우 많았어요. 3교대 근무를 며칠 해봤는데 카드 찍는 데가 넓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네 달 정도 일했어요. 백지(白紙)라고 카바이트를 가스 탱크에 집어넣으면 가스가 차요. 여기서 가스를 혼합해 갖고 PVC 원료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한 달 일하고, 석 달은 정비를 했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더러우니까 그걸 정비하는 작업을 한 거죠.

2) 학익동 소년형무소 자리를 말한다. (현재의 학익동 법원)

그때 하루 일당이 340원이었어요. 340원이니까 30일 잡으면 1만 200원 될 거예요. 그 월급을 받고 동인천 사동에서 동양화학까지 걸어서 다녔어요. 한 50분 가까이 걸렸는데 웬만하면 걸어 다녔어요. 지금처럼 버스도 많지 않았지만 버스비를 아껴야 돼서요. 그때 쌀 한 가마니가 한 1만 원이 조금 안 됐으니 한 달 일해서 쌀값 버는 거죠. 동양화학 4개월 다니다 퇴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중 동양화학 뒤 색시촌 방향으로 퇴근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술 먹고 하는데 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화학을 그만둔 거예요. 그다음 직장이 외항선으로 물자나 원목이 들어오면 그걸 검수하는 일도 하고, 노가다도 하며 보내다가 1972년 11월쯤 한국 유리를 들어가게 된 거죠.

영선과 근무, 시설물 관리를 맡다

1972년 만석동에 있는 한국유리에 일용직으로 들어갔어요. 일용은 그냥 하루하루 시키는 일을 하다 '회사 나오지 마라.' 그러면 끝나요. 허드렛일 하는 거죠. 갈 때마다 시키는 일이 다르니까 일이 힘들고, 그 사람들한테 핀잔도 많이 받고 그래요. 카드일용이라는 것도 뽑았어요. 일용하고 카드일용은 달라요. 일용은 일용 사무실에서 전표를 갖고 오면, 경비 확인을 받아 출퇴근을 하는데, 카드일용은 카드 찍고 출퇴근 하는 거예요. 카드일용 생활을 이상 없이 하면, 두 달 동안 수습공을 거쳐 공원이 되고, 완전 직원이 되는 거죠. 1973년 8월 1일 한국유리 정직원으로 발령받아 1996년도 8월 15일까지 일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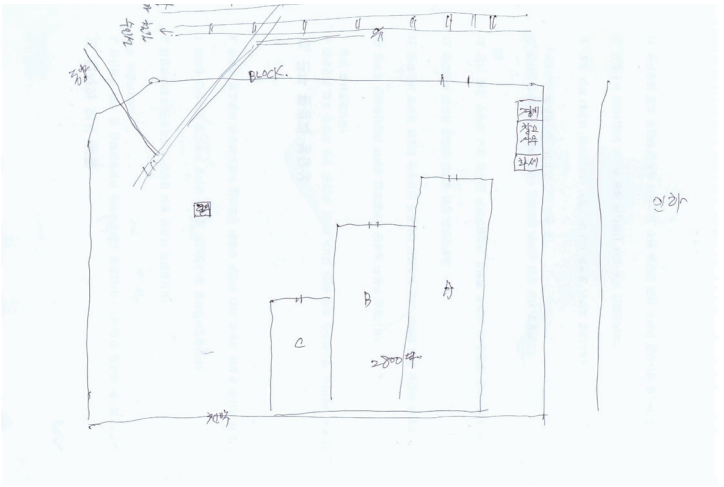
1997년 IMF 터지면서 12월 31일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문 닫기 1년 전 회사가 명예 퇴직금 더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해서 그때 나온 거죠.

1973년 공원 직원이 되고, 두 달인가 석 달은 생산부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월 9일부로 공무부 영선과로 발령을 받았는데, 영선과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인천공고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 누수, 하다못해 도로 하수구, 사무실이 더러우면 페인트칠도 하구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오더(order)가 오면, 현장에 오더를 보내고, 과장한테 보고해요. 전에 있던 생산 부서처럼 막 힘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일하기가 좀 수월했죠.

만석동 사무실에 있다가 학익동 창고 건물 지붕수리 감독하느라 두 달 정도 학익동에 있었어요. 창고가 3동이 있거든요. 지붕이 언더 아치 판넬이라고 철제로 만든 지붕인데 그게 누수가 돼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서 봤죠. 조금 새면은 뭐 말이 없는데, 비가 여러 군데서 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과장한테 보고하고, 업체를 불러 지붕에 올라가 조사해 보니까 철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멍이 부식돼 푹 썩었더라고요. 그때 직원들 열 댓 명, 업체 소장 한 명과 함께 지붕 전체 3분의 1을 갈았죠.

우리 영선과는 만석동 공장에만 있어서 시설물 관리할 때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흥륜사[3] 절 앞에 한국유리 연수원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나가고, 서울 본사에도 가요. 서울 본사는 인천공장이 잘 돼 갖고 돈 벌어서 산거예요. 그리고 부산, 군산, 대구에도 공장이 있어요. 안전유리로는 부평에 대원안전유리, 가좌동 안전유리가 있고요. 한국 유리가 제일 많을 때는 본사 직원 빼고 공장에만 한 5천 명이 근무했어요.

3)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사찰. 실제 흥륜사 근처 일대에 한국유리 연수원이 있었다.



지무환 님이 그린 학익동 한국유리 창고 위치와 구조

학익동 유리 창고, 지게차 아니면 절대 훔쳐가지 못해

유리 창고는 만석동, 학익동 창고 외에 서교동 창고[4]도 있어요. 거기는 서울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창고는 곳곳에 많아요. 만석동 공장 안에 창고 두 곳, 공장 안에 건물마다 다 창고가 있어요. 건물이 여덟 동, 유리 공장이 4개, 판유리 공장이 4개 있으니까 물건이 나오면 포장해서 쌓아놓는 데가 모두 창고죠. 공장 구석 곳곳이 창고예요. 그래도 창고가 모자라요. 거기 다 넘치면 학익동 창고로 보내요. 서교동 창고는 서울 업자들이 많으니까 학익동 창고에서 받은 거를 일단 거기로 보내죠.

4) 서울 서교동에도 한국유리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유리 학익동 창고 일대 위성사진, 1995년, 국토지리정보원

학익동 창고는 한 6천 평 정도 돼요. 창고는 경비실, 경비실 옆에 창고 사무실, 그 다음에 화장실 겸 샤워실, 창고 건물이 있어요. 경비는 밤 되면 항상 순찰 돌아요. 순찰 돌다 보면 민간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려 티격태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고. 그런데 훔쳐 가래도 무거워서 가져가지도 못 해요. 지게차 없으면 못 가져가요. 유리 무게가 돌하고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리는 모래 백운석[5]이랑 석회석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돌의 비중이 2.12이면 유리 비중도 2.2에요. 유리는 똑같은 거 녹였다가

5) 백운석(Dolomite, 돌로마이트)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한 탄산염 광물이다.

그게 굳어지면서 유리가 된 것뿐이지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유리는 화합물이 아니고, 혼합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옛날에 대성목재 있죠? 대성목재 원목을 만석동에 있는 놈들이 쌩쌩해서 훔쳐가려고 막 굴려요. 그러면 경비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밤새도록 굴려도 후문에서 정문을 못 나와요.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경비들이 앞에 문 딱 잠그고 있는데, 도둑이 담 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갖고 가라 그래요. 못 가져가요. 지게차 아니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대우자동차보다 높은 임금

학익동 유리 창고 경비는 3교대예요. 경비는 지켜야 되니까. 창고에 소속된 사람들은 낮 근무만 하는데 낮 근무로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불 켜놓고 밤 10시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밤에 하다 보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낮 근무는 아침 8시 반부터 17시 30분까지라고 보면 되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그 사이 10시부터 10시 15분, 3시부터 3시 15분 커피 타임이 별도로 있어요.

내가 한국유리에 와서 제일 좋다 생각한 게 다른 회사보다 임금이 좀 높아요. 학교 교사 하던 사람이 한국유리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사 하다가 왜 이런 데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유리 임금이 선생님 월급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대우자동차하면 김우중 회장이 있잖아요. 김우중 회장이 공장에 갔다가 한국유리에서 물건이 들어온다 하니까 우리 공장을 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는지 와서 '궁시렁' 댔나 봐요. 대우에 근무하는 아이들이 한국유리 보고 "야, 너희들 월급이 얼마냐?"하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얼마 받고, 10년 근무하면 얼마 받는다 말하니까 "우리는 회사만 크지, 왜 월급이 한국 유리만도 못해" 그런 적 있었어요. 또 한국유리 옆에 대우중공업에 다니는 내 친구 말 들어보면, 한국유리가 임금이 더 높은 거예요.

1996년 퇴직하고, 노동청에 갔을 때, 남동공단 사람들은 20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2천만 원이고, 조금 좋은 데는 4천만 원 받는데요. 한국 유리는 얼마 받았냐면, 남동공단 사람들보다 공이 하나 더 많아요. 거의 10배. 우리가 회사 관둘 때 명예퇴직해서 1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실업급여 받을 때 사람들이 "야, 거기가 무슨 회사야" 해서 한국유리라니까 한국유리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요. 이 때 내가 한국유리에서 근무를 잘 했다고 느꼈죠. 나는 그때 퇴직금 받은 거로 가게를 두 채 샀어요.

장남, 가장은 당연히 가족을 책임져야

퇴직금으로 지하상가를 샀어요. 그거 갖고 한 20년 동안 월세 받고, 저축해 우리 아이들 대학교까지 보냈어요. 내가 퇴직할 때 우리 큰 놈이 고등학교 1학년, 작은 놈이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이젠 자리를 잘 잡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대학교 보내느라고 고생했는데, 가장이니까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장남이기도 합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십 원 한 장 안 쓰고 저축해서, 동생 네 명 중 세 놈을 대학을 보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학익동이 변화한 거 보니 격세지감이 들어요. 학익동만 해도 아파트가 저렇게 들어서게 될 줄 몰랐어요. 인천은 내가 생각할 때 좀 편하게 살려면, 우리 후손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또 이웃 간에 평화롭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앞날이 보장되죠. 내가 역사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980번을 외침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새 도서관 다니면서 이 책, 저 책을 보며 주어 듣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해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10. 14. / 2025. 11. 3.
· 장소: 제물포역 지하도 상가 열린공간
· 면담자: 곽은비(지역기록가)
· 면담지원: 이혜숙(미추홀시민기록단)



대우전자 엔지니어에서 HD건설기계 엔지니어로



이재동

1975년	경북 청도 출생
1994년	홍익대학교 입학
2001년	대우전자 입사
2007년	대우전자 퇴사
	현재 HD건설기계 (전 두산인프라코어) 엔지니어로 근무

이재동 님은 2001년 용현동 대우전자 냉장고 설계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였다. 입사 당시 회사는 IMF 외환위기와 대우부도 사태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는 자부심을 가졌던 선배 세대들이 남대문 본사 앞에서 파업하고, 농성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회사의 상징이었던 오리발 마크는 사라지고, 대우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바뀌었다. 두 번의 구조조정으로 존경하던 선배들이 회사를 떠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한다.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도 이런 회사의 위기감이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대우전자의 독자적인 가전 브랜드인 '클라세(Klasse)' 양문형 냉장고 개발에 참여하였다. 2007년 퇴사할 때까지 냉장고 내부의 선반, 서랍, 도어 포켓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본인의 적성에 맞아 매우 재미있게 일했다고 한다. 직접 만든 샘플 냉장고를 집으로 가져와 결혼 후 5~6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대우전자 공장 정문 앞에서 동양화학으로 이어지는 화물선 철길을 따라 늘어선 식당과 서울에서도 소문난 인하대 후문에서 번개 모임을 가지며 활기찬 직장 생활을 했다. 동료들과 점심시간 자주 찾아 식사를 했던 조개고개 순대국밥집과 홍어집 소식을 궁금해 한다.

지금은 대우전자를 떠나 HD건설기계에서 근무하고 있다. 냉장고 설계에서 자동차·기계 부문의 굴착기 설계로 여전히 엔지니어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회사를 떠났지만 당시 냉장고 연구소에서 함께 고생했던 팀원들과의 동료애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도 꾸준히 연락하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조개고개 장터 순대국밥집과 홍어삼합 식당을 그리워하며

저는 1975년생이고요,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다른 회사에 있었으니 대우전자는 첫 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때 용현동 대우전자 공장은 냉장고 개발 연구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연구개발팀에 입사했어요.

지금 홈플러스가 들어섰지만, 그 당시 용현동은 일반 주택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회사 앞 정문에 철길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딱 두 번 봤는데, 회사 앞 그 철길로 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동양화학 쪽으로 갔던 기차인 것 같은데, 그 철길이 쭉 이어져 지금 스카이뷰 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철길 따라 건물과 식당이 있었고, 여기 사거리에 우체국이 있었고요. 회사 안에 금융 관련 시설이 없어 저희가 철길 따라 우체국 갔던 일이 많아 기억해요. 철길 따라 가다 보면 예전에 SK 유공 앞에 식당들이 몇 개 있어서 외식할 때도 있고, 간단하게 먹을 때는 인하대 후문으로 가기도 했어요.

인하대가 워낙 먹거리가 풍부하고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인하대 후문 안주는 양이 많았죠.

옥련동, 지금 사격장이 있는 청학동에 살았어요. 조개 고개였는데 홍어집이 많았어요. 꼭대기 언덕배기에 대우전자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장터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차를 타고 1~3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자주 이용했어요. 이 집이 어디로 갔는지 소재를 알고 싶어요. 특이한 순대국밥집이죠. 빨간 순대국밥이었는데 여기 개발되기 직전까지 생각날 때 가끔 가긴 했었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제일 아쉬운 집이에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짜장면집 하나 더 있었고, 그 맞은편에 홍어삼합 집이 있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후문 쪽엔 길도 없었고. 지금은 길이 이어져 있잖아요. 2000년대 초인데 저희 회사에서 장미아파트 앞쪽과 홍등가까지 다 개천이었어요. 여름에 비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해서 공장 안으로 막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주머니 쌓고 그랬어요. 대우전자는 작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비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주택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비가 온다 하면, 방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양화학을 지나는 출근 길

동양화학은 출퇴근길에 늘 보이는 회사니까 그냥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정도지 특별히 교류는 없었어요. 제가 고향이 경북 청도인데 저희 옆집에 사시던 형님이 동양화학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거기 지나갈 때 화학 냄새는 잘 못 느꼈어요. 학익천이라고 2000년대 초반에도 시궁창 냄새가 더 많이 났죠. 저 다닐 때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거나 하면 회사 앞쪽의 도로에서 그런 냄새가 났어요. 옛날에 동양화학 쪽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초록색 물을 가둬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안 갈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거의 끝자락 옹진군청 근처였었어요.

양문형 냉장고 개발, 수백 대 샘플을 테스트하며 출시하다

대우전자 부지에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압축기 부품 공장도 있었고, 냉장고 생산 라인에서 김치 냉장고 등을 생산했어요. 예전에 대우전자가 인천 공장이랑 전라도 광주 공장 2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광주 공장은 큰 냉장고 위주로 생산하고, 인천 쪽은 소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생산했어요. 제가 있던 연구팀은 150명 정도 됐을 걸요? 제가 있었던 연구소는 오로지 냉장고 개발만 했었는데, 1층은 상업용 냉장고, 쇼케이스라고 그러는데 상업용 냉장고 만드는 팀이 한 5~60분 계셨던 것 같고, 2층에는 냉장고 개발팀으로 거의 1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도 팀, 브라질 팀 등 그런 해외 팀으로 나눠서 대응했고, 저는 국내 광주 쪽 개발 담당을 했어요.

삼성이 지펠 디오스 출시한 후, 대우는 한 1~2년 정도 늦게 대우도 양문형 냉장고를 개발했지요. 설계를 할 땐 특징이 있어요. 설계 단계에서 개발, 출

시 단계까지는 끊임없이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1] 해가면서 조율해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면서 피드백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문제없이 나갔다고 출시했는데, 시장에 깔렸을 때 '냉장고가 얼어요.' '냉장고 문이 이상해요.' 이러면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죠. 시장 출시하기 전에 한 100대, 200대 정도 샘플을 만들어요. 그리고 200대 정도 수량으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뜨거운 곳이나 영하 40~50도 되는 데 넣어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문짝을 여닫고 테스트 해보고, 또는 '너 써봐라.' 해서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집에 가져와 써보기도 하구요. 개발 기간은 한 1년 정도거든요. 근데 약간 흠결이 있고, 갈라진 곳이 있으면 테이프 발라서 쓰고. 그렇게 샘플을 10대 정도 원하는 사람 우선으로 주고, 써보며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필터링도 하죠. 회사에 부품 교환해서 다시 고쳐서 쓰기도 하고요. 저 결혼했을 때도 그 냉장고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연구개발 제품은 광주 쪽 전담이라서 생산을 하려면 광주에 가서 물건을 만들든지 해야 되요. 인천에는 연구개발실만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연구 업무만 하고, 실제 생산하려면 R&D 센터가 집결돼 있는 광주로 가요. 어느 기업이나 R&D 센터는 한 곳에 모아 놓고 그래서 그때는 좀 부러웠어요. 북미, 브라질, 인도 그쪽 팀들은 출장 가기 싫다고 하는데, 나는 국내 생산 쪽이라 여권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해봤어요.

제가 개발해 만든 제품 중 제일 기억나는 것은 '클라세'라는 냉장고 브랜드예요. 저는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계속 양문형 냉장고만 개발했었거든요. 주로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선반, 서랍이나 문에 달려 있는 그런 포켓들요. 저는 제 적성에 맞아서 참 재밌었어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초기에 양문형 냉장

1) 시스템, 기계, 소프트웨어 등에 문제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여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원인 규명 과정을 포함한다.

고 사면 계란 통을 줬었어요. 케이스에다가 뚜껑까지 있는 계란 케이스를 샘플로 100개, 200개 만들어요.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누구 나눠줘야지.' 이러면서 계란 통 나눠줬던 기억이나요.

샘플을 주변에 주기도 하지만, 지금 다른 가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생긴 B급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A,B,C급 이렇게 해서, C급은 약간 성능은 떨어지고, A급은 옆에 약간 스크래치 있는 것들을 팔아요. 거의 시중가의 20~30% 싸기도 해서 한참 김치 냉장고 나올 때 친척들한테 많이 팔았죠. 저는 개발자니까 잘 알잖아요. 이건 정말 성능에 아무 문제없어요. 그리고 모든 제품에는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같으면 동일 제품이에요. 근데 하이마트나 그런 데 가는 제품은 코드 뒷자리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디자인 부분만 빼고 성능은 똑같아요.

한 1년 단위로 제품개발을 하다 보면 건물 뒤쪽 공터에 어마어마하게 샘플들이 쌓여요. 그때만 해도 여직원은 없고, 남자 직원들만 있어서 연구소 한 100명이 다 붙어가지고 폐기장까지 냉장고 이동하는 작업만 하루 종일 하죠. 냉장고 개발할 때는 1년 사이클이다 보니까 샘플 만들어 테스트하고, 어쩌고 하면 1년이 정말 후딱 가더라고요.



대우전자 직원들과 건물앞에서
(이재동 님 뒷 줄 왼쪽에서 두 번째), 2003년

친정 같은 대우그룹 위기를 바라보는 심경

2001년에 여기 입사해서 2007년 이직했어요. 1999년 대우부도위기와 IMF위기를 거치면서 대우그룹 전체가 휘청했지요. 대우전자도 그때 워크아웃 상태였지만 연구개발과 생산은 계속하며, 명맥은 이어가는 상황이었고요. 2005, 2006년 두 번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2007년 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는 그냥 유지 상태였죠. 제 기억으로 브라질, 인도에 공장이 있어 수출 위주로 대우전자가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도 브라질 공장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으로 매각되니, 저쪽으로 매각되니' 하다가 사명이 바뀐 것도 자체 회생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바뀌었고요. 그때 대우의 상징적인 오리발 마크가 없어졌죠. 이제 회생하고 신입사원 한두 명씩 뽑아서 삼성, LG처럼 해보자하는 회사 차원의 방침이 있을 때 제가 입사한 거죠. 요 윗분 세대들은 정말 IMF와 대우 사태 겪으면서 남대문 대우 본사 앞에 가서 파업도 하고, 농성도 하셨죠.

이런 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니니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이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잘 나가 던 분들은 과거 영광의 기억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광고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대우전자 탱크주의, 공기방울세탁기 이런 거. 회사가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분들은 아니에요. 대우전자는 삼성, LG 보다 더 뛰어난 회사였어요. 그런데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무너졌죠. 연구개발실 건물 1층에 쇼룸이 있는데, 과거에 대우전자 냉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 상 받았던 거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광주 공장에 삼성, LG처럼 영상도 있었고, TV, 백색 가전, 청소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여러 사업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2년에 한 번꼴로 하나씩 하나씩 사업부가 매각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두 개 부분이라도 좀 살려서 회사 정상화를 해보자며 대우조선 일렉트로닉스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딤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쪽으로 인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친정 같은 회사예요. 이렇게 매각되었어도 잘 되면 좋겠어요.



대우전자 직원들과 건물앞에서, 2003년 2월 25일

‖ 면담개요
· 일시: 2026. 8. 16.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조연희(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박성희(미추홀학산문화원)



철강산업의 선두,
한국파이프의 산증인



김영수

1956년	강원도 철원 출생
1981년	한국파이프 입사
1983년	인천 이주
2019년	휴스틸 부사장으로 퇴직
	한국파이프는 1994년 부도 후 신호그룹이 인수
	신안그룹이 인수 후 2002년 사명을 휴스틸로 변경

김영수 님은 1956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1981년 한국파이프에 입사한 후 1983년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학익동 '한국파이프'는 택시 기사 중 그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기둥이었다. 당시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었고, 신입 사원만 60여 명을 뽑을 정도로 성장할 때였다.

그는 한국파이프 공장의 '신경계'와 같은 전기 설비를 보전하는 업무를 맡았다. 기계 고장은 우선 눈에 보였지만, 전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촉 불량이나 보이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이었다고 한다. 한 번은 일본에서 들여온 최첨단 설비를 설치할 때 지하 배관 방식을 한국인 특유의 아이디어로 변경시켜 그들을 놀라게 했던 일화는 지금도 생생하다고 한다.

학익동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진한 냄새가 배어 있는 곳이다. 그 시절 25일 월급날은 주변 식당의 수금날이었다.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 동료들과 식당에서 이름만 달고 먹었던 외상값을 받기 위해 학익동 일대 식당 주인들이 장부를 들고 회사 경비실 앞에 모여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파이프 직원들이 중동에 진출해 일했던 사진과 자료를 정리해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 구술기록이 작게나마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들의 성장이 학익동과 용현동의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말한다.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히고 만다."고.

한국파이프[1] 모르면 간첩

1956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다녔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어요. 1981년 한국파이프에 입사한 후 1983년에 인천으로 왔습니다. 당시 공과대학이 상당히 전망이 좋았고, 전기 계통에 근무하고 싶은 희망이 있어 선택했죠.

택시 기사님들 모두 한국파이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 철강회사로 큰 회사였어요. 인천제철, 지금 무슨 제철인가 모르겠다.[2] 그거 말고는 큰 회사가 별로 없었지요. 부산파이프하고 한국 파이프 두 회사가 가장 컸을 거예요. 나중에 동부제강으로 인수된 일신제강[3], 부산의 연합철강 등이 있었고요.

1) 정식 회사명은 한국강관이었으나 생산품의 특성 때문에 당시 직원이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파이프'라고도 불렸다. (출처: 미추홀구 도시마을생활사. 용현동·학익동)

2) 1964년 설립되어 1978년 현대그룹에 편입되었다. 2001년 INI스틸, 2006년 현대제철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현재의 현대제철 인천공장이다.

3) 일신제강은 1956년 설립, 1967년 철강산업을 이끌었던 핵심 강판업체로 출범하였으나 경영난으로 1982년 부도 후 1985년 동부그룹이 인수, 동부제강(현 KG스틸)으로 상호가 바뀌었다.

당시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공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규모가 확장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사우디 진출 때문에 아랍어과 출신도 뽑았어요. 영어영문과는 당연하고, 베네수엘라 공장 진출로 스페인어과, 그래서 신입사원이 한 60여 명 들어왔었습니다. 진짜 아쉬운 건 나중에 베네수엘라 진출은 안 되고, 사우디만 진출했어요. 베네수엘라 때문에 스페인어과 출신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원들은 역할을 못했죠. 차후에 보니 사우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어를 하니까 굳이 아랍어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회사의 총 인원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명 정도였던 것 같고, 나중에 가장 많을 때는 직원이 800여 명까지 됐었어요. 경쟁이 심해 목포 공장도 입사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교통도 서울에서 올 수 있는 통근버스, 전철이 있어 교통편도 괜찮았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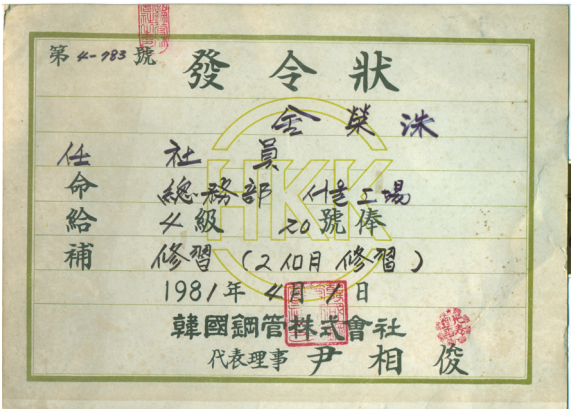


한국강관 인천공장 준공식, 1974년 10월 15일

월급날, 회사 경비실 앞은 외상값 갚은 날

정확한 액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수습 기간 두 달 동안은 월급이 22만 7천 원이었어요. 아마 수습 기간 이후부터는 한 26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생활하는 데 부족한 느낌은 없었고,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유로 적금을 들고, 1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했는데 충분했어요.

월급은 현금 봉투로 받았습니다. 월급날 가장 기억나는 것은 외상값입니다. 월급날이 25일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25일이 되면 주변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이 경비실 앞에 와서 퇴근 시간에 기다려요. 회사 장부 수첩(직원들 외상값 장부) 하나 들고, 줄을 서서 거기에 누구누구 있으면 돈을 받고, 장부에 이름과 외상값 지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카드 이런 게 없으니까, 평시에는 식사나 술을 마시고 이름과 외상값을 노트에 쓰면 되었거든요.


第 4-783 號

發令狀

金 榮 洙

任 社 員
命 總務部 付 工場
給 4級 20號俸
補 修習 (2個月 修習)

1981年 4月 7日

韓國鋼管株式會社
代表理事 尹 相 俊

한국강관주식회사 발령장, 1981년

보이지 않는
전기설비와의 신경전

입사해서 전기 설비에 대한 보전 업무를 맡았습니다. 철강 파이프 공장은 크게 기계하고 전기부문이에요. 물론 금속이 기본이 되는데 원료를 가공, 절단하고 용접해서 파이프를 만드는 기계설비와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전부 전기설비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고장이 나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설비는 고장 나면 안 보여요. 기계는 뭐가 부러지면 대충 언제쯤 복구된다는 게 보여요. 전기는 복구되면 설비가 금방 가동되지만, 원인을 모르면 하루 이틀 언제 복구될지 몰라요. 고장원인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배선접촉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이럴 경우 매우 어려워요. 전기에서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디 어느 부분이 고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본 기계를 많이 사 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지하배관 매설을 설계대로 공사 후 전기선을 집어넣어요. 원리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공사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디어 낸 거가 뭐냐 하면, 플렉시블 튜브[4]가 있었어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요즘은 다 쓰는데 구부릴 수 있어요. 철강 배관재는 지그재그로 어렵게 설치하여야 하나 플렉시블 배관재는 그냥 쭉 휘어지면서 배관하면 되잖아요. 플렉시블 하니까 원하는 대로 설비간 연결이 쉽고 얼마나 빠른지, 일본

4)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 휘어지는(유연한) 관(管)으로, 모양을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호스나 배관을 말한다.

엔지니어들이 놀랬죠.

또 한 번은 기계설비 설치를 할 때 전선이 짧았었나? 전선을 이을 필요가 있어서 연결할 때 끝부분의 전선피복을 벗기고 그다음 두 전선을 겹쳐서 꼬죠. 그 상태에서 절연 테이핑을 하니 옆에서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일본 기술자는 일정 길이만큼 피복을 벗기면, 터미널을 양쪽 끝에 물리고 연결시켜 주는 기계에 납땜을 하고, 연결해서 볼트 채우고, 그 다음 절연 테이핑을 해요. 이렇게 한 번 하면 아마 영원히 고장 없이 사용할거예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결부분이 풀릴 수도 있고, 접촉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작업하는데 당시에는 쉽게 작업하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참 그게 부족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 12시간 교대, 18시간 맞교대하는 근무가 '노동 강도가 세니 약하니'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산량이 필요하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덥고, 춥고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고, 선풍기 있으면 다행인 뭐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작업환경도 상당히 안 좋았죠. 매연도 심했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생산량 다 채웠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늘도 잘 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죠.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다 비슷했으니까요. 그나마 다른 회사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생각은 들었죠.

어쨌든 옛날 분들의 열정과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출기업으로서 자부심



한국파이프 인천공장 내부 모습

1980년대 기계설비 등 자동화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로 PLC[5]가 개발되어 배선 없이 컴퓨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단위 설비마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이 줄었죠.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노동 강도가 줄어들고, 설비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려 인원이 계속 늘어났죠. 인원이 줄 때는 IMF 위기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있었죠. 어쨌든 옛날 800명에 비교하면, 설비 증가에 따른 인원은 줄고, 생산량은 늘어났죠. 입사 초기의 생산량과 기술력을 비교

5)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자동화는 산업 현장의 기계와 생산 공정을 제어하는 컴퓨터 기반 시스템으로 고속 연산, 안정성, 유연한 프로그램 변경이 특징임. 센서(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직을 처리하여 모터/밸브(출력)를 제어, 공장 자동화(FA) 및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뇌 역할을 수행함.

하면 현재는 설비능력, 자동화 작업환경, 사원들과의 유대감, 효율성 향상 등이 엄청 커졌죠. 하여간 작업자들이 같이 '으샤으샤' 해서 만들어내는 협동심이 있었습니다.

또 해외 수출하는 경우 특히 멋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파이프 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사우디가 파이프 공장을 차리려 했었는데, 한국의 어느 곳과 연결을 시도했지만 거부되고, 이 때 한국파이프가 협상 대상이 되어 양 측에 큰 도움이 됐죠. 건설 건축에 파이프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사우디는 파이프를 전부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니까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납기도 빠르고, 수익성도 좋아 메리트가 크지요. 한국파이프가 1980년대 이전부터 적극적인 진출을 한 것은 당시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회사가 아프리카 케냐와 방글라데시에도 설비를 수출하였지만 사우디에는 설비를 포함한 공장건설과 함께 노동자도 파견하는 종합 프로젝트로 진행했어요.

해외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제품 검사자들이 와요. 특히 중국, 인도에서 많이 왔었고, 미국은 당연하고, 동남아, 중동과 멕시코, 칠레, 브라질에서도 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우디아라비아 공장에 근무하던 20여 명이 저희 공장에 연수생으로 왔었어요. 그 사람들과 목포 월출산에 한 번 갔었거든요. 산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장주변이 모두 사막인 지역에서 일만 하다가 산과 나무, 계곡물이 있는 곳에 가니 얼마나 신나요.

당시 중공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초빙된 중국 교수 한 분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공장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으로 직접 가는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회사가 교육차원에서 준비했는데, 강의 끝나고, 회사에서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시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죠. 자전거 선물이 지금 같으면 고급 승용차를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무척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해외 파견노동자들의 외로움과 끈끈한 유대

직원들끼리 끈끈한 관계 형성이 퇴직 후에도 유지되고 있어요. 퇴직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몇 개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걸프회'라고 사우디 파견 갔다 온 사람들끼리 연락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한번 그곳을 가 봤어요. 옛날에는 파견 나가면 한국과 연락도 어려웠고, 현지 공장 근처 컨테이너에서 살았어요. 처음엔 숙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식사 때는 버스를 타고 구내식당에 와서 밥 먹고 또 공장으로 가고. 나중에 콘크리트 숙소 시설을 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열악했죠.

그 당시 파견 노동자들은 힘들었겠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도 외로움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또 가려들 했어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급보다는 급여의 차이가 두 배에서 2.5배 받았고, 갔다 오면 집 장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우디에 파견된 인원이 최대 약 200여 명으로 당시 파이프 제조설비의 수출과 인건비, 관리비 측면에서 외화 획득에도 상당히 기여했을 겁니다.

한국파이프의 위기와 회생

1994년 과장이었을 때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때 창업주 윤상준 사장님이 계실 때죠. 당시엔 부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정말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모여 단결했었죠. 또 회사 부도라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일이었냐 하면, MBC 9시 뉴스에 톱으로 나왔어요. 자동화 설비 도입 때 직원 감축이 없었듯이 IMF 때도 사무직 구조조정 외엔 공장 근로자 구조조정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회사는 IMF 위기에서도 월급 다 줬으니까요. 많지는 않았지만 받던 월급, 특근비 등은 다 지급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자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당시 상황을 보면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말 그대로 흑자부도였어요.

한국강관이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가 항고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을 받았고, 다시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인은 바뀌었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었죠.[6] 그래서 저도 1981년에 입사해서 2019년까지 38년 근무할 수 있었고요.

떨어진 철가루도 돈이다

동양화학과 교류를 맺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종이 다르니까요. 동양화학과 철강회사의 생산과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 다른 회사와 교류가 많지만 예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는 있었죠. 우리가 가성소다를 동양화학

6) 한국파이프는 1994년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호그룹, 그리고 신안그룹에 인수된 후 법정관리가 끝나고 2002년 휴스틸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에서 구입해 사용한 게 있어요. 제가 연결된 실무니까 그 정도만 알아요. 회사 차원의 필요에 의한 소모품이 동양화학에서는 버리는 물질이고, 우리는 필요하니까 이루어진 거래였죠. 회사 대 회사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었고요.

옛날 우스개말로 철강이라는 거는 들었다 놓았다 할 때 떨어지는 철가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돌아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철강산업이 수익성이 정말 좋다는 거죠. 제가 입사하기 전 이야기니까 잘 모르겠는데, 파이프가 누수가 되면 판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매자가 용접해서 쓰라고 판매했대요. 물량이 부족하니까 일단 외관이 동그라면 다 팔았던 거죠.



新 재무전략

신호제지 李淳國 회장

법정관리「한국강관」인수

주식매수 않고「감자후 증자」로

M&A(기업인수합병)의 귀재로 알려진 신호제지 李淳國회장이 법정관리업체인 한국강관의「감자후 증자방식」을 통해 실제 주식을 사들이지 않고도 사실상 이를 인수하게 됐다. 현재 李회장은 한국강관의 법정관리인이다.

신호제지그룹측은 회사명칭을 한국강관에서 신호스틸로 바꾸고 그룹 공채로 신입자원을 뽑는 등 계열사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 5%이상 주주가 전혀 없어 주식확보도 무난할 전망이다. 이 회사에 별 지분이 없는 李회장은 증자를 이용해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강관은 앞으로 80%의 減資를 단행, 자본금을 1백4억원으로 줄인뒤 다시 6백96억원만큼을 증자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감자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증자를 하기 위해서다. 액면가를 밑도는 주가로는 증자가 불가능한 데다 회사의 내재가치를 높인다는 목적도 깔려있다.

전문가들은 李회장이 연차적인 증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를 끌어모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상증자시에 실권주처리는 이사회에 일임하는 주주배정방식을 취하면 된다. 이 경우 실권주 지분율이 10%를 넘더라도 증관위의 승인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법원은 한국강관의 부채상환 및 경영정상화를 최우선과제로 보고 지분문제는 차선의 문제로 인식, 이회장의 경영권장악을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강관은 94년에 이어 지나해 결산기에도 2백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강관부문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데다 법정관리기간인 17년 동안 파산은 없을 것이란 점에서 李회장의 기업인수는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吳晟澈기자>

「법정관리 '한국강관' 인수」, 매일경제, 1996. 1. 12.

기록은 누군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히는 것

사우디에 가서 고생했던 분들 사진을 제가 모아 회사에서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옛날의 기억을 정리해 구민들에게 전하고, 예전 분들의 노력과 지역을 발전시킨 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조사활동이 없으면, 과거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주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의 흔적은 없어지겠죠.

한번은 주민들이 통행권을 달라며 데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파이프 공장 주변은 1981년 입사할 때만 해도 다 그냥 나대지였는데, 2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1공장과 그 사이에 도로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이곳을 지나 학익초등학교 쪽으로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회사가 2공장을 지으면서 전체 공장부지에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2공장 뒤에 사시는 분들이 "통행권을 달라, 이곳으로 다니겠다."며 여기를 틀어막아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어요.

예전 명칭인 남구 학익동 일대 공장들은 지역구민들의 고생과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어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미추홀구가 이런 저력들이 이어져 제조업 중심지에서 교육, 문화 등 새로운 지역으로 발전하는 살기 좋은 복합 도시로 나아가리라고 기대합니다.



한국강관주식회사 인천공장 공장 전경
(신호그룹 소개 비디오 중)

‖ 면담개요
· 일시: 2025. 8. 8. / 2025. 8. 21.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조연희(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이혜숙(미추홀시민기록단),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공존을 위한 도시,
함께 할 수 있을까?



김성묵

1959년	인천 출생
1989년	연탄공장 부지에 강원콘크리트 설립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으로
	건설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레미콘 사업으로 전환
2022년	강원레미콘 CEO로 선임
2024년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현재 지역 역사 및 문화 기록 등 사회활동 참여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이사

김성묵 님은 1959년 인천에서 태어나 미추홀구에서 성장했다. 그는 학익동을 '산업의 심장'과도 같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의 강원레미콘 자리는 무연탄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던 야적장이었다. 연탄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에 벽돌을 만드는 강원콘크리트가 들어섰고,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호 건설' 국가 정책에 발맞춰 레미콘 공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레미콘 산업은 단순히 시멘트를 섞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모래 하나를 사용할 때도 해안선 파괴를 우려해 바다 모래 사용을 자제하고, 세륜기와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해 모은 물을 차량 세척과 먼지 억제에 재활용한다. 자원을 아끼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 역시 산업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량이 지나갈 때만 자동으로 물을 뿌려 먼지를 잡는 '자동 센서 스프링클러'를 직접 개발해 설치했다. 주변에서 다들 놀랄 만큼 정성을 쏟은 이유는 산업 현장이 결코 주민들에게 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공장과 주민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크리트가 필요하지만, 정작 집이 완공되고 나면 레미콘 공장은 이웃의 애물단지로 취급받는다. 인천 경제에 기여해 온 많은 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성숙한 공존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그는 희망한다.

그는 역사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주춧돌임을 강조한다. 학익동 공업지대의 변화상과 그 속에서 땀 흘린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지역 사회의 뿌리를 이해하는 귀중한 주춧돌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연탄 야적장에서 레미콘 공장으로

강원레미콘은 1989년 학익동 지금 자리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강원 연탄' 하면 아시죠? 원래 이 자리가 무연탄을 쌓아놓던 야적장이었어요. 사람이 없던 공장지대이고, 이 앞에 길도 왕복 2차선 정도로 넓지 않았어요. 무연탄을 빼내면서 벽돌공장으로, 그리고 레미콘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되었지요. 무연탄이 나간 이유는 연탄 수요가 줄어드니까 야적장을 줄이게 된 거죠. 무연탄 야적장이 나가고, 이곳에 강원콘크리트가 설립되었어요. 네모 틀에다가 회색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養生)[1]해서 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이요. 이 벽돌공장이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레미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된 겁니다. 인천에는 레미콘 공장이 몇 개 없었어요.

당시 학익동 지역은 전부 다 공업지대였습니다. 공장들이 다 큰 공장들이고, 주변에는 조그마한 공장이 없었지요. 한국강관이나 한국농약, 대우전자, 동양화학 등 인천을 대표하는 공장들이죠. 한국농약 쪽으로 흥한방직 회

1) 콘크리트 등을 굳힌다는 뜻이다.

사가 있었고, 방직회사 사택도 그쪽에 있었어요. 옛날 일본식 집들도 많이 있었는데 2호집, 3호집, 4호집으로 불리었어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듣기로는 다다미 방 뭐 그런 거였고, 이젠 없어졌죠. 그 당시에 한 채라도 잘 보관했어야 하는데, 이미 재개발돼서 철거한 상황이니 좀 늦었죠.

환경을 생각하며 세륜기와 빗물 저장고, 자동센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생산된 시멘트로 레미콘[2]을 만듭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믹싱을 해갖고, 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차가 이동하면 안 되니까 드럼을 돌려줘요. 굳지 말라고도 그렇고, 그냥 가면 아무래도 재료가 분리될 수 있으니까 분리되지 않도록 그걸 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 흙을 보면 다른 나라도 같지만, 모래흙이 있어요. 물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건 토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을 깨 갖고 그 부산물로 모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우디 등 사막의 모래는 너무 가늘어 쓸 수 없어요. 또 바다 모래도 지금은 잘 안 써요. 침적도 되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래를 채취해서 해안선이 무너진다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다 모래를 많이 쓰지 않아요. 바다 모래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2) 레미콘(Ready-mix concrete, RMC)은 말 그대로 미리 배합된 콘크리트를 뜻한다. 시멘트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미리 배합하여 현장으로 운반,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보통 믹서트럭(mixer truck or concrete mixing transport truck) 또는 애지테이저(영어: agitator)로 부르는 전용 트럭으로 운반한다.

도 하고요.

레미콘 차량은 차주가 따로 있어서 건설현장으로 레미콘 운반이 끝나면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매일 해줍니다. 모든 공사장엔 세륜기 설치가 되어 있어 드럼을 돌리면서 물로 씻어냅니다. 청소가 덜 됐다든지 그러면 함석철판 부위에 들러붙은 게 덜 빠지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떼어내는 거죠. 작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경을 써서 합니다.

청소한 차량의 물은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침전시켜 걸러서 다 써요. 지하탱크도 만들어 비 오면 빗물도 받아서 사용합니다. '물은 돈'이니까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니까 주택 허가받아 차고를 만들 때 물탱크를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돼요. 물 부족 국가인데 1년 중 여름에 오는 비가 다예요. 저장이 안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크게는 아니더라도 각 가정과 아파트 단지마다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해놓으면, 허드렛물로 마당 청소하고, 나무에 물주는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소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먼지가 난다고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클러를 가동합니다. 작업 현장 드문드문 설치해서 자동으로 마당에 물을 뿌려주죠. 차가 움직이면 센서에 의해서 물이 쏟아지게끔 해놨어요. 이런 시설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최대한 주변에 폐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시설을 갖춘 거죠.

신기술 개발에도 성공했어요. 레미콘은 추울 때 더울 때는 작업을 못해요. 특히 물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어요. 그러면 강도가 떨어져요. 이럴 때 빨리 굳도록 적정 강도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기술입니다. 또 비 올 때, 물이 1리터 들어가면 되는데, 비가 오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덜 나올 수 있죠. 기존에 하던 방식, 즉 비닐을 씌우거나 불을 피우거나 하는 위험한 작업은 피할 수 있는 거죠.



강원레미콘 전경, 2025년

공존을 위한 노력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공장들과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돼요. 특히 레미콘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 지으려면 레미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륜기, 빗물저장고, 자동센터 장치를 설치해서 먼지나 소음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건설할 때 콘크리트가 필수이고, 이 산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나요?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있어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냥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겠죠. 서로가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잘 안돼요.

예를 들어 공장이 허가를 내서 들어왔으면 관에서는 허가 범위를 잘 지키나 안 지키고 있나 모니터링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냥 무조건 '불편하다, 불편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많은 기업들이 인천의 경제에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모두 이전하고 남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전통적인 기업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주춧돌

주춧돌! 다 그게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집 지으면 상량[3]을 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요. 요즘 단독주택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 올리는 걸 보고 알았으니까요. 그게 다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상량식을 물어보면 '그게 뭐야' 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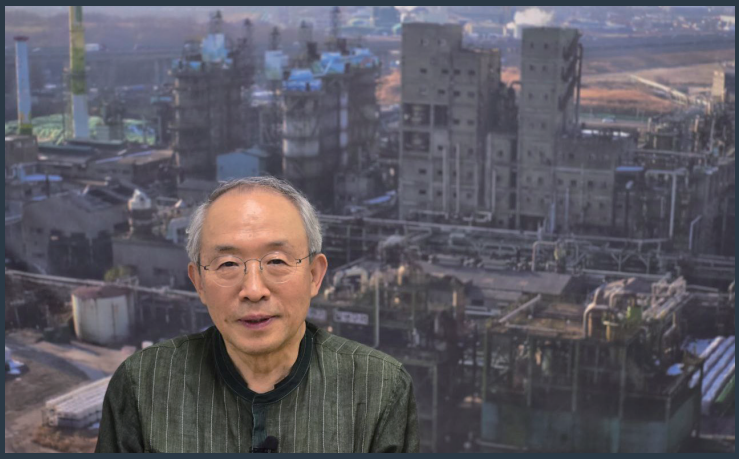
새로운 것도 좋지만 지나간 것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가고, 옛날 게 다 없어지면 단절되는 거잖아요. 지역 산업, 사람 사는 모습 등 발전사 과정을 알아야 앞으로 또 나갈 텐데 이게 딱 끊어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록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량(上樑)은 한옥 건축에서 기둥과 보를 세워 골조를 완성한 뒤, 가장 높은 곳에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이자 그 마룻대(상량) 자체를 의미하며, 이때 재난 방지와 복을 기원하며 기록한 글이 상량문이다. 상량문에는 건물 정보와 기원문이 담기며, 불을 막는다는 의미로 용(龍)과 거북(龜) 글자를 양 끝에 쓰고 '입주상량(立柱上樑)'과 축원문을 적는데, 이는 건물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이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29. / 2025. 10. 30.
· 장소: 강원레미콘 사무실,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이혜숙(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박인옥(시민기록 멘토),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기업,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한 40년



유수동

1956년	인천 출생
1983년	대학 졸업과 함께 인천상공회의소 입사
2013~21년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1~23년	인천상공회의소 강화산단 고문
	현 제물포 새마을금고 이사
	현 민주평통 미추홀구 부회장
	현 나사모서각 동아리 대표
	(현재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정기 동아리활동 중)

유수동 님은 1956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2살 때 미추홀구 수봉산 인근 도화동으로 이사한 후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 70평생을 한 집에서 살아온 '찐' 인천 토박이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한 후 인천상공회의소에 입사했다. 그의 첫 업무는 인천기업의 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실물경제 분석이었다.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숫자 싸움이지만 경제동향 분석은 인천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업무다. 그의 업무가 빛을 본 것은 1980년대 국가가 추진한 남동공단 조성 사업에 인천상공회의소가 참여해 인천기업의 염원을 달성한 일이다. 규제에 묶여 힘들어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신의 일처럼 밤낮없이 뛰었다.

1990년대 중국과 수교 이후 우리 기업들이 낯선 땅으로 뻗어 나갈 때 회장을 보좌하고, 인천공항 개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조성과정 등 역사적 현장을 생생히 지켜보았다.

인천상공회의소 역대 회장들 중 동양화학의 이회림, 이수영 두 회장과의 인연은 그에게 특별하다. 경기 포천의 창수연수원으로 직원들을 초청해 연수원 경내를 소개하던 모습, 남동공단 내 인천상공회의소 건설, 재정확보를 위한 자산 증식의 안목과 결단을 그는 잊지 못한다. 그는 인천을 아시아 태평양 상공회의소의 중심지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한 이수영 회장 등 두 분의 총수를 모셨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그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인천의 기업들과 함께 멈추지 않는 성실함으로 달려왔다. 그는 40년 인천상공회의소 근무에 대해 '인천의 기업이 곧 나의 인생'과 함께 한 여정이었다고 회상한다.

기초데이터 수집,
지역의 실물경제를 분석하다

저는 1956년생이고요. 2살 때 지금 사는 수봉산 밑 도화동집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한 번 안하고 한 집에서 70년 평생을 미추홀구에서 살고 있어요. 현직에서 퇴임하고 시간이 많이 나길래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거기서 목공예교육 등으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서각동아리를 결성해 학산문화원에서 매주 정기 모임도 합니다.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는 대학 4년때 취업을 알아보던 중 대학에서 추천을 해서 1983년에 입소해 40년 근무(인천강화산단 고문 2년 포함)를 했죠. 인천상의는 기업인 단체로 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실무를 담당해 평생 일을 했으니 인천상의는 물론 인천경제의 성장과정을 거의 지켜본 셈이지요. 인천상의는 1960년대 이후 인천의 산업화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 위상이 상당했다고 들었지요. 제가 입사한 1980년대 위상도 그에 못지않게 높았어요. 처음에 입소해보니 직원이 한 80명 가

까이 됐어요. 많을 때는 한 90명 이상이 근무한 것 같아요.

인천상의 업무는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입사해서 받은 첫 월급이 1983년 3월인데 27만 원인가, 26만 원일 거예요. 그때 당시 물가랑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배치된 첫 부서가 조사과예요. 조사 업무를 한 8~9년 했어요. 조사업무는 좀 답답하지만,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좀 답답하다는 말은 이런 업무를 할 땐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기업들의 생산, 출하, 고용, 가동률 등 기업들의 흐름을 조사하는 기초데이터 수집 업무죠. 이걸 실물 경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활동과 흐름 등 현장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기초 데이터가 없으면, 지역 경제 흐름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베이스 업무를 이해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인천상의 일하면서 그게 인생의 밑바탕이 되었으니 잘 된 거라 생각을 해요.



인천상공회의소 북부지원센터 개설(유수동 님 중앙에 위치), 2003년

‘500만평 남동공단 조성 업무를 지원하다’

인천상의는 1885년에 설립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지요. 제물포 개항이 1883년이고 2년 후에 구성된 ‘인천객주회’가 인천상의의 효시입니다. 객주라고 여기 인천항에 있는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일종의 상인 결사체이지요. 일제시대 때 객주회 운영은 영세하고 굉장히 어려웠겠죠. 인천상의는 설립 140년으로 아마 우리나라 최초 일 겁니다.

1980년대 인천상의는 중소공장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인천에는 많은 중소공장들이 도심 주택가에 난립해 있었지요. 그래서 기업하기가 어렵고, 사는 주민들도 불편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단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수도권에는 공단은 물론 대학도 못 짓고, 병원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공단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공인들의 염원인 공단이 꼭 필요했던 거죠. 공단 조성 문제는 인천상의가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문제였어요. 공단을 만들려면 현행법에서는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인천에 왔을 때 기업인들이 건의를 했죠. 그래서 남동염전을 매립해 남동공단 500만 평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는 인천상의가 중심이 돼 가지고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된 겁니다. 남동공단을 만들 때 나는 신입 직원으로 선배들이 하는 일을 뒷받침했어요.

동북아 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상공업계 업무를 지원하다

근데 한중수교 이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입사 당시 경제단체로는 우리 인천상의가 유일했어요. 1992년 중국과 수교하고 나니까 상공업계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공업지대로서 중국과 교류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대가 커진 거지요.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공적기관과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인천상의도 중국과 비즈니스를 위해 각종 지원과 영역 확대를 계획하면서 업무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천상의 조직과 업무도 세분화해야한다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거지요.

중국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사실 그동안은 대만하고 우리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대만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교류가 활발했어요. 그러나 중국과 수교 후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정부가 대만하고 단교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수교 조건이 대만하고 관계를 끊는 거니까. 대만화교들이 그때 반대하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친구를 내치고, 여기 하고 수교하니까 그랬댔어요. 굉장히 아픔이 있었죠. 한·중수교가 있은 후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공장부지가 싸다 보니까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업무 지원을 하고 그랬죠.

인천공항 조성은 중국은 물론 세계로 진출하려는 많은 기업들의 활동에 매우 획기적인 시설입니다. 공항 건설은 처음에 일산, 어디 어디 이야기하다가 인천이 최종 선정됐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엄청난 인천 발전의 계기예요. 경제특별자유구역으로 송도 1천600만 평, 청라 500만 평, 영종은 4천만 평으

로 총 6천만 평이 지정되었어요. 각종 규제를 없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노동과 세제, 환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포인트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라는 게 본뜻이에요. 우리 대기업도 많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공항이 생기면서 인천이 천지개벽을 한거죠. 인천이 이제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상해, 이런 세계적인 동북아 거점 도시들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 다 갖춰졌으니까요. 항만, 공항, 물류. 그동안 동북아에서는 상해, 싱가포르, 홍콩 여기가 허브 지역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인천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최기선 시장이 기초를 닦았고, 그다음에 안상수 시장이 대회 협력 비즈니스를 활발히 했어요. 그다음에 송영길 시장, 유정복 시장이 인천을 하나의 동북아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천상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대감도 컸지요.



인천상공회의소 창수연수원 단체사진
(이회림 회장 앞줄 가운데, 유수동 님 뒷줄 왼쪽), 1980년대

인천상의
성장기 버팀목,
동양화학 이회림 회장

제가 인천상의에 들어갔을 때 이회림 회장님이 1981년에서 1985년까지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1980년대 인천상의가 성장할 수 있는 큰 토대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보통 대기업의 회장, 총수는 중앙에서 활동하지 지방에서는 잘 안 했어요. 우리로서는 상의 위상을 높일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때가 남동공단 조성 필요성이 한창 강조될 때였죠. 그분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단 조성에 애쓰시고, 또 상의의 대표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분은 직원들 대할 때나 일하시는 게 굉장히 소탈하셨어요. 포천에 있는 동양화학의 창수연수원을 우리 직원연수 장소로 선뜻 내주셨고, 그때도 직접 나오셔 가지고 거리감 없이 해 주시는 거 보고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꼈었죠. 남동공단에 인천상의 건물을 지을 때 그 분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1980년도에 연수원 부지로 서구의 불로동 땅을 샀는데, 서인천이 개발되면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걸 판돈이, 기억에 10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돈으로 우리가 남동회관을 짓게 된 거죠. 우리 인천상의의 회관 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도 "이회림 회장이 인천상의를 먹여 살렸으니까 가서 엎드려 절해라. 항상 감사드려라." 그렇게 농담을 해요. 이회림 회장의 큰 결정으로 인천상의의 재정토대가 마련됐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결정은 쉽지 않거든요.

그분 인물도 좋으셨고, 항상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월급 타면은 쌀 한 가마니 사서 윗목에다 두라." 가족들 밥 굶기지 말라는 얘기죠. 먹는 게 중요할

때니까요. 또 건강관리 잘하셨어요. 눈 오는 날 맨발로 눈 밟는 거 신문에 크게 난 적도 있는데, 건강의 비결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서 인천 유일의 미술관인 송암미술관 건립해서 운영하시다가 인천시에 기부하고 생각이 참 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지역에 대한 애착도 컸어요. 또 그분은 마지막 남은 개성상인이에요. 태평양화학, 신도리코, 동양화학이 개성상인이 일군 기업이지요.[1] 그 정도 사업을 일구신 분이면 삶의 철학이나 경영 철학, 또 미래를 보는 눈이 대단하셨겠죠. 이회림 회장님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일제 강점기의 인천상공회의소 (1916)



≪ 1959년에 완공된 송학동 사옥



≪ 1975년에 완공된 사동회관



≪ 1992년 완공된 현재의 남동회관

인천상공회의소 사옥 변천 (1962년 송학동, 1975년 사동, 1992년 현 남동공단),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

일반인은 기업의 회장, 총수들을 감히 범접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간부들이나 불러서 수고한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저녁 모임에 평사원까지 다 불러요.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 그게 참 감동이잖아요. '회장님이 이렇게 우리까지 생각을 한다.' 하면 서로 믿음이 가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를 믿어준 사람한테 충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경영자로서 그분의 큰 능력이지요.

1) 서성환 태평양화학 회장과 우상기 신도리코 회장도 개성 출신으로 산업화 1세대임을 말한 것이다.

이회림 회장, 아들 이수영에게 “인천 가서 좀 봉사를 해라”

산업화 1세대 이회림 회장의 뒤를 이어 2세대인 이수영 회장도 인천상의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상공계에서 드문 일이지요. 창업주이신 이회림 회장이 아들 이수영 회장한테 ‘인천 가서 좀 봉사를 해라.’ 하니 아버지 권유를 받아들여 2000년에 인천상의 회장을 맡아 굉장히 화제가 됐죠. 인천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잘된 일이죠. 상공회의소나 경총이나 단체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조직의 위상을 높이려면 단체 회장을 누구를 모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장이 되면 시간 내야지, 행사주관 해야지, 재정 등 운영책임도 져야지, 기업 규모가 작으나 크나 똑같아요.

아시아태평양상공회의소연합회(CACCI)가 전에는 대만의 기업인이 회장이었는데, 그 후임으로 이수영 회장이 맡았어요. 그게 2003년도인가.[2] 인천상의 회장을 하면서 카시 회장도 맡은 거죠. 그때 내가 경제부장으로 그분을 수행했어요. 당시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이 중국경제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맡을 수가 없어 이수영 회장이 분담을 한 거죠. 박용성 회장은 중국 경제협의회 회장, 이수영 회장은 아시아태평양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을 맡아 상의의 국제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등 좀 더 글로발화를 해보자 했죠. 그런 와중에 인천상의 회장을 연임하고 1년이 지났는데, 회장이 공석 상태인 한국 경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4년에 중앙으로 가셔서 한국 경영계의 수장이 되셨어요.[3] 처음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핑계 대고 어디도 가시고

2) 이수영 회장은 2000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태평양상공회의소연합회(CACCI)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이수영 회장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제19~21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역임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그다음에 경총,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4개를 경제 4단체라고 그래요. 특히 경총은 노조하고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해야 되니까 기업인들이 굉장히 꺼려해 경총회장으로 잘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 사람이 없고, 그런 마당에 제안이 들어온 거죠. 하여튼 인천상의의 부자 회장 시대는 2004년도에 끝난 거죠.



상공회의소 김광식 회장 상징물 제막식.
(유수동 님 왼쪽 첫 번째), 2015년

소비만으로 성장할 수 없어, 기업의 역할 존중해야

인천은 항만과 더불어 제조업 기반 산업도시예요. 여기 동양화학에서부터 저기 지금 법원 있는 데까지 굉장한 공장지대였었어요. 전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인하대 앞이 다 공장이에요. 큰 공장들은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다 떠났죠.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내는 것이지만 도심화 돼가는 주거지역에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국가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공장이 이제 변방으로 쫓겨나고, 기존의 공장부지가 주거지로 개발되는 사례들은 인천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인천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젠 천상 다 떠나고, 아파트만 남게 되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요, 식당이 하나 있어도 주거지만 있으면 식당이 안 돼요. 반드시 기업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같이 공존해야 모두가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기업과 같이 발전을 해야지 주거만 있고, 무슨 소비만 있으면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가장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거는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나올 데가 없어요. 기업 빼놓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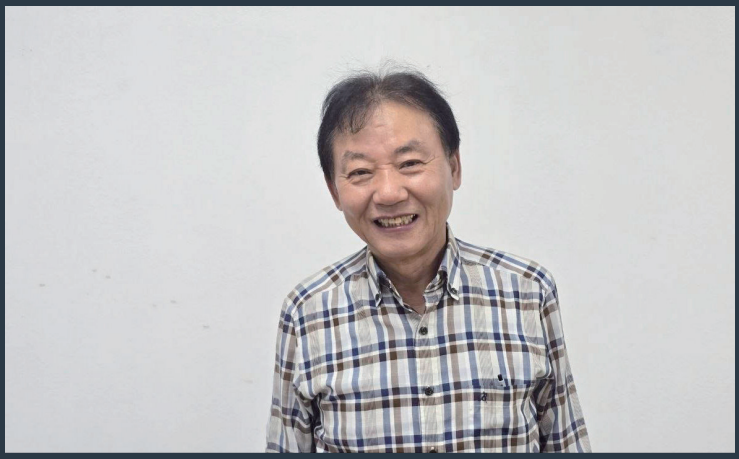
기업을 위한 정책,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필요한 거죠. 내가 볼 때는 기업 경영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를 하든, 큰 기업을 하든 다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고용, 세금, 상생이 있는 데서 인심이 난다니까요. 없는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를 않아서 그게 참 아쉬워요. 기업이 잘 돼야 같이 성장하면서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업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존 게임이에요. 미추홀구에서 반세기 동안 동양화학 같은 기업들의 역할은 정말 두 말 할 나위가 없어요. 무엇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지속가능한지,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함께 공존하며 살 것인지 시민들이 함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면담개요
· 일시: 2026. 8. 1. / 2026. 8. 20.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조연희(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박인옥(시민기록 멘토),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용현동의 토박이, 행정전문가로 동양화학과 연을 맺다



오영식

1952년	인천 출생
1974년	용현2동 동사무소 첫 발령으로 공직생활 시작
2010년	미추홀구 사회산업국장 재직하며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문제 담당
2013년	공무원 퇴직

오영식 님은 1952년 용현동에서 태어났다. 황해도 옹진에서 1.4 후퇴 때 피난 온 부모님과 함께 인하대학교 야구장 자리(328번지)에 있던 피난민 수용소에서 약 2~3년 거주하였다. 수용소가 철거되면서 용현동 561번지로 이사하여 이후 20년 이상 거주하였다. 그는 집 근처 미군 부대(POL 유류저장소) 쓰레기장에서 주운 깡통을 장난감 삼아 놀던 유년기, 문학산과 송도로 소풍 갈 때마다 걸었던 동양화학의 긴 담벼락, 송도역 인근 보리밭 풍경과 새인천 풀장, 지금은 복개된 학익천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며 놀았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1974년 3월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군 입대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용현2동 사무소로 첫 발령을 받았다. 1992년 인천시 문화예술과 근무 당시 동양화학 송암미술관 지하 저장고를 시찰할 기회가 있어 이회림 회장을 처음 만났다. 당시 그가 본 이회림 회장은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후덕하니 풍채가 커 인자한 모습이었다고 기억한다.

1998년 남구청 청소과장 재직 시절 동양화학의 폐석회가 집중호우로 송암미술관 인근까지 흘러내린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폐석회 문제를 처음 마주하였다. 분석 결과 독성이 없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0년경 남구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직하며 과거 자신이 확인했던 폐석회 처리 문제를 담당하였다.

동양화학의 미추홀구청사 기부채납과 관련한 이야기는 흥미롭다. 그는 정명환 남구청장 재임기에 구청사 신축을 계획, 예산과 가(假) 설계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검토와 보류를 반복했을 뿐 IMF와 겹쳐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최근 동양화학의 구청사 기부채납으로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세월이 흘러 용현, 학익지구의 공해산업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전통제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을 지켜보며, 지금은 환경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살아야 시민도 살 수 있다'고 힘을 주어 강조한다.

어린 시절 피난민 수용소와 동양화학 인근의 기억

저는 1952년(호적 1953년) 용현동 328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인하대학교 야구장이에요. 거기가 옛날에 피난민 수용소[1]였어요. 내 기억으로는 피난민 수용소에서 3살 혹은 4살까지 살다가 철거되면서 용현동 561번지로 이사를 했죠. 이사한 곳에서 20년 이상 살았어요. 부모님은 황해도 옹진에서 6.25 때 만석동으로 와 잠시 사시다 지금 인하대 야구장 자리 피난민 수용소로 오셨죠. 561번지는 어디 있냐 하면 바운더리(Boundary)가 좀 넓어요. 용마루, 물텅벙이 거리 있죠? 물텅벙이 사거리 길옆에 아버지가 3층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의 SK A.P.T 단지 자리에 히타치가 있었죠? 일본이 물러가면서 그 후 POL(Petroleum Oil and Lubricants Depot)[2]로 변했어요. POL이 뭐냐면 미군 부대 유류저장소인데 나중에 SK 정유로 변했지요. 또

1) 1954년 개교 직전·직후, 인하공과대학(현 인하대) 캠퍼스 부지와 주변 공터가 피난민 임시 거주지로 활용되었다.

2)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미군이 서해 연안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군수물자를 보관·분배하기 위해 설치한, 학익동 미군 유류저장소(POL, Petroleum Oil and Lubricants Depot)이다.

한 대우계열회사인 대한전선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죠. 내가 다니던 용현초등학교에서 동양화학 앞을 지나 송도로 소풍 가고 그랬어요. 지금 송도역 KTX 공사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보리밭이 많았어요. 기억나는 게 봄 소풍 갈 때 보리가 익어서 산들산들 바람 부는 거 보면, 어렸었지만 목가적인 기억이 아직도 잔상에 남아 있죠.

어린 시절 인하대학교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장난감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5살, 6살 때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난감을 주워 놀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 장난감이 아니고, 그냥 뭐 깡통, 이런 걸 주웠지요. 지금은 복개된 학익천[3]을 넘어 바다로 가면, 조그마한 게와 조개 같은 게 많았지요. 여기에 물이 흘렀는데 동양화학에서 나온 폐수가 현재 홈플러스가 있는 그 사이로 문학동에서 흘러 내려온 물과 합쳐져서 흘렀어요. 여기 동네 친구들과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폐수지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했어요.

여기에 나중에 새인천 풀장을 만들었잖아요. 동양화학이 매립하지 않고 그냥 두면 세금이 엄청 나오니까 매립해서 풀장을 만들고, 예비군 훈련장을 만든 거 같아요. 새인천풀장에 많이 놀러갔어요. 풀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좀 얕은 것, 하나는 조금 깊은 것이 기억이 나요.

3)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을 흐르는 소하천으로 학익동 노적산 부근에서 발원해 학익동 일대를 지나, 인천항 방면(내항 수역)으로 유입되었다. 인천시 도심하천 복원계획(2000년대)에서 학익천도 포함되어 '정비·복원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첫 발령지 용현2동 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 인천시예요. 공무원 시험을 인천에서 봤는데, 발령은 경기도에서 냈어요. 첫 발령은 1974년 3월로 연고지 배치라 용현2동 동사무소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합격하면 무조건 동사무소 5년간 근무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된 거는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보고 합격했죠. 그때 경쟁률이 8 대 1인가, 6 대 1 정도로 지금처럼 세지 않았어요. 용현2동 사무소에서 1년, 부평6동 동사무소 2년, 1980년에 시청 양정과[4]에서 2년이 기억납니다. 1980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가뭄으로 2년인가 3년 동안 흉년이 들어 한 17개 국가(베트남, 호주, 미국, 이집트 등)에서 쌀을 수입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부터 남구청 총무과에서 남구맨(Man)이 된 거지요. 행정계 6명이 기획, 예산, 홍보, 시정의 문화 등 총괄부서라 일이 많아서 쉬는 날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6년을 근무했으니까요.

그 후 직할시로 승격되어 다시 시청으로 들어갔는데 현재 중구청 자리에서 새로 지은 구월동 현재 청사로 옮길 때죠.[5] 인천의 시정을 총괄하는 시정과에서 2년, 진급해서 다시 남구청으로, 그리고 숭의1동 동사무소 사무장 2년,

4) 양정(糧政)은 문자 그대로 군량·식량 행정을 뜻하고 식량 배급, 양곡 관리, 배급제 집행 등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 이름이다. 특히 1960~70년대 군사정권 시기까지, 쌀·보리 등 양곡이 국가 통제 품목이었기 때문에 각 시·도의 행정조직에 양정과가 설치돼 있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정국/경제산업국 산하 농정·유통 담당 부서로 흡수·개편되었다.

5) 직할시 승격 후 행정수요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1985년 12월 현재의 청사인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하였다.

다시 남구청 사회과 발령. 그 당시 노사 간 갈등이 심했을 때라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파업 조정하는 업무를 맡았지요. 그 다음에 공보실 공보계장, 다시 시청 문화예술과로 이동해 근무했어요.

동양화학과의 인연: 송암미술관 등록과 폐석회 처리



송암미술관, 1990년대, 홍규선

문화예술과 근무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동양화학 이회림 회장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송암미술관[6]이 그 당시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나한테 작품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1992년이지요. 사실은 소속만 문화예술과 직원이지 작품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어요. 1층, 2층

6) 송암미술관의 연혁은 동양화학이 ①1989.11 서울 종로 수송동에서 개관 → ②1992.10.31 인천 학익동으로 이전 → ③2005.06.13 인천시에 무상 기증 → ④2007.12 인천시립박물관 분관 편입하였다.

에 있는 작품들을 보고 지하 저장고까지 내려갔어요. 그분이 잘 안 열어주는데 수집한 것들이 있는 지하 저장고까지 쭉 둘러봤어요. 작품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 기억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얼핏 기억나는 게 고종 황제의 회의용 탁자예요. 일일이 손으로 조각한 거라며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가 이회림 회장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거죠. 회장님 인상은 아주 인자하고, 미술에 대해 굉장히 조예도 깊고, 애착을 가졌던 분이라 느꼈어요. 내 기억에 아주 후덕하니 키가 크고, 풍채도 좋으셨어요.

그 후 청소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었지요. 1997년에 큰 비가 왔어요.[7] 아침에 출근하니까 현장에 나가 보라고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동양화학이에요. 소다회를 생산하고 넓은 공터에 쌓여있는 폐석회가 비에 흘러내린 거예요. 송암미술관 쪽으로 걸어서 들어갔죠. 하얀 폐석회가 발목까지 빠지고 단단하게 쌓여있던 폐석회가 비를 맞아 평지로 흘러 내려왔지요. 그때까지 관심도 없던 폐석회를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 매스컴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 후 폐석회를 분석해 보니 화학적으로 인체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한 게 아니지만 물만 닿으면 죽처럼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 후 사회산업국장 재직 시 OCI 부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폐석회가 또 문제되는 거예요. 폐석회를 없애야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죠. 폐석회 처리 문제로 동양화학이 엄청 고생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는 그거를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데 전국 어디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구의회,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10만 평을 시에 기부하고 거기다가 최종적으

7) 디지털 미추홀구문화대전에 따르면, 1997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집중 장마로 인해 강우량 66.5 mm, 재산 피해 약 767만 9천 원이 발생했고 이 통계는 미추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로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100m 정도로 깊이 파고 거기다가 폐석회를 깔고 300만 톤을 흙과 폐석회를 시루떡 찔 때처럼 번갈아 묻는 거죠. 비가 와도 흐물흐물하지 않고,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는 거죠. 또 깊으니까 거기까지 빗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후 몇 년간 폐석회, 흙, 폐석회, 흙을 번갈아 1m씩 묻어 미추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지요.



OCI 옛 인천공장 부지, 2012년

기업과 시민이 공존해야

동양화학은 미추홀구에서 제일 큰 회사고, 당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죠. 당시 미추홀구 세수(稅收)에도 도움이 됐을 테고요. 그런데 굴뚝 산업은 어디나 공해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시절에는 공장을 짓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국가와 도시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대통령들도 현장 순시하러 오면 선글라스 끼고 굴뚝 봤잖아요.

동양화학이 군산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개발 이익 중 일부를 미추홀구 청사를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사를 지으려면 1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요. 정명환 청장[8]이 있을 때 청사 신축하려고 설계도 다 해봤어요. 그 당시 IMF위기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취소됐죠. 그 후에도 청사 신축 시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보류됐다가 이제 동양화학이 지어준다니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결된거죠.

8) 1998년에서 2002년 민선 2기 인천 남구청장을 역임하였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8. 25.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강인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양지원(미추홀학산문화원)
· 동석자: 민후남(미추홀학산문화원 회원)



공장 밖의



마을



© 김보섭, 2008년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학익동 공장자리,
서른다섯 명의 구술기록

공장 밖의 마을

호미마을, 동네 아이들과 놀던 동양화학 후문
조성희

쓰레기 마을에서 정겨운 노적산 호미마을을 만들기까지
유현자

학익동 노적산 자락을 지켜온 가장의 무게와 시간
김형배

그녀의 삶에 녹아 있는 학익동의 생명들
최차연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던 양토마을을 회상하다
홍철선

어린 시절 나의 살던 고향 용현·학익동
최기숙

길 위의 야생마, 핸들을 잡고 곳곳을 누비다
한종수

학익동 끽동 집결지 폐쇄, 민관협력으로 이루어낸 유일한 모범 사례
전)인천여성의전화 강혜정

호미마을, 동네 아이들과 놀던 동양화학 후문



조성희

1979년 인천 출생
유아기부터 12살 경까지 학익동 호미마을에서 성장함
1993년 12살에 관교동으로 이주

조성희 님은 1979년 태어나 12살 무렵까지 학익동 호미마을에서 살았다. 어린 시절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호미마을은 이웃 간의 정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배다리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인성여고를 졸업한 고학력자다. 어머니는 맞벌이로 바쁜 이웃들을 대신해 동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간식을 챙겨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며 동기부여를 해주는 등 마을의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했다.

그녀가 살던 동네는 좁은 골목길과 판자촌 같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화장실도 대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푸세식이었다. 포마드 기름을 바른 멋쟁이 세탁소 아저씨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학익초등학교까지 어린 걸음으로 30분이나 걸리는 언덕길을 걸어 다녔다. 특히 장미아파트 뒷길의 학익천은 악취가 심했고, 여름이면 나무에서 송충이가 비 오듯 떨어져 매번 전력 질주를 해야 했기에 그녀에겐 악몽이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호미마을은 인천 토박이보다 전라도 등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여 만든 억척스러운 동네다. 동네 어른들 열 집 중 아홉 집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동양화학이나 그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딱히 놀이터가 없던 동네 아이들은 동양화학 폐석회가 쌓여 동산처럼 보인 곳에서 푸대 자루를 끌고 기어 올라가 미끄럼을 타며 놀았다. 새인천풀장은 부모님과 매년 찾은 물놀이터다. 아이들은 살갗이 새빨갛게 타들어 가도록 수영을 하고, 어른들은 반대편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기며 소주 한잔을 기울였다. 그녀에게 학익,용현동은 흙먼지 날리고 냄새나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을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한다. 가족을 위해 매일 땀 흘리던 부모님들의 모습, 아이들을 자식처럼 품어주던 어머니의 온기, 시커먼 물에서도 마냥 즐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 한편에 남아 있다.

어린 시절 동네아이들의 엄마였던 친정엄마

저는 1979년 인천 문학동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문학동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한 후 호미마을로 이사하고, 저 12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동생이 태어나고 100일 지나고선 바로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호미마을 대부분의 기억은 어린시절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호미 마을, 저기는 조개고개 이렇게 명칭을 얘기하면서 지내지는 않죠.[1)]

저희 엄마는 일을 안 하셨지만 젊은 새댁에 속했어요. 저희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 못하는 요리 솜씨로 간식도 해서 같이 먹고 그랬어요. 엄마는 인성여고를 나오셔서 마을에선 학력이 좀 있으셨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다 동양화학에서 일하셨고, 자녀들이 보통 2명,

1) 실제 호미마을이라 지칭한 것은 2013년 마을을 살리기 위해 붙혀진 이름으로 조성희 님이 거주했을 1980년대엔 당연히 마을 이름이 없다.

3명 이랬는데 거의 열 집 중 아홉집은 어른들이 푸른제복을 입고 다 거길 다녔어요. 큰엄마 큰아빠도 동양화학 다니셨고, 저의 엄마 아빠만 안 다녔죠. 저희 엄마 외에 동네 사람들은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애들 엄마 아빠가 항상 집에 없었거든요. 그럼 엄마는 아이들 공부도 좀 봐주고, 동기부여도 해줄 겸 "다음번에 너 성적 좀 오르면 아줌마가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기부여가 되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기억나요. 우리 집이 애들 사랑방처럼 됐지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했어요. 엄마는 인천 토박인데도 이런 동네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은 인천 배다리에서 되게 유복하게 자라셨거든요. 사랑이 많으셔서 베푼다는 거에 대해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천성인거지요.

새빨갛게 살이 타도록 놀던 새인천풀장

새인천풀장은 여름이면 거의 해마다 갔어요. 요즘은 우리 애들 데리고 근교에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가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잖아요. 근데 새인천풀장은 바닥이 안 보였어요. 시커매죽죽하고 정말 더러운 똥도 둥둥 떠다닐 때도 있고. 그래도 동양화학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놀 수 있는 걸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해요.

한쪽에는 풀장을 만들었지만 반대편은 바로 바닷물이기 때문에 아빠나 동네 어르신들이 낚시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름에는 애들은 수영하고, 어른들은 망둥이 잡아서 소주 한 잔 먹으며 다 같이 가족 단위로 놀아도 충분했던 곳

이었죠. 저희 큰 집이 딸만 셋이에요. 저희 아빠가 딱히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그 사촌 언니들이랑 같이 놀았는데, 그 더러운 물에서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맨날 울면서 싫다고 했었죠. 거기는 그냥 한 달 내내 받아 놓으면 그걸로 계속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엄청 시커맸어요. 그래도 피부병 같은 거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닷물이기 때문에 등이나 살갗이 다 벗겨질 정도로 금방 탔었어요. 그럼 엄마가 감자나 오이 같은 거 발라주었는데, 그때는 의학 용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나중에 시커매졌지요. 근데 그다음 해에 또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등하교 길의 악몽

학익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거의 30분은 걸어서 갔어요. 지금 여기 남아 있는 호미마을은 평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언덕배기예요. 지금 경찰서 윗동네로 둔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경찰서를 지나 장미 아파트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미 아파트 뒷길로 학익천이 있었어요. 냄새 엄청 나서 맨날 거기 지나갈 때 코 막고 다녔어요. 너무 싫었어요. 송충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장미 아파트 담벼락 사이로 송충이가 좋아하는 이파리 넓은 나무였던 것 같은데, 약을 안 쳤는지 그냥 걸어가도 송충이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맨날 마음의 준비

를 하고 '아~~' 이러면서 전력 질주해 뛰어갔어요. 여름마다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나, 우산을 쓰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너무 더럽고, 썩어서 냄새가 올라올 대로 올라왔거든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동네였어요.

동양화학 석회석 산에서 썰매를 타다

동양화학 담벼락은 그냥 시멘트로 돼 있어서 좀 어둡고 칙칙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공장 안에 석회석이 산처럼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었어요. 엄청 큰 파란색 도포 같은 걸로 덮어놨는데, 뭘 몰라서 동네 언니 오빠들 따라 푸대 자루 하나 끌고 기어 올라가 미끄럼틀 타고 놀았어요. 망을 보거나 그런 건 없고, 한꺼번에 우르르 가서 썰매를 탄 거죠. 직원들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키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좀 잠잠하다가 다시 가고 그랬어요. 안에까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광활했어요. 그것도 자재 쌓아놓은 게 동산처럼 느껴질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간다는 거는 더 큰 모험을 해야 되요. 가까이만 가도 기계음이 굉장히 커서, 거기서 놀아도 충분했었죠. 그런 마음 있잖아요? 누구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혼나는데 괜히 거기서 마주치면 안 되니까 후문 입구에서만 놀다가 후딱 나오고 그랬어요.

늘 굴뚝에서 흰색 연기가 나왔죠.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동네에서 걸어오는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찍었어요. 동양화학

굴뚝에서 적나라하게 연기 나는 게 찍혔던 사진이 있거든요. 눈 뜨고 일어나서 보면 연기가 24시간 뿜어져 나왔고, 냄새도 좀 났죠. '너무 역겨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익천은 거기 가까이만 가도 '왝' 하는 정도인데, 여기는 막 토할 정도로는 못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추적은 안 해봤지만 저희 엄마도 암 수술을 하셨어요. 아마 몸이 조금 예민하셨거나 좀 그런 데로 발현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새 옷을 입은 기념으로 찍은 사진, 동양화학 공장의 연기가 선명히 보인다, 1980년대 후반

따닥따닥 붙은 마을, 할머니와 화장실 '똥떡'

경찰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 좀 큰 집이 있었어요. 그 옆으로 판자촌 같은 집들이 따닥따닥 있었고요. 저희가 그중 한 군데서 살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집들이 쫙 이어져요. 여기서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저희가 살았던 큰집[2]이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큰엄마 큰아빠가 상경해서 본인이 직접 집을 지었다고

2) 큰어버지가 살았던 집. 이하 구술에 나오는 '큰집'은 모두 동일한 의미.

들었어요. 그 집에 우리가 거주한 거죠. 저도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도 몇 번이나 방을 옮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 들어 살던 두 집이 있었고요. 아마 자기 땅도 아닌 무허가 일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오래도록 살았다는 것 때문에 보상까지 받고 장미 아파트로 이사 가셨다고 들었어요.

화장실은 푸세식 이었어요. 책 중에 '똥떡'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똥떡'이에요. 얘가 화장실에 빠졌기 때문에 귀신이 잡아갈 수 있어서 떡을 만드는 거죠. 화장실 안에 붙어 있는 그 귀신한테 그 떡을 바치는데, 이름이 '똥떡'이에요. 화장실에서 내 왼쪽 다리가 허벅지까지 깊이 빠져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엄청 울면서 할머니한테 이거 내 다리 어떻게 할 거냐고. 할머니가 저를 닦아주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똑같이 닮냐. 니 아빠도 옛날에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는 떡을 안 해줬어요.



집 구조를 설명하는 구술자

세탁소가 있었는데 이름은 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 할머니가 도대체 왜 그 세탁소에 자주 갔을까. 세탁소 분이 2대8 가르마에 완전 옛날식 포마드 기름 쫙 바른 그런 멋쟁이 아저씨였어요. 은 이빨 하나 보였고. 저희 할머니

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항상 술판을 벌이면 저를 술자리에 데려가곤 했어요. '왜 저 사람은 맨날 술을 마실까?' 어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이 문 씨였던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 성이 문 씨여서 양아들 같이 생각하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구멍가게 슈퍼도 있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가게에 있는 물건들이 깨끗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불빛도 항상 어두침침해서 자주 가지는 않았어요.

호미마을엔 인천 토박이들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 빼고는 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무허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셨던 거라서 억척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마음이 여유롭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억척스럽게 아등바등 산다는 느낌. 저희 큰집도 그렇게 유순하신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억척스럽게 사셨죠.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거라서 좀 안타깝기도 하죠. 옛날에는 뜨거운 물을 넣고 누르면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것조차 살 돈이 없었대요. 근데 큰 집에 아마 그게 있었나 봐요. 두 분이 맞벌이 하셨으니까 그거 좀 빌려달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서 빌려주었나 봐요. 근데 빌려줘 놓고서는 하루 만에 우리도 써야 된다고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 아빠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 다 모여 있던 곳이죠. 이 마을을 떠난 후에도 엄마는 동네 사람들과 친목회를 하며 옛날 살던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다 정(情)이지요.

‖ 면담개요
· 일시: 2026. 7. 4.
· 장소: 구술자 자택(주안동)
· 면담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쓰레기 마을에서 정겨운 '노적산 호미마을'을 만들기까지



유현자

1965년	충북 음성 출생
1969년	인천 이주
1979년	인천 학익초등학교 졸업
1982년	용현동에서 학익동으로 이전
1999년	결혼 후 학익동으로 다시 이사, 통장으로 활동

유현자 님은 1965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4살 때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이주 후 용현동 인하대 후문 근처에 정착했다. 인근 용일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산속 재넘이 고개를 넘어 학익초등학교에 다녔다. 어린 시절 겁이 많아 오빠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신을 업고 등교시켜 주었던 따뜻한 추억이 있다. 어린 시절 몸이 약했던 언니만을 챙긴 어머니의 차별에 서러움을 느껴 뒤뜰에서 울기도 했다. 그래도 학교에 남아 나머지 공부를 할 때 자신을 기다려주었던 언니, 훗날 노적산 호미마을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묵묵히 지원해준 언니에 대한 기억은 각별하다.

학익동 이사 초기 동양화학에서 날아오는 폐석회 가루 때문에 장독대와 마당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빨래조차 제대로 널 수 없었던 고통을 기억한다. 공업지대 특성상 각종 소음과 인근 농약 공장의 냄새까지 더해져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당시 마을 사람들이 동양화학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회상한다. 공장 퇴근길에 인접한 골목이 '명동 거리'라 불릴 만큼 상권이 발달한 것도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거지 확장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예전의 활기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한다.

'노적산 호미마을' 이름은 그녀가 직접 지었다.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쓰레기가 쌓이던 마을에 화단을 만들고 벽화를 그리는 그녀의 노력에 주민들은 차츰 공감하기 시작했다. 비록 재개발로 언젠가 마을을 떠나야 하지만 호미마을은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곳이다. 호미마을의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용현동에서 재넘이고개 넘어 학익초 가는 길 : 방공호와 묘지

저는 1965년 12월 8일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4살 때 인천에 왔어요. 학익초등학교 1979년 37회 졸업생이에요. 용현동에서 학교를 등교했는데 그때 학익초등학교 학생이 5,800명이었어요. 요즘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옛날 일에 대한 기억력은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몇 반이었는지 다 알아요.

처음 인천에 올라와서 용현동, 인하대 후문에서 살았어요. 지금 인하 주유소 있는 학산문화원 그쯤에 살았어요. 그 앞에 왜 큰 집이 하나 있죠? 거기에 진희라는 제 친구가 살았어요. 거기서 뛰어놀고 그랬어요. 그 근처에 미군부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웅평[1]이 넘어올 때 거기서 레이더로 잡은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거기 부대 사령관인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려서는 그 집을 사령관 집이라 그랬어요. 암튼 거기서 재넘이 고개라는 산속을 지나 학

1) 1983년 2월 25일 미그19기 전투기를 몰고 연평도 상공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 한 북한군인이다.

익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곳이 옛날 구(舊)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송신탑과 송신소가 있었고요. 사원 주택도 있었는데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학교 뒤 산에는 사람들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방공호가 몇 개 있었어요. 옛날에는 방공훈련이라고 민방위 훈련할 때 선생님들이랑 거기로 숨고 그랬어요. 거기에 개구멍 같은 것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들어가서 놀기도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푸세식인데 그냥 땅 파서 나무만 걸쳐 놔갖고 막 무너져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산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관(棺)' 같은 게 부러져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만 되면 학교에 안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산을 넘어올 때면 전설의 고향 같은데 나올 것 같은 길이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고 나니까 지나갈 때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맨날 초등학생인 우리 오빠가 저를 업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나머지 공부하는 나를 기다려준 언니

저는 2남 2녀 중 막내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게 왜 안 창피하죠? 얼마 전에 학익초등학교를 갔었는데, 보니까 보수만 했지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옛날에 학익초등학교가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언니가 3학년이고 제가 1학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맨날 제가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제가 나머지 공부를 하면 우리 언니가 창문에서 기다려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문제를 내놓고 가면, 우리 언니가 창문으로 보면서 알려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9

빼기 2는 얼마일까요?'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땐 한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구구단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를 한 10개 내놓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갔다가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와요. 한 반에 80명이 넘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80 몇 명 중에 한 50명이 남아요. 우리 언니가 창문에 대고 "막내야, 9 빼기 2는 7이잖아." 이렇게 가르쳐줘도 제가 몰랐어요. 결국 10명 남는 끝까지 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면 막 뿔이 나서 나중에는 가방도 안 들고 교실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 언니가 학교 들어가서 제 가방을 들고 뒤에서 따라와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우리 언니한테 심통을 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엔 왜 숙제를 안 해가면 '영희야 철수야 놀자' 그런 걸 다섯 바닥씩 똑같은 걸 써오라는지 몰라요. 학교 갔다 나머지 공부하고 오면 승질 나잖아요? 그땐 가방 집어 던지고 밤 11시까지 놀아요. 실컷 놀고 아침이 되면 엄마 불 때는 부뚜막에 앉아 막 울어요. 학교에 숙제 안 해가면 혼나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가 "금연아, 막내 숙제 좀 해줘라." 하면 언니가 숙제를 해줘요. 근데 우리 언니가 숙제를 해주면 선생님이 알아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막내 숙제 좀 해줘라." 그러면 언니가 "엄마, 선생님이 다 눈치 채서 더 혼나 쟤." 하면 "그러면 오른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으로 써 줘라."라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언니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잘 못 나갔어요. 언니가 밥을 못 먹으면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우리 엄마는 누가 카스테라, 알사탕 이런 거 사 갖고 오면 저는 진짜 요만큼만 주고 우리 언니한테 다 줘요. 그래서 맨날 뒤뜰에 가서 많이 울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는 공업지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아버지가 1982년에 지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이 동네를 양성화했는데, 여기 37통 말고, 저쪽 36통은 다 무허가였어요. 이쪽은 다 집 장사들이 지은 거고, 우리 집만 아버지가 지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요 밑에서 세를 살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름인데도 장독대고 마당이고 온통 하얀 거예요. 그게 폐석회 가루였던 거지요. 그래서 빨래도 못 널어 입었어요. 여름에 손빨래해서 마당에 널면 우리 엄마가 맨날 승질을 냈어요. 땅도 그지 같은 데다 샀다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 허옇게 가루 떨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동양화학 철길에서 송도로 가는 11번 버스, 6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저녁에 내리면 양쪽이 다 논이었고, 공장도 있었어요. 그땐 강원레미콘도 없을 때에요. 동양화학 철길 지나가는 아래 개울에선 화약 냄새 같은 게 났어요. 근데 겨울에 거기를 지나가면 따뜻했어요.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카바이트 그걸 떠다가 불을 켜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추우면 거기 내려가서 불을 쬐고 그랬어요. 지금 그 주유소 뒤쪽으로 동화개발이라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거기가 개천처럼 흘렀는데, 그게 동양화학에서 내보내는 곳이었어요. 그땐 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 못했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동양화학 덕분에 먹고 살았어요.

동양화학 후문 길을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명동거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발소 골목에서 동양화학 후문까지. 담배 가게, 동양식당도 엄청 잘 됐죠. 그리고 풍림아이원 자리에 원래 한국파이프가 있었잖아요. 거기 쇠 돌아가는 소리, 동양화학에서 돌이 '다르르르르' 내려오는 소리, 한국농약

에서 나는 농약 냄새, 여기가 최악이었어요. 엄마도 농약 공장에 다녔어요. 농약 공장에서 밤새 일 하다가 꿈을 꾸면서 그 농약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었대요. 밥 먹는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두부 공장도 여기 있었어요. 지금 여기 가스 회사 있잖아요? 들어오는 골목에 철망 같은 문. 그게 두부 공장이었어요. 그때 '아니 뭐 이런데 이런 공장이 다 있어?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어린마음에도 생각했어요. 진짜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암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한불화학 있지, 동양화학 있지, 다 화학이잖아요. 담배공장인 청구화공도 있었고. 미추홀구 경찰서 맞은편 쪽으로도 다 조그만 공장들이 있었어요. 성당이 있던 자리도 공장이었고요. 여기가 다 공업지대였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노적산 호미마을'

저 공간도 꾸밀 때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예요. 언니가 아파트 담보 대출로 공방도 해준 거예요. 제가 미쳐 가지고 한 거지요. 그래서 '형만 한 아우 없다'는 거예요. 저거를 누군가가 사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토요일 아침 6시에 문을 열었어요. 공방 문 열어서 음악 켜놓고, 이 앞으로 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무상으로 오픈해놨어요.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열어놨는데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알고 있다고 말은 안 했어요. 지금도 이 길로 산에 다니셔요. 저한테 인사도 하시고요. 제가 다 아는데, 나중에 못 참고 성질을 내버리면 안 되니까 공방을 폐쇄해버렸어요.

사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미대 학생들한테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미대 학생들은 졸업작품 전시회도 해서 평가를 받는 걸로 아는데, 전시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학생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되지 않았어요.





호미 마을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만들기'가 뭔지도 모르고 통장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정말 쓰레기 천국이더라고요. 골목이고 어디고, 온통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밤마다 쓰레기봉투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어요. 20리터짜리 봉투 하나만 들고 다녀도 금방 꽉 차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TV를 봤는데, 대학생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걸 봤어요. 쓰레기가 몰려 있던 코너를 밤에 와서 싹 치우고, 시멘트 벽돌을 주워다가 화단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꽃도 심고요. 어르신들 주무시는 사이에 화분 옆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대박이었어요. 80%가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요. 그걸 보고, '야, 저거다! 나도 해보자!' 그래서 여기 전봇대 근처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도 그 이후로는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화단을 만드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유현자 님이 마련한 호미마을 공방 전경 사진



호미마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저 혼자 그림도 그렸어요. 그때는 여기가 빈집이었거든요. 벽돌이나 돌멩이 주워다 화단 옆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서 놓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밤새 그려 놓으면 아침에 없어져요. 누가 홀라당 집어가요. 누가 와서 "통장! 물감이나 재료는 누가 사줘요?" 하길래 "제가 사요." 했죠. 그렇게 내 주머니 새는 줄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그렸어요. 그러다가 '네오맨'[2]이라는 벽화 그리기 봉사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페이펄[3]이라는 문구 회사에 가서 백 얼마치 물감을 제 돈으로 샀어요. 근데 그게 감당이 안돼요. 고민하고 있을 때 구청에 마을 만들기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선정되면 500만원까지 지원한데요. 담당 공무원이었던 배경아 팀장님, 학익 1동 박

2) '나눔, 열정, 조화'를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현재 집수리봉사, 벽화봉사, 농촌봉사, 연탄나눔, 재난구호,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3) 199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문구 회사

영출 동장님과 유진수 팀장님 그 세 분이 없었으면 여기 마을 만들기 시작도 못 했어요. 호미마을 이름도 배경화 팀장님이 마을 이름을 만들어보라고 제안을 하길래 만든 거예요. 주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름요. 꽃 심을 때 호미를 맨날 썼잖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노적산 마을 말고 그냥 호미 마을은 어떠냐 해서 결정된 거지요. YTN 방송, 인천방송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근데 노인네들이 인천방송 보고 누구 마음대로 호미마을이냐며 난리가 난거죠. 그래 갖고 서로 좋자고 '노적산 호미마을'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처음엔 사람들이 저 보고 저런다고 동네가 변할 것 같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변했잖아요. 좀 먹듯이. 여기 이 동네는 마을 만들기 안 했으면 진짜 쓰레기장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거는 정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보면 어르신들이 상추, 호박 이런 거 집 앞에 갖다놔요. 보이지 않게 나누는 정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유일하게 제가 숨쉴 수 있는 통로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혼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한들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망감이 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시간이 멈춘 듯한 호미마을의 미래

주민들이 "대표는 어디로 이사 갈 거야?" 물어요. 근데 어디로 갈 건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여기 땅값 받아 갖고는 빌라도 못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보상받아 아파트 전세도 못 가는 형편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한 50평 되잖아요. 저 36평이나 20 몇 평들은 더 힘들죠. 내가 땅 살 때 10

원 하나 보태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유 재산은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요. 개발 얘기하지 말죠! 힘드네요. 어떻게 살 건지는 대충은 계획은 세워야겠지요. 근데 여기 사는 노인 분들은 어떻게 해.

과거가 있으면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역사 드라마 같은 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와서 바뀐 것처럼 동네의 과거 모습에 대해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토착 어르신들만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나가고 없잖아요. 이렇게 낡은 동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멈춘 동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록물을 남긴다는 거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호미마을, 2020년, 정지선



‖ 면담개요
· 일시: 2025. 9. 30.
· 장소: 자택
· 면담자: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표기자(미추홀시민기록단)



학익동 노적산 자락을 지켜온 가장의 무게와 시간



김형배

1934년 충남 태안군 출생
1957년 군 복무 중 결혼
1958년 인천 이주
1975년 호미마을 이주
호미마을에 거주하며 합동제테, 천일목재에서 근무함

김형배 님은 1958년 7월 군 제대 직후 충남 태안에서 아내가 먼저 터를 잡고 있던 인천으로 이주했다. 당시 인천의 삶은 매우 '팍팍'했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송도역 인근 잔솔밭 나무를 해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인천항에서 쌀가마니를 메고 나르는 '가대기' 일을 하고, 엿 공장에서 만든 엿 200근을 자전거에 싣고 목구멍에 불이 나도록 달렸다. 천일목재 사장은 그의 성실함을 인정해 5남매 자식 공부시키려는 노력이 가상하다며 학비를 선뜻 내어주곤 했다.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자식들 중 아들, 딸, 손주는 현재 동양화학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노적산 밑 허름한 집은 미군 원조 물자로 지어진 50세대 난민 주택 중 하나다. 붉은 벽돌과 흙을 바른 이 집을 50여 년간 직접 고치고 다듬으며 자식들을 키웠다. 그는 동양화학 공장에서 날아오는 하얀 석회 가루와 분진 때문에 장독대 뚜껑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견딘 것은 먹고살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평생을 지켜온 학익동이 변해가는 모습에 그는 심경이 복잡하다. 주변은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작 평생을 살아온 호미마을의 원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아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는 동양화학 고(故) 이회림 회장이 "개발이 되더라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했던 그의 유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회림 회장이 살아있다면 아마 지역주민을 위해 끝까지 끌고 갔을 거란 말도 덧붙인다. 그는 기업과 지역 사회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한다.

노적산 난민 주택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1934년 충남 태안군 도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57년 군 복무 중 결혼해서 아내가 큰집 따라 먼저 와 있던 인천에 1958년 7월 군 제대하고 바로 여기로 왔어요. 동양화학이 생기기 전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살기가 빡빡한 동네였어요. 지금 풍림아이원 자리에 제철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 했죠. 그냥 밥만 먹으면 송도역 그 잔솔밭 밑에 나무를 해서 팔고 했어요. 그러다 몇 년 후 직장을 잡게 됐죠. 큰 집에서 한 1년 있다가 아기가 생기고, 직장도 잡고해서 바로 나왔지요. 신혼살림은 노적산서 둘이 생활하기 시작해 큰딸을 낳았어요.

내가 여기로 이사 온지가 한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주택은 난민 주택이에요. 이 집을 군 제대하고, 직장 잡기 전에 미국 원조 들어올 때 지은 집이에요. 이 집 처음부터 터 닦고 한 거는 내가 여기 시초예요. 이게 뺑 돌려 빨간 벽돌로 반마이해서 쌓았고, 안에는 전부 흙 바른 거예요. 세멘이 아니

고 흙을 바르고, 그 안에 칸살(間) 칸살(間)[1] 하는데 엮어가지고 전부 흙으로 바른 집이에요. 사촌 형이 아들 주려고 지은 집인데, 완공 못한 것을 우리 마누라도 직장에 다니고 해서, 그때 350만원인가 주고 이 집을 샀어요. 와 보니까 문짝도 다 부러져 덜거덕덜거덕하고, 방 두 개에다가 마루 하나, 부엌 하나, 뼈각 하나인 집인데, 어따 살림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내 집이니까, 고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노적산 마을 길 앞에서 친구와 함께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모습, 1976년

1)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말한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사라진 우리말이다. 따라서 칸살이란 기둥 넷개의 안쪽을 가리킨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구술자와 미추홀경찰서 건립 전 풍경, 1965년

아들, 딸, 손주까지 동양화학과 계열사 근무하다

우리 집 애들은 군대 갔다 와서, 정직원으로 다 들어갔어요. 막내아들이 전문대 졸업할 적에 딴 회사 다녔는데, 내가 그놈 보고 그랬어요. "너 거기 다니는 것보다 이 큰 회사로 오는 게 낫지 않냐"고. 거기 그만두고 동양화학에 단박에 합격됐죠. 면접 보고, 합격해서 진짜 거기 성실하게 잘 다녀요. 인천출신에 인근 주민이 가점이 돼서 취업할 수 있었어요. 동양화학이 지역 주민들을 더 신경 쓰는 거지요. 한마디로 자기네가 그렇게 분지가 많이 나오고 해도 말 한마디도 않는데 고맙지.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을 많이 썼지요.

큰 아들도 정직원으로 다녔어요. 동양화학과 합작한 헤라우스[2]라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있었어요. 우리 큰딸도 거기 다녔거든요. 지금은 정년퇴직했

2) 헤라우스는 동양화학이 1984년 반도체 제조용 금(金) 본딩 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독일 헤라우스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다. 2019년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내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어요. 그 회사가 인건비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딴 나라로 갔어요. 우리 큰아들은 그때 회사를 그만두었죠.

군산공장 발전소에 있는 막내아들은 든든하지. 그 손자 놈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축구부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축구 포기하고, 동양화학 계열회사 '유니드'라고, 지금 그 회사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어요.



동양화학 사내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아들의 사진, 1990년

동양화학의 돌더미

동양화학 공장 안으로 석회석, 소금 등 싣고 들어오는 철도가 수인역 쪽으로 와가지고 동양화학 쪽으로 오느라고 철길을 냈죠. 석회석 싣고 오면, 동양화학 인부들이 다 부려주면 그때 끌고 나가고 했죠.

석회석 같은 거 돌 들어오면, 아까 돌 더미 봤죠? 그게 기차로 들어오면, 양쪽으로 부려야 해요. 그래야 기차 빨리 가죠. 석회석 그놈으로 카바이트도 만들고, 소다, 식소다, 양잿물도 만들어요. 여자들은 하청업으로 들어가 일하다 양잿물 구뎅이에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잿물이 팔팔 끓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지. 마누라도 한 1년, 2년 정도 일 했어요. 무슨 청소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야간에 못 하면, 어디서 쪼그리고 앉아서도 자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소금으로 소다회도 만들어요. 외국서 본선 배로 덩어리 소금이 들어와요. 겨울에는 소금이 얼잖아요. 봄에 해소될 적에 소금 더미가 녹아 무너져 거기 치여서 즉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엔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바닷물이 들어왔던 자리

저기, 저 사진은 우리 큰아들이 주더라고요. 이거는 동양화학 석회석인데, 이게 우리 아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동양화학 공장안이고, 이거는 동양화학 사무실, 우리 큰 아들이 학생 적에 여기 마루턱 산에서 찍은 건데, 그 밑에 허여케 보이는 게 동양화학이에요. 현재 두산 아파트 자리도 중국인들이 농사짓던 밭이었어요. 애들이 학교 다니려면 밭 가운데로 길을 대서 다녔지요. 옛날에 동양화학이 생기기 전에 바닷물이 이 위까지 올라왔어요. 여, 경찰서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큰 수문이 있었어요. 거기 지금 양쪽으로 보로커 싸서 공고리 해 바다로 나가게 다 만들어 놨지요. 전철이 지금 하수도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수도가 전철 위에 있는 거죠. 예전에 바

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하수구가 옛날에 학익천이네!



동양화학 석회석 돌더미 위에 앉아 있는 아내, 1974년



동양화학이 보이는 연경산 정상에서 찍은 아들 모습, 1976년

미군부대 기름 파이프와 꿀꿀이죽

지금 SK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 안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기름 창고예요. 옛날에는 산등성이에 큰 파이프 창고와 탱크가 군데군데 있었어요. 기름이 거기로 들어가요. 수인선 철길 옆으로 그냥 큰 놈의 기름 파이프가 산으로 해서 땅 끝까지 올라가요. 거기 사는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도둑질해 먹는 거여. 이스메(이음새)파이프 있잖아요. 그 파이프를 뭘로 따가지고 보도(나사)만 조금 풀면 옆으로 새요. 기름이 쫙 새면, 그냥 그 큰 뭐야, 비닐 같은데 하나 차면, 딱 잠그고선 가져가요. 여기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미군들이 거기 보초 서도 소용없어요. 골목이나 어디 탱크 밑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도둑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도둑질한 기름을 큰 항아리에다 쏟아가지고, 장사꾼들 오라고 해서 팔아먹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는 겁이 나서 못 해요. 괜히 거기서 불이 나고 그러면 큰일 나죠.

옛날에 양부대(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밥, 쓰레기통이지. 꿀꿀이 죽이라고, 옛날에 참 유명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짬뽕이지, 짬뽕. 식당에서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써요. 한국 사람이 부대에서 나오는 거 푹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사 먹고 그랬어요. 저도 그걸 많이 먹어 봤지만, 딴 거 먹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 별게 다 나와요. 쓰레기니까 담배꽁초도 나오고. 우리 마누라가 수인역으로 꿀꿀이 죽 사러 갔다가 수인역에서 애 하나 치는 거 보고 그다음은 거기 안 갔어요.

엿 공장에서 자전거 배달 일을 하다

옛날에 '합동제테' 라고 엿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했는데 벌이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회사 출근하면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먹고 퇴근해요. 동인천 전동에 여고[3]가 있고, 그 뒤쪽에 해군병원이 있었는데, 엿 공장이 해군병원[4] 밑에 바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용현동에 살고 있어서, 숭의동 꼭대기 전도관 거기 불 쓰는 거 보고 새벽에 나가고 그랬어요. 가다가 숭의동 로타리나 동인천역에서 통행금지 해제도 안됐는데 간다고 경찰한테 붙잡힌 적도 있어요. 통행 해지 된 뒤 가기도 하지만, 합동제테 간다고 하면 '빨리 가라.'고도 해요.

나중에 거기서 고물상에 보내는 배달을 했죠. 고물장사들 쇠붙이 같은 거 받으면, 엿 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체구는 작아도 보통 200근 이상 싣고 다녔어요. 거기서 자전거 싣고 내려가면, 저기 화수동 파출소까지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요. 지금 같으면 차 많아서 어림도 없죠. 자유공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가팔라요. 거기서 발하나 안 저어도 화평동 파출소 앞까지 갔다니까요. 젊었을 적에는 동인천을 아주 후비고 돌아다녀서, 세상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동인천 화평동, 송현동 '차미전'[5] 거리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했어요. 퍼럭퍼럭 헌게 여기까지 빠져요. 차미전거리가 야채 시장

3) 인일여고가 인근에 있었다.

4) 1949년 4월 15일 제2해군병원으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해군포항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5) 참외의 사투리로 한국전쟁 후 중구 용동과 내동을 잇는 인천청과물공판장 주변을 채미전 거리로 불렀다. 1982년 6월 동인천역과 숭의삼거리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철로변 일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위축되었다.

이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비포장도로 송림 로타리에서 제물포 후문 쪽으로 가려면 동산중·고등학교 앞으로 지나가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인데, 목구멍에서 불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리기 싫어서 그 무거운 짐 싣고 올라가요.

돈벌이라면 무조건 했어요. 젊었을 적이니까. 엿 공장 다니기 전에는 하인천가서 가대기까지 했어요. 쌀 원조 들어오면 본선에서 쌀 부리는데, 밑에서 가마에다 담아 주면, 발판 타고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들어왔을 적에는 판판하니께 다니기가 좋은데, 물 나가면 경사져서 시로도[6]니까 제대로 못 해 노냥 절절매는 거죠. 그러면 고참들이 기차 뿔 달았다고 막 뭐라 하며, 발판을 흔들기도 했어요. 힘들었죠.

기업이 있어야 직장이 생기고 먹고 살지!

동양화학에 민원 넣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 돌 높이 올라가선 그냥 싹 쏟아버릴 때 '와르르릉!' 소리 나면 그 먼지가 다 어디로 날아와요. 장독대를 열어놓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했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여기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상 먹는 거는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동양화학이 월급이 잘 나오니깐 누구든지 쌀이고 뭐이고 외상으로 그냥 막 퍽퍽 주었어요.

옛날에 사원 아파트 끄트머리 쪽으로 새인천풀장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내도 거기서 청소도 하고 일했어요. 애들 한참 먹어야 할 적이니까

6) 일본어 시로오토(素人, しろうと)에서 유래한 말로 초보자, 풋내기, 비전문가를 뜻함.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어려웠죠. 내가 외톨백이 외아들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내한테 애들은 낳는 데까지 키우라고, 뒷감당은 내가 할 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5남매까지 낳았는데, 지금 애들이 뭐이고 보면 엄마가 최고여.

동양화학이 여기 문 닫고 군산으로 내려갔잖아요. 우리 막내가 지금 거기 팀장으로 가 있어서 월급 괜찮게 타요. 아들이 들어간 지 한 40년 돼 갈 거예요. 기업이 인천에도 많이 있어야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 먹고 살지요. 여기 한국파이프고 뭐이고 다 당진이로 나갔잖아요. 외부로 다 뺏겨버리고 말은 거죠. 송암미술관은 우리 동네 주민들 다 알죠. 이회림 회장이 시(市)에다 기증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참 정말 좋은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여태 살았으면 꺼떡 없이 동네 사람들 같이 끌고 갔지요.

동양화학 인천공장 철거와 학익동 변화에 대한 소회

동양화학 인천공장 철거되고 발전이 다 되었는데, 우리 동네만 남았어요. 현재 개발이 빨리 돼야 되는데, 여기 조합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잘 되겠죠. 우리는 반대쪽이에요. 짓지 말라는 반대가 아니라, 땅값을 제대로 주고 하라는 거지요. 거기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조합 구성하면은 우선 조합장하고 사무직 몇 사람 월급이 나가야 돼요. 조합원들이 돈 있어야 그 사람들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걱정이 커요.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전세도 못 사

요. 50평 넘는 집 아래 길 밑에 하곤 달라요. 보통 20평 조금 넘고 그래요. 우리가 41평인데도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가 전세도 못 살아요. 좌우간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이거 팔면 빌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지 어매, 아베 고생해서 지들 이만큼 길렀는데, 잘해 주니께 고맙죠.

지금 사람들은 옛날 모습 전혀 모를 거예요. 내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는다니 감사하지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문화원이 잘 하는 겁니다.



5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50세대 난민주택' 에서

‖ 면담개요
· 일시: 2025. 8. 11. / 2025. 8. 13.
· 장소: 호미마을 내 자택
· 면담자: 홍난희(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표기자(미추홀시민기록단)



그녀의 삶에 녹아 있는 학익동의 생명들



최차연

1939년 경북 안동 출생
1960년 인천 학익동 이사
1970년대 초반 농약공장에서 근무
2011년 암으로 투병한 남편과 사별
현재 서창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최차연 님은 193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군 제대 후 농사만 짓던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학익동에 정착하였다. 돈은 물론 수저 하나 가져온 것 없이 올라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남편이 일이 없을 때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다. 일당 200원을 받으며 농약병에 라벨 붙이는 일도 했고, 밤새도록 드럼통 씻는 일, 연안부두 도시가스 공사 현장 사무실 청소 등 쉼 없이 일을 했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조카들과 7~9명과 방 하나에서 함께 생활했다. 한 달에 정부미 쌀 7말을 먹을 정도로 친척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조카들을 대우전자나 동양화학에 취직시키고, 일찍 세상을 떠난 올케의 딸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인천여상까지 공부시켰다.

그녀는 동양화학의 거대한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고, 카바이트 공장 특유의 지독한 냄새, 연탄 공장의 매캐한 가스 냄새, 담배공장의 지독한 냄새, 조선철강공업, 제재소, 벽돌공장, 두부 공장의 소음과 냄새를 견디며 살았다.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기억하는 초창기 학익동은 참으로 가난한 동네였다. 우후죽순 집을 지어 세를 놓던 오두막살이 동네였다. 비가 조금만 와도 개천과 도랑 주변이 온통 질퍽거렸다. 지붕은 검은 기름종이를 얹은 '루핑집'이나 '뱃머리집'이 고작이었다. 겨울엔 방 안에 고드름이 달릴 정도로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다. 연탄불이 꺼지면 제재소로 달려가 버려진 소나무 껍질이나 나무 찌꺼기를 주워 불을 지피기도 했다고 한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 옛날 사진들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며, 고단한 삶을 이겨낸 당당한 우리의 어머니 모습이다.

물 받을 항아리도 없이 살던 학익동

호적에는 1941년으로 되어있는데 193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인천에는 29살에 올라왔어요. 동양화학이 설립될 때 우리 오빠가 먼저 인천에 오셨어요. 오빠가 반장이었고요. 우리 오빠 때문에 여기 살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닭집을 우구로(작은 크기로 우후죽순으로) 지어 가지고 세 놓고 하더라고요. 집이 형편없었어요. 옛날에 개천, 도랑에 집을 지어서 비 올 때 나가면 막 철벅거리고 말이 아니었어요. 개장만도 못할 정도로 살았어요. 전부 우물물을 퍼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2~3년 살았는데 공동 수도가 들어와 줄 서서 물 받아먹었어요. 그게 몇 시까지만 나와서 쭉쭉 다라[1] 대놓고 있다가 시간 되면 물 나오고, 딱 끊어지고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산빗다리[2] 삐딱한

1) '다라'는 일본어(タライ)에서 온 말로, 보통 '대야'라고 부른다. 큰 그릇 형태로 빨래를 하거나 많은 양의 물을 담아둘 때 사용한다.

2) 경사진 산의 비탈로 표준어 산비탈의 사투리다.

데 살았어요. 빨래해 입으려면 수돗물 값 아까워서 우물물 뚜레박질[3] 해가지고 입고 그랬어요. 수돗물 값이 한 20-30원인가 그랬죠. 처음 와가지고 물 받을 항아리도 없이 살았다니까요. 항아리도 비싸 가지고 못 샀어요. 물도 솥 요만한 거에 받았어요. 우리 살아온 역사 말하려면 진짜 요새 사람 가라 하면 못 가요.

나무 써는 제재소가 학익동에 있는데 연탄불 꺼지면 거기를 가요. 여기 오래 산 사람은 수지[4]를 주워가고, 우리는 늦게 왔다고 찌끄러기 수지랑 나무 꼬치 주면, 이런 거 모아 놨다 연탄불 꺼지면 불 살렸어요. 세상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안동에서 올라온 장정 일곱 조카를 거두다

국민주택 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만 마치면 친척들이 다 우리 집에 보내요. 내가 일곱 장정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공장이 있으니까 대우전자, 카바이트 공장, 동양화학도 여어주고(넣어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올라오면 다 취직을 시켰어요. 친조카, 우리 맏동생 아들 둘, 시누 4명에 한 집 하나씩 4명에다가 또 한 집에서 삼형제가 와 있었어요. 우리 큰집 조카들이 둘. 어떤 때 장정 아홉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와 계셨어요. 방 하나는 세놓고, 우리 식구 네 명에다 조카들 일곱, 우리 어머님까지 한 방에서 다 잤어

3) 질을 매달아 물건이나 물을 길어올리는 두레박질을 뜻한다.

4) 제재소에서 소나무를 자를 때 껍질이 부서진 채로 바닥에 떨어진 소나무 껍질 조각을 말한다.

요. 그래서 잠 잘 때 부채 잠을 잤어요. 연탄불이니까 아래 묵이 따뜻하니 발은 안 어브니까[5] 이불 두 채 가지고 둘러 잤어요. 아들 영각이가 나보고 "엄마, 그 식구들 연탄불에 어에 밥을 해 댔노." 그래요. 정부미 쌀, 옛날에 보리쌀 섞은 걸 한 달에 큰 말로 7말 삶아 냈어요. 장정이 얼마나 많아요.

조카(동석한 최기숙씨)는 엄마가 일찍 죽어서 얘 언니를 잘 가르쳐 놔야만 동생들을 뒷바라지할 것 같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머리는 좋으니까 인천여상만 나오면 어디 가 펜대 돌리잖아요. 그래서 석 달 공부시키려고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도시락 2개, 둘째 놈 도시락 2개, 얘(최기숙씨) 언니는 한 개 싸고, 저녁밥은 누룽지 묶어 가지고 도가리 푸대(정부미 푸대)에 싸서 '너는 여자니까 수돗가 가서 물 마시면 집에 올 때까지 배 안 고프다' 그렇게 했어요. 얘 언니도 고생했어요. 인천여상 딱 들어갔는데 3학년 1학기 때 스카우트 되서 중학교 서무과에 들어가 오늘까지 서무과에 있어요. 내년에 정년퇴직인가?

뱃머리집과 국민주택의 기억

인천 올라왔을 때 남편은 카바이트[6] 공장에 다녔어요. 카바이트 공장은 대우전자 맞은편 길 횡단보도 건너 조금 가서 있었어요. 카바이트 공장은 자자한 돌을 집어넣어 녹여서 카바이트를 만드는데, 불 피우는 거 만들었어요.

5) '발은 안 얼으니까'의 의미

6) (탄화 칼슘)으로 탄소와 칼슘이 결합한 물질로 칼슘 카바이드 또는 흔히 줄여서 카바이드라고 불림. 싸고 간편해 예전에 전기가 없는 야외주점 포장마차 등에서 간이 조명용으로 널리 쓰였다.

전기가 없어 찌뿌레기[7] 주어다가 통 같은 데 담아 심지 박아 물 붓고 그러면 심지 불이 파래요. 기름 호랑불[8]보다 더 밝았어요. 그것도 회사 다닌 사람이라 그렇지, 회사 안 다닌 사람은 호랑불로 살았어요.



문학산에서 친적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뒷줄 왼쪽이 최차연 님), 1973년

그때 남편 월급이 9천 원, 1만 원, 나중에 올라서 1만 5천 원, 잔업 해가지고 한 3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때 큰돈이죠. 쌀이 몇 가마니니까요. 쌀 한 말에 300원, 단말에[9] 5천 원 할 때에요. 우리는 힘은 들어도 좋은 공장 들어가서 월급 타서 쌀을 가마니 채로 갖다 놓고 먹었어요.

7) 찌끄레기, 조각들을 뜻한다.

8) 호롱불의 사투리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기구로 호롱(등잔)에 켜는 호롱불.

9) 쌀 80kg, 한 가마니, ~말은 쌀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한 말은 16kg이고, 단말은 다섯 말이다.

인천 올 때 아들 둘하고, 네 식구가 숟가락 한 가락도 안 가지고 맨손으로 올라왔는데, 올케하고 한 1년 살았지요. 올케가 앞장서 할부 그릇 내줬어요. 솥 한 그릇, 숟가락 3개 하고 절 한매[10], 냄비 하나, 그릇 3개를 구해줬죠. 연탄불 구멍 이거 하나인 2만 원짜리 전세 살았고. 그래도 우리가 부자죠. 시골 농사 지어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올라왔지. 돈 모아서 차비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전세가 2만 원이래요. 그래서 전세 거리 딱 줬죠. 전세가 2만 원이면 그때 큰돈이었어요.

전세 2만 원짜리 방이 딱 요만했어요. 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가을에 지은 집이라 겨울 되면 벽에 고드름이 달려요. 우리 애들 영준이, 영각이가 고드름 따먹었어요. 그땐 추워가지고 얼굴도 못 내놔요. 벽돌도 아니고 슬레이트로 집을 지었으니 오죽하겠어요. 겨울에 진짜 고생한 거 말도 하지 마요. 고생했던 거 말하려면 아주 책을 엮어서 차로 한 채 실어도 다 못 실어. 그렇게 살았어요. 경상도 안동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까 기와집은 없고

루삥집[11]이에요. 뱃머리집[12]이라고 처음 온 사람은 돈만 있으면 시유지 땅에 방 하나, 부엌 하나를 벽돌만 찍어 내 집 만들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늦게 올라와서 세를 얻어가 살았는데 안동댁이 와가지고 금방 샀다고 부러워했어요. 내가 안동에서 왔다 해서 안동댁이라 불렀죠.

그러다 인하대학교 맞은편에 국민주택 17채가 쭉 지어졌는데, 국민주택을 한 3년 만에 사서 살았죠. 거기서 가좌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이 카바이트 공장에 한 10년을 다녔는데 문을 닫았어요. 가좌동으로 이사해 LPG 가스 공장 다녔는데, 국민연금 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부자로 산다니까요. 할머니가 한 달에 35만 원 정도면 큰돈이지. 남편이 1940년생인데 지금 살았으면

10) 젓가락 한 세트, 경상도 안동에서는 젓가락을 절이라고 한다.

11) 검은 색의 두꺼운 기름종이로 지붕을 덮은 가옥

12) '가운데 부엌을 두고 양쪽에 방을 하나씩 두는 구조의 집'을 의미한다고 검수 과정에서 구술자에게 재확인 함

86세죠.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있어 회사 그만두고, 경비 일하러 갔다가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한 5년 살다가 세상 떠났어요.

애들 장가 보내고, 손주 보고, 우리 애들 알아서 밥 먹고 사는데 그 행복을 내 혼자 보니까 가끔 생각이 나요. 고생만하다 돌아가셨으니까요.



국민주택 거주할 때 가족과 함께, 1983년

부업으로 뜨개질 조장을 하다

처음 학익동에 오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뜨개질을 했어요. 부업으로 옷 뜨개질하면 하나에 3원, 4원 해서 내가 조장으로 뜨개질 했어요. 사람 모아 가지고 동인천 신포동에 있는 뜨개질 회사에서 실 가져다 아줌마들 모아 가르쳤어요. 그때 동인천 갈 땐 버스가 없었어요. 동양화학 앞으로 다니는 송도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때는 봉고차 같았어요. 차비가 2원인지 3원 했는지 그거 타고 갔지요.

뜨개질 회사가 가정집인데 외국에서 오는 실을 받아가지고 조장들 나눠주면 우리가 배워서 샘플 옷을 만들어 줘요. 옷 만들어 하나 떠주면 내가 먹는 게 10원, 뜨는 사람은 30원에 뜨고. 꽃 하나 뜨면 1원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떠가지고 붙여야 되요. 내가 너무 아까워 실 남아서 떴는데 못 버려요. 안동 갈 때도 그땐 터미널도 없었고, 전철도 없을 때니까 기차 칸에서 노상 이걸 뜨고 댕겼어요.



최차연 님이 직접 만든 손뜨개 옷

1일 200원 농약공장과 학익동의 공장들

남편이 카바이트 공장 일할 때는 나도 연안 부두에서 일을 했어요. 도시가스 묻을 때 3년 댕기면서 사무실 청소도 했고, 도나무 공장[13]이라고 기름통을 씻는 야간작업도 했어요. 그 통 안에다 체인이랑 약을 넣어가지고 기계로 막 돌리는데 그 소리에 귀가 떠나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기름을 넣어요.

농약 공장도 다녔어요. 거기 가서 레떼루[14]도 붙이고, 또 가루약을 저울에 달아서 봉투에 담아 레떼루 붙여가 내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하루에 200원, 한 달 빠져봐야 6천 원.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빽[15]이 있어야 들어가요. 학익동 살 때 식당에서 일하는 고참 아줌마 신랑하고 우리 신랑하고 한 회사 다녀서 그런 연줄이 있어 들어갔어요. 농약 공장 월급이 남자들도 200원으로 우리랑 똑같았어. 머시매들은 밖에서 무거운 거 싣고 댕겨도 200원, 여자들은 안에서 레떼루 붙여도 200원, 한 달에 잘 당겨야 6천 원 받는데 그것도 큰돈이죠. 그때는 쌀 한 되에 30원 할 때예요. 그 돈으로 우리 집 앞에 '강 씨네'라고 연탄도 팔고, 쌀도 팔고해서 한 달 외상 갖다 먹고, 월급 타면 갖다 갚고 그랬어요. 또 그 동네엔 국숫집도 있고, 충남 상회도 있었는데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은 다 가게 해서 이자놀이하고 돈 벌었어요.

동양화학 인근에 공장들이 많았는데 학익동 뺑뺑 돌아가면 다 일하는 곳

13) 드럼통(drum can)을 도나무통으로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벌크 화물을 수송할 때 원통모양의 용기로 가솔린이나 알코올, 석유, 화공약품 등 액체를 담기 위해 강철로 만든 통이다.

14) '레때루'는 일본어 '레테루(レッテル)'에서 온 말로, 한국어로는 '라벨(Label)'이나 '상표', '꼬리표'를 의미한다.

15) 뒤에서 받쳐 주는 세력이나 연줄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이에요. 두부 공장, 담배공장, 태광산업, 벽돌공장이 있었어요. 두부공장은 밤새도록 두부 만들면 동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밤새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두부 파는 거야. 담배공장은 담배 냄새가 엄청나게 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일 다니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나무 써는데 있었지, 벽돌 공장이 있었지, 뺑뺑 돌아가면 돈 벌어먹기 좋았어요.

이렇게 인터뷰 하며 옛날 사진들, 학익동에서 아이들 키우고, 가족과 찍은 옛날 사진 보니 추억을 많이 남겼네요. 거짓말할 것도 없이 내가 겪은 그대로 이야기 하니, 살아온 인생살이가 다 역사죠. 나는 옛날이야기를 역사로 생각해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10.
· 장소: 구술자 자택(남동구)
· 면담자: 정지선 (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송미정 (미추홀시민기록단)
· 동석자: 최기숙 (구술자 조카)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던 양토마을을 회상하다



홍철선

1964년	강원도 출생
1967년	인천 이주
1989년	동양화학 입사
1992년	동양화학 퇴사
	퇴사 후 자동차 영업으로 전업

홍철선 님은 강원도에서 1964년에 태어났다. 고모가 인천에 살고 있어 가족이 1967년 학익동으로 이사하였다. 아버지 홍사용 님은 동양화학이 공장을 짓고 있던 때 경비로 일하다 동양화학 소다회 공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그런 아버지는 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1989년 동양화학 정밀화학부에 입사하였다. 그가 동양화학에 입사하게 된 것은 아버지와 홍규선 부사장과의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입사 3년만인 1992년에 퇴사하여 자동차 영업으로 전업을 하였다.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입사해 근무했던 이야기보다 그가 살던 양토마을(햇골)을 추억하는 이야기에 푹 빠졌다. 수 백 마리 토끼를 기르던 양토장과 토끼에게 먹일 풀을 실은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던 곳, 뱀이 또아리를 틀며 마을로 내려온 이야기, 레이다 기지의 기계 소리가 밤이면 더 크게 들리던 곳, 햇빛이 적어 그늘이 많고 습해 귀신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며 주민이 죽거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등을 흥미 있게 들려준다.

어린 시절 거주했던 양토마을에 대한 좋은 기억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그는 아침을 깨운 뻐꾸기 소리가 가장 그립고, 지금도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고 한다.

어릴 적 학익동 오가는 길의 추억

저는 1964년에 태어났어요. 인천에 고모님이 살고 계셔서 1967년에 아버지를 따라 왔어요. 아버지가 1939년생이니까 20대 후반에 인천에 오신 거죠. 동생은 인천에 온 그 해에 태어났고요. 그 때 제가 4살인데 동양화학 뒤에 살았어요. 그리고 부영약국 뒤쪽으로 이사해서 8살 되기 전에 학익고등학교 뒤 햇골로 이사해 오래 살았습니다. 학익동은 초가집, 판잣집들이 있었어요. 아휴, 사람들 사는 게 되게 어려웠죠. 제가 인천에 왔을 땐 동양화학 정문 앞 까지 물이 들어왔었어요. 동양화학 부지는 그냥 공터였고, 공장 지을 때 아버지가 거기 초소에서 경비 서던 거 기억나는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셨어요. 아유, 월급을 집에 가져오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가끔, 지금 말하면 뻥튀기 같은 거, 부채처럼 생긴 과자를 조금씩 사 오셨죠.

지금 인하대역에서 옥련터널 올라가면 우측이 다 바다여서 낚시질하고, 수영하고 그랬어요. 낚시를 좋아해서 동생하고 맨날 낚시만 다녔는데, 여기

물 엄청 깨끗해서 물속이 다 보였어요. 숭어, 농어, 조개, 게 뭐 그런 것들 엄청 많았어요.

지금 학익 사거리 쪽은 그 전에 삼거리고요. 지금 학익2동 동사무소가 있는 곳은 그 전에는 3번 버스하고, 문학에서 나오는 45번 버스가 지나갔는데 문학에서 나오는 길은 비포장길이었어요. 3번 버스는 학익2동 동사무소가 종점이라 거기서 기계 공고로 가는 길은 없었어요. 당시 남자 1명이 버스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게 기억나고요.

홍규선 부사장의 배려로 동양화학 입사하다

아버지는 소다회 공장에서 쌀포대 20kg짜리 소다가 컨베이어 타고 나오면 거기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거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당시 홍규선 부사장님의 배려로 1989년 동양화학에 입사해서 고무가황촉진제 생산 부서 관리를 맡았습니다. 유황하고 아닐린, 그리고 CS2(이황화탄소), 그거를 섞어 갖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거기가 7조 3교대에요. 아침에 나가서 3시에 끝나고, 그 다음 날 밤에 들어가요. 오늘 3시에 나오면 그 다음 날 저녁 10시에 들어가요. 그 때가 주 44시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잔업 하는 날도 있고요. 1989년 입사해서 받은 첫 월급이 40~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첫 월급 타서 칼라TV 샀어요. 두 번째 월급 타서 어머니 보석해주고요.

저는 한 3년 다녔고, 아버지는 거의 30년 넘게 다니셨어요. 동양화학 공

장 앞이 빈 공터였을 때부터 아버지는 다니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풍에 걸려서 몸이 아파 그만두셨어요. 저는 3년 다니다 1992년에 퇴직해서 자동차 영업일을 했고요.




문학산 자락에 자리한 양토마을 풍경, 2012년

토끼 기르고,
뱀이 굴러다녔던 양토마을

양토마을[1]이라 불리는 햇골에는 토끼를 키우는 토끼장이 있었어요. 토끼가 엄청 많았어요.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풀을 베서 토끼한테 주고 그랬는데, 풀을 산에서 베서 차로 가져올 때도 있고, 그 당시에 인하대 풀

1) 양토마을(일명 햇골)은 1970~1980년대 주민이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대량으로 토끼를 길러 토끼털과 고기를 팔던 '양토장(養兎場)'에서 유래한 마을 이름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및 학익배수지 인근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많은데 가서 다 베고 그랬어요. 토끼털을 팔거나 토끼고기 먹고 그런 사람들이 사갔겠죠. 그러다가 서해안고속도로 생기면서, 그 다리 밑이 다 수용돼서 그때 없어졌죠. 그 다리 밑 거기가 다 토끼장이었어요.

산 밑에 뱀도 많았어요. 독사가 가을 되면 공처럼 막 뭉쳐서 굴러 다녔어요. 지금도 그 산에 가면 구렁이도 많아요. 독사가 예전에는 햇골 마을로 많이 내려왔어요. 뱀이 개천을 타고 다니면서 쥐를 다 잡아먹어서 동네에 쥐가 없었어요.

이런 동네에 우리가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산 밑 집들은 다 무허가고, 1980년대 대통령 선거할 때 무허가 집을 그냥 내비 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지어 팔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주셔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을 사고, 나머지는 술을 먹었대요. 그 당시에 한 백만 원 정도, 그 돈 갖고 아버지가 다 썼어요.

그래도 그 산에서 아침마다 뻐꾸기가 일곱 시 쯤 울었어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는데, 뻐꾸기 소리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최근 양토마을에 지어진 토끼모양 조형물, 2026년

귀신 들린 집에서 살았다?

제가 학익고등학교 쪽 햇골 살 때 그 집이 귀신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불을 땠는데 텃세가 심해서 솥뚜껑이 막 뒤집어지고 그랬었어요. 그 옆집 사는 아줌마도 그 귀신 들려갖고 죽었어요. 거기가 터가 센 동네고, 좀 습해요. 말하자면 귀신들이 살기 좋은 터 인거죠. 거기에 지금도 귀신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 살면서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서 빨리 나왔으면 더 잘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곳은 문학산 때문에 햇빛이 늦게 들었어요. 그리고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저녁만 되면 레이더가 돌아가는 '웅~' 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2. / 2026. 7. 24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나래병원
· 면담자: 허은영(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양지원 (미추홀학산문화원)



어린 시절 나의 살던 고향
용현•학익동



최기숙

1972년	인천 학익동 출생
2000년	결혼하여 경북 구미로 이사
2005년	인천 학익동으로 다시 이사
	결혼과 함께 경북 구미로 내려가 살다가 큰 딸 3살 때 다시 올라옴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

최기숙 님은 1972년 학익동 주신자동차 학원 근처 마을에서 태어났다. 걸음마를 뗄 무렵 양토마을 인근으로 이사한 후 부모님 병 치료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살다 7살 무렵 학교입학을 위해 다시 인천으로 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학익동에 정착한 후 동양화학 옆 카바이트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며 반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받고 일을 그만둔 후 오토바이로 건어물 장사를 했다.

학창시절 그녀는 집에서 용현초등학교까지 철길과 굴다리를 지나 30~40분씩 걸어서 통학했다. 가을에는 동네 친구들과 철길 옆 밭에 자란 무를 뽑아 털어먹거나, 굴다리 밑에 있는 '방방'(트램펄린)을 구경하고, 유공 단지 후문 공터에서 놀았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무렵 학익동을 떠나 도화동으로 이사한 후 옛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학익동 동네로 놀러오기도 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학익동의 수많은 공장들은 지역민을 먹여 살린 존재다. 남자들은 주로 동양화학이나 카바이트 공장, 여성들은 흥한방직에 출퇴근 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았다. 그녀에게 가장 무서웠던 기억은 새인천풀장으로 가는 카바이트 공장 뒤 독한 화학 냄새와 옥색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이었다고 한다. 집 뒤편 유공(SK) 단지 주변에서 나는 기름 냄새도 기억한다. 결혼 후 고향 학익동으로 돌아왔을 때 양토 마을 올라가는 길은 넓게 뚫리고, 아파트로 둘러싸인 모습에 잠시 놀라기도 했다.

그녀는 홈플러스 앞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옛 동네를 둘러보며 오토바이에 건어물을 싣고 골목길을 달리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지며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참 잘 컸다.'며 스스로를 토닥인다.

철길 따라 학교 가는 길

저는 호적에는 1973년으로 되어있지만 1972년 8월 학익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때라 정확히 모르는데, 양토 마을 조금 못 가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엄마가 아파서 바로 시골로 내려간 후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왔다고 해서 인천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때 거주한 곳이 홈플러스 앞 용현 5동 606번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카바이트 공장'을 다녔어요. 동양화학 바로 옆에 있었어요. 원래 아버지는 이발하는 거를 배워 일을 하시다가 인천에 와서 카바이트 공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반장을 하고, 지게차로 판넬 같은 것을 옮기는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아파서 퇴직금을 받아 병원비로 썼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 뒤에 골목이 3개가 있는데, 마지막 골목 뒤 공터에서 많이 놀았어요. 유공 후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유공 안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석탄기차가 하루에 세 번 지나갈 때, 유공이 문을 열면 석탄을 내려놓고 다시 나가는데

한 30~40분 걸려요. 그때 거기 들어가서 쑥도 캐고 냉이도 캐고 그랬죠. 그리고 기차 지나가기 전에 철길에다 못이랑 병뚜껑이랑 빨간 벽돌 같은 거 올려놓았다가 납작해지면 그걸로 소꿉놀이를 했어요.

집에서 용현초등학교까지 갈 때 걸어서 다녔어요. 고속도로 밑 굴다리까지 철길이 일자로 이어져 있고, 거기서 꺾어져 내려와 학교까지 가는데 30~40분 정도 걸려요. 철길을 따라 가면 밭이 쫙 있고, 밭 옆에 개천이 있었고요. 가을에는 학교 끝나고 올 때, 그때는 서리인 줄도 모르고 반 정도 나와 있는 무를 뽑아 흙 털어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굴다리 밑에 방방을 어쩌다 한 번씩 탔던 거 같아요. 그때 유원아파트는 없었고, 가정집들 사이로 학교 갈 수 있는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없어진 '오뚜기 문구'라고 친구네 집 가게가 있었어요 근처에 예전에 봤던 까만 대문 집 하나는 개발이 안돼서 그런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집 앞에서 사진사가 찍어준 사진, 1973년



큰 언니(최은주)의 학익국민학교 졸업식 사진, 1978년

‘뽀글 뽀글 뽀글’ 옥색 물과 기름 냄새

동양화학에 대한 기억은 굴뚝. 낮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는데, 아침하고 밤 시간에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를 태우는 걸까?’ 이런 생각 했었지요. 냄새도 나긴 했는데, 그게 동양화학에서 나는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새인천풀장을 가려면 동양화학 뒤 카바이트 공장을 지나가는데, 거기 옥 색깔 나는 물이 ‘뽀글 뽀글 뽀글’ 올라와요. 어른들한테들은 이야기로 어떤 분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그 물 퍼다 씻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했어요. 수증기처럼 연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신기했죠. 근데 무슨 냄새라고 그래

야 되지? 태우는 냄새는 아니고 락스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나는 그런 냄새 같은데. SK 처음 생겼을 때 거기가 유공 단지였잖아요. 기름 냄새 많이 났어요. 유공 쪽으로 놀러 다녀서 그 냄새를 알아요. 우리 집 뒤 공터 놀이터에서 놀 때 냄새가 나곤 했어요.



용현동 집 앞에서 옆집아이와 함께, 1980년대

인하대학과 용현고개 가는 길

인하대학교에서 축제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보기도 했어요.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인하대학교 정문 쪽에 들어가면 호수 같은 거 있잖아

요? 연예인이 와서 공연하면 계단에 앉아 보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인하대 정문까지 가려면 좀 걸어가야 해요. 인하대 끄트머리쯤 고속도로 지나는 끝 쪽에 우체국이 있고, 우체국 길 끝에서 담을 넘어가면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 우체국 앞이 우리 아지트였어요. 우체국 앞에 보면 거기에 잔디도 있고, 꽃도 심어놓은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네모난 대리석인지 돌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 놀고 그랬어요. 우체국을 따라서 용현 고개 쪽으로 가는 길에 기성약국, 기성한의원이 있었고요. 그 큰 길로 가면 가정집들 건너편에 '나비전자'라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성, 삼성 제품 같은 것을 수리하는 전파사 같은 거죠. '나비전자' 하시는 아저씨 부부가 약간 장애가 있었는데, 고치는 일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 해야 되지? 19금 술집 같은 거 쪼르륵 있었고요. 집창촌 말고 지금 용현시장 가다 보면 유비스 병원 가는 쪽 라인에 있는 찻집이요. 방석집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 아가씨들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엑슬루트 있는 자리에 있던 학익동 색시촌은 진짜 낮에 지나가면 굉장히 신기했어요. 다 유리문이라서 '왜, 여기가 유리문이지?'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죠. 어찌어찌 하다가 밤에 약을 사러 그 근처에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신흥동 옐로하우스[1] 근처 약국은 24시간 한다는 게 생각이 나서 이쪽도 약국이 있나 싶어 한 번 지나갔던 거죠. 빨간 불빛에 드레스 입은 아줌마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색시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1) 이곳은 1902년 개항기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시작된 인천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다. 1962년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로 이전해 유지되다 현재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이다.

‘단방구’ 와 ‘공기돌’

요즘 애들은 학원 다녀서 놀지 않잖아요. 나 어렸을 때는 밥 먹고 나면 밤까지 놀았어요. ‘단방구’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도둑’ 뭐 그런 놀이죠. ‘단방구’는 편을 갈라서 잡는 팀과 도망가는 팀으로 나눠 전봇대나 벽에 붙어 있으면 못 잡는 거고, 누가 ‘단방구’ 하고 소리치면 풀어주는 놀이예요. 공기놀이도 지금 애들하곤 좀 달라요. 철길에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요즘에는 공기돌을 사서 하는데, 그때는 철길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돌을 주워 공기놀이를 했어요. 공기놀이는 지금처럼 5개짜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갈돌을 20개씩 주워 와서 산처럼 쌓아놓고, 공기 꺾기해서 쌓아 놓은 공기 더미에다 치는 거죠.

그래서 튕겨 나온 애를 하나씩 하나씩 빼가는 그런 놀이였어요. 요즘에 그런 거를 얘기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공기놀이를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그 돌들을 동네 한쪽 구석에 놓고 ‘다음 날 또 놀자.’ 하면 그거 갖고 와서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무줄 놀이’, ‘비석치기’라는 ‘말방까기’,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랬죠.

우리들이 유공 후문 옆 공간에서 주로 놀면 마을 어른들은 골목에 모여서 수다를 떨어요.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은 어떻고, 이 집은 어떻고’ 이러면서 흉을 봐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랑 눈 마주치면 절대 안 돼요. 잘 사는 집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별로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끝 집 사는 아줌마가 시끄럽다고 딴 데 가서 놀라며 물 뿌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아줌마도 있었어요. 그 집 딸도 나와서 놀면 좋은데, 안 나오고 공부만 했어요.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갖고 살다가 중 2때 도화동으로 이사 갔어요. 여름방

학 때쯤 우리가 이사를 가고, 작은 아버지 식구가 우리 살던 데로 왔어요. 그래도 이쪽으로 많이 놀러 와서 같이 놀던 동네 애들한테 "우리 사촌 동생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도 해 놓고 어울려 다녔죠.

'나의 살던 마을'의 기억

중2 때 학익동을 떠났다가 결혼하고 구미로 이사 갔어요. 큰애 초등학교 3학년 때 용현동 동아풍림으로 이사 와서 둘러보니까 학산초등학교가 있고, 그 위에 양토 마을 올라가는 길이 뻥 뚫려서 예전과 달라진 걸 보고 '오, 여기가 이렇게 달라졌네.' 했어요. 그런데 기분 좋았던 게 홈플러스 앞 우리가 살던 곳을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시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예전에 살던 생각이 났지요.

우리 집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작은 애들 방, 그리고 엄마 아빠 방이 있고, 뒤뜰이 있었어요. 원래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해서 옆쪽으로 화장실을 바꿨죠. 부엌이 움푹 파여 있어 아궁이가 있고, 옆에 차단스[2], 곤로 등을 올려놓았어요. 연탄집게, 빗자루 같은 것들을 놓는 곳이 있었고요. 좀 지나서 아버지가 아궁이를 연탄보일러로 바꾸었는데, 부엌이 낮으니까 비가 오면 우리 집 앞 하수구가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집 앞 화장실도 넘쳤고요. 진짜 괴로웠어요.

그리고 홈플러스 앞, 철길 옆으로 도랑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안

2) 그릇, 식료품을 보관하는 일본식 찬장(일본어: **茶箪笥**, ちゃだんす)을 말한다.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옛날 가정집에서 흔히 사용되었다.

흐르다 비가 오면 무릎 위까지 물이 차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물이 넘쳐서 역류한 거죠. 수로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대부분 집으로 들어와 다들 물 퍼 대고 난리였어요.

대우전자도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흘러내려갔어요. 비 오고 난 뒤 친구들하고 그쪽으로 놀러 가는데 하천에 인형인지 아님 마네킹 같은 거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돌을 던져 마네킹이면 튕겨 나갈 것이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게 사람 시체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새벽 6시인가 5시 반 되면 쓰레기차가 와요. 쓰레기차가 올 때 아저씨가 두부 종 치듯이 골목을 다니면서 종을 쳐요. '우리 왔으니까 쓰레기 내놔라' 하는 거죠. 예전에도 지금 쓰레기차하고 비슷해서 쓰레기차 뒤에 아저씨들이 서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 통을 얹어주면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고, 통을 던져주면 그걸 받아서 가지고 가죠. 그때 아저씨가 통을 던져주면 내가 잘 받아서 아줌마들 거도 받아 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저분한데 그때는 지금처럼 음식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어 버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를 그리며

우리 딸하고 옛날 살던 골목과 동네를 한번 같이 가봤는데 골목이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건어물 장사 하느라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건어물을 만들어서 오토바이 뒤에 철 박스를 달아 건어

물을 넣어 파는 개인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시외버스 터미널, 애관극장, 미림극장, 인형극장, 송도 유원지에 오토바이를 타고 건어물을 팔았던 거죠. 여기저기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골목길에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끌고 어떻게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 컸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용현동 집에서 아버지와 셋째 언니(최은숙)가 함께 찍은 사진, 1980년대

‖ 면담개요
· 일시: 2025. 7. 1.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강인형(미추홀시민기록단)



길 위의 야생마,
핸들을 잡고 곳곳을 누비다



한종수

1949년	인천 중구 관동 출생
1970년	경기자동차 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1971년	화물자동차 기사 조수에서 정식 기사로 승진
	인천항에서 돌소금을 받아 동양화학으로 운송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건설현장 파견
	인천 선진관광, 극동관광 입사하여 88서울올림픽 특수를 누림
1990년대	조개고개, 옥련여고 인근에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운영
	현재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

한종수 님은 1949년 인천 중구 관동에서 태어나 이듬해 터진 전쟁을 피해 경기도 군자에서 성장했다. 그는 아버님이 정미소를 운영하여 시골에서 기반을 닦았지만 농사일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한다. 군 제대 후 인천에 사는 누나의 권고로 1970년 군용 닷지차를 몰고 자동차 면허시험을 보았다. 일주일 만에 운전면허를 따 화물차 조수 생활을 시작해 1970년대 중반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소금을 싣고 동양화학 공장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1980년대 초 해외 건설 붐이 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와 다시 인도네시아 현대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돈을 벌었다.

88서울올림픽 직전 귀국한 그는 관광버스 기사로 일을 시작했다. 당시엔 관광버스를 타려면 6개월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호황이었기에 기사로서 큰 대접을 받으며 일했다. 이후 숭의동 예식장 주차장을 관리하고, 조개고개와 옥련동 인근 꽤 넓은 부지를 임대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조개고개 주차장을 학교부지로 강제 수용하면서 쫓겨났다. 다시 옮겨간 옥련여고 밑 주차장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또다시 쫓겨났다. 그는 보상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 다녔지만 남들한테 구애받지 않고 살았다며 지나온 세월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그는 1970년에 딴 면허증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수 십 년을 길 위의 야생마처럼 곳곳을 누비며 살아온 삶을 이 작은 책자에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 지금은 강화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문화원을 찾은 그는 자신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고맙다고 한다. 자신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1970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 조수로 일하다

1949년 중구 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관동에서 태어나서 6.25 때 군자로 피난을 갔지요. 관동은 제물포고등학교서부터 자유공원 너머 까지를 관동이라고 해요. 가족이 모두 군자로 피난 가서 군대 갔다가 제대해 21살까지 살았어요. 우리 누님이 인천 살았는데 누님이 여성 자동차면허 1호예요. 매형, 그 양반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제가 뚜렷한 직장이 없으니까 매형이 한번 와 봐라 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1970년 12월에 면허를 땄어요. 용현동에서 제물포로 나가는 기찻길이 있는데,[1] 제물포 남중학교 바로 밑 공터에 경기자동차학원이 있었어요. 닷지차[2]라고 군용차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일주일 만에 면허를 땄어요. 시험이 에스(S)코스, 티(T)코스로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컴퓨터로 라인을 밟으면 삐삐 소리가 나지만, 그때는 볼링공 같은 봉을

1) 주인선을 말한다.

2)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트럭으로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인 '닷지(Dodge)'를 말한다.

세워서 시험을 봤어요. 봉을 3개 이상 자빠뜨리거나 떨어뜨리면 불합격이에요. 면허를 따고 조수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기사를 잘 만나 1년 후에 기사로 승진을 했죠. 비록 남의 집 머슴살이지만.

인천에 왔을 때 내 거주지가 정확하지가 않았었어요. 누님 집에 얹혀살다가 조수 생활을 하러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거주를 했죠. 누나는 용현동에 살았는데 제1교회인가, 물텀벙이 있는 그 골목 뒷구멍으로 올라가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3] 그 교회 바로 밑에 거기서 살았어요.

인천항에서 동양화학으로 돌소금을 운송하다

수인역, 그러니까 지금 제일제당이 있고, 터미널이 있던 그 자리가 다 바다고, 그 앞에 낙섬이라고 있는데, 낙섬 거기까지 차 타고 조수 생활을 했어요. 1970년대 중반 될 거예요. 내가 조수로 간 집이 하인천 파출소 뒤에 있는데, 그 집 차가 일본에서 쓰던 61년, 63년, 64년 연식 3대가 있어 그 집 차를 몰았어요. 대한제분 있는 그 자리가 염(소금) 부두예요.[4] 외지에서 소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발판 타고 올라가서 차에다 싣고, 다꽝[5] 공장이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한 6개월 조수를 하다가 바로 기사로 올라탄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금이 가마니에 포장이 돼서 들어오면 이걸 가대기[6]를 했어요. 배에서 육지로 발판 2개를 놓고, 둘이 들어서 어깨에다 매주면

3) 제1교회가 아니라 용현동교회다. 설립된 지 60년 된 교회로 지금도 현 위치에 있다.

4) 대한제분은 1952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중구 월미도 인천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곰표 밀가루 등을 생산하고 있다.

5) '다꽝'은 '단무지'를 뜻하는 일본어 표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6) 까대기라고도 한다. 주로 택배 물류센터나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쏟아 내거나(까고) 다시 싣는(대기) 노동 집약적 분류 및 적재 작업을 비유하는 은어다.

30~40명이 빙 돌아가면서 발판 타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쪽으로 내려가며 차에다 부려주는 가대기를 해서 실었어요. 직접 가마니를 어깨 짊어지고 내리고 싣고 하는 거죠. 월급 6만 원인데 그때 쌀 한가마니가 2천 5백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차 운영비나 세금은 차주 몫이지만 월급은 많은 게 아니죠.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양화학은 월미도 인천항에서 본선으로 싣고 들어오면, 거기서 페로다[7]가 실어주면 갖다 부리고 그랬죠. 산에서 난 돌소금이 선박으로 들어오면, 바지선[8]에다가 옮겨 실은 후 끌고 부두로 와요. 그러면 부두에서 부려서 바닥에다 놓고, 차를 불러서 페로다가 실어줘요. 한 2-3일 정도 밤낮으로 동양화학에 운반했어요. 덤프차가 싣고 동양화학을 들어가면 계근대[9]에서 차체 계근을 해요. 그러면 차 몽땅이 한 18톤 정도 나와요. 소금을 비우고 나올 땐 빈 차를 또 계근대에 달아요. 달면 8톤 나와요. 그러면 소금 실중량은 10톤이죠. 10톤짜리 티켓을 하나 끊어주면, 차주가 그걸 갖고 돈을 받으러 가는 거죠. 운반 요금이 월급이라 그 일만 해주면 끝나요. 소금 나르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바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해요.

소금 운반할 때 도로는 대부분 2차선 비포장 흙길이에요. 옛날에는 기름을 아끼려고 내리막길에서 기아(Gear 변속기)를 빼요. 후리 쓴다고 그러거든요.[10] 그러면 중량이 있으니까 쭉 빠른 속도로 내려가죠. 그럼 그다음 언덕을

7) 페이로더(Payloader). 흙, 자갈, 석탄, 모래 등 벌크 자재를 퍼서 트럭이나 적재소로 옮기는 건설기계

8) 바지선(-船, 영어: barge) 또는 부선(艀船)이라 하며, 주로 강과 운하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한 바닥이 평평한 선박이다. 일부 바지선은 스스로 추진되지 않으므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하다.

9) 계근대(Truck Scale)는 화물차에 짐을 실은 상태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대형 저울이다.

10) 차량 기어 후리는 주로 대형 화물차에서 사용하는 연비 주행 기능(타력 주행) 또는 기어 중립(N단) 주행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 엔진 브레이크 없이 관성으로만 굴러가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못 넘어가요.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기아가 안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미션(Transmission)이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서 있으면 정비사가 와서 고쳐주죠. 그때만 해도 국산은 한 번 꽉 조이면 부러질 정도고, 야마[11]가 어긋나서 헛돌고 그럴 적도 많아요.

차량이 고장 나면 지금 숭의동 로타리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길 옆을 쭉 내려오면 양쪽이 다 정비공장인데 글로 가서 고쳐요. 지금은 인천 방송 옆 정비 단지로 다 이사 했어요. 주유소가 많지 않으니까 기름은 말통으로 구입해요. 숭의동 로터리 올라가는 수인역 철로 앞에 말통에 기름을 넣어 쭉 대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 가는 거죠.

화물운송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다

트럭 운전을 1980년대 초 까지 한 10여 년 했죠. 그리고 해외로 나갔어요. 해외로 나가게 된 건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갔어요. 알 코레프 한국[12] 이라고 사우디 현지인하고 합작을 한 회사로 갔어요. 알 코레프 한국에는 28명밖에 없었는데, 시간당 2불 75센트예요. 월정액으로 9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일했지요. 현지에서 추레라(트레일러)를 끌었어요. 키포[13] 엔진이 달린 우물

11) 기계 부품으로 나사가 마모되어 헛도는 상태를 한다.

12) 1957년에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 그룹. 주로 수자원, 에너지, 농업,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우디의 국가 발전 프로젝트(비전 2030)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 키포(KIPOR) 엔진을 탑재한 우물 파는 장비(시추기)는 주로 강력한 유압 구동 방식을 사용하여 깊은 지하수까지 안정적으로 천공하는 기계다.

파는 장비 30톤짜리를 실어다 주어야 하는데, 나는 추레라 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땄지요.

사우디에서 한 2년 일하다가 인도네시아도 갔어요. 공장장이 의무실 엠브란스가 하나 놀고 있으니 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일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말을 현지인한테 배워서 인도네시아 말도 제법 해요.

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서 88 올림픽 전에 들어왔을 거예요. 와서 선진관광에 입사했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극동관광으로 가서 관광차 운전을 한 30년 정도 했어요.[14] 인천에 관광회사가 5개 회사밖에 없었어요. 올림픽 치르고 돈이 좀 생기니까 관광버스 타려는 사람이 많아 6개월을 대기할 정도였어요.

관광버스 하다가 숭의동에 무슨 부페인데 숭의 예식장이든가, 하여튼 공설운동장 인근 제물포 쪽으로 넘어가는 오른쪽에 예식장이 하나 있었어요.[15] 그 집이 일본 사람 땅인데 내가 주차장을 하자고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예식장에서 일 보는 양반이 이거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나더러 맡으라 해서 거기서부터 주차장을 시작하게 됐죠.

내 땅 없어 쫓겨나기만 했던 용현동 주차장

숭의동에서 한 2년 주차장 일 하고, 조개고개 쪽으로 오게 됐어요. 한 사람이 주차장을 4천 평 정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찾아보니까 노상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14) 숭의동 예식장, 조개고개와 옥련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다 쫓겨한 시점을 고려하면 2000년 초반까지 약 20년 정도 관광차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당시 이곳에 해진부페예식장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세를 놓을 거냐' 하니까 세를 놓는대서 시작을 했지요. 우리는 관광버스만 했어요. 아주머니들을 고용해 깨끗하게 청소를 했죠. 주차비, 청소비는 따로 받아요. 그때 당시에 청소해 주고 한 달에 20만 원 씩 받은 것 같아요. 그거 받아서 아주머니들 다 나눠줘도 나는 먹을 게 없지만 차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들 와요.

관광버스가 아침에 통근 일도 나가요. 장거리 숙박도 다 다녀요. 인천에서는 두산도 있고, 대우자동차, 콜트악기도 있고. 개인이 아웃소싱하는 거는 공항 다니는 거 뭐, 하여튼 많았죠. 우리 주차장에는 없었는데, 삼광유리는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차가 아무 때나 들어와서 시동을 걸고, 불도 켜놓고, 소음도 나니까 갈등이 생기죠. 조개고개에 있는 사격장 올라가는 길에 주택이 한 열댓 집 있었는데, 이 주택에서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그냥 3kg 짜리 설탕 하나씩 돌리면 입을 쫙 닫아요. 명절 때 한 번씩 돌리기도 하고요.



주차장이 있던 조개고개는 현재 개발이 한창이다, 2025년, 오인영 촬영

처음 시작한 주차장 자리가 지금 능허대중학교[16] 자리, 해양경찰서[17] 자리예요. 법원에서 학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냥 몰수 해버렸어요. 땅 보상을 36억 원인가 줬어요. 교육청이 그 땅 주인한테 50억 나가는 땅을 36억 공탁을 걸어놓고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라면 말라고 했대요. 학교 짓는 것 때문에 조개고개에서 쫓겨났죠.

옥련여고 밑에 '경일렌트카'라고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에 봉고차 몇 대 주차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 주차장에서 정비하던 사람이 거길 갔다 와서 여기에 땅을 하나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 내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땅 주인이 개울 건너까지 그 사람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임대해서 12년 동안 했는데 또 삼성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나가래요.[18] 그냥 맨날 쫓겨 다니고 했죠. 옥련여고 밑에서 할 때가 마지막인데,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났어요.

1970년에 닷지차로 면허증을 따고 40여 년 동안 추레라, 관광버스 운전만 했어요. 지금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찮은 사람인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16) 2005년에 개교하였으나 2019년 송도동으로 이전하였다.

17) 2018년 8월 연수구 옥련동 옛 능허대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임시 청사로 사용하다, 2024년 서구 청라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18) 2018년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 면담개요
· 일시: 2025. 8. 29.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송미정(미추홀시민기록단)
· 면담지원: 정지선(미추홀시민기록단)



학익동 끽동 집결지 폐쇄, 민관협력으로 이루어낸 유일한 모범 사례



강혜정

1981년 전남 광주 출생
1988년 인천 이주
2007년 인천여성의전화 입사, 민관협력으로 학익동 끽동 집결지 폐쇄 과정 참여
2018년 숭의동 엘로우하우스 폐쇄 운동 참여
2021~2023년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대표 역임
현재 사단법인 '나무그늘생활' 시설장으로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청소년 보호, 여성인권보호 등 활동

강혜정 님은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1988년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2007년 2월 인천여성의전화에 입사하였다. 입사하자마자 2004년부터 운영해 온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탈성매매자활지원센터 일원으로 주 2회 끽동 집결지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 했다. 끽동 폐쇄과정에서는 숭의동 옐로우 하우스나 타 지역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흔히 발생했던 업주들의 저항, 분신 시도, 1인 시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인천시의 TF팀 구성과 함께 여성단체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끽동 폐쇄는 민관이 협력해 원만하게 이루어진 전국의 유일한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대해 그녀는 아쉬움을 표한다.

2007년 6월 4일 마지막 남은 업주의 건물은 철거되고, 학익동 끽동의 흔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집결지의 건물은 사라졌어도 그 공간에서 일해 온 성매매 여성들의 삶과 착취구조에 기생해온 이해집단, 집결지 여성의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목표로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활동해온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집결지가 여성의 성 상품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집결지의 불법 이익이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 착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녀는 향후 남아있는 인천의 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사회적 관심, 민·관·주민의 연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인천여성의전화 입사,
성매매 수요 차단 운동을 시작하다

끽동은 성매매 역사의 현장인데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불편해 하는 진실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1년 1월 태어났고, 고향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해 부모님과 인천으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쭉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여성의전화에 입사한 것은 2007년입니다. 그전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장애인 상담을 했어요. 하반신 마비였던 여성 장애인을 돌보던 남편이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내담자가 누워 있는데도 "네가 못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서 한다."는 사례를 접하다 인천여성의전화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학익동 끽동 집결지 폐쇄와 숭의동 엘로우 하우스 폐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입사면접 볼 때 자활지원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대상이 성매매 피해 여성인지를 모르고 갔어요.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 어떤 여자들이 들어가나 보자며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지원 대상을 숨기고 채용 공고를 낸 거죠.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인권 보호 및 자활지원 활동과 성매매 수요 차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되기 전 끽동 여성성매매 집결지 야간 거리, 2007년, 스페이스빔



폐쇄직전의 끽동 여성 성매매 집결지, 2007년,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명절이 대목인 끽동 현장을 들어가다

2007년 2월에 끽동 현장을 처음 들어갔어요. 그때는 거의 업소 폐쇄가 진행되어 허물어져 있었어요. 진입로 입구 쪽에 한 6, 7개의 업소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데, 앞에는 빨간 불빛에 여성들은 홀복을 입고 몸을 드러낸 채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고요. 두세 명 남성들이 어울려 비틀거리면서, 전문 용어로는 초이스(Choice)라고, 업소에서 여성을 골라요. '쇼부'[1]라고 하죠. 2월이면 상당히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때가 명절쯤이었어요. 여기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명절을 별로 보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명절이 대목이거든요. 명절 때 누가 이런 데를 갈까하지만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찾습니다. 어떤 업소는 여성들이 없어서, 남성을 다 받고 옆(집)에서 빌려(데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도 목격을 했어요.

언니[2]들한테 명절 선물을 나눠줘요. 명절 선물에 샴푸, 트리트먼트, 비누, 치약이 들어 있어요. 몇 명 남지 않은 여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 법률·의료 지원, 그리고 집결지에서 나와서 검정고시나 자격증 같은 공부를 지원하는 리플렛을 주어요. 그리고 '성매매는 불법인데 혹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나요?'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주고요. 제 기억에는 끽동이나 숭의동 옐로우 하우스에서 나온 여성들이 만든 소식지와 본인들이 손으로 만든 물품을 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 상담원들이 가장 영업이 잘 되는 시간인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현장에 들어가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쇼부'는 일본어 '승부(勝負, しょうぶ)'에서 온 말로, 어떤 일의 결판을 짓거나 서로 간에 합의·흥정을 한다는 뜻이다. 일상에서 가격을 깎거나 조건을 맞출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2) 단체 활동가들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지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다.

긴급 임시총회 개최,
상담소 개소와 집결지 여성들을 만나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지자체가 학익동 끽동을 폐쇄하고, 성매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상담할 단체를 찾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인천여성의전화가 끽동 여성들을 도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여성의전화가 2004년 9월 18일 급하게 임시 총회를 열고, 바로 상담소를 개소해서 학익동에 있는 여성들 7명을 만나 상담하고, 지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 9월 20일 그 이후, 지자체와 함께 계획을 세워 2005년부터 주 2회 현장을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아웃리치'[3]라고 해서 현장 여성들을 만나 몇 개 업소가 지금 폐쇄돼 있고, 한 업소 당 여성이 몇 명이며, 구매자의 출입은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실태 파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하게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갔을 때 업주로 보이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동태를 살피거나 아니면 어느 업소 이모[4]가 나와서 "야, 불 꺼." 이러면 불을 '다다다다' 꺼서 응대를 안 해줘요. 그리고 그 여성들한테 전달한 물품과 내용(리플렛)을 "다 수거해." 이러면 여성이 다니면서 걷던가, 우리한테 다시 건네준 적도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라 저희가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2006년에는 13개 업소가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한테 남아 있는 근거 자료를 보면, 2006년 학익동을 한 20회 정도 방문을 했더라고요.[5]

3) 성매매 집결지 아웃리치(Outreach)는 성매매피해여성지원단체 활동가들이 성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성매매업소 수, 성매매업소 영업형태, 여성수 등 실태를 타악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상담, 법률·의료 지원, 자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연대하는 현장 방문 활동을 말한다.

4) 집결지 여성들이 업소 운영 관련 여성들을 부르는 호칭을 구술자가 그대로 인용한 말이다.

5) 2006년 20회 현장을 나간 기록에는 식품, 수건, 손톱깎이, 타이레놀, 가글 등을 나눠주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치아가 관리되지 않아 가글을 준비해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가글이 구강성교에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가글 취급을 중단했다.

매번 한 번 갈 때마다 한 40명의 여성들을 만나고, 총 744명의 여성들을 만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상반기 때는 주로 먹거리를 줬더라고요. 이 언니들 몸매 관리 때문에 업소에서 먹을 거를 잘 주지 않거든요.

2006년 (학익동) 아웃리치 활동 물품관리대장

방문회차	방문번호	방문일	지급물품	구입	지급	지급 후 남은수량	지급일 (지급/잔량)	지급일 (지급/잔량)	지급일 (지급/잔량)	지급일 (지급/잔량)	지급일 (지급/잔량)	지급일 (지급/잔량)	계	비고
1	06.01.01	01.04	햄버거,음료	50	50	0								
2	06.01.02	01.11	빵,음료,면봉	45	44	1	01.12 내담자1개/0개							
3	06.01.03	01.19	감기약,귤	50	39	11	01.20 강강술래11개/0개							
4	06.01.04	01.25	가래떡	50	49	1	01.26 내담자1개/0개							
5	06.02.01	02.01	햄버거,음료	50	34	16	02.02 강강술래16개/0개							
6	06.02.02	02.16	가래떡	50	50	0								
7	06.02.03	02.22	비타민C	50	50	0								
8	06.03.01	03.08	수건	60	60	0								
9	06.03.02	03.15	족발	50	50	0								
10	06.03.03	03.22	손톱깍기	60	60	0								
11	06.03.04	03.29	샌드위치,쏠라-씨	60	50	10	03.30 강강술래10개/0개							
12	06.04.01	04.14	족발	50	49	1	04.17 내담자1개/0개							
13	06.06.01	10.17	비상구급함, 타이레놀	40	0	40								지급예정/10월나감
14	06.08.01	08.01	윈크림	45	45	0								
15	06.09.01	9월	교통충전카드	100		100								지급예정
16	06.09.02	09.12	천연비누	50	50	0								
17	06.09.03	09.19	족발	30	30	0								
18	06.09.04	09.27	수건	77	70	7	09.28 내담자2개/5개	09.29 내담자2개/3개	10.02 내담자3개/0개					
19	06.10.01	10.02	추석선물세트	50	50	0								
20	06.10.02	10.17	비상구급함, 타이레놀	40	40	0								

끽동 아웃리치 물품관리대장, 2006년, 인천여성의전화

방문상담일지

2006년

상 담 번 호		상 담 일 자	2006년 9월 12일
지 역	학익동	내 담 인 원	30명
방문활동가	[redacted], 인천지방경찰청여청계, 중부경찰서여청계		
목 적	◎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을 한다. ◎ 기관 홍보 및 지원 사항에 정보를 주고, 탈성매매 유도. ◎ 집결지의 상황을 파악한다. ◎ 인권유린 및 장애우피해자가 있는 지를 파악한다.		
내 용	※ 천연비누50개와 물과 소식지, 여성의 전화 리플렛을 갖고 감. ※ 인천지방경찰청여청계, 중부경찰서여청계와 함께 업소파악. 인천지방경찰청여청계, 중부경찰서여청계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인권유린 및 피해사항에 대한 설문지를 나누어주었다. 업소구조 및 방안을 살펴보고 활동가가 준비해 온 천연비누를 나누어주었다. 어떤 친구들은 "애이, 먹을 것이나 주지~" 라며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경찰들과 활동가들이 한 업소앞에 서있는데 택시한대가 서더니 한 남성이 "여기 단속 안하죠?" 라고 물어보았다. 형사님이 그 남성분에게 주의를 주셨다. ※ 활동가와 경찰이 서로 반대편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한 곳은 이미 방안에 구매자가 있었는지 갑자기 업주가 볼을 꼬집힘. 형사님이 들어가보려고하자 업주가 "거긴 볼꼬집으니 들어가지마세요~" 라고 함. 그래서 그냥 지나침. ※ 조사를 하고있을 때 업주들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여성분은 업소마다 볼을 꼬집히라고 하였다. 자신의 말로는 조사가 끝나서 갔다고 했다고하지만 우리가 조사중인 업소에도 볼을 꼬집고 함었다. 업소2군데정도는 문이 닫힌 상태였고, 8군데가 넘게 볼이 꼬집혀있었다.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피해자상담소

끽동 방문 상담일지, 2006년, 인천여성의전화

집결지, 현대판 인신매매 구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방문 조사한 걸 보면 끽동은 지금의 현대판 인신매매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업소개소 또는 그냥 소개쟁이[6]들이 전국의 성매매 업소와 연결돼서 여성들을 전국에 다 돌려요.

'식당일 하러 가려고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더니 나보고 한달에 500만원 버는 일이 있는데 "연애해 봤냐?"고 묻더라고. 난 그때 연애가 그거(섹스, 성매매)인 줄도 몰랐어. 그때의 나는 술, 담배도 안하고 성매매 하면 병 걸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 야하니 따라갔어. 거기가 학익동 집결지였어.'

'내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나이 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학익동 주인 할머니가 나한데 가게 정리하면서 여기서 계속 이거 하면 못나간다고 그만하라고 했어. 그런데 아들하고 나하고 살 집 하나씩은 마련하고 그만 두려고 했는데 아들이 다 날려먹은 거야. 그래서 끽동 없어지고 숭의동으로 옮겨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옐로우하우스 보다, 듣다, 담다』 중,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2018, p.43.

이렇게 소개해서 소개소 업자들이 업주랑 몇 대 몇으로 수익을 배분합니다. 이때는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라서 업주들이 선불금은 불법이고, 못 받는다는 걸 알기에 업주하고 여성들은 차용증이나 어떤 금전 거래도 하지 않아요. 제3자인 소개소 통해 쓰게 해요.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돈을 벌고, 업

6) 성매매현장 용어로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을 돌리는 소개업자를 일컫는다.

자들이 어느 정도 이득이 다 충당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여성들을 넘기는 형태지요. 그래서 끽동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은 인천이 근거지인 여성들은 별로 없어요. 타 지역에서 소개소를 타고 이주했던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집결지 업주의 여성 착취구조

집결지는 말 그대로 성매매만 하는게 목적이에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 혈액암, 피부병, 치아손상 등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선택하는 최종지가 집결지예요. 여기 수익 구조가 무조건 5 대 5입니다. 근데 구매 남성이 업소 들어갈 때 금액 쇼부나 현금 거래는 옆에 붙어 있는 이모나 업주하고 해요. 여성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성이 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여성들이 타 지역에서 처음 오면 방을 보여줘요. 방에 들어가면 침대 살 거니, TV 살 거니, 냉장고 필요하니, 옷장, 이불은 뭘로 할 건지 리플렛을 보여줘요. 이불 이모, 잠옷 이모, 화장품 이모, 다이어트 이모, 주사 이모, 건강 주스 이모 다 들어와요. 만약에 방을 새로 꾸미지 않으면 손님을 덜 넣어줘요. 성형외과, 미용실은 정해진 데를 다녀야 되고요. 방 청소, 밥 해 주는 이모 월급도 여성들이 내요. 구매 남성들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음료, 일회용 칫솔, 면도기, 콘돔, 수건 이런 모든 용품도 여성들의 비용에서 지출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다 빚이에요.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성들의 보험도 수혜자를 부모가 아닌 업주로 해놓고, 업주가 보험금을 가져간 사례도

있었어요. 주변에 거래하는 세탁소, 남성의 야식, 맥주나 술 한 잔도 여성이 빚으로 지불해요. 이렇게 해서 주변 음식점, 상가들이 돈을 벌고, 집결지 여성들의 빚은 쌓이는 거죠.



학익동 끽동 집결지 여성종사자 방 내부 모습, 2007, 스페이스빔

민관협력으로 충돌 없이 집결지를 폐쇄하다

끽동 폐쇄는 민관, 주민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봐요.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여기서 사건, 사고로 다친 사람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작 해봐야 저희가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아웃리치 갔을 때 협박하거나 언어폭력 뭐 이런 정도였어요. 저희 같은 여성 단체가, 또 시민단체가 같이 결합을 해서 집결지를 폐쇄한 전국의 첫 번째 사례예요. 근데 이게 불편한 진실이

라서 그런지 너무 부각이 안 됐어요.

학익동 끽동 폐쇄 발화는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지역 주민이 인천시에 '우리 동네에 집결지가 웬 말이냐?'면서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집결지는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주민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여기 아파트가 생기니까 시(市)나 구(區)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후 인천시가 2004년 TF팀을 구성했어요. 여성단체가 TF팀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회의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市) 여성과(女性科)하고 같이 피해 여성들 구조했을 때 단체에서 지원할 것들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단체는 여성들을 구조해서 탈성매매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무허가 건물이라 성매매로 얻은 업주들의 불법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그 자금으로 여성들 자활에 좀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불발됐어요. 보상 과정에 대해 저도 궁금한데,[7] 숭의동 집결지 마지막 폐쇄 과정을 보면, 여성의 몫까지 업주가 받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익동도 보상의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근데 알려진 바가 없어요. 저는 여성들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다

저희한테 성매매 여성이 오면 상담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성매매 알선 고리, 일수나 사채 고금리로 인한 피해 등 법률 지원을 합니

7) 초기 50개 업소 보상 과정에서 업주들의 반발로 나중에 한 업주당 2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총 16억원 정도 보상을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다.(경인일보, 2004년 12월 20일 학익동 집창촌 사라진다)

다. 산부인과 수술, 건강검진도 지원해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여성들 행정 지원도 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빼놓을 수 없어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긴급 구조돼서 성매매를 그만하고 싶어 해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해요. 어린 시절부터 성매매만 해왔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잘 안 돼서 '다시 돌아갈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대인기피증 있어 버스, 전철 타는 거 무서워하고요. 약물 의존도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 시설을 운영해 그들을 보호하게 되었어요.

집결지를 둘러싼 유착관계와 불신

저희가 2007년까지 아웃리치 나갈 때 인근 지구대 파출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장 아웃리치를 하고자 하니 저희 안전에 협조 바란다고요. 근데 저희가 언제 나간다는 거를 업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유착 관계가 있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이후로는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업주들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나가는 시간대에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불을 다 끄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을 믿지 않아요. 상담했던 여성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일했던 업소의 업주가 그 지역에 있는 법률 담당 수사관들을 접대한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나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여성인권 보호의 눈으로 관심을 가져야

집결지는 진짜 여성의 성 상품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성인권 착취 현장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들의 먹이 사슬에 있는 업주, 알선자 등 모든 사람들이 (성매매 여성을)착취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그 수익을 다 환수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몇몇 판결에서 부당이익 환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성매매 여성들 피해 지원을 하는 데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 외에 많은 사람들한테 끽동의 집결지 폐쇄 과정이 전국에서 최초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했는데 알려지지 않아 아쉬워요. 자녀보호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 인권 보호 등도 주민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끽동이 민관, 주민 합동 집결지 폐쇄 운동의 첫 사례로서 많이 알려지고,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편하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면담개요
· 일시: 2026. 8. 10.
· 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 면담자: 박인옥 (시민기록 멘토)
· 면담지원: 양지원 (미추홀학산문화원)







나가며

기록이 만들어지기까지: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다

옛 사진 공모전: 사진으로 만나는 학익·용현의 시간

기록전시: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학익고등학교와 함께 기록한 학익동

기록을 마치며: 구술기록 후기



© 김보섭, 2008년

기록이 만들어지기까지

: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학익동·용현동 일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와 함께 학익동 일대 기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간직해 온 오래된 사진과 생활자료를 찾기 위해 '옛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미추홀시민기록단은 지역 공장 근로자와 가족, 주민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기억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터뷰 이후에는 녹음된 이야기를 글로 옮겨 구술자와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수집한 사진과 기록물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5~6월	7월	8월	9월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MOU 체결 옛 사진발굴단 활동•지역 주요 장소 홍보			
	옛 사진 공모전 운영 옛 사진, 문서, 물건 등 수집		
미추홀시민기록단 구술인터뷰 29인 기록준비 특강 및			
	학교교육 연계 – 학익고등학교 MOU체결 지역이야기 발굴활동 '추억은 방울방울'		









2025년에는 이렇게 모인 기록을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전시로 선보였으며, 2026년에는 추가 인터뷰와 자료 보완을 거쳐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책은 오래된 사진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학익동·용현동이 지나온 시간과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지역의 공동 기록입니다.

2026년

10월	11월	6~8월	9~10월
		추가 자료 수집 외부 협조	
답사• 구술자 발굴 •녹취문 정리•검수		추가 인터뷰 8인 진행	
		호미마을 기록활동	
전시 준비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기록 전시	도서 제작	기록도서 발간 출판기념회






옛 사진 공모전

: 사진으로 만나는 학익·용현의 시간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사라지거나 변화해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는 학익동·용현동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옛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29명이 내어준 161장의 사진에는 공장과 일터, 골목과 집, 학교와 나들이 등 저마다의 삶 속에 간직해 온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추억으로 남아 있던 사진과 기억은 지역의 시간을 되살리고, 미처 기록되지 못했던 지역사의 장면들을 하나씩 채워 나갑니다. 이 책에는 공모전의 과정을 보여주는 홍보물과 수집 사진 일부를 수록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이야기는 일터·삶터·놀터·생활자료로 나누어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소개합니다.









일터	공장과 노동,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모습
삶터	집과 골목, 가족과 이웃이 살아온 풍경
놀터	학교와 소풍, 나들이와 여가의 기억
생활자료	명찰·사원수첩·월급봉투 등에 남은 삶의 흔적







공모전을 통해 모인 더 많은 사진과 이야기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익동·용현동 일대의 변화 기록전시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2025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전시를 열었습니다. 옛 사진 공모전과 구술 인터뷰를 통해 모은 사진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익동·용현동이 공업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화해 온 과정과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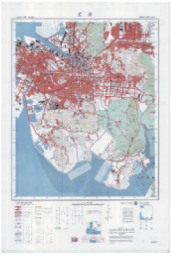
전시는 도시의 변화와 공장·일터, 마을의 삶을 따라가며 개인의 기억이 지역의 역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관람객들도 기억지도와 방명록을 통해 자신이 간직한 장소와 이야기를 보태며 기록에 함께했습니다.



도시가 품은 시간들


2025 미추홀기록 사업
학익동·용현동 일대의 변화 기록전
공업지대에서
도시가 품은 시간들
주거로,
*오프닝 11월(화) 오후2시
관람 시간
11월 11일(화) 14시-17시 *전시오프닝 운영 (누구나 참여 가능)
11월 12일(수) 10시-19시30분 (야간운영)
11월 13일(목) 10시-13시
11월 14일(금) 10시-17시
11월 17일(월) 10시-19시30분 (야간운영)
11월 18일(화) 10시-19시30분 (야간운영)
미추홀구 학익동·용현동 일대는 바다와 영전이 매립되어 세워진 공업지대로, 한때 도시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였습니다. 산업의 쇠퇴와 함께 공장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주거 단지와 공원, 문화공간이 들어서며 도시의 풍경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산업에서 주거로 이어지는 도시의 변화 속에서 그 땅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기억과 일상의 온기를 통해, 도시가 품은 시간을 함께 되새깁니다.
2025.11.11 - 11.18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최·주관
후원
협력

「도시의 전경 – 학익·용현의 시간」



인천 지도, 1987년 발행
국토지리연구원

① 땅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다
지도는 도시의 기억을 담은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바다와 염전이 사라지고 길과 마을이 생기며,
그 위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새로운 삶의 무늬를 그렸습니다.

② 공업지대의 경계에서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1950년대 매립된 염전 위에 공장이 세워지고,
1970~80년대 인천 산업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장 터 위로 아파트와 공원이 들어서며,
산업의 땅은 다시 사람들의 삶터가 되었습니다.



전)동양화학 부지 전경
2025년, 오인영



전)동양화학 부지 전경
2025년, 오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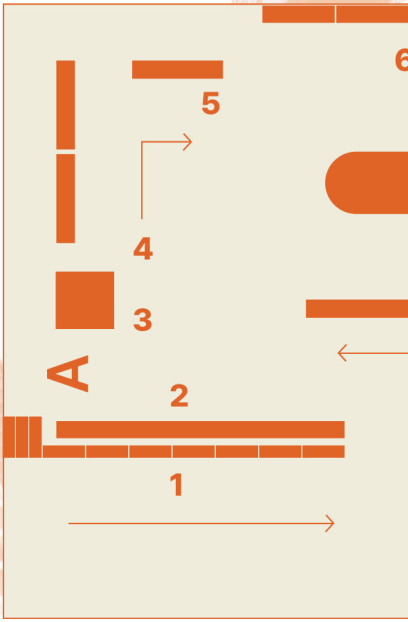
「산업의 기억, 사람의 이야기」

③ 어, 우리 동네 제품이다
공장 굴뚝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속 광고에 등장한 그 물건들은
도시의 성장과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공업의 시간은 어느새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흥한방적에서 아버지와 동료들
1960년대, 한재희

④ 굴뚝 아래, 희망의 터전을 마련하다
공장의 연기와 작업복의 땀방울 속에서
사람들은 가족의 내일을 일구었습니다.
기계의 굉음 속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정과 노동의 기억으로 도시를 지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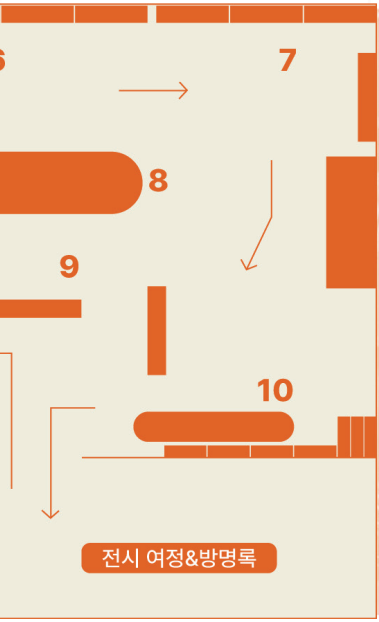
동양제철화학 근무 당시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960년대, 손경임



흥한방적 동료들과
1950-60년대, 노옥희



아들의 학익국민학교 입학
최차연



⑤ 공장과 동네의 따뜻한 이음

공장과 집은 한 달음 거리,
기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이 뒤섞이던 시간.
작은 가게와 사택의 골목마다
산업과 일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⑥ 지도 위의 선으로 남다

도시는 비우고 채우며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한때 바다와 염전이던 땅은 공장지대가 되었고,
다시 주거와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도 위의 선과 이름들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이곳을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이자 시간의 흔적입니다.

⑦ 도시의 기억, 삶의 자리

운동회, 가족사진, 골목의 풍경—
도시는 산업의 현장이자
누군가의 추억이 깃든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이 말합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⑧ 손때 묻은 사물이 말하는 시간

한 장의 사진이 순간을 담는다면,
하나의 물건은 오랜 시간을 품습니다.
그 사물들은 도시의 변화를 견디며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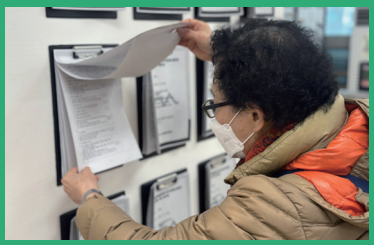
⑨ 기억, 도시의 이야기가 되다

도시는 사람의 삶으로 채워집니다.
하루의 노동과 저녁의 불빛, 골목의 웃음이 모여
도시의 시간을 이루고, 그 기억이 풍경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이 도시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⑩ 지도 위의 점 하나, 당신의 기억이 되다

오래된 사진 한 장, 골목의 웃음소리, 가족의 식탁.
그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도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이 도시의 또 다른 층위가 됩니다.





학익고등학교와 함께 기록한

2025년 : 기억지도 만들기, 기억은 방울방울

2025년 학익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익동·용현동의 도시 변화와 주민들의 삶을 담은 전시를 살펴보고, 자신이 기억하는 동네의 장소와 이야기를 지도 위에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과 자주 찾는 장소, 친구들과 함께했던 공간 등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축제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장소들도 지도에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주민들의 기억이 모이면서, 과거의 모습부터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까지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를 담아낸 기록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억은 방울방울〉은 평범한 일상의 장소와 개인의 기억도 지역의 역사를 채워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활동이었습니다.





학익동

2026년 : 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호미마을

학익동에는 재개발을 앞둔 호미마을이 있습니다. 호미마을은 피난민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곳으로, 공업지대 가까이에서 지역의 오랜 역사를 품어온 마을입니다.

학익고등학교 학생들은 호미마을을 직접 탐방하고,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어른들을 만나 달라진 풍경과 이웃이 함께했던 생활의 기억을 질문하고 기록했습니다.

세대가 다른 학생과 어른들이 마주 앉아 나눈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담기지 않은 생생한 지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주민의 삶과 기억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동네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웃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 지역의 역사를 남기는 과정임을 경험했습니다.





기록을 마치며

: 구술기록 후기

미추홀시민기록단은?
지역의 역사는 그곳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는 주민들의 경험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민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발굴하고 기록하기 위해 '미추홀시민기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민기록단 9명은 지역 산업사 시리즈의 하나로, 학익동 공장지대가 변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구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9. 10.~12.	미추홀시민기록단 1기 모집 미추홀 시민기록자 인문교육 (10강)
2020. 6.~10.	미추홀시민기록단 양성 교육 (10강) 「미추홀, 살아지다3 미추홀, 안부를 묻다-삶」 구술자 참여
2021. 6.~11.	'미추홀 음식' 기록활동 (21인의 구술 기록) 「미추홀, 살아지다4 미추홀 사람들은 이 맛을 안다」 수록
2022. 6.~12.	미추홀시민기록단 2기 모집 '숭의목공예마을' 기록활동 (19인의 구술 기록) 「미추홀, 살아지다6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수록
2023. 6.~12.	'지역이슈의 현장' 기록활동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활동 (19인의 구술 기록) 「미추홀, 살아지다8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기록하다」 수록
2024. 6~11.	미추홀시민기록단 3기 모집 시민기록단 교육 및 실습 - 미추홀의 사람들 기록
2025. 6~2026. 8.	동양화학과 학익동 일대의 변화 (35인 구술기록) 「미추홀, 살아지다9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수록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으로 비로소 생명력을 얻은 동양화학의 기록

미추홀시민기록단 강인형

지역의 역사는 거대한 개발계획이나 산업시설의 기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으로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 전쟁과 피난 속에서도 배움과 음악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 개인의 강인함과 동양화학 실험실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동양화학의 복합적 의미도 드러났는데, 미추홀구의 상징적 기업이면서도 악취와 환경 문제로 주민들에게는 불편함과 거리감을 주었던 존재였다는 점은 산업화의 명암을 보여주었다. 사라진 공간의 풍경도 생생히 복원해 주었는데, 동양화학 담벼락을 따라 송도로 소풍 가던 길과 보리밭의 바람에 대한 기억은 지금의 도시 공간 아래 묻혀버린 미추홀의 생활사를 되살려 주었다. 산업화 시대 노동자의 현실과 생활감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묵묵히 살아낸 모습은 당시 산업사회를 떠받친 평범한 근로자들의 초상이라 할 수 있다. 동양화학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터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지역의 상징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풍경의 일부였다. 이번 구술기록은 단순히 옛 공장과 지역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인천 미추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로 증언하는 매우 소중한 공동의 기억 아카이브로 축적되었다.

공장은 사라져도, 사람들의 기억은 남는다

미추홀시민기록단 김용경

동양화학은 오랜 세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품어온 공간이다. 이번 기록 작업을 통해 30여 년 동안 동양화학에서 근무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기업의 역사가 곧 한 사람의 인생 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속에는 공장의 발전 과정뿐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웃고 땀 흘렸던 시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지금 동양화학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그 자리는 새로운 신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질수록 그곳에 스며 있던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진다. 건물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경험은 지역의 역사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라져 가는 시간을 붙잡아 미래에 전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었다. 앞으로 이곳에 새로운 도시가 완성되더라도 동양화학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삶의 흔적이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이번 작업을 통해 기록이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을 넘어, 미래 세대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진 동양화학의 역사

미추홀시민기록단 송미정

동양화학 인터뷰를 통해 한 기업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만날 수 있었다. 강인자 님의 이야기에서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끝내 자신의 꿈인 소리꾼의 길을 찾아간 강인한 삶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박중근 님의 기록에서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동양화학의 연구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화학산업 성장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반채진 님의 이야기는 품질관리와 생산, 물류 현장에서 책임감과 헌신으로 회사의 발전을 이끌었던 노동자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한종수 님의 기록에서는 인천항으로 들어온 원료를 동양화학으로 운반하며 지역 산업을 뒷받침했던 운송 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조성희 님의 기억 속 동양화학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소중한 삶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구술기록을 통해 동양화학의 역사는 연구원과 노동자, 운송 기사, 주민 등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의 삶과 기억이 곧 지역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이러한 소중한 기록이 앞으로도 꾸준히 보존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나의 기억에는 없지만 왠지 아는 동네 이야기 같은

미추홀시민기록단 이혜숙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새삼 실감이 나는 요즘인데, 특히나 작년의 인터뷰 후 겨울을 넘겼구나 싶던 차에 책으로 엮어질 이야기의 후기를 쓰려니 다시 한번 김성묵, 류수자 두 분의 인터뷰를 보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긴장과 궁금증, 기대했던 시간이 떠올라 걱정보다는 잔잔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인터뷰 후 좋은 질문을 드린 걸까? 괜한 기억을 끄집어낸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역시나 두 분을 만나기 전에도 질문 봇이 되어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감사한 마음 한가득 안고 귀가했습니다. 녹음된 대화를 곱씹어 들으며 혼자 심각했다가 웃었다가, 나의 어린 시절도 떠올리며 언니, 오빠들에게 이것이 기억나는지, 저것은 기억나는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다들 어릴 때여서 별 기억이 없다고 하여 아쉽기도 합니다. 유아기 때 학익동에 거주했었다는 것과 작고하신 아버지의 직장이 한국강관이었어서 더 마음이 가는 인터뷰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여전히 가까운 사람: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다시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언제나 늘 부족한 저와의 인터뷰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작게나마 사라지는 마을의 이야기를 남기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학익동의
한 조각을 맞추며

미추홀시민기록단 정지선

15년 전 학익동으로 이사 왔을 때 거실 너머로 보이던 모습은 거대한 화학 공장의 잿빛 파이프라인과 주변 단독주택들의 지붕이었다. 공장지대는 삭막해 보였지만, 빨강, 파랑 지붕들 덕분인지 마을은 참 정겹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굴뚝이 발파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하나둘 해체되어 가는 공장을 지켜보며 저곳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까 궁금해졌다. 앞선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 활동에서 느낀 보람이 컸기에, 이번 기록 활동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늘 그렇듯이 학익동과 동양화학의 역사를 공부하고 구술자분들의 삶을 마주하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 나와 그들이 이곳에서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평생 공무과에 재직하며 공장 발전에 헌신하신 이병환 님, 노조를 지혜롭게 이끌어 시의원까지 역임하신 박병만 님, 계전과에서 제어 시스템의 탄탄한 기반을 다진 이병규 님. 그리고 공장 주변에 살며 삶을 일구어 오신 최차연, 최기숙, 유현자 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거대한 공장을 움직인 건 결국 사람의 뜨거운 땀방울이었고 그 곁에 서로 기대어 살아온 이웃들의 끈끈한 삶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마을을 기록한다는 것은 사람과 환경의 연결점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지금 나는 미추홀의 수많은 퍼즐 중에서 다섯 번째 조각을 정성스레 맞춘 기분이다. 앞으로 남은 조각들이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그 새로운 울림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사라진 공장, 남겨진 이야기
: 그곳에 삶이 있었다

미추홀시민기록단 조연희

누군가의 기억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할머니 무릎을 베고 옛날이야기를 듣던 어린 시절의 다정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그곳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렸던 분들의 목소리를 마주하는 일은 제게 늘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그동안 제가 기록해 온 지역의 흐름이 지금 곁에 있는 현재의 삶이었다면, 이번 '동양화학' 구술채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사라져 빈터만 덩그러니 남은 그곳에서, 한때 청춘을 바쳐 일했던 이들의 소회를 직접 듣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유수동, 이재동, 이병용, 강희갑, 유재형 선생님.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오늘을 일구어 오신 선생님들의 구술은 한 시대를 지탱했던 지역 산업의 혈관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살아 있는 역사였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부심, 때로는 묵묵히 견뎌낸 고단함, 그리고 그 터전에 깃든 애틋한 애정까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통해 텅 빈 터가 다시금 사람 사는 냄새 나는 활기찬 공간으로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지역의 기억을 아카이빙하는 것은 사라져 가는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신, 땀이 짙게 밴 소중한 기억을 기록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소중한 기억을 선뜻 내어주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업화를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

미추홀시민기록단 표기자

네 분의 구술채록을 하면서 우리는 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역사적 업적으로 기록되지만, 그 역사를 실제로 만들어 온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한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자녀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준 여성 노동자, 남동생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본인의 학업은 중단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던 산업화 세대 딸들의 사회적 희생, 현장 동료의 안전을 걱정했던 기장 기술자의 책임 의식,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고민했던 관리자.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실천해 온 노동운동가.
이들의 삶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 했던 공동체적 노력의 역사였습니다.
네 분의 삶을 기록하는 시간은 제게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 기록이 그분들의 묵묵한 헌신에 작은 의미를 더하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학익동 노적산 난민주택에서 바라본 동양화학 설립 이전부터 철거까지

미추홀시민기록단 홍난희

김형배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과 그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의 고난을 겪으시며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짊어 오신 그 모습에 감사하고 애잔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5남매를 키우며 살아오신 삶과 학익동 호미마을의 변천하는 모습과 자녀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어주신 김형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양화학이 잘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참아 오셨던 김형배님의 말씀 들으며 기업인들이 공생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회림 회장님의 "개발이 되더라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말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업인들이 이익을 함께 주변의 주민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호미마을 사람들이 다른 터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시고 산업 발전에 힘쓰셨던 산업역군과 기업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라진 공장 터 위에서 나의 동네를 기록하다

지역기록자 곽은비

제가 지역 기록을 시작한 출발점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리에 과거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작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품었던 그 질문은 그곳이 '한일방직, 흥한방적' 터였음을 알게 해 주며, 제 관심을 자연스럽게 지역의 산업사로 넓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자, '공도인천(工都仁川)'이라 불리던 인천 산업사의 초점이 주로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평생을 나고 자란 미추홀구 학익동과 용현동 일대, 이른바 '일지출·학익 공업지대' 역시 소중한 노동의 역사가 켜켜이 축적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쉬움을 원동력 삼아 나선 기록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령화로 떠나시는 흥한방적 노동자분들의 증언을 담아냈고, 학익동 한국유리 창고의 존재와 영선과의 일상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현장에서 할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분을 우연히 만나 세대를 뛰어넘는 친밀감을 나눈 것은 무척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칫 영영 사라질 뻔한 미추홀구의 귀중한 산업사를 함께 남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빛바랜 명찰과 월급봉투를 챙겨오신 정학모 선생님, 할아버지와의 추억과 함께 구술의 타래를 풀어주신 지무환 선생님, 오래전 기억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신 노옥희 선생님과 김노천 작가님, 뜻깊은 구술자 발굴에 힘써주신 미추홀학산문화원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오인영, 2009년


403
411
403
411



© 오인영, 2025년

공업지대에서 주거로

도시가 품은 시간들

학익동 공장자리,
서른다섯 명의 구술기록

2026년 10월 29일 발행

펴 낸 이 정형서
펴 낸 곳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 획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록 및 인터뷰 정리 미추홀시민기록단 강인형 김용경 송미정 이혜숙 정지선 조연희 표기자 허은영 홍난희 지역기록자 곽은비

기록 멘토 및 원고 집필 박인옥

디 자 인 모모하시니

사업지원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인천광역시
후 원 강원레미콘, 용인정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26
Tel. 032-866-3993~4
haksanculture.or.kr
ISBN 979-11-982450-3-8
979-11-968891-0-4 (세트)

학익동 공장지대 사람들을 기록하다

인천 학익동 공장지대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핵심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와 공식 기록만으로는 그 시절 현장을 지켰던 노동자·관리자·연구원들의 뜨거운 땀방울, 골목길에서 피어난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변화의 파도 속에서 터전을 일궈온 이들의 진솔한 희로애락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사람의 구술은 인천 미추홀구 산업사의 빈 곳을 메우는 소중한 원천 데이터이자,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층 풍성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 발간사 중 -

비매품/무료
04090
9 791198 245038
ISBN 979-11-982450-3-8
ISBN 979-11-968891-0-4 (세트)